세깃발아래에서

아나키즘과반식민주의적상상력

베네딕트앤더슨

상시킨다.²⁷ 미스터리즈는고대이집트남성의미라화된머리로하여금사제들의음모가야기했던수천년전의공포에대해말하게한다. 한때음탕한음모꾼, 도미니크회의살비신부가젊은이바라와그의비운의사랑마리아클라라에게저질렀던것을그대로되풀이한범죄에대해, 그도미니크회신부는공연을관람하도록유인되고, 이제미신적인공포에서로잡혀실신하고만다. 재미있는것은미스터리즈가“스핑크스!;Esfingel!”라는단한마디를사용해남성임이확실한미라의머리를불러내말을시킨다는것이다.²⁸ 위스망스의작품에서는순전히성적-문학적이었던것이리살에의해젠더가바뀌어심리적-정치적인것으로변형된것처럼보인다.

다음으로, 데제생트가거리에서만난 10 대소년을아주비싼매음굴로 데려가는기묘한장면이있다.²⁹ 거기에서그는소년이노련하고유혹적인유대인창녀반다에게서첫경험을하도록돈을지불한다. 소년이추정상의동정을잃느라바쁘동안, 데제생트는아주잘알고지내는마담과수다를떨다. 마담로르가말한다.

“그래서오늘밤에는직접볼일을보려는건아니라는게로군. 그런데대체어디서저어린애를주워왔수?”“길바닥에서주웠지, 자기.”“그런데술에취한건아니고”, 나이든여인이중얼거렸다. 그리고잠깐생각한끝에, 여인은어머니처럼미소를띠며이렇게덧붙였다. “아! 알겠구먼. 이봐, 악당양반, 말해보구려, 젊은애들이필요한게지.”데제생트는어깨를으쓱했다. “빛나갔네. 그런게아니라오.”그는말을이었다. “진실은내가그저살인자를준비하고있다는거지.”

꼬마에대해그어떤성적인관심도없다고하면서, 그는자신의계획을설명했다. 그는소년이반다와함께할약 6 주간의수업을위해돈을지불하고, 6 주가 지나면소년을떼어낼것이다. 그때쯤엔소년은성적으로중독이되어있을것이고, 수업을계속할돈을지불하기위해강도로변할것이며, 결국은살인까지할것이다. 데제생트의궁극적인목적은“우리를인질로잡고있는이가증스러운사회의적을한명더 un ennemi de plus pour cette hideuse société qui nous rançonne”만들어내는것이다. 이는그러나도덕적/비도덕적이고심미적인제스처에불과하다. 타락한 10 대가한명더늘어난다고그자체로프랑스가바뀌지는않을것이다.

²⁷ 리살은 1884 년 4 월 26 일마드리드에서햄릿공연을보았다. 이날짜에대한사항은 그의 Diario en Madrid, 1 enero á 30 junio 1884, in Diarios y memorias. Escritos de José Rizal, Tomo I (Manila: Comisión del Centenario de José Rizal, 1961), p.127 에있다.

²⁸ Rizal, El Filibusterismo, p.135. 아니면미스터리즈는플로베르를흠모하고있었던가?

²⁹ À rebours, pp.103~06. 제 6 장의일부로서, 헤이블록엘리스가서문을쓴 1922 년뉴욕판번역에서는전부잘려나간부분이다.

2005

차례

감사의말	6
서론	7
제 1 장프롤로그: 수탉의달걀	15
새로운과학	16
현지지식의풍요로움	19
숲의형제들	21
기묘한아름다움들	23
비교를통한숙고	27
제 2 장알라... 라-바	32
초국적서재들	33
석류속의니트로글리세린	35
볼티모어로부터의유산?	36
동종요법의학생	38
라-바 Là-bas	41
플로베르와예비살인자	43
시도해보지않은쾌락	45
프랑스어의사치	47
복수를쓰다	48
로돌프의아이들	49
웃음과자살	51
협동과경쟁	53
제 3 장비스마르크와노벨의세계적그늘에서	55
유럽으로가는길	57

급을위해뿔혀나온다.²⁴ 보들레르의“Le Démon de la perversité”와 에드거앨런포도언급된다.²⁵ 리살의프랑스어가산문시원본을다루는데까지는가지못했다면, 그의『놀리메탕헤레』를위한재미있는아이디어를그냥『거꾸로』에담긴말라르메의제목을읽는것으로얻을수는없었을까? 그러나위스망스와리살의작품사이의가장놀라운일치점들은『놀리메탕헤레』보다는『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있는것으로드러난다. 나는세가지만언급할것인데, 세가지모두다른종류의성성과관련된것이다.

플로베르와예비살인자

첫번째는『거꾸로』에서성적으로불구나마찬가지인데제생트가어린여자복화술사를짧은기간동안의애인으로취하는장면이다. 기분을내기위해그는작은조상彫像두개를사는데, 하나는사자의머리와염소의몸, 뱀의꼬리를겸비한신화적인여자괴물, 고전적인키메라를표현한다색의데라코타이고, 다른하나는다시여자가괴물인스핑크스를표현한검은대리석상이다. 이상들은침실의한끝에놓고, 석탄난로의감부기불이내는희미한불빛만이침실을비춘다. 데제생트와함께침대에든여자는애인이전에가르쳐준대로두조상의음산한대화목소리를내는데, 이대화에는플로베르의『성안토니의유혹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에나오는유명한구절도끼어있다. “나는새향수, 더큰꽃, 시도해보지않은쾌락을추구해요 Je cherche des parfums nouveaux, des fleurs plus larges, des plaisirs inédits.”²⁶ 이지점에서, 데제생트가희망했으며계획했던대로, 그의남성이소생한다.

“속임수 (Supercherías, Trickeries)”라고불리는『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예사롭지않은제 18 장에서, 시모운은숨씨좋은미국인 yankee 마술사이자복화술사인미스터리즈에게코치를해주는데, 이장면은햄릿이의부의죄책감을불러일으키기위해배우들을이용한것을연

²⁴ Joris-Karl Huysmans, À rebours(Paris: Fasquelle, n.d., 1904 년경), p.244.

²⁵ 같은책, p.235.

²⁶ Gustave Flaubert, La Tentation de Saint Antoine(Paris: A. Quentin, 1885) 참조. 이텍스트는플로베르『전집 Oeuvres complètes』 제 5 권에있는대로 나온다. 성안토니의고뇌중마지막것은나일강의둑에서두신화적존재, 키메라와스핑크스가대화를 나누는환영이다. 플로베르가스핑크스를남자라고생각했다는것은흥미롭다. 그 단어가프랑스어문법으로는남성형이기때문이었을까? 인용된문장은 254 쪽에서키메라가말한것이다.

났다. 거기엔동성에도있었고, 동중요법도있었지만, 상당히관련없는맥락이었던것이다. 리살이독창적으로두가지를조립해낸것일까? 그러나 위스망스의이름은대오캄포의작은책에도, 로페스박물관의장서카드에도등장하지않는다 (이에관해서라면, 파르도데타베라의친프랑스적인개인서재에도없다). 게다가, 1884 년에처음출판되기는했지만, 『거꾸로』는 1919 년경에야비로소스페인어로번역 (비센테블라스코이바네스의서문과함께) 되었는데, 이는리살의죽음한참후의일이다.²² 첫번째영어번역도거의같은시기에나왔다.²³ 리살이『거꾸로』를읽었다면, 프랑스어읽어읽어야만했을것이다. 아마위스망스와리살이동중요법과동성을틀서로 7 년도떨어지지않은시기에나온소설들에똑같이넣은것은순전히우연의일치였을지도모른다. 그러나계속읽어나가는편이사리에맛을것같았다.

『거꾸로』의고독하고초연한중심인물은부유하고우아한귀족대제생트 (Des Esseintes) 인데, 그는프랑스제 3 공화국에서위세를떨치던아둔한부르주아지와로마가톨릭교회의부패, 뒤가구린정치가들, 대중문화의저급함등등에소름이끼친나머지심미적인환상의사적인세계에들어박혀기묘한성적경험들, 아방가르드문학, 로코코골동품취미, ‘중세’기독교신비주의에몰두한다. 그는자신이이제는한물갔다 passé 고여긴자연을물리치고자디자인한, 기괴하고값비싼집을짓기도했다. 이를테면생화는없고, 드물고기이한보석들로만들어진조화들만있었다. 보석으로촛촉히징이박힌등껍질의무게에짓눌려서서히죽어가는애완거북이도있었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중심인물인시모운의기이함과부, 권력이드물고오래된값진보석들을거래해서생긴것임을떠올리지않을수없다. 또다른우연의일치일까?

그렇지도. 그러나훨씬더강력한다른일치점들이있다. 데제생트가좋아하는아방가르드문학들이나열되는긴장에서, 위스망스의친한친구였던말라르메에대한특별한찬사가주어진다. 그리고이귀족이좋아하는그대서인의글목록에서 <유추의악마 Le Démon de l’analogie> 가언

²² 위스망스의 『거꾸로』는발렌시아의프로메테오 Prometeo 출판사에의해 Al revés(n.d.) 라는제목으로출판되었다.

²³ 『거꾸로』는파리에서샤르팡티에르 (Charpentier) 에의해 1884 년 5 월처음출판되었다. 로버트발딕 (Robert Baldick) 이그작품을번역하면서쓴머리말 Against Nature(London: Penguin Classics, 1959), p.10 참조. 내생각으로는, 최초의영어번역은 Against the Grain(New York: Lieber and Lewis, 1922) 이었다. 이판은에로틱한구절들을무단으로삭제했고, 다른누구도아닌, 급진적이지도않으면서그런척하는성과학자헤이볼록엘리스 (Havelock Ellis) 의솔직하지못하고기름칠한것같은머리말을담고있는데, 엘리스는출판의본래날짜를 5 년이나잘못쓰기도했다. 그후에나온판본들은검열된부분을복구하였다.

비스마르크와제국주의의새로운지리	64
검은깃발	67
카시케스페인 CACIQUE SPAIN	74
교단: 빼앗긴그리고열중한	78
검은날개	80
막역한친구	82
최초의귀향	84
이주자민족주의내부의분열	86
사라진서재?	94
『엘필리부스테리스모』 해석: 초대륙주의와예시	97
전위	99
라바솔춤곡	101
수수께끼의미소	108

제 4 장 소설가의 발자취

111

체르니셰프스키의질문	111
콘래드의나라	113
라리가필리피나	116
두번째귀향	120
열대의시베리아	125
마르티의반란	127
쿠바로가는리살?	132
새로운국면들	134
다피탄을떠나다	137
마지막여정	140
마닐라의웨일레르체제	144
세가지속고	147

제 5 장 문주익

151

타리다의성전	151
급진화된파리	155
벨기에노동당과 『제르미날』	159
드레퓌스사건	161
엔틸리스의애국자: 의사베탄세스	163
안줄릴로: 포자에서산타아게다까지	168
소용돌이속으로	173
젊은이여, 동쪽으로가라	179

적은누구인가	181
세계화된신사	184
블루멘트리트	191
앤티리스인들	192
일본인들	195
중국인들과의인맥	199
마닐라로가는말라테스타	203
서쪽의저녁놀: 이사벨로데로스레예스	209
동쪽의저녁놀: 마리아노폰세	210

후기

214

이절이팩시밀리판에서는나타나지않는다는것이재미있는데, 이는 리살이이것을마지막순간에삽입했다는뜻이다. 왜? ‘동중요법가’도‘마부들’도내러티브에는중요하지않고, 그들은다시언급되지도않는다. 이 유없는행위 acte gratuit 일까? 그럴것같지는않다. 필리핀독자층을위해삽입된구절일까? 그럴수있지만, 한세기가더지나도록어떤필리핀작가도다시이러한년지시비추는, 그러나대수롭지않게넘어가는방식으로 표현된남성이나여성의동성애에주의를돌리지않았다.²⁰ 다른가능성은 이절에서리살이독자들에대해생각하고있었다는것이다.²¹

라-바 Là-bas

어쨌든리살이동중요법을언급한것은나의쇠해가는기억력에무언가를떠올리게했다. 나는희미하게동성애와동중요법이같이등장한소설을생각해냈다 — 네덜란드인과프랑스인의피가반씩섞인소설가조리-칼위스망스 (Joris-Karl Huysmans, 1848~1907) 가쓴저야릇하고충격적인아방가르드작품『거꾸로 À rebours』로, 내가열여섯살무렵에몰래읽다시피했던책이다. 내기억력은 50 퍼센트만정확했다는것이드러

²⁰ 나는이에대한설명일부분이미국식민주의와미국이세운교육기관의효과에있다는것을믿어의심치않는다. 수입된세속교사들과 (이후에) 보스턴이나볼티모어같은곳에서온로마가톨릭성직자들에게고전문학의문화는완전히낯선것이였다. 그러나스페인에수회에의해교육받은저리살의세대젊은이들은고전라틴어에유창하도록가르침을받았다. 데오캄포의목록이이를아주분명히보여준다. 우리는칼람바의서제에서카이사르, 키케로, 호라티우스, 리비우스, 루크레티우스, 오비디우스, 플라투투스, 타키투스, 투키디데스를발견한다. (서신에서리살은아이스킬로스, 플루타르크, 소포클레스, 크세노폰에대해서도이야기하는데, 아마다번역된작품이야기일것같다.) 특히이교도의고전라틴시는인간이든신이든남성들간의애정어린관계에대한묘사내지는언급으로가득차있다. 호라티우스는유머러스하게, 베르길리우스는부드럽게, 그들이사랑했던소년들에대해 썼다. 리살은플라톤을언급하지는않았지만그가『향연』을읽어본적이없으리라고생각하기는힘들다. 수사들이필리핀젊은이들이읽는것을검열했거나검열하려고했다고하더라도, 그들이상상속에서, 특유의성적강박관념을가진기독교에는완전히부재한고도로문명화된문화를보는것을막을방법은없었다. 미국인들의도착은이마술적인고대세계로의문을닫았다. (리살이후어떠한필리핀작가도에페수스의다이나가가진‘여러개의유방’에대해농담을하지는않을것이였다.) 여기에속물적인북미인들이리살이후세대들에게친, 슬프게도눈에띄지않는한가지의손해가있는것이다.

²¹ 나의“Forms of Consciousness in Noli me tangere”, *Philippine Studies*, 51: 4, 2003, pp.505~23 는이소설의어휘에대한통계적인연구로서, 리살이부분적으로일반유럽독자층을겨냥했다는강력한논의를펼친다. 가장현저한증거는화자가일상타갈로그단어들을스페인어로풀어쓴말과함께다량사용하고있다는것인데, 이는타갈로그어사용자인독자들이나식민지에오래산스페인인들을위한것일수없으며, 오히려필리핀에대해많이모르는유럽인들을위해의도된것이다. 타갈로그어단어들은부분적으로그런독자들에게작가가스페인식이름에도불구하고진짜토착민정보제공자라는것을보증하기위해끼워넣은것으로보인다.

다른한편가르시아는“La función”(The show, 공연)이라는제목의그다음장에나오는똑같이흥미로운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데, 여기에서는보드빌공연과이에대한다양한인물들의반응이묘사된다. 보드빌패는하인들의거처에서’servantes’, ‘domestiques’, ‘cochers’가별이느떠들썩한놀이의한장면을상연한다. 확실히여자인’servantes’는아마부엌의일꾼들일것이다. 젠더가덜뚜렷한‘domestiques’는아마하녀들일것이다. 그러나세번째그룹은마부이니틀림없이남자이다. 그러나모든그룹들은여배우들이그배역을맡으며, 마지막그룹은우스꽝스러운남장을하고나온다. 장의끝부분으로가면서, 이름없는화자는아름답고기회주의적인‘메스티사 mestiza’¹⁸ 파울리타고메스가당시의애인인학생이사가나가관중속에있는것을보면서느끼는질투를그린다.

파울리타는‘cochers’라불리는이소녀들중몇몇이이사가나의주의를끌면서어떠하나생각하며점점우울한기분이들었다. ‘cochers’라는단어는파울리타에게수녀원부속학교의소녀들이일종의애정을설명하기위해그들끼리사용하던어떤호칭들을떠올리게했다.¹⁹

그남성형명사는‘기수 rider’라는것의명백한성적함의와함께‘일종의애정’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확실하게한다. 더나아가(수녀들의눈을피하는) 10 대들의언어로사용된프랑스어단어를화자가해설하고있으니, 어떤성사회화적인현실이개입되어있다고주장할수도있을것이다 — 갑자기‘usan’(‘그들’끼리사이에쓰이는그들) 의시제가일반화하는현재형으로바뀌는것을주의하라.

린) 작은텐마크식민지세인트토머스에서스페인당국으로부터잠시은신해있는동안, 베탄세스는뉴욕의쿠바와푸에르토리코망명자들의간행물 La Independencia 에“마닐라의자치 La autonomía en Manila”라는제목을붙인두편의풍자적인글을 썼으며, 이는 9 월 29 일자와 10 월 27 일자에실렸다. [Haraldo Dilla and Emilio Godínez eds., Ramón Emeterio Betances(Habana: Casa de las Américas, 1983), pp.205~10에서가져온것. 편집자들이원래의철자를‘근대화’했다.] 두번째텍스트에필리핀의신임총독 (1877~80) 으로임명된도밍고모리오네스 (Domingo Morriónes) 에대한다음과같은조소가나온다. “그리고그는공주들의보조금을받는데실패할리없다. 마닐라에있는공주집 (매음굴) 들은쿠바의노예처럼‘대주교구가승인한스페인의제도’이다. 이런집에서나오는것은정확히는공주들이아니라천자의제국에서비롯한왕자들, 즉중국인왕자들, 열살에서열여섯살사이의소년들로서, 여자옷이나그비슷한것을입고여자다운분위기를풍기며마차에타고공작처럼거리를행진하면서, 그들 (여성형) 혹은그들 (남성형) 을쫓을만한뻔뻔함을지닌비참한간들을추잡하게도집에데려간다. 공주집들은시에한해 4,000 페소를지불하며, 이것이대주교씨가또다른형태의인신매매를탄압하는데반대할만한충분한이유이다. 격분한크리올개혁가변호사가이에대해항의했을때, 그는분노와개혁의대가를마리아나제도에서의투옥으로치러야했다. 그러나이사업은사실벌어들이는양이빈약해서, 모리오네스가공주들과이에대한전권을그일에적합한수사들에게넘겨주는것도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

¹⁸ ‘메스티소’의여성형. -역자주

¹⁹ El Filibusterismo, 1990, p.173. 강조는원문.

저자베네딕트앤더슨 (Benedict R. O’G. Anderson, 1936~) 은중국원난雲南성의쿤밍昆明에서태어나영국계아일랜드인아버지와잉글랜드인어머니사이에태어났다. 어린시절대부분을베트남인보모의손에자랐으며, 1941 년앤더슨가족은미국캘리포니아로이주했다. 1967 년미국코넬대학에서인도네시아역사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 1967 년부터코넬대학에서정치학과동남아시아학을가르쳤으며, 2002 년은퇴하여현재는코넬대학명예교수로있다. 그와더불어세계적인학자로잘알려진페리앤더슨 (Perry Anderson) 은그의친동생이기도하다.

저서로‘민족주의’연구에관해세계적명성을가져다준책으로‘민족’을근대이후의정치적필요에의해구성된‘상상의공동체’라고규정한대표작『상상의공동체: 민족주의의기원과전파에대한성찰』(1983) 과『혁명기의자바: 점령과저항, 1944~46』(1972), 『언어와권력: 인도네시아정치문화탐구』(1990), 『비교의유령: 민족주의, 동남아시아, 세계』(1998) 등이있다.

“이건서로같이합작으로꾸려나가는세계야, 자오선가닥마다에서말이지. 우리식인종들은이기독교인들을도와주어야해.”(퀴퀘그)

허먼멜빌에대한경의를담아

쓰치야겐지를기억하며

겐이치로, 캐럴, 헨리에게

감사의말

이 책을 준비하는데 여러 사람들과 기관들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빛을 진 사람은 자료들을 지칠 줄 모르고 찾아주어 내 생각의 폭을 넓히고 복잡하게 했으며, 특유의 엄밀하면서 통찰력 있는 비판을 제공해 준 내 동생 페리 앤더슨이다. 캐럴 하우 (Carol Hau) 와 암베스 오캠프 (Ambeth Ocampo) 에게는 페리에 버금가게 많은 빛을 졌다. 파트리시오 아비날레스 (Patricio Abinales), 로널드 바이탄 (Ronald Baytan), 로빈 블랙번 (Robin Blackburn), 카리나 볼라스코 (Karina Bolasco), 조너선 컬러 (Jonathan Culler), 에번 대니얼 (Evan Daniel), 닐 가르시아 (Neil Garcia), 벤저민 호크스 루이스 (Benjamin Hawkes-Lewis), 칼레비 (Carl Levy), 푸아드 마키 (Fouad Makki), 프랑코 모레티 (Franco Moretti), 시라이시 다카시 (Shiraishi Takashi), 메건 토머스 (Megan Thomas), 쓰치야젠이치로 (Tsuchiya Kenichiro), 우메모리 나오키 (Umemori Naoyuki), 왕차오화 (王超華), 왕후이 (汪暉), 수전 왓킨스 (Susan Watkins), 조스 위비소노 (Joss Wibisono), 토니우드 (Tony Wood) 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암스테르담의 국제사회사연구소 Internationaal Instituut voor Sociale Geschiedenis, 필리핀 국립도서관, 필리핀 대학도서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도서관 — 특히 파르도 데 타베라 장서 Pardo de Tavera Collection 의 직원 — 이렇게 네 곳에서 친절하게도 희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모든 기관에서 입은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부분지어낸) 스캔들성가심을 들려주며 시골뜨기 사촌을 대접한다. 어떤 지점에서 타대오는 이렇게 언급한다.

참우아하게 차려입은 저 존경할 만한 신사는 의사가 아니라 독특한 종류의 동종요법가야. 그는 모든 것에 대해 동류끼리 (like-with-like) 라는 원리를 신봉해…… 같이 도착한 젊은 기병대위가 그가 좋아하는 제자야.

이 소문은 심술궂지만 충격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동성애에 대한 암시는 라틴어도 전혀 모르고 ‘동종요법가 homeópata’라는 단어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촌뜨기 소년을 지나쳐 날아간다. 그러니까 타대오는 정말은 촌뜨기 소년이 아니라 꽤 굴러먹은 어떤 독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내가 『엘 필리부스테리슴』의 최초 원고인 큰책시밀리판을 찾아보았을 때 훨씬 더 절박해졌다. 리살이 다음의 문장을 썼다가 줄을 그었기 때문이다. “profesa en el amor el princ… similia similibus gaudet.”¹⁵ ‘princ’를 ‘principio’라고 생각하면, 이 전체 구절을 “그는 사랑에 있어 동류는 동류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아니면 ‘동류는 동류로부터 행복을 얻는다는’) 원칙을 신봉해”로 번역할 수 있다. 라틴어 ‘gaudet’는 기쁨, 행복, 황홀경까지도 표현하는 강렬한 단어이다. 리살이 왜 이 공식을 재고 해서 유柔하게 만들었는 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아모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는 타대오라는 인물의 냉소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적·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수사들의 나라 필리핀에서 확실 히 스캔들이 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식민지 후기의 마닐라에 정말로 큰 공식 행사에 갈 생긴 군인 남자 친구들과 같이 나타나는 저명한 남자들이 있었을까? 아주 그럴 법하지는 않다.¹⁶ (다른 한편으로, 더 이른 시기에 나온 하나의 주목할 만한 출처는 꽤 눈에 띄는 규모의 젊은 남성 매춘업계를 묘사한다.)¹⁷

¹⁵ José Rizal, *El Filibusterismo*, facsimile edition (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91), p.157b (overleaf). ‘-bus’는 위첨자이고, ‘similia’의 마지막 a 는 s 를 뺀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면 진짜 원래의 구절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similis simili’였던 것 같다.

¹⁶ 그런데 리살이 열여섯으로 아직 아테네오의 학생이었던 1877~78 년의 학창 시절에 대해 쓰면서, 펠릭스로하스 (Felix Roxas) 는 거기에서 소년들이 베르길리우스와 페닐론을 공부한 후 올림푸스의 남녀 신들에 대한 연극을 상연했다고 회상한다. 베르길리우스도 페닐론도 극작가는 아니었으나, 소년들이 지어낸 연극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회 교육을 받았으며 양센주의에 대항한 투쟁에서 예수회와 동맹했던 그 프랑스인은 거의 확실 히 그의 신학적 ‘소설’ 『텔레마크 Télémaque』 를 통해 아테네오 소년들에게 왔을 것이다. 모두가 익살맞은 별명이 있었던 1880 년대 마드리드의 필리핀 학생 세계에서, 진지한 예비의 사이시드로 데산토스 (Isidro de Santos) 는 ‘젊은 텔레마크스 el joven telémaco’라 불렸다. Nick Joaquín, *A Question of Heros*, Manila: Anvil, 2005, p.44 참조).

¹⁷ 이 출처는 가공할 후에 르트리코 혁명가이자 ‘엔텔리스’ 민족주의자로서, 제 5 장에서 볼 수 있듯이 1890 년대 중반 쿠바의 민족주의 무장 봉기와 필리핀 사이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던 의사 라몬 베탄세스이다. 1877 년 (1917 년 버진 아일랜드의 한 부분으로 미국에 팔

번역두번째권에 실렸다.¹² 가능성의 오묘한 사슬이 모습을 드러낸다. 포의 신경심리학적인 꼬마도깨비로부터, 보들레르의 유사신학적인 악마와 말라르메의 시적 영감의 신비스러운 원천을 거쳐, 유럽에 있는 식민지 청년 리살의 정치적 상상까지. 그러나 리살이 보들레르나 포를 읽었을까? 데오 캄포의 카탈로그(주 30 참조)에도, 로페스 박물관 도서관에 있는 리살의 장서카드에도 포나 보들레르, 말라르메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동종요법의 학생

그리고 두번째 우연이 찾아왔다. 내 책상에 필리핀 대학의 선구적인 게이 연구자 닐 가르시아의 논문 초고 가도 착한 것이다. 가르시아는 스스로에게 리살이 게이였는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질문에 대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식으로 1880 년대의 필리핀에는 게이됨 gayness 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가르시아는 또한 제 3 세계의 ‘촌사람 provinciano’로서 리살이 성적으로 무척 순진했음에 틀림 없다고 느낀 것 같다.¹³ 그러나 이 논문은 『엘 필리부스테 리스모』의 “Tipos Manileños”(Manila Types, 마닐라 인부류들)라는 제목이 붙은 장에 있는 짧은 절에 대한 진지한 주의를 불러일으켰다.¹⁴ 거기에 보면, 떠돌이 ‘프랑스’ 보드빌패를 위한 화려한 오프닝 나이트에서, 냉소적인 학생 타데오가 관중 속에 있는 마닐라의 엘리트 구성원들에 대한 (대

¹² 보들레르의 포 번역은 1856 년 Histoires extraordinaires 로, 1857 년 Nouvelles Histoires extraordinaires 로 출판되었다. “Le Démon de la perversité”는 두번째 책을 여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보들레르의 서론과 함께 그의 『전집』(Oeuvres complètes, Paris: Louis Conard, 1933), vol. 7 에다 실렸다. 『악의 꽃』의 천재는 일찍이 1847 년에 포의 글을 처음 접하고 엄청난 자극을 받아 남은 생의 16 년 가운데 많은 시간을 그 번역에 바쳤다. Patrick F. Quinn, The French Face of Edgar Po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54), pp.9, 14, 101 참조.

¹³ 리살이 마닐라에서 아직 소년이었을 때에는 정말로 순진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개인 서재에 피에르 델쿠르(Pierre Delcourt)의 『파리의 악덕 Le vice à Paris』(4th edition, Paris, 1888), Dr P. 가르니에(Garnier)의 『오나니즘 Onanisme』(6th edition, Paris, 1888), 필립 리코르(Philippe Ricord)의 『성병 강의 Traité des maladies vénériennes』(Brussels, 1836), 바차야나(Vatsyayana)의 『카마수트라 Le Kama Sutra』(Paris, 1891)가 있었다는 것은 그 후 10 년 동안의 학공부와 기타 독서로 인한 그가 상당히 많이 빠진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¹⁴ 라틴어 단어들은 체계적인 동종요법의 창시자인 독일의 내과의사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사무엘 하네만(Christian Friedrich Samuel Hahnemann)의 유명한 motto ‘similia similibus curantur’(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즉 이열치열)를 가지고 재치 있게 장난친 것이다. 리살은 그의 서재에 하네만의 대표적 저작 『동종의 학원칙 의해설 Exposition de la doctrine Médicale homéopathique』의 프랑스어 번역본(Paris, 1856)을 한 부가 가지고 있었다. José Rizal, El Filibusterismo (Manila: Instituto Nacional de Historia, 1990), p.162.

서론

달이 뜨지 않은 건기 乾期 열대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도드라진 어둠과 상상에서의 해서만이 어지는, 별들이 박혀 있는 반짝이는 창공이 보인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고요한 아름다움에, 이 별들이 실제로는 그 불가항력적이고 활동적인 부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중력장의 힘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끊임 없이 이쪽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려면, 의지를 기울여 노력해야만 한다. 비교 방법의 신비스러운 우아함도 이와 같아서, 나는 일찍이 ‘일본’과 ‘헝가리’의,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인도네시아’와 ‘스위스’의 민족주의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었다. 제각기 따로 떨어져서 꾸준하게 하나로 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들을.

혁명의 아이티에 밤이 왔을 때, 나폴레옹이 노예제 부활을 위해 보낸 샤를 르클레르 장군 휘하의 황열병 걸린 폴란드 병사들은 그들의 적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르세예즈’와 ‘사이라 Ça ira!’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 질책에 화답하여, 그들은 흑인 죄수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에 불복했다.¹ 스코틀랜드계 몽주의는 아메리카의 반식민지 봉기의 틀을 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민족주의 독립 운동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보편주의적 인 흐름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차례 차례로 낭만주의와 민주주의, 관념론, 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이, 이후에는 심지어 파시즘까지도, 지구적으로 뻗어 들어갔고 민족들을 서로 이어주는 것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도 가장 결합가 높았던 요소인 민족주의는, 이 모든 다른 것들과 서로 다른 시기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 있었다.

이 책은 허먼 멜빌이라면 정치적인 천문학이라 불렀을 법한 하나의 실험이다. 이 책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전투적인 민족주의들 사이에서 아나키즘이 발휘했던 중력의 힘을 지도로 그려 보려고 시도한다. 그 특유의 다채로운 형태를 띤 아나키즘은 제 1 인터내셔널의 붕괴와 1883 년 마르크스의 사망 이후의 식적으로 국제주의의 적 태도를 취했던 급진 좌파 내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다. (마르크스보다 22 년 늦게 태어난) 크로포트킨과 (프리드리히 엥겔스보다 33 년 늦게 태어난) 말라테스타라는, 설득력 있는 철학자와 화려하고 카리스마 있는 운동가이자 지도자를 젊은 세대에서 배출해 낸

¹ C.L.R. James, The Black Jacobins, rev. ed. (New York: Vintage, 1989), pp.317~18 의 감동적인 묘사를 참조.

아나키즘에 주류 마르크스주의가 당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나키즘도 종종 빌려오곤 했던, 마르크스의 사상이 쌓아올린 금자탑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 운동은 산업 프롤레타리아라 할 만한 계층이 주로 북부 유럽에 만국화되어 있던 시대에 농민들과 농업노동자들을 경멸하지 않았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 작가와 예술가들에게도 열려 있었으며, 이는 당시 제도적 마르크스주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제국주의에 적대적인 만큼, ‘하찮고*물역사적인’ 민족주의에 어떠한 이론적 편견도 품지 않았으며, 그것은 식민지 세계의 민족주의에도 적용되었다. 아나키스트들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주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이용하는 데에도 빨랐다. 말라테스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년을 보냈는데, 이는 서유럽을 한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마르크스나 엥겔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메이데이는 1887년 미국에서 처형당한 이주자 아나키스트들(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라)을 추모하는 날이다.

이 책이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에서 기적 초점을 맞추는데에는 아직 다른 명분들이 남아 있다. 신세계의 마지막 민족주의 항쟁(1895년 쿠바)과 아시아의 첫 번째 민족주의 항쟁(1896년 필리핀)은 어쩌다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설적인 스페인 세계 제국의 마지막 중요한 잔재에 남은 토착민으로서, 쿠바인들(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 도미니카인들)과 필리핀인들은 단지 서로에 대해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개인적 연계를 맺고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을 서로 조율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구를 가로지르는 공동 행동 transglobal coordination 이 가능해진 것은 세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둘 다 결국은 몇 년 사이에, 장차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같은 잔인한 세력에 각각 짓밟혔다. 그러나 이들의 조율은 오리엔테 Oriente 와 카비테 Cavite 의 울퉁불퉁한 언덕 사이에서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선은 파리에, 그 다음으로는 홍콩·런던·뉴욕에 있는 ‘대표자 representative’들을 통해 중개된 것이었다. 신문을 읽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혁명을, 반식민주의 anticolonialism 를, 반제국주의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쿠바와 필리핀에서의 사건들과 대영 Ukranian 제국주의에 대한 한보어 민족주의 투쟁을 열렬히 쫓았으며, 필리핀인들 역시 보어 투쟁을 연구하였다. 서로 정도는 달랐지만, 필리핀인들과 쿠바인들이 찾아낸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은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영국의 아나키스트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유도 각자 다르기는 했지만, 종종 민족주의가 아니기도 했다.

이러한 조율이 가능했던 것은,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이른 세계화 early globalization’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전보의 발명이 후 많은 진보가 뒤따랐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이 깔리기도 했다. 그 ‘철사 wire’는 지구 곳곳의 도시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03년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지구를 한바퀴 도는 전보를 그

한다. 파리와 베를린에서 ‘저편’(allá, “yonder, yes yonder, yonder, yonder”) 마닐라에 있는 젊은이, ‘저편 allá’…… 즉 베를린과 파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에 대해 쓰고 있는 작가에게도.⁹ 이 복잡한 이미지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나는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완전히 빠뜨리고 넘어갔다. 『놀리메탕헤레』는 신랄한 경구들과 재치 있는 고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만큼 기괴하면서도 풍자적이지 않은 구절은 없다는 것을.

그때쯤 내 동생 페리 앤더슨 역시 그 구절에 이끌려 나에게 그것이 어디 서 유래했는지, 그 가능한 출처를 시사하는 편지를 썼다. 그것은 ‘유추의 악마 Le Démon de l’analogie’라는 제목이 붙은 스테판 말라르메(1842~98)의 산문시로, 1864년 리살이 세살이 있을 때 처음으로 창작된 것 같으며, 1874년 ‘페눌티엠 La Penultième’라고 하여 「라르뷔뒤몽드누보 La Revue du Monde Nouveau」에 실렸고, 1885년 3월 28일 「르샤누아르 Le Chat Noir」에 원 제목이 복원되어 다시 실렸다.¹⁰ 페리의 이야기로는, 리살이 극바로 세 달 후 파리에 살러 왔으니,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내 처음의 반응은 믿지 않는 것이었다. 리살이 열두살에 마닐라에 있는 예수회의 엘리트 중등학교 아테네오에 입학했을 때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난해하고 까다로운 텍스트에 손을 댈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어도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라르메의 제목은 보들레르가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 〈도착자의 꼬마도깨비 The Imp of the Perverse〉를 번역한 ‘Le Démon de la perversité’에 대한 창조적인 오마주라는 것이 밝혀졌다.¹¹ 이 이야기는 1839년 미개한 볼티모어에서 포의 『그로테스크하고 아라베스크한 이야기들 Tales of the Grotesque and the Arabesque』의 일부로 처음 출판되었으며, 보들레르에 의해 그의 포

⁹ Jonathan Culler and Pheng Cheah eds., *Grounds of Comparison* (New York: Routledge, 2003) 의 pp.40~41, 45~46, 228~30 에 들어 있는, 이진동 oscillation 에 관한 조너선 킨리와 나의 의견 교환을 보라.

¹⁰ 권찰은 영역본으로는 브래드퍼드 쿡 (Bradford Cook) 이 번역한 Mallarmé : Selected Prose Poems, Essays and Letter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6), pp.2~4 가 있다. pp.108~110 의 주석에는 간략한 출판이력이나 있다. 쿡은 Poe, *Tales* (Oneota: Universal Library, 1930), pp.219~38 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병적인 집착이 담긴 이야기 〈베레니스 Berenice〉와 이시의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지적한다.

¹¹ Poe, *Tales*, pp.455~61. 1 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포의 이야기가 완전 범피로살인을 저지렸으나 자신의 총명함을 널리 알리고 싶은 충동에 휘말린 나머지 범피를 고백해 버리고 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꼬마도깨비 imp’라는 단어는 위압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프랑스어 ‘lutin’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démon’을 사용하기로 한 보들레르의 결정은 ‘imp’에 등장한 구체제 ci-devant 의 로마 가톨릭적 분위기를 부여한다.

라는 수녀원의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함 속에서 첩거하게 되고, 이바라 자신은 교단이 씩은 혁명 음모죄로 정권의 해충 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⁷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는 훨씬 더 기묘하다. 독자는 서서히 이바라가 결국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숭고한 벗 엘리야스가 자기 목숨을 바쳐 이바라를 구했던 것이다. 보석상이 되어 쿠바와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떠돌아다니며 막대한 재산을 모은 후, 이바라는 길고 흰 머리채를 하고 얼굴의 위쪽을 가리는 짙은 청색의 안경을 쓴 수척한 모습의 ‘시모운’으로 별나게 가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의 목표는 이미 부패한 정권을 더욱, 식민체계를 붕괴시키고 마리아 클라라를 해방시킬 무장봉기가 일어날지점까지, 부패시키는 것이다. 내러티브의 절정은 거대한 니트로글리세린 폭탄을 석류 모양의 모석 램프에 숨겨 식민 엘리트 모두가 참석하는 큰 결혼식에서 터뜨리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음모는 빗나간다. 마리아 클라라는 이미 죽은 것으로 밝혀지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시모운은 체포당하기도 전에 쓸쓸한 바닷가에서 죽는다. 필리핀의 ‘진짜’ 역사에서 그 무엇도 시모운과 그의 격앙된 *outré* 계획에 멀게나마 대응할 만한 것은 없다. 아마 이 소설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놓인 예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보겠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필리핀 인도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해 쓰지 않을 것이었지만 말이다. 무엇이 리살이 『놀리메탕헤레』의 속편을 이토록 특이한 방식으로 쓰는 데 영감을 주었을까?

볼티모어로부터의 유산?

내가 1998년에 끝마친 책의 제목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놀리메탕헤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날카로운 구절 “*el demonio de las comparaciones*”를 잘못 번역하였다.⁸ 리살은 이 구절을 젊은 이바라가 풀향기가 가득한 마닐라의 식물원을 다시 보며, 도착적이게도 *perversely* 유럽에서 지낼 때 종종 찾았던 대식물원들을 마음의 눈으로 어쩔 수 없이 상상하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기괴한 경험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그것은 마치 그가 더 이상 그의 앞에 놓인 것을 단순히 친숙한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 ‘악마 *demonio*’는 작가가 스스로에게도 작용

⁷ 나는 『놀리메탕헤레』에 대한 두 편의 에세이를 썼고, 두 편 모두 나의 *The Spectre of Comparisons* (London: Verso, 1998) 에 다시 실렸으므로, 이 장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다.

⁸ 저자가 말하는 책 제목은 *The Spectre of Comparisons* 로, 여기서 ‘*spectre*’는 (무시무시한) ‘유령’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예: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리살이 사용한 스페인어 단어 ‘*demonio*’는 귀찮은 꼬마악마라는 느낌이 강하다. 역자주

자신에게 চে고 그것은 9 분만에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² 1876년 만국우편 연합의 출범은 편지와 잡지·신문·사진·책이 세계 각지로 확실하게 이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한 증기선은 국가에서 국가로, 제국에서 제국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의 전례 없이 방대한 이주를 가능하게 했다. 가로세로로 점점 촘촘하게 깔리는 철도는 외딴 내륙 지방을 서로 잇고 다시 항구와 수도로 이으며 민족 국가와 식민지의 국경 안에서 수백 만 명의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날랐다.

1815년과 1894년 사이의 80년 동안 세계는 대개 보수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다. 아메리카 바깥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의 우두머리가, 전제군주 건입헌군주 건, 왕이었다. 가장 길고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세 가지 전쟁이 세계 체제의 주변부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내전, 흑해 북쪽 연안의 크림 전쟁, 그리고 1860년대 파라과이와 그 강성한 인접국들 사이의 소름끼치는 분쟁이었다.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헝가리와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쳐부순 것은 전광석화와 같이 일어났던 것이었으며 인명의 손실도 크지 않았다. 유럽의 산업적·재정적·과학적 자원이 너무나 큰 우위에 있었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제국주의는 인도세 포이 항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효과적인 무력 저항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자본 그 자체도, 당시 국가와 제국들에 존재하던 경제를 넘어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제 1차 세계 대전이라는 지진의 초기 미동이 느껴지고 있었다. 1881년 스스로를 ‘인민의 의지’라 부르는 급진파가 투척한 폭탄에 차르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일은 이후 25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국왕, 오스트리아 황후와 황태자, 포르투갈 국왕과 왕자, 스페인 총리, 미국 대통령 두 명, 그리스 국왕, 세르비아 국왕, 러시아와 아일랜드, 일본의 유력한 보수 정치인들의 암살로 이어졌다. 물론 훨씬 많은 수의 암살 시도 *attentat* 가 실패했다. 가장 초기의, 그리고 가장 극적인 암살은 아나키스트들이 행한 것이었지만, 민족주의자들이 곧 그들을 본떠 따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여파는 가혹한 ‘반테러’법의 제정, 즉결 처형, 공식 기구든 비밀 기구든 경찰력과 군대에 의한 고문의 급증을 뽐낸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 살폭탄 공격자라는 평이 잘 어울릴 몇몇을 포함한) 암살자들은 스스로가 통신사와 신문, 종교적인 진보주의자, 노동계급과 농민 조직들 등등의 세계관을 상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국주의의 경쟁은 1880년까지만 해도 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졌지만, 이제는 독일 (아프리카와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² 이 책이 다루는 시기 바로 이후에 사진의 전신 전송이 가능해졌다. 1902년 독일의 과학자 알프레트 콘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1911년에는 이미 사진을 유선으로 전송하는 회선이 런던과 파리, 베를린을 연결했다.

아), 미국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카리브해에 파고든), 이탈리아 (아프리카), 일본 (동아시아) 과 같은 신참자들의 해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항도 더 근대적이고 효과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1890 년대 스페인은 쿠바의 마르티 Martí 봉기를 박살내려 일찍이 대서양을 건너 본바 없는 기록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파견해야만 했다. 필리핀에서 스페인은 민족주의 봉기를 버텼지만 패배시키지는 못했다. 남아프리카에서 보이던 인종 대역제국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충격을 주었다.

이런 것이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배우들이 다양한 유목적 역할을 연기하게 될 무대이다. 이 지점을 더 생생하게 짚으려면, 독자들이 아르헨티나와 뉴저지, 프랑스와 바스크의 땅에서 이탈리아인들을, 푸에르토리코인들과 쿠바인들을 아이티·미국·프랑스·필리핀에서, 스페인인들을 쿠바·프랑스·브라질·필리핀에서, 러시아인들을 파리에서, 필리핀인들을 벨기에·오스트리아·일본·프랑스·홍콩·영국에서, 일본인들을 멕시코·샌프란시스코·마닐라에서, 독일인들을 런던과 오세아니아에서, 중국인들을 필리핀과 일본에서, 프랑스인들을 아르헨티나·스페인·에티오피아에서,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나 올지도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이 업혀있는 뿌리의 광대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러시아는 결국 쿠바로 이어질 것이고, 벨기에에는 에티오피아로, 푸에르토리코는 중국으로 연구자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특정한 연구는 두 가지 단순한 이유로 필리핀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필리핀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고, 20 년간 간간히 연구해 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1890 년대에는 세계 체제의 주변부가 가장 자리에서나마 필리핀이 잠시, 그때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부수적인 이유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1860 년대 초반의 3, 4 년 안에 태어나 이 연구를 묶어준 세 사람의 삶은 복사와 팩스, 인터넷이 도래하기 이전 신성한 시대의 삶이었다. 그들은 편지·논평·기사, 그리고 학술적 연구와 소설을, 지울 수 없는 펜과 잉크를 이용하여, 거의 무한한 삶을 가지리라 추측되는 종이에, 무척 많이 써놓았다. (오늘날 미국 문서보관소는 20 년 내에 입을 수 없게 되는 복사된 자료나, 기술 혁신의 맹렬한 속도에 힘입어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입을 수 없게 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 읽을 수 있게 될 전자 형태의 자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곱할기로 든 리우데자네이루·요코하마·젠트·바르셀로나·런던·하라르·파리·홍콩·스몰렌스크·시카고·카디스·포르토프랭스·탐파·나폴리·마닐라·라이트메리츠 Leitmeritz ·카요우에소 Cayo Hueso, 싱가포르를 지나가는 연구에는 특유의 결합적인 이야기 방식이 필요하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기법이고, 첫 번째는 찰스 디킨스와 외젠 쉬(Eugène Sue) 가 개척한 신문 소설 양식이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은 흑백

라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이것을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리살은 파르도의 친한 친구였으며, 1885~86 년 7 개월 동안 프랑스의 수도에 머무를 때 얼마간 그의 궁전 같은 방에서 살기도 하였다. 이때 가리살이 『놀리메탕헤레』를 쓰기 시작한 기간이었다. 파르도의 목록에서 프랑스는 아부 (2), 아당, 발자크, 방빌 (2), 바르뷔스, 바레스, 비베스코, 부르제 (2), 파레르 (3), 플로베르, 프랑스 (5), 위고, 로랭, 모파상 (2), 몰리에르 (6 권으로 된 전집), 프레보, 졸라로, 스페인은 알라르콘, 바로하 (2), 블라스코 이바네스 (10), 갈도스 (16), 라라로, 러시아는 안드레예프 (6), 체호프 (3), 도스토예프스키 (3), 고리키 (4), 투르게네프로, 앵글로색슨은 고작 코난도일 (2), 해거드, 오헨리 (4), 키플링, 싱클레어, 새커리 (22 권의 전집) 로 나타난다. 다시금 프랑스 작가들이 완전히 지배적이다.⁶ 두 서재의 주요한 차이는 파르도에게는 독일이 없고, 리살에게는 기이 할 정도로 스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결론은 주지 않는 이 배경과 함께, 이제 리살의 소설 그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볼 시간이다. 놀랄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석류속의 니트로글리세린

그 모든 풍자의 훌륭함과 19 세기 후반 필리핀의 식민지 사회에 대해 제 공하는 개관적인 그림으로 볼 때, 『놀리메탕헤레』는 어느 정도까지는 리얼리티즘의 스타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유하고 젊은 ‘메스티소’ 크리소스토모 이바라는 유럽에서 몇 년간 공부한 후, 어린 시절의 사랑 마리아 클라라와 결혼해 고향 마을에 근대적인 비종교 secular 학교를 세울 뜻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꿈은 반동적이고 음탕한 교단의 일원들이 꾸민 간계와 식민 행정의 부패, 무능에 의해 무너진다. 작은 형제회 수사가 간통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진 마리아 클라

⁶ 파르도는 1925 년까지 살았다. 목록에 올라있는 93 권의 소설 책 중, 출판사와 출판 일자가 제공되는 것은 20 세기의 것, 즉 리살이 죽은 이후의 것이다. 4 권만이 리살이 영국 귀국한 1891 년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적어도 30 퍼센트 정도가 출판 일자가 없다. 아마 파르도가 귀국할 때 파리에서 모은 장서를 남겨 놓거나 친구들에게 주고, 마닐라에서 애착이 가는 책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새 책을 사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아테네오 카탈로 그는 우리에게 리살이 파르도와 함께 머무를 때 읽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지만, 파르도의 코스모폴리탄적 취향에 대해서는 잘 묘사해 준다. 파르도의 장서 중 시는 거의 없고 고대의 저작도 전혀 없었다 시피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리살에게는 둘 다 많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장을 펼친다. 이장의 나머지 부분은 리살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는지, 그 윤곽을 그리는데 바쳐진다. 시작하면서, 그의 소설들 바깥에 있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살이 막대한 양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교환했고, 이 가운데 놀랄만큼 많은 부분이 일기나 문학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미간행 원고들과 함께 보존되어 있지만, 그는 다른 작가들, 특히 소설가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입이 무거운 편이었다. 그의 코멘트는 젊은 시절에 코르네유의 독창성에 대해 프랑스로 쓴 짧은 에세이와 그 이후 베를린에서도 데의 『알프스의 타르타랭』에 대해 쓴 짧은 글(이것도 프랑스로이며, 1887년작이다), 외젠 쉬밋다우에스테커에 대한 몇 구절, 실러를 찬미하는 몇 마디, 그리고 하이네로부터의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다.⁴

두 개의 개인서재에 대한 기록이 다소간의 간접적인 암시를 더해준다. 리살이 직접 유럽에서 가지고 온 장서에는 프랑스로는 샤토브리앙, 도데, 뒤마페레(5), 위고, 르사주, 쉬(10), 볼테르, 졸라(4), 영국으로는 불워-리턴, 디포, 디킨스, 새커리, 독일로는 괴테와 호프만, 이탈리아로는 만초니, 네덜란드로는 다우에스테커, 스페인으로는 세르반테스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신을 통해 그가 안데르센, 발자크, 헤벨, 스위프트도 읽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⁵ 이 목록이 그가 유럽에서 가져온 것들을 전부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집에 돌아오면 식민당국의 세관과 경찰이 책들을 철저히 점검할 것임을 그가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목록은 그의 소설 읽기에서 프랑스가 얼마나 중심적이었던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사자 뛰어난 문헌학자 philologist 였던 트리니다드 파르도 데 타베라가 사망 후 남긴 책과 논문들이 카탈로그화되어 아테네 오데마닐

⁴ 프랑스어로 된 두 편의 문학 에세이는 기독교가 가난한 이를 위한 종교였을 당시의 부흥과 부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진 이후의 부패의 역사에 관한 짧은 텍스트 〈종려주일 Dimanche des Rameaux〉과 함께 필리핀 국립 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불규칙적인 유품과 ‘피에르 코르네유에 대한 에세이 Essai sur Pierre Comeille’라는 제목은 이 텍스트가 학창 시절에 쓴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볼테르의 ‘굉장한 magnifique’ 『코르네유 희곡 비평 Commentaire sur le théâtre de Corneille』과 레싱의 『함부르크 연극론 Hamburgische Dramaturgie』에 대한 지적인 참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다른 두 작품은 리살의 미발표 노트 “Cuadernos de médica clínica”에 실려 있으며, 종려주일에 대한 고찰은 1887년 베를린에서 명이 되어 있다. 원본은 시카고의 아에르 도서관 Ayer Library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⁵ Esteban A. De Ocampo, Rizal as a Bibliophile (Manila: Bibliographical Society of the Philippines, Society of the Philippines, Occasional Papers, No. 2, 1960) 참조. 데오캄포는 이제 사라진 서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리살의 서신에 언급된 책과 저자들도 목록으로 만들어 놓았다. 19세기 후반 필리핀 역사의 탁월한 권위자 암베스오캄포(데오캄포와는 관계없는 사람) 덕분에 나 데오캄포의 목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살의 손에 있던 상당한 수의 추가적인 장서 카드가 마닐라의 로페스 박물관 도서관 López Museum Library 에 존재하고 있었다.

영화나 지친 소설가의 시야 바깥으로 결론이 넘어간 미완성 소설을 감상하고 있다고 상상해주시기를 바란다.

선량한 독자 여러분께 드려야 할 부담이 하나 더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아직 추악하고 상업적으로 타락한 ‘국제어’라는 것이 없었다. 필리핀인들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독일어로, 일본인들에게 영어로, 서로 서로에게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혹은 타갈로그어로, 마지막 남은 아름다운 국제어인 라틴어를 풍부하게 섞어서 썼다. 그중 몇몇은 러시아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전신은 몇 분 단위로 세계 곳곳으로 보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의사소통에는 수개 언어에 능한 polyglot 진정하고 건실한 국제주의가 필요했다. 필리핀의 지도자들은 이 바벨탑과 같은 세계에 독특하게 적응했다. 그들의 정적이 사용하는 언어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5 퍼센트 미만밖에 이해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했다. 마닐라와 그 근방에서 사용되는 토착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어쨌든 국제적 의사소통에는 쓸모가 없었다. 경쟁 토착 언어의 원어민들, 특히 세부어와 일로카노어 사용자들 중 많은 이들은 스페인어가 필리핀에서 엘리트 지위의 뚜렷한 표시, 게다가 스페인 통치에 대한 부역자 지위의 표시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스페인어를 선호했다. 독자에게 사라진 다언어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생생하게 살려드리기 위해, 이 연구는 이 인물들이 서로 서로에게, 그리고 필리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쓴 여러 언어들을 상당량 인용하기로 한다. (이 책의 모든 번역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내가 직접 한 것이다.)

이 책의 형식적 구조는 방법과 대상에 의해 좌우된다. 제 몇 대로 일지는 몰라도 명쾌한 시작은 1880년대의 조용하고 외딴 마닐라에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나서 서서히 유럽·아메리카·아시아로 초점이 넓어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법해보이지 않는 더욱 제멋대로인 결말을 향한다. 가장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구를 ‘묶어두는 anchor’ 것은 천재적인 소설가 호세 리살 (José Rizal) 과 선구적인 인류학자이자 언론인 논객이었던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 (Isabelo de los Reyes), 조울을 맡은 조직가 마리아 노폰세 (Mariano Ponce), 1860년대 초반에 태어난 걸출한 이 세 명의 필리핀인 애국자 청년의 삶이다.

제 1장과 제 2장은 이사벨로의 『엘 폴크로레 필리피노 El folk-lore filipino』(1887)와 리살의 수수께끼 같은 두 번째 소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 El filibusterismo』(Ghent, 1891)라는 두 권의 뛰어난 책을 대비하는 연구이다. 이 부분에서는 (1) 인류학자 이사벨로가 성직과 세속 양쪽 모두의 식민당국이 지닌 지적 신병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어떻게 동시대 유럽의 민족학자와 민속학자들의 저작을 그의 독자적인 현지 연구와 결합시켜 숨김없이 배치하였는가, (2) 소설가 리살이 아마도 유럽 바깥에서 식민지의 피지배자가 쓴 최초의 선동적인 반식민지 anticolonial 소설일 작품

을저술하기위해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문학아방가르드의핵심적인물
들로부터어떻게연금술적으로차용해왔는가에대해탐구한다.

뒤이은제 3 장은아마추어문학비평으로부터떠나정치분야로의이동
을시작한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가여전히주요이야깃거리이지만,
그에대한해설은 1882-91 년사이유럽에머물렀던리살의독서와경험들,
또한그를식민지배에대한필리핀저항의상징이자많은고위층인사들
의격렬한적의의대상으로만들었던뛰어난첫소설 『놀리메탕헤레 Noli
me tangere』의낙진에의해걸러질것이다. 제 3 장에서는또한스페인
에있는필리핀인활동가들사이에서격심해진정치적충돌도다룬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는전작과의대비를통해지구적인소설의일종으로서
논의도리것이다. 등장인물들은이제더이상단순히스페인인들과그도착
피지배자들에국한되지않고프랑스·중국·미국에서온방랑자들을포함하
며, 몇몇인물은심지어쿠바에서온것으로추측된다. 유럽과동아시아에
서감지되는비스마르크의그림자, 산업용화약을발명한노벨의혁신적기
여, 러시아의니힐리즘, 바르셀로나와안달루시아의아나키즘, 이모든것
들이지면에서뚜렷이드러난다.

제 4 장은리살이그향으로돌아온 1891 년과 1896 년말그의처형사
이의 4 년간을살펴본다. 특히마르티가 1895 년무장혁명봉기를계획하
고일으키는것 (그리고마르티의후계자들이봉기를진압할목적으로파견
된거대한원정대를막대한비용을들여막아내는데성공한것) 을가능하게
했던쿠바와플로리다, 뉴욕의쿠바이주자사회의탈바꿈을검토한다. 이
공격은 (1895 년청일전쟁에서일본이승리하여) 시모노세키조약이조인
된지 1 주일이되지않아시작되었는데, 이조약으로타이완이도쿄에넘어
갔으며, 아시아최초의강대국이루손의북쪽해안에하루만에배로달을수
있게되었다. 많은부분이북동부보르네오에필리핀의식민지를만들려는
리살의 (여러모로마르티의탐파를본뜬것으로해석되는) 실패한계획과
1896 년스페인지배에대항하는무장봉기를일으킨비밀결사단체카티푸
난 Katipunan 과리살의쉽지않은관계에할애된다.

제 5 장이가장복잡하다. 카티푸난봉기의발발두달전에, 수많은아나
키스트폭탄투척중가장유혈적인사건이전시바르셀로나에서일어났다.
카노바스 (Cánovas) 총리의보수정권은도시자체에게엄령을선포하고,
좌파인사들을대대적으로체포해음울한몬주익 Montjuich 요새에서
가장무자비한고문을가함으로써이에대응했다. 투옥된이들중두드러
지는크리올쿠바인으로아나키스트였던타리다델마르몰 (Tárrida del
Mármol) 이있었다. 그는석방된이후파리로진출해카노바스정권에대
항하는법상치않은성전에착수하는데, 그무대는당시프랑스에서, 아니
어쩌면세계에서가장중요한아방가르드저널이었던 「라르뷔블랑슈 La
Revue Blanche」 의지면이었다. 리살이처형되기직전에시작된타리다
의긴연재기사는쿠바·푸에르토리코·바르셀로나·필리핀의극심한탄압

대부분은그의식민지화된조국 patria 의상황과관련된정치적주제에대
한세련되고논쟁적인논설들이었다. 그리고나서그는소설가로전향하여
1887 년 『놀리메탕헤레』 를, 1891 년 『엘필리부스테리스모』 를출판
했는데, 이작품들은아마도 19 세기아시아인에의해창작된유일한‘세계
적수준’의소설들이었을것이다. 말하자면하룻밤새에, 그는그의나라에
서가장논쟁적으로유명한‘토착민’이되었다.

제한된의미에서, 이소설들은예상치못하게튀어나왔다. 『놀리메탕
헤레』 이전에필리핀인이쓴소설은단한편뿐이었는데, 그것도무척이나
서투른것이였다.² 그러나이소설들의출현을더넓은맥락에서고찰하면,
상황은상당히다르게보인다.

초국적서재들

19 세기중반까지‘위대한소설’의창작은대개프랑스와영국두나라가
독점하고있었다. 그후, 파스칼카사노바가거미‘문학의세계공화국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이라부른것의경계는급속히세계
화되기시작하였다.³ 허먼멜빌 (1891 년생) 의놀라운 『모비딕』 이 1851
년나타났고, 그못지않게굉장한 『사기꾼』 이 1857 년뒤를이었다. 이
반곤차로프 (1812 년생) 의 『오블로모프』 도 1857 년에출현했고, 이
반투르게네프 (1819 년생) 의 『이브에대하여』 (1860) 와 『아버지와
아들』 (1862) 이그뒤를따랐다. 에두아르트다우에스데커 (1820 년생)
는 1860 년최초의주요한반식민지소설인 『막스하벨라르』 를출판했다.
1866 년은표도르도스토예프스키 (1821 년생) 의 『죄와벌』 과레프톨
스토이 (1828 년생) 의 『전쟁과평화』 가출판되는것을목격한해였다.
그리고나서브라질의마샤두지아시스 (1839 년생) 의 『브라스쿠바스의
회상』 (1882) 으로제 3 세계가박차고들어오기시작했다. 리살자신의
세대로는폴란드의조지프콘래드 (1857 년생), 벵골의라빈드라나프타
고르 (1861 년생), 일본의나쓰메소세키 (1867 년생) 가있는데, 이들의
주요작품들은이비운의필리핀인의소설들보다더늦게출판되기는하였
다. 이러한각도에서보았을때리살의작품들은여전히일찍쫓겨간것이기
는하지만, 결코마술적으로속세를떠난것이라고는할수없다.

카사노바는역사적으로‘문학의세계공화국’의주변부에있는작가들
이문학의수도 Capital of Letters 의전제들에서로다른스타일로도전
함으로써수도에진입하려는시도를통해독창성을찾아왔다는유력한주

² 리살보다네살많은페드로파테르노 (Pedro Paterno) 가 1885 년에 『니나이
Ninay』 를출판하였다.

³ Pascale Casanova,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Paris : Éditions
du Seuil, 1999).

제 2 장 알라... 라-바

별이 들었다, 그러나 정확히 왜? 아마 이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벨로의 기질과 경험, 작품을 그의 먼 타갈로그인 친척인 호세 리살과 대조해 보는 것일 텐데, 이 장은 그 대조를 시작한다.

이사벨로는 원기왕성하고 현실적이며, 무척이나 정력적인 인물로, 내향적인 사고에 그다지 많이 기울어 있지 않았다. 그는 스무살 때 결혼했고, 첫 번째 아내는 1897 년의 이른 봄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죽기 전 이미 여섯 번이나 성공적인 출산을 하였다. (그 후, 그는 이어 스페인 여성,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는데, 둘 다 출산 중 사망했으며, 둘 다 아홉 번의 출산을 겪었다.)¹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았던 그는 처음에는 놀란 구경꾼으로서 바라보던 1896 년 필리핀 혁명의 발발 당시까지 성공적인 문학·문화 저널리즘, 민속학, 그 외 다양한 작은 부업들에 매진하고 있었다. 교단에 대한 그의 적의는 명백했으나, 그의 저술이 그를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빠뜨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식민지의 수도에서 잘나가고 있는 촌사람 provinciano 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자기 삶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1897 년 여름, 서른세 살이 되기 전에는 유럽에 간 적이 없었으며, 그때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전적으로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사술에 묶여 바르셀로나의 고문요새 문주옥으로 이송되었던 것이다. 짧은 시절 그가 알았던 유럽은 우편을 통해 온 것, 즉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호적인 학자들과 아마추어 민속학자들, 저널리스트들로부터 온 편지와 책, 잡지들이었다. 찬란한 진보가 눈앞에 있었다.

세 살 더 많은 리살은 별이 든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이 많았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끊임없이 내향적으로 파고들었으며,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데다 스스로의 천재성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처형당하던 날 밤이 되어 서야, 아마도, 결혼을 했고 자식은 없었다. 그는 1882 년 스물한 살 생일을 맞기 바로 전에 유럽으로 떠났고, 그 후 10 년간 대부분 시간을 유럽에서, 처음에는 스페인, 그 후에는 프랑스·독일·영국·벨기에에서 보냈다. 타고난 다언어 능통자 polyglot 였던 그는 영어와 독일어, 약간의 이탈리아어마저도 익혔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유럽에 대해 어느 동포보다도 더 잘 알았고 더 널리 알았다. 그는 서유럽의 전문적 민족학계에서 사적으로 많은 친구들과 사귀었지만, 초기에 출판된 개인적 저술의

¹ Llanes, The Life, pp.6~8, 13~15, 20~24 참조.

을 한 데 얹어 냈다. 타리다의 성전은 유럽과 대서양 건너의 아나키스트 언론에 빠르게 퍼져 온 다른 많은 진보적 조직과 저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냈다. 파리에서 그의 핵심적 동맹 세력은 펠릭스 페네옹 (Félix Fénéon) 과 조르주 클레망소 (Georges Clémenceau) 였다. 「라르뷔블랑슈」 배후의 지적인 추동력이었던 페네옹은 뛰어난 미술 평론가이자 언론 평론가였지만, 스스로 폭탄을 투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굳은 신념의 반제국주의 아나키스트이기도 했다. 역시 신념이 굳은 반제국주의자였던 클레망소는 파리 코뮌 당시 몽마르트 시장의장이었으며, 투옥된 아나키스트들 여러 명과 친분을 쌓았고, 언론인이자 정치가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두 사람 모두 1897 년 가을에 터진 드레퓌스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장은 이제 다음 해 스페인 제국 몰락의 전주곡을 울린 1897 년 8 월 9 일 젊은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 미켈레 안줄릴로 (Michele Angiolillo) 에 의한 카노바스 암살 사건의 배경을 숙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핵심적인 인물은 푸에르토리코인으로 엔텔리스 제도 독립의 전설적인 기획자이자 스페인과 탐욕스러운 미국의 공적이었던 의사 라몬 에메테리오 베탄세스 (Ramón Emeterio Betances) 선생이다. 의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자신이 아나키스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대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유럽인 동맹들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아나키스트들 중에서 찾아냈다. 마지막 두 절은 이사벨로 데 로스 레스와의 리살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리아 노 폰세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폰세는 1896 년 가을 스페인을 빠져 나와 처음에는 홍콩에서, 나중에는 요코하마에서 필리핀 혁명 정부의 핵심적 외교, 선전 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폰세와 멕시코 시티·뉴올리언스·뉴욕·바르셀로나·파리·런던·암스테르담·상하이·도쿄·싱가포르에 있는 필리핀인들 및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의 주목할 만한 서신 교환을 분석하며, 그의 영향, 특히 일본과 중국인 거류민 사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다양한 암시들을 고찰한다. 한편 이사벨로는 카티푸 난봉기 직후 수감되어 이 옥고 바르셀로나의 문주옥 감옥으로 이송되었으며, 거기에서 카탈루냐인 아나키스트 수감자들을 알게 되고 감명을 받는다. 새로운 미국 식민 정권을 마주 하러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에 최초로 닿은 크로포트킨, 마르크스, 말라테스타의 저작들을 가져온 것이 그였다. 그는 필리핀 가운데에서 최초의 진지한 전투적 노동 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아나키스트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 독자들이 이 글에서 우리 시대와의 유사성과 공명을 많이 찾아낸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일만 남았다. 수천 명의 경찰과 그 외의 ‘보안’ 요원들이 경비하던 2004 년 뉴욕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시경 찰청장은 기자들에게 위협은 공산주의자나 광신적 무슬림도 아닌 아나키스트들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거의 같은 순간에 헤이마켓의 아나키스트 열사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시카고에 세워졌다. 「뉴욕타임스」는 ‘이제야’ 이

제막식이 열릴만큼 “충분히 열정이 잦아들었다”고 뼈기듯 평했다. 그렇다, 아메리카는 확실히 대륙인 것이다.

실을 깨달은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유동적인 상태는 스물세살의 그가 자라났으며, 그 안에 있기에는 좀 너무 자랐다고 느낀 애매하게 경계지어진 문화로 다시 그를 이끌었다. 이렇게 일로카노의 민중적 지식 popular knowledge 혹은 문화는 젊은 일로카노 애국자에게 바깥쪽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안쪽에서 경험되어야 하고,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지만, 바로 잡아야 할 어떤 것이 되었다 — 물론, 일로카노인들 스스로에 의해. 그의 모어 母語인 일로카노어는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무언가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것은 계몽된 젊은 2개 언어 사용자 그 스스로의 별이 뜬 지평선 밖으로 살며시 빠져나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날그러한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번성하고 있었다. 이사벨로의 저작에서 그 무엇도 그가 스페인어가 일로카노어의 미래에 깊은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시사하지 않는다. 게다가 카스티야어는 그에게 스페인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통해 근대성·과학·문명의 모든 중심지들을 향해 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언어적 매체로 여겨졌다.²³ 이 언어는 식민 언어라기 보다는 국제어의 성격이 더 강했다. 이사벨로가 스페인어로 글을 씀으로써 그의 ‘푸에블로’를 다소간 배반하고 있다거나 지배자의 문화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인상적인 일이다. 나는 그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순진한 입장을 취했던 이유가, 1880년대 스페인령 필리핀 제도의 미래가 눈에 띄게 불안정했으며, 일종의 정치적 해방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불안정성은 현지의 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세기 도 더 전에 일어났던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스페인은 19세기에 제국을 상실한 유일한 제국주의 강대국이었다. 식민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피지배자들의 눈앞에서 이와 같이 해방이 성취된 사례들은 볼 수 없었다. 여기에서, 스페인어 Spanish 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영구히’ 모든 토착 언어들에 군림하는 다수 언어가 되고, 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영구히’ 억압받는 소수자의 언어가 된 20세기 신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게 된다. 어느 쪽에서든 임박한 해방의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사벨로의 젊은 시절의 저작에는 ‘나’와 ‘그들’,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서 불편하게 미끄러지는 대명사들로 특징지어지는, 눈여겨볼 만한 신중함이 있다. 그는 1과 2분의 1의 독자층을 위해 쓰고 있을 때일지라도, 언제나 두 종류의 독자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들 중 최악의 자는 애국심이라 불리는 고상하고 신성한 감정을 부여받지 못한 비참한 자이다”라고 그는 썼다. 스페인어는 그에게 민족어가 아니라 단지 국제어일 뿐이었다. 그러나 스페인어에 대항할 만한 민족어라는 것이 있었는가? 꼭 그렇지는 않았다. 북부의 일로카노어, 중부의 타갈로그어, 남부의 세부어 등 사용자가 가장 많은 현지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소수의 언어였고, 이제 막 활자화되어 피어나기 시작하려 할 뿐이었다. 그의 고유한 언어가 소속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조국 patria 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가상의 일로카노 나라 Ilocano-land 가?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게다가 각자 고유한 언어를 보유한 저 아이티족과 이고로트족, 이사벨로의 ‘형제들’이 있었다. 그의 조사가 그에게 드러내 주었듯이, 일로카노인들과 ‘별개의 종족’이 아닌 타갈로그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진실의 발견자로서, 아직 타갈로그인들과 일로카노인들 중 그사

²³ 스페인어가 스페인 중부 카스티야 지방의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칭할 때 카스티야어라고 하기도 한다. -역자주

제 1 장 프롤로그: 수탉의 달걀

1887년 마드리드의 필리핀 박람회 Exposición Filipina 에서 식민지 마닐라에 살고 있던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라는 이름의 스페인인인 ‘인디오 indio’가, 그가 『엘 폴 크로레 필리피노』 라 부른 방대한 스페인어 원고로 은메달을 받았다. 그는 이 글을 뜻하지 않게 동포 호세 리살(당시 25세)의 책과 나란히 출판하게 되었는데, 리살은 북유럽을 얼마간 방랑한 후 선동적인 첫 소설 『놀리 메 탠헤레』를 같은 해 베를린에서 출판했던 것이다. 이 책은 리살이 1896년 열사의 반열에 오르는 데에, 그리고 이후에는 ‘조국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필리핀인’이라는 영구적 지위를 획득하는데에 기여하였다.

이사벨로는 누구인가?

그는 1864년 7월 7일, 남중국해 건너편으로 베트남을 마주 보고 있는 대주교좌소재지인 북부 루손의 비간 Vigan 이라는, 아직은 매력적인 해안 도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일로카노 Ilocano 인이었는데, 당시 일로카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맹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레오나 플로렌티노는 마드리드에서, 그리고 이후 여러 박람회에서 스페인·파리·세인트루이스 사람들에게게시를 선보일 만큼 패재 능이 있는 시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 하지만 이러한 성취도 레오나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지는 못했으며, 이사벨로는 여섯 살 때 부유한 친척인 메노 크리솔로고에게 맡겨졌고 메

¹ 이사벨로는 길고 영예로운 경력(그 일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다룰 것이다)의 보유자이지만, 전문적 전기라고 하기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적당한 것은 아직 없다. 이하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설명은 그의 큰아들이 쓴 José de los Reyes y Sevilla, Biografía del Senador Isabelo de los Reyes y Florentino, padre de los Obreros y Proclamador de la Iglesia Filipina Independiente (Manila: Nueva Era, 1947), p.1~6 과 José L. Llanes, The Life of Senator Isabelo del los Reyes (주간지 「마닐라 크로니클」 1949년 7월 24일과 31일, 8월 7일자에 실렸던 기사를 다시 찍어 낸 모노그래프), pp.1~6, 그리고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Filipinos in History, vol. 2 (Manila: NHI, 1990), pp.137~39 중 그의 이름을 표제어로 한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² 레오나 플로렌티노의 준공식적인 짧은 전기에 의하면, 그는 1849년 4월 19일 비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성이 같았으며 아마도 사촌간이거나 그 비슷한 관계였을 것이다. 양쪽 모두 호세 리살의 외할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다. 레오나는 조숙한 아이였으며, 열 살의 나이에 일로카노어 및 수사가 정교사에게 배운 스페인어로 시를 짓기 시작했다. 열네 살에 시집 보내졌고, 열여섯 살에 이사벨로를 낳았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서른다섯 살에 아이 다섯을 남긴 채 죽었다.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Filipinos in History, vol. 5 (Manila: NHI, 1996), pp.141~42 에서 그녀에 관한 항목을 참조.

노는 아우구스티누스회가 운영하는 지방신학교에 딸린 중등학교에 이사벨로를 넣었다. 본국출신 Peninsular 스페인인 수사들의 학대행위는 소년에게 로마가톨릭교단 Orders 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증오는 평생 동안 지속되면서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1880년 열여섯살이 된 이사벨로는 마닐라로 탈출했으며, 산후안데레트란 학교 Colegio de Sna Juan de Letrán 에서 급제 졸업장을 따냈다. 그후에는 당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통틀어 유일한 종합대학이었던 유서깊은 (도미니크회의) 산토토마스 교황청 대학에서 법학과 역사학, 고문서학을 공부했다.

그러는 동안 이사벨로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이제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소년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저널리즘의 세계로 뛰어 들어 마닐라의 신문 대부분에 기고했으며, 1889년에는 직접 「엘일로카노 El Ilocano」 라는 신문을 발행하기까지 했는데, 이 신문은 필리핀의 지방어 vernacular 만을 사용한 최초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10대였을 때, 이사벨로는 마닐라의 스페인어 신문 「라오세아니아 에스파냐 La Oceania Española」 (1877년 창간) 를 읽다가 독자들에게 ‘민속학 el folk-lore’ 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발전을 위해 기사를 투고 하라며 투고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공지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스페인인 편집자와 접촉하였으며, 편집자는 이사벨로에게 한 무더기의 ‘민속학 책들’ 을 주며 그가 태어난 일로코스 Ilocos 의 관습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두달 후 이사벨로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로코스 뿐만 아니라 중부 루손의 삼발레스 Zambales 지역에 있는 아내의 고향 마을인 마닐라 외곽의 말라본 Malabon 그리고 그가 일반적인 용어로 필리핀 민속학 el folk-lore filipino 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의 삶에서 커다란 열정의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과학

질문은 당연히, 왜? 이다. 1880년대, 교회교육을 받은 젊은 토착민에게 ‘민속학’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젊은 시절에 써낸 걸작의 서론과 앞부분에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³ 거기에서 이사벨로는 약간 주저하기는 하지만 ‘민속학’을 ‘새로운 과학 ciencia nueva’ 이라 부른다.

³ 이후 참조는 주로 1889년 마닐라에서 Tipo-Lithografia de Chofré y C 에 의해 출판된 최초의 텍스트를 따른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어번역을 더한 Salud C. Dizon and Maira Elinora P. Imson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94) 의 최근 재판본 (이후 Dizon-Imson 이라 표기) 과 비교할 것이다. 이 새로운 판본은 여러 방면에서 가치가 있는 시도였지만, 수백건이나 되는 번역 오류와 몇몇 스페인어 표기 오류로 얼룩져 있다.

록들이었다. 외판 필리핀에는 강력하고 중앙 집권화되었으며 글을 사용했던 국가의 전통이 없었고, 눈에 띄는 폭력을 사용하고 그 주민들 대부분이 기독교도가 되었을 정도로 이슬람이나 불교와는 빈약한 접촉밖에 없었다. 이 각도에서 보았을 때, 민속은 고대의 위엄을 대체할 수 있었다.

더나을지도 모르는 다른 해답은 19세기 이베리아 제국주의의 성격에 있다. 한때 거대한 세계 제국의 중심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7세기 중반 이래로 쇠퇴하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를 잃음으로써 스페인 제국은 급격히 줄어들어 쿠바·푸에르토리코·필리핀·리오데오로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19세기 내 스페인은 봉건적인 과거로부터 산업적 근대성으로 이행하고자 몸부림치면서 가장 폭력적인 내부 분쟁으로 찢겨 있었다.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몇몇이 보기에도, 스페인은 후진적이고 미신적이었으며 거의 산업화되지 않은 채였다. 이러한 이해는 유럽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남미 스페인 식민지의 젊은 지식인들에게도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이후 다른 식민지에서 이사벨로와 같은 인물들이 대개 그들 ‘자신의’ 제국주의 본국에서 출판물을 하고자 했던 것에 반해, 이사벨로는 독일에서 자신의 저작이 발표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진보는 스페인에서는 거의 퍼지기 시작하지 않았던 계몽 Ilustración 의 깃발이었다. 이사벨로는 스스로를 ‘일루스트라도’로, 드니 디드로의 증손자로 여겼으며, 그리하여 당연히 본국 자체의 스페인인들 여럿과 나란히 공통의 분투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종류의 초대륙적 transcontinental 동맹은 유럽 자체에서 분투하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특성과 대체로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하여 이 젊은 일로카노인이 보기에 자신의 연구를 스페인인 동료들에게 헌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았듯이 ‘후진적’ 필리핀은 또한 19세기 동남아시아에서, 극단적인 ultra 도미니크회 교단이 지배하기는 했지만, 진짜 대학이 있는 유일한 식민지이기도 했다. 산토토마스 는 이사벨로와 그의 많은 민족주의자 동료들을 교육시켰다. 궁극적으로 바로 여기에 왜 필리핀이 그 세기가 끝날 때 아시아에서 최초의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계몽은 ‘후진적’ 스페인의 후진적이지 않은 언어를 통해 필리핀에 왔으며, 그러므로 그 주요 행위자들은 그 말의 의미 그대로 (적어도) 2개 언어 사용자들이었다. (필리핀의 많은 1세대 지식인들은 마닐라에서 라틴어도 배웠으며, 프랑스어도 조금 익혔다. 외국에 나갔다면 영어와 독일어까지도 약간 습득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아랍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이 로망스계 언어, 이반동과 계몽의 공동매체에 대한 두드러진 진감이나 불신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질문이다. 하나의 해답은 확실히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전부에서와와는 완전히 반대로,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어가 다수언어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로 구술언어인 수십가지의 현지어가, 실로 오늘

동의근본적인자원임을 입증해왔다. 유럽에서민속학은정통성의세력 forces of legitimacy 에대항한복잡한투쟁에서특히농민과예술가및 지식인, 부르주아지를잇는지방어로된문화 vernacular cultures 를 발전시키는데강력한자극을제공해왔다. 도시의작곡가들은민요 folk song 를찾아나섰고, 도시의시인들은민속시가 folk poetry 의스타일과주제를잡아내고변형시켰으며, 소설가들은민속적인시골 folk countryside 를묘사하는쪽으로돌아섰다. 새로이상상된민족공동체가자석과같은미래를향해갈때, 유용하며진정한과거보다더귀중한것은 없는듯보였다.

인쇄된지방어들이거의언제나중심적이었다. 노르웨이민속학자들은노르웨이의‘민중의지식’을회생시키기위해“새로운노르웨이어 New Norse”(덴마크어와스웨덴어에맞서) 로쓸것이였다. 핀란드인들은스웨덴어나러시아어가아니라핀란드어로쓸것이였다. 그리고이때턴은보헤미아와헝가리·루마니아·세르비아등등에서되풀이될것이였다. 게일어와, 식민지배에의해강요되었으며많은아일랜드남녀들이잘이해했던영어, 양쪽모두를통해작동했던아일랜드의부흥운동이라는두드러진사례로볼수있듯이, 완전히그렇지만은않았던곳에서도궁극적인목적은민족의자아회복, ‘각성’, 해방이였다.

인뜻이사벨로의노력은전혀다른것같이보이는데, 무엇보다그가민족구성원이아닌이들을향해서도, 그리고아마필리핀‘인디오’의 3 퍼센트정도가이해했을, 그리고그의동포일로카노인들중 1 퍼센트만이따라올수있었을제국의언어로글을쓰고있었기때문이다. 유럽에서민속학자들이대체로‘동포들 paisanos’을향해그들공통의진정한기원을보여주기위해글을 썼다면, 이사벨로는이른세계화가진행되는세계, 그가그안에서스스로를발견한그세계를향해일로카노인들과다른‘인디오’들이어떻게평등과자율적인공헌을기초로하여그세계에완전히들어갈수있으며그렇게하고자열망하는지를보여주기위해글을 썼다.

이사벨로의연구는그의나라를동남아시아지역의많은이웃하는식민지들과구별짓기도한다. 이다른식민지들에서는, 우리가비공식적으로‘민속학’이라분류할수있는대부분의연구들이, 라디오와텔레비전에때문지않은시대에남아도는시간이너무많았던지적인식민관료들에의해수행되였다. 그연구들은주로연구대상이되는집단그자체가아니라식민지배자들에게소용이되고자한것이였다. 독립이성취된이후이예전식민지들에서민속학은주변적인존재가되었지만, 탈식민필리핀에서는훨씬상황이나왔다. 어째서이렇게되어야했을까? 하나의가능한해답은다른모든식민지에는왕실의연대기, 불교의우주론, 사원의기록, 수피소책자, 궁정문학등등, 식민이전시대로부터내려오는상당량의성문화된기록이남아있었다는것이다. 그리고민족주의운동이시작될때도착성 aboriginality 과영광스러운진정성을제공해준것은민속보다는이런기

이는쥘미슐레 (Jules Michelet) 등의노력에힘입어 19 세기중반전 유럽적으로주목을받은잠바티스타비코 (Giambattista Vico) 의 『새로운과학 Sienza Nuova』⁴의의식적으로따른것같다. 이사벨로는필리핀과스페인의독자들에게, “민속”(folk-lore, 그가‘민중의지식 el saber popular’이라고독창적으로번역해낸) 이라는단어는 1846 년영국의고대연구가윌리엄톰스 (William Thoms) 가런던의 「애니시엄 Athenaeum」 지에실은논문에서처음발명할말일뿐이라고설명한다. 세계최초의민속학회는 1878 년런던에서조직되었는데, 이는이사벨로가연구를시작하기고작 6 년전인최근의일이였다.⁵ 프랑스인들은 1886 년이되어서야국가적으로이선례를따랐는데, 이때는이사벨로가집필을 시작한바로그해이다. 스페인인들은전형적으로지적인낮잠에빠져있었다. 그들의차레가되었을때, 그들은앵글로색슨의신조어를‘엘폴크로레’라고하여스페인어에더하는것외에는아무생각이없었다. 이사벨로는스스로를선구적인영국과나란히가면서, 늘남의뒤꽂무니만쫓는식민본국보다위에있고앞서있다고자리매김하기시작했다. 그는파도의정점에선날렵한서퍼와같이세계과학진보의최첨단을달리고있었으며, 이는그 스스로가“문명의빛이희미하게만비추는외딴스페인식민지”라고부른이곳의토착민그누구도예전에는전혀상상할수없던일이였다.⁶ 그는이지위를몇가지눈여겨볼만한방식으로강화하였다.

한편으로, 그는서론에서재빨리이미자신의연구일부가당시선진적인학문적사고를대표하는언어이던독어로번역되었다는것, 그리고그의주장에따르면당시유럽에서그분야를선도하던 「아우슬란트 Ausland」 와 「글로부스 Globus」 에발표되었다는것을언급했다. 또한 『엘폴크로레필리노』 는‘새로운과학’의지위에관한선도적인동시대앵글로색슨학자들의의견을명민하게논하며, 은근히이들이스페인본국의민속학자들보다더중요하다는것을암시하였다. ‘조지폭스경’이민속학 folklore 과신화학 mythology 을혼동하는개념적오류에빠져있었으며, 스페인의몇몇동시대학자들도유사하게신화학과신통계보학 theogony 을뒤섞어놓는오류를범했다고지적하면서그는틀림없이쾌감을느꼈을것이다.⁷

다른한편으로, 이‘과학’의새로움에는특수한식민지적측면이있었으며, 그는이를강조하기를주저하지않았다. 그는이책을“모든방면에서나에게배려를베풀어준본국의스페인인민속학자들”에게헌정했다. 이사벨로의서론은스페인의‘동료들’, 즉그가독자적연구를하면서자신과어깨를나란히하는스페인에서의연구에뒤지지않고따라갈수있게해

⁴ 국내에는 『새로운학문』 이라는제목으로번역되었다.·역자주

⁵ El folk-lore filipino (이후 EEF 라표기), p.8.

⁶ 같은책, p.19.

⁷ Dizon-Imson, p.30.

준, 제국수도에서발행되는저널 「엘폴크로레에스파놀 El Folk-Lore Español」 과 「볼레틴데라엔세난사리브레데마드리드 Boletín de la Enseñanza Libre de Madrid」, 세비아의 「볼레틴폴크로리코 Boletín Folklorico」 의이사진에대해다정하게언급한다.

이동료들과이들의연구의, 말하자면본국성 Peninsularity 은되풀이하여강조된다. 드러내놓고그렇게말하지는않지만, 이사벨로는(정확하게도) 필리핀에서식민지의스페인인들이나크리올이그와비교가될만한것을한적은없다고년지시비춘다. 이암시는물론그가자신을새로운보편적과학의선구자로서식민지배자들보다훨씬앞서있는것으로자리매김할수있게했다. 이독특한상황을설명하기위해이사벨로는교묘한장치에의존하는데, 이는아마도당시교회가지배하고있던식민정권의폭력적이고반동적인성격때문에어쩔수없는일이었을것이다. 그는, 아스톨(Astoll)이라는필명으로현지신문들에글을기고하곤했던자유주의적성향의(틀림없이본국출신의) 의사이자아마추어문인과마닐라의언론에서교환했던일련의정중한대화에대해서술한다.⁸ 이렇게하여그는이본국인이이사벨로의용기와상상력에감탄하면서도식민지에만연한무관심과나태, 정신적마비앞에서이사벨로가성공할가능성에대해서는심히회의적이라고인용할수있었다. “여기에서풍부하게자라나는것들은두가지끈질긴토종잡초, 띠 cogon grass 와몰라베 molave 뿐입니다.”⁹ 그리고아스톨이마침내절망속에대화를중지했을때, 간접적으로어째서‘어떤단체’(로마가톨릭교단을뜻함)는아무데도보탬이되지않느냐는질문을던졌던이사벨로는이상황에서“신중함은다른어떤길도보장해주지않는다”고언급한다. 이사벨로는자신이당시식민정권의정신적암흑속에근대유럽의빛을가지고들어왔다고보았다.

새로움은또다른모습으로 『엘폴크로레필리피노』에서드러났는데, 이는‘과학’의관념과관계가있었다. 서론은민속학의과학적지위를둘러싼더넓은논쟁에관한가장흥미로운논의를담고있다. 이사벨로는스페인의민속학자들중한분과가너무성급하게‘민속학’을이론적과학으로전환하려는나머지곤서로를이해할수없게되었다고말하며즐거워한다. 이는매우시급한국제적인논의를위한길을여는데, 이논의에서는앵글로색슨인들이훨씬겸손하면서도실용적인사람들로드러난다. 다른한국단에는단지과거에관한미래의박물관같은것을만들기위해서사라져가는관습과개념들을감상적으로모으고만있는저스페인인민속학자들이있었다. 이사벨로는그스스로가민속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그사회적가치를어떻게보고있는지를명확히한다. 무엇보다민속은스페인정복이전

⁸ 이사벨로에의하면이인물은산토토마스대학의학교수인호세라카예이산체스(José Lacalle y Sánchez)이다.

⁹ EFF, p.14.

나는이사벨로가자신의스페인어가완벽하지못해서‘서투른칠장어들’이나‘허풍선어들’에게비웃음을당하지나않을까생각했다고확신한다. 그는어쩌면그가사용하고있는특정한민속학방법론도그계통의의심스러울수있으며, 과학이미래를향해장대한세계적진보를계속하는한곧그지위를빼앗길지도모른다는사실을깨닫고있었던것같다. 그러나그는특정하게는‘바리-바리’를, 그리고전반적으로는일로카노를그의지적인소매안에안전하게넣고있었다. 이분야에서라면누구도그의경쟁자가될수없었다. 그렇지만그는패를보여주거나반쯤내보일필요가있었다. 이것이놀림의만족감이다. 독자들이여, 여기에그대가보게될일로카노가있소, 그러나그대는오로지내가보도록허용한것만볼수있다오. 그리고사실그대가볼수없는어떤것들이있다오.

아직일을더복잡하게만드는세번째위치가있다. “음악, 노래, 춤”에관한장에서이사벨로는다음과같이말한다.

달-롯(dal-lot) 의가사는꽤알아들만하다. 달-롯은이하의후렴에서볼수있는일로카노의특수한압운형식 rhyming scheme 을지닌 8 행의연들로이루어져있다.

달-랑아야달달-롯 (Dal-lang ayá daldal-lut)

달-랑아야두미디날-롯 (Dal-lang ayá dumidinal-lot)

나는여러분을위하여이것을발음그대로옮겨적는데, 나스스로가일로카노인인면서도이것을어떻게번역해야할지모르며, 이해조차하지못하기때문이다. 이것은나에게아무의미도없어보인다.²²

그러나이것은진짜일로카노어이기때문에, 난처해진 2 개언어사용자 bilingual 인저자자신조차접근불가능하기때문에어쩌면더욱, 여전히‘꽤알아들만한것’이다. 이사벨로는그것을그냥그렇게남겨둔다. 추측도없이. 그러나그럼에도‘민중의지식’의광대함에대한암시는있다.

그러므로세가지의잘맞지않는위치가있는것이다. 바깥쪽(그들은우리에게완벽한관념을줄수없다), 안쪽(‘바리-바리’에상당하는스페인어는없다), 그리고안쪽의바깥쪽(비록나스스로가일로카노인이지만, 나는일로카노어로된후렴을이해하지못한다. 그러나나는이것을‘우리’가아니라‘여러분’에게말하고있다).

비교를통한속고

18 세기가끝날무렵부터우리의말라빠진시대에이르기까지, 민속학은언제나자의식적으로그렇게정의된것은아니라해도, 민족주의운

²² 같은책, pp.258~59.

로카노인들은거의언제나‘우리’가아니라‘그들’로나타난다. 예를들어, “일로카노인들 los Ilocanos 에게는번개로생겨나는불은물이아니라 식초로만끓수있다는믿음이있다”라는구절이나온다. 더나은예를들자면, 다음과같다.

일로카노인들은우리에게망망킵 mangmangkik 의본질에대한완벽한관념을줄수없으며, 악마가무엇인지에관한가톨릭신자들의관념에따르면망망킵은악마가아니라고그들은말한다.²¹

여기에서이사벨로는스스로를세계민속학의석학대열에놓으며‘일로카노인들’을위에서내려다보고, 그들의미신을‘로마가톨릭신자들’의유사한고지식함과냉정하게대별시킨다.

동시에몇몇절은전혀다른음조를따르고있다. 자신의연구결과를해설하기시작할무렵에이사벨로는이렇게쓴다.

일로카노인들, 특히북부일로코스 Ilocos Norte 사람들은산의나무를베기시작하기전에다음과같은시구를노래한다.

바리, 바리!(Barí, barí!)

디카아궁엣파리 (Dika agunget pári)

타푸무칸카미 (Ta pumuckan kamí)

이티파바키르다카미 (Iti pabakirda kamí)

말그대로번역하자면이시행들은이런듯이다. 바리-바리 (barí-barí, 스페인어에는상당하는어구가없는일로카노어감탄사), 노하지마오, 벗이여 (compadre), 우리는시키는대로나무를베고있을뿐이랴오.

여기에서이사벨로는스스로를일로카노의세계에단단히자리매김한다. 그는일로카노어단어들뜻하는바를알지만, 그의독자들은모른다. 독자들에게 (여기에서그가의도하는독자들이란, 스페인인들뿐만아니라, 다른유럽인들과필리핀제도의일로카노어사용인구가아닌토착민들까지해당된다) 이경험은담혀있다. 이사벨로는상냥하고과학적인인물로서, 외부인들에게이세계에대한무언가를말해주고싶어한다. 그러나그는말을매끄럽게바꾸어쓰면서나아가지않는다. 독자는번역을제공받기전에갑자기튀어나오는이해할수없는일로카노고유의말에부닥치게된다. 더한것은, 무언가가아직허락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 ‘바리-바리’라는말에상당하는스페인어는없으므로, 딱맞게는, 번역이불가능한것(untranslatable). 그리고그이상으로, 아마도다른차원에있어비교할수없는것 (incommensurable).

²¹ Dizon-Imson, p.32.

시대의비석도비문도없으며, 문자화된기록도거의없다시피한필리핀에서다른어떤수단으로도불가능한, 토착적과거의재구성이라는기회를제공한다. (리살이나중에같은일을하고자했을때, 그는초기정복시대스페인인행전관들중가장나은이들이남긴기록의행간을읽는작업에착수하는것밖에는다른길이없다고보았다.) 관습과믿음, 미신, 속담, 어려운말 빨리하기놀이외어구, 주문등등에대한진지한연구는그가스페인정복이전과거의‘원시적종교’라칭한것에빛을던져줄수있을것이였다. 그러나(그리고여기에서이젊은일로카노인은스스로를아마추어풍속연구자들 costumbristas 과무엇이대별시키는데) 그는또한비교의중요성을강조했다. 그는연구를마치기전에는언어와골상, 행위등의차이로보아서로이웃하고있는타갈로그와일로카노가별개의종족 razas distintas 이라고확신했다고고백한다. 그러나비교를통해그는자신이틀렸으며두종족성 ethnicity 은확실히하나의근원에서유래했다는것을증명하게되였다. ‘엘폴크로레필리피노’라는제목이함의하는바는향후의연구를통해필리핀제도의토착주민들이현재서로다른언어를얼마나많이사용하든, 관습과종교적소속이얼마나다른간에공동된기원을공유하고있다는것이드러나리라는것이다. 이모두는식민지의성직자역사가들이 16세기스페인의정복에서부터서사를시작하는것과는반대로, 필리핀제도와그‘푸에블로’(여기에서그는‘푸에블로’를단수형으로할지, 복수형으로할지를놓고중중망설인다)¹⁰의진정한역사는시기적으로훨씬거슬러올라가야하며, 따라서식민성 coloniality 으로만들것기란불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지 지식의 풍요로움

다른한편으로, 여기에서이사벨로는스스로를많은본국인동료들과근본적으로대별시키는데, 이새로운과학은에스러운것을감상적으로발굴하는작업에국한될수없으며, 그렇게되어서도안되는것이였다. 『엘폴크로레필리피노』는무엇보다동시대적인것, 특히그가‘민중의지식’(el saber popular, 오늘날우리는‘현지지식 local knowledge’이라는용어를사용하곤한다) 이라이름붙인것에관한연구이다. 이‘지식 saber’은케케묵은골동품같다는함의를지닌‘전승 lore’이아니라진짜지식이였다. 그는자신의고향지역인남부일로코스근처의숲에서어느날 (이사벨로에따르면, 우연히) 가상의‘야만인 selvaje’이그지역의어떤과일이스페인인의학자페란 (Ferran) 박사의제의로당시생산되던콜레라균해

¹⁰ 스페인어로‘마을’이라는뜻의푸에블로는독립적이고자율적인공동체라는내포를담은단어로서필리핀에서는스페인지배시기에마을 barrio 들과읍을하나로 묶은도 province 밑의지방행정단위 township 를가리키기도했다.-역자주

독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해 낼지도 모른다는 가상적인 사례를 제공한다.¹¹ 이와 같은 주장은 필리핀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지진학과 지식의 부재했기에 가능했다. 이를테면 몇몇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이 새로 편찬한 『필리핀의 식물 Flora de Filipinas』은 완벽과 거리가 아주 멀었다.¹² 원주민들은 약초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대해 식민 지배자들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중의 지식’에 담긴 이거 대한 지식 저장고는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필리핀은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일단의 이국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로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스페인인들은 파악하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장래 인류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본국의 민속학에는 빠져 있을 수 밖에 없는 미래 지향적인 속성을 필리핀의 민속학에 부여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음’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이 다른 어떤 나라 país 와도 나란히 그리고 동등하게 인류에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생한 특유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것은 훨씬 나중에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을 가능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논리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명확하다. 아마 너무 명확한 것 같다. 이사벨로의 텍스트에서는 주요 논자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늘진 복잡한 부분들도 한 없이 많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 가지 표제하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사벨로는 스스로에게 무엇이었던가? 우선, 스페인어 단어 ‘필리피노 filipino’ 자체에 내재한 모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사벨로가 젊었을 때, 이 형용사는 일반적인 어법에서 두 가지 다른 뜻을 지니고 있었다. (1) 필리핀 제도 Las Islas Filipinas 에 속한, 위치한, 기원한. (2) 크리올, 즉 현지에서 태어났으나 ‘순수한 스페인인’ 사회적 계층인. 이 단어가 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날 ‘필리피노’가 의미하는 토착적인 민족-종족성이었다. 최근 두 명의 필리핀 학자들이 이사벨로의 의서를 미국어로 번역했는데, 그 중 단 한 문장만을 비교해 보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사벨로는 “Para recoger del saco roto la organización del Folk-Lore regional filipino, juzgué oportuno contestar al revistero del Comercio y, aprovechando su indirecta, aparenté sostener que en Filipinas había personas ilustradas y estudiosas que pudieran acometer la empresa”라고 썼다.¹³ 이는 문자 그대로 ‘필리

¹¹ Dizon-Imson, p.24.

¹² 같은 책, p.11. 편자들에게 의하면, 여러 명이 편찬에 참여했고 안드레스 나베스 신부 (Fr Andrés Naves) 가 편집한 이 책은 1877 년 마닐라에서 Plana y C 에 의해 출판되었다고 한다.

¹³ EFF, p.13.

다른 못 건디게 매혹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손님들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로카노인들은 손님 이 앉을 의자 위에 소금을 뿌려 놓는다. 스페인인들은 문 뒤에 빗자루를 수직으로 세워 두며, 포르투갈인들은 문 뒤에 놓인 벤치 위에 신발을 두거나 불 속에 소금을 던진다.” “카스티야에서는 일로코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빠진 이를 지붕 위로 던져 새이가 자랄 수 있게 한다.” “갈리시아 사람들에게 따르며,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그건비가 온다는 뜻이다. 일로카노인들은 동물을 목욕시키면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갈리시아 사람들은 고양이가 미친 듯이 뛰어 다니면 폭풍이 온다고 말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고양이 대신 바퀴벌레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는 것은 일로카노인들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인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에게는 좋은 것이다. 세 쪽 모두 머리를 남쪽에 두고 자면 재수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웨이사벨로가 그의 책을 본국의 민속학자들에게 헌정하면서 특별한 기쁨 singular placer 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복자들의 ‘우스운 믿음’을 드러내고, 식민주의자들이 일로카노의 미신을 비웃으려면 그 미신 중 많은 부분이 이들 스스로의 미신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함을 증명할 과학적인 자료들을 이사벨로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일로카노 민간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기괴한 부분들도 이베리아와 이탈리아, 중앙 유럽, 심지어는 영국의 기괴함과 유사한 부분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었다.

세 번째 목적은 정치적인 자기 비판이다. 이사벨로는 자신이 ‘민중의 지식 el saber popular’ 을 체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푸에블로’ 의 사고 방식과 일상 풍습의 개혁 이 자기 비판적인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내려 했다고 썼다. 그는 그의 저작이 “나의 동포들 paisano 을 비웃는 것보다 훨씬 진지한 무언가” 에 대한 것이며, “동포들은 일단 자신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바로 잡도록 배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민속학은 미래에 인간 해방을 향한 길을 따라 죽어나갈 수도 있도록 겨레 앞에 세워진 거울이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사벨로가 1 과 2 분의 1 의 독자를 향해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가 사용한 언어를 쓰는 스페인인들, 그리고 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으며, 그 중 극소수만이 그의 저작을 읽을 수 있는 그 자신의 ‘푸에블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이사벨로는 스스로의 자리를 어디에 두었던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침내 질문의 어찌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 이르게 된다. 수백 쪽에 달하는 그의 책 대부분에서 이사벨로는 마치 자기는 일로카노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 민족 바깥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일

Grande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u XIX siècle 이다. 이사벨로의 각주로부터 우리는 그가 스페인어로부터 다른 중요한 로망스어군의 언어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과 영어로 진전해 나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듯이 리살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독일어는 그의 영역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닐라에서 출판된 이사벨로의 작업은 이렇게 토착민들 naturales 가운데서 문학적·시적 재능, 교양 없는 본국 출신 스페인인들과 크리올들이 그 앞에서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떨어뜨려야 할 그러한 재능이 크게 꽃필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제국주의 자들과 동등하도록 ‘일으키려는’ 것은 반식민적 민족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희망이자 전략이었다.

이사벨로의 두 번째 목적은 식민지에서 반동적 교회의 지배적 위치를 전복시키려는 것이었을 터인데, 이는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로카노의 미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훌륭하게 진지한 책을 해낸 장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시작은 이런 식이다.

안달루시아의 D. 알레한드로 기초트 (Alejandro Guichot) 와 D. 루이스 몬토토 (Luis Montoto), 마드리드의 D. 에우헤니오 데 올라바리아 아이우아르테 (Eugenio de Olavarría y Huarte), 카탈루냐의 D. 호세 페레스 바예스테로스 (José Pérez Ballesteros), 아스투리아스의 D. 루이스 히네리 아리바우 (Luis Giner Arivau), 포르투갈의 콘시글리에 페드로소 (Consigliere Pedroso) 와 그의 『포르투갈 민중의 전통 Tradições populares portugeuzas』, 그 외의 다른 이들이 수집한 민속학 자료를 이용하여, 나는 지난 몇 세기 동안 스페인인들이 여기에 소개했다고 여겨지는 미신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스페인 지배의 초기 시대에 가장 우스운 믿음들 las creencias más absurdas 이 이베리아에서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목록은 아무에게도 놀랄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¹⁹

장난기 있게도 목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수탉이 노년에 다 다르거나 누군가의 집에서 7 년을 보내면 알을 낳는데, 초록색도 마뱀 같은 것이 그 알을 깨고 나와 집 주인을 죽인다. 그러나 포르투갈인들과 프랑스인들에 따르면 부화되는 것은 뱀이다. 뱀이 주인을 먼저 발견하면 주인이 죽지만, 주인이 뱀을 먼저 보면 운명은 뱀을 덮치게 된다. 이탈리아인들과 영국인들은 일부 중앙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화되는 것은 바실리스크라고 믿는다. 페이호신부 (Father Feijóo) 는 “사실이다, 수탉은 나이가 들면 정말로 알을 낳는다”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인들과 일로카노인들은 알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전갈이라는 데 동의한다.²⁰

¹⁹ 같은 책, p.74. 이어지는 각주에서 이사벨로는 이 저자들의 연구 제목을 제공한다. El Folk-Lore Andaluz; Costumbres populares andaluzas; El Folk-Lore de Madrid; Folk-Lore Gallego; Folk-Lore de Asturias. 그는 또한 긴 문학적 회극 largo juguete literario 으로 묘사되는 『우리의 연대기가 말하는 필리핀의 악마 El Diabolo en Filipinas, Según rezan nuestras crónicas』 라는 제목의 자신의 예전 저작을 가볍게 언급한다.

²⁰ 같은 책, p.75. 나와 있는 출처는 위에 인용된 페드로소의 연구와 Rolland, Faune populaire de la France; Castelli, Credenze ed usi popolari siciliani; V. Gregor, Notes on the Folk-Lore of the North-East Scotland [원문 그대로], Larousse,

핀지역의 민속학 단체를 구하기 위해, 나는 「엘코메르시오」의 비평가의 관점을 반박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며, 그의 암시를 이용하면서 나는 필리핀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명화된 ilustradas, 그리고 학문에 열심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척했다 [주장한다고 추정했다?]?” 라는 뜻이다. 완벽하게 시대착오적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엘코메르시오」의 칼럼니스트의 비판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필리핀인 학자들 Filipino scholars 이 분명히 있다는 과감한 주장으로 답함으로써 필리핀 민속학회 Filipino Folklore 의 창설을 변호하고자 했다.”¹⁴ 이사벨로가 필리핀 제도라는 지역적인 부분을 포함한 지구적인 민속학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자리에서, 그리고 특정한 종족성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필리핀에서는 문명화된 사람들에 대해 말할 자리에서, 이번 역자들은 필리핀인들의 민속학을 창조해 내기 위해 ‘지역의’를 생략했으며, ‘문명화된 사람들’을 ‘필리핀인 학자들’이라는 기발한 말로 대체했다.

숲의 형제들

『엘폴코로레 필리피노』에서 이사벨로는 스스로를 ‘필리핀인 a Filipino’라고 묘사하지 않는데, 이는 식민지에서는 아직 민족주의적인 어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리핀인 un filipino 은 바로 그가 아닌 것, 즉 크리올을 뜻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른 방식들로 묘사한다. 이를테면 가끔은 토착민 (그러나 결코 경멸적인 스페인어 단어 ‘인디오’는 쓰지 않는다) 이라고, 또 가끔은 일로카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주목할 만한 절에서 그는 이렇게 논한다. “애국심 patriotism 에 대해 말하자면, 나에게 는 오직 일로코스와 일로카노인들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는 언급을 신문들이 종종 하지 않았던가? 모든 이는 그 나름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푸에블로’를 섬긴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나의 ‘푸에블로’의 과거를 조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자신의 객관성이 너무나 엄격하거나 머지 “일로카노인들에 대한 애정을 과학에 희생시켰고, 일로카노인들은 내가 그들의 풍습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만을 공표했다고 불평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나는 유럽의 다양한 석학들 sabios 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는데, 그들은 내가 그릇된 애국심을 치워 버림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조국 mi patria adorada 일로코스에 괄목할 만한 공헌을 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내가 학자들에게 선

¹⁴ Dizon-Imson, p.13.

사시대를 비롯하여이 …… 지방 [원문그대로임] 에 관련된 과학적인 주제들을 연구할 수도 록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¹⁵

리살은 그의 분노에 찬 소설 『놀리메탕헤레』 를 모국을 향한 유명한 서문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 자신의 안녕이 기도한 그대들의 안녕을 바라며, 그리고 [그대들의 병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을 찾으며, 나는 옛사람들이 병자들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들에게 쓰려고 한다. 그들을 사원의 계단에 내놓아, 신에게 기원하러 온 사람들이 저마다 치료법을 제안할 수도 록 하는 것이다.”¹⁶ 그리고 1896 년 처형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시에서 그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patria adorada’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벨로의 조국이었던가?

『엘폴크로레 필리피노』 의 서문에는 이사벨로가 스스로를 ‘숲에 사는 사람들, 아이타 Aeta 족, 이고로트 Igorot 족, 텅기안 Tinguian 족의 형제로’ 묘사한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 이른바 원시인이라 불리는 이들 대부분은 20 세기가 동티기전까지는 이교도였으며, 많은 수가 스페인 식민정권에 전혀 예속되지 않은 채 일로코스의 좁은 해안 평야에 접한 산악지대에 살았고 또 살고 있다. 소년 시절 이사벨로는 그들이 ‘이상스러운 복장’을 하고 숲의 산물들을 저지대의 상품과 교환하기 위해 숲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곤 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일로카노어의 한 형태가 산악지대 Gran Cordillera 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사벨로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틀림없이 스스로를 ‘일루스트라도 ilustrado’¹⁷ 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길들여지지 않은 요새에 살면서 어떠한 도시적 이교도 스페인화되고 로마가 톨릭화된 환경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숲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사벨로는 필리핀 제도의 다른 어떤 중족 집단도 자신의 ‘형제 hermanos’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그가 그의 지역을 하나의 큰 ‘푸에블로’이자 ‘사랑하는 조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산에 사는 ‘야만적인 wild’ 이교도들과 마드리드에서 상을 탄 인물을 형제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벨로가 그의 원시 민족주의적 proto-nationalist 분투에 있어 왜 소설이나 신문이 아니라 민속학으로 가게 되었는지, 거기저에 깔린 이유를 감지하게 된다. 민속학 (비교민속학) 으로 인해 그는 식민지 사회의 가장 깊이 갈라진 틈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틈은 모두가 똑같이 저지대에 살았고, 로마가 톨릭 신자이며, 늘 서로 교류를 해왔던 식민 지배자와 피 지배자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¹⁵ EFF, pp.18, 17.

¹⁶ José Rizal, Noli me tangere (Manila: Instituto Nacional de Historia, 1978), 속표지.

¹⁷ ‘계몽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일루스트라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유럽의 담론을 접한 19 세기 말 필리핀의 식자층을 이르는 말이다. -역자주

이들과 우리가 오늘날 ‘소수민족들 tribal minorities’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 즉 고산족과 유랑하는 화전민들, ‘사람사냥꾼 head-hunter’들, 폭력적일지도 모를 동화同化, 심지어 절멸의 미래에 직면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심연이었다. 젊은 이사벨로에게는 이렇게 윌리엄 톰스가 만들어낸 ‘민속학’에서 기묘한 새로운 형제애가,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내지 모국이 출현했던 것이다.

기묘한 아름다움들

필리핀 제도에서 이 민속학자의 작업이 가진 더 깊은 목적들은 무엇이었던가? 근대 과학이나 ‘원시인’의 속성을 재구성하는데 잠재적으로 공헌한 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명백히 정치적 성격을 지닌 세 가지 목적을 밝혀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지의 local 문화적 르네상스가 일어날 가능성, 희망이다. 다소의 몽스러운 신중함을 띠고, 이사벨로는 아스톨에게 자신을 대신 해서 이렇게 말하게 한다.

아마 민속학은 필리핀의 주체들에 의고 취되고, 필리핀 시인들 vates 의 마음에서 태어난 필리핀 시 poesiá filipina 의 원천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그렇게 도비웃었던 저 허풍선이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군요. 그러나 그들 더러우다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 ‘푸에블로’에서 발현되는 다른 재능들 ingenio 역시 비웃었고, 그리고 나서 [후안] 루나 (Juan Luna) 와 [펠릭스] 레수렉시온 (Félix Resurrección) 의 윌계관 앞에서 얼떨떨해하며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이전 통과미신적 풍습들은 어느 날 위대한 시인들과 이 풍요로운 정원의 기묘한 아름다움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¹⁸

다른 곳에서 이사벨로는 아스톨을 다시금 인용한다.

데로스레예스씨의 연구와 조사가 토착민들 naturales 의 속성이 로지서투른 칠장이들의 굵뚱뚱질로만 묘사되던 필리핀과 같은 como el filipino [the Philippine one 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Filipino one 으로까지 부를 수 있을지?] 푸에블로들에 접합된다면, 미래를 위한 그 잠재적 인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¹⁸ EFF, p.15.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후안 루나 (1857~99) 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가장 유명한 토착민화가 된 일로카노인 동포였다. 그의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은 1881 년 마드리드의 미술전람회에서 2 위 메달을 땀으며, <스폴리아리움 Spoliarium> 은 1884 년 같은 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레판토 전투> 는 바르셀로나의 미술전람회에서 1888 년 금메달을 수상했다. 펠릭스 레수렉시온 히달고 이파딜리아 (Félix Resurrección Hidalgo y Padilla, 1853~1913) 도 성공적이기는 그에 못지않았다. 히달고는 루나와 마찬가지로 마닐라에서 태어나 자란 타갈로그인이었다.

리살의 『모르가』는당시에나이후에나널리읽히지는않았지만, 이는리살의정치적궤적에서전환점을표상한다. 그는‘필리부스테로’, 어떻게든조국의완전한독립을쟁취하기로결의한애국자가되어가고있었다. (우리가살펴볼것처럼, 『엘필리부스테리스모』는이러한새로운입장을대단히명백하게드러낸다.) 그가『놀리메탕헤레』및스페인의여러공화주의신문에낸여러편의강렬한글들로필리핀인들사이에서얼은명성과함께초래된한가지결과는, 식민본국의해외필리핀인사회내에서불화가커졌다는것이였다. 스페인에서의학생시절에조차리살은거기에서는동포들을경솔함, 여자문제, 게으름, 뒷얘기, 음주벽등등으로중중비난했다. 스페인에친한친구가많이있기는했지만, 멀리북쪽유럽에서보낸나날들로인해그의염증과소외감은더깊어졌다.

그렇지만서로입장이일부수렴하는흥미로운순간도있었다. 1888년말바르셀로나의더진지한필리핀인그룹하나가정치적공간을자유화한사가스타의 1887년법을이용하여활동적인새로운정치조직을결성하고「연대」라블리게될독자적인저널을내기로결정했다. 바르셀로나의분위기는이러한결정에서중요한요소였다. 영향력있는아나키스트저널「라아크라시아 La Acracia」가이미 1886년바르셀로나에서출판되기시작했으며, 동시에마드리드에서는파블로이글레시아스의(마르크스주의)사회당이「사회주의자 El Socialista」를냈다. 그러나 1887년바르셀로나의아나키스트들은마침내잘나가는독자적인일간지「생산자 El Productor」를갖게되었다.⁷⁵ 공화주의와아나키스트조직들이다른여러조직들과더불어급격히증식하고있었다. 필리핀인들의운동은그세대필리핀인정치가들중가장유능했던마르셀로델필라르 (Marcelo Del

⁷⁵ Ortiz, Paper Liberals, pp.57~60 참조. 오르티스는더이후에나온 La Revista Blanca 까지포함한이러한저작물들이생동감있는아나키스트언론이“지적인업격함, 부수, 수명에서사회주의언론을능가했다”는것을드러낸다고논평한다. 또한그는바르셀로나의노동계급사이에널리퍼져있던문맹률이라는여건속에서독자들 lectores 이신문과잡지를커다랗게소리내어읽는독서회가새롭게엄청난인기를얻게되었다고지적한다. 두개의 El Productor 가같은해에출현했다는것은상당히주목할만한점이다. 하나는바르셀로나에서였고, 다른한나는정력적인카탈루냐인아나키스트엔리케로이그이산마틴 (Enrique Roig y San Martín) 이편집주간을맡아아바나에서나왔는데, 그의노동자회 Círculo de Trabajadores 는격월간바쿠닌주의잡지 Hijos del Mundo 도발행하였다. 나는이정보를에번대니얼의미발표논문“Leaves of Change: Cuban Tobacco Workers and the Struggle against Slavery and Spanish Imperial Rule, 1880s-1890s”(2003) 의 pp.23~24 에서얻을수있었다. 이것을읽게해준테데해로빈블랙번과에번대니얼에게감사한다. 대니얼에의하면, 아바나의 El Productor 는정기적으로바르셀로나의 La Acracia 에실린글들과 Le Révolté(사실이미그때 La Révolte 로이름을바꾸었던), 다른비스페인어아나키스트간행물들에서번역된글들을재수록했는데, 무순이유에서인지바르셀로나의쌍둥이를언급하지는않았다고한다. 또한대니얼은많은문맹담배공장노동자들에게독서회가무척이나중요했음을강조한다. 이모든것은이시기아바나와마닐라사이의인상적인대조를드러낸다. 쿠바에서는합법적이고활발한아나키스트언론이번성했으나, 필리핀에서는멀게나마비교할만한것조차전혀허용되지않았다.

그러나 『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서시모운의기본적인기획은모든것을바꾸는것이다. 그는이것을, 남동생이성직자에게살해당하고그때문에어머니까지실성해버렸지만, 어린동생을살해한성직자에대해아무것도할수없다는무력감에빠진젊은의학도바실리오에게말한다.

사악한체제의희생자인나는세계를떠돌며밤낮으로부름그러모고내계획을실현하려고애써왔네. 이제나는이체제를파괴하고, 타락을부추기고, 이것이무감각하게돌진하고있는낭떠러지로밀어뜨리려돌아왔지. 비록내가폭포수와같은은물과피를이용할수밖에없다고할지라도말이야. 체제는스스로에게유죄판결을내린채서있고, 나는체제가벼랑의밑바닥에서산산이부서지는것을보기전까지는죽고싶지않네.³⁰

한편그는‘인질을잡고있는’식민질서전체를더타락시키기위해자신의막대한부름을이용하려한다. 더큰탐욕, 더막대한횡령, 더한잔인함과더깊은착취를부추겨지각변동을일으킨다는것이다. 앞서이야기했듯이, 그의최종적음모는거대한니트로글리세린폭탄을위스망스식으로 Huysman-esque 보석이박힌환상적인석류모양램프안에숨겨마닐라의모든식민지고위관료들이참석하는결혼식파티한가운데설치하는것이다. 한편, 바실리오의사랑하는약혼자인홀리가호색한카마로신부에게굴복하지않기위해자살을택하고, 소년은이제심리적으로“이가중스러운식민지사회의적敵한명더”가될각오가되어있다. 그는‘혁명’을지지하지않는모든성인남성에대한가차없는학살을조직하는것을거둠으로써개인적복수를하라는시모운의설득에급방넘어간다.³¹ 이것은심미적인제스처가아니라정치적인기획이며, 유럽과미국의 1880년대와 1890년대가절망과희망을동시에 품은아나키스트들이행한극적인암살의전성기였다는것을떠올리게한다. 이연관은이후의장에서상세히논의할것이다.

시도해보지않은쾌락

마지막으로, 『거꾸로』에는데제생트가매력적인 10대소년을데려와몇달동안성관계를갖는장면이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이간략하게묘사된다.

데제생트는그일을다시떠올릴때마다전율을느꼈다. 그는그보다더매혹적이고, 더절박한사로잡힘을한번도겪어본적이없었다. 그는결코

³⁰ El Filibusterismo, p.46.

³¹ 같은책, 제 30, 33, 35 장.

그러한위험을경험해본적이없었으며, 더고통스럽게만족해본적도없었다.³²

이문장들을맥락과무관하게받아들여서는안될것이다. 데제생트는 위스망스자신처럼이성애자였으며, 애인을긴꺾미로거느리고있었다. 소년과의정사는‘시도해보지않은쾌락’을향한플로베르식탐색의일환으로보인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는이장면에상당하는이야기가없으며, 시모운은거의무성적 asexual 인인물로나온다. 그럼에도이는우아한‘동중요법가’와그가좋아하는제자에대한, 반쯤삭제된묘사를위한맥락을시사한다. 『거꾸로』에서데제생트의아방가르드시취향에관해설명하는부분에서는말라르메뿐만아니라폴베를렌 (1842~96) 에게도최고의찬사를아끼지않는다. 그리고 1903 년소설의재판을위해쓴서문에서위스망스는아르튀르랭보 (1854~89) 가『거꾸로』가최초로나온해전에시집을발표했다라면그에게도마찬가지의찬사를보냈을것이라고선언하였다. 그러나신기원을이룬랭보의시집『일루미나시옹』은두해가지난 1886 년에서야, 『놀리메탕헤레』에바로앞서등장했고, 이는랭보가시와유럽을집어던진진지오래된때였다.³³

베를렌과랭보는 1870 년대에폭풍과같은연인으로‘악명’을날렸으며, 그들의시몇편은성관계에대해명확하게언급하였다. 베를렌은위스망스의평생지기였으며, 거기다가아방가르드문학계에서는부르주아적이고공식적이며로마가톨릭적으로바람직한도덕성의개념을경멸하

다는것을깨닫고있었다. 존재하는필리핀역사라고하는것은대개교단의일원들, 아니면나중에는인종주의적인스페인의보수주의자들이만들어낸것이였다. 이방면에대한그의관심은아마도, 우리가이미살펴보았듯이, 그보다조금더어린이사벨로데로스레에스가획기적인작품『엘올크로레필리피노』로 1887 년마드리드박람회에서상을탄것에대한라이벌의식으로자극을받았던것같다.⁷³

대영박물관에서리살은그가찾던것, 1609 년멕시코에서출판된안토니오데모르가박사 (Dr. Antonio de Morga) 의초희귀본『필리핀제도의역사 Sucesos de las Islas Filipinas』를발견했다. 모르가는서른네살의나이로 1595 년마닐라의법원판관직과부지사직을수행하기위해필리핀에도착했다. 그는당시로서는드물게도교회의편견에몰리지않은현실적인사고방식을가진엄격하게정직한시민지관료였다. 이책을공들여손으로베끼다음, 리살은직접방대한주석과해설을달아책을재출간하기로결심했는데, 그주석과해설은교회의연대기와비교했을때현지사회에더호의적인모르가의설명 — 문명의수준과평화로운풍요, 중국과일본및동남아시아각지와외교관계에관한 — 이상대적으로더신빙성이있다는것을보이기위한것이였다. 그는파리의가르니에출판사에서이책을내게되었는데, 출간연도는공식적으로는 1890 년이지만실제로는 1889 년말이였다.⁷⁴

⁷³ 리살은블루멘트리트가이사벨로와도서신을교환하고있다는것때문에기분이상했던것같다. 1888 년 4 월 30 일그는샌프란시스코로부터다음과같은신경과민성의편지를벗어게보냈다. “내가보기로는, 민속학자나장래의인류학자여러명이일로코스에서온것같네요. 당신하고교제를하는델로세레씨 (이사벨로의필명) 도있고요. 내가알아차린것한가지는, 필리핀민속학자들대부분이일로카노인이고, 그들이‘일로카노’를통칭으로쓰기때문에, 인류학자들이필리핀것이라고해야할관습이나속속들이일로카노것이라고분류하게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이는우리의잘못이지요. 나는이사벨로의책을지금 갖고있는데, 유럽에서당신에게코멘트를보내려고합니다. 몇가지틀린점이있는데, 아마그가타갈로그언어를완전히이해하지못하기때문인것같군요.”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vol. 1, p.165 다음번호가없는쪽, “당신하고교제를하는”에서통명스러운투를알아챌수있을것이다. 리살은자신의첫번째소설을“타갈로그소설 novela tagala”이라불렀고, 명백하게일로카노어를한마디도이해하지못했는데도이것은관망고, 딱한이사벨로는필리핀것들을일로카노것들이라고하고타갈로그어를완전히익히지못했다고욕을먹는것도한눈에띄는점이다!

⁷⁴ 게레로는그의책 First Filipino 에서모르가의원본과리살의주해본양쪽에대한길고흥미로운논의를펼친다 (pp.205~23). 1890 년이사벨로는「연대」에이책을높이평가하는리뷰를쓰면서, 그러나리살의애국심때문에몇가지과장된점이있다고지적했다. 리살은화가머리끝까지나서신랄하고경멸적인답변을작성했는데, 내용은기본적으로이사벨로를기껏해야손이나잡간대본수준의아마추어로매도하는것이였다. 두사람모두의친구였던후안루나는리살에게그의말에도맞는점이많이있기는하지만이런식의공격은마닐라의스페인인들이필리핀인진영의분열에대해박장대소하게만들뿐이라고편지를썼다. 이사벨로가진실로심하게혹평한것은아니리살쪽에서그냥놔두어야한다는것이였다. 1890 년 11 월 8 일자편지.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de la propaganda (Manila: José Rizal Centennial Commission, 1961), Tomo II, Libro 3, Parte 2a, pp.587~88.

³² À rebours, pp.146~48. 인용된구절은 p.147 에있다.

³³ 랭보의유럽탈출은보통그가아덴에서사업대리인으로, 그후에는하라르에서메넬리크를위해무기밀매업자로주요일하며보냈던 10 년과관련지어지곤한다. 그러나실제랭보가처음으로유럽바깥을여행한것은 1876 년의일로서, 그가네덜란드식민군대에모집된용병으로네덜란드령인도 [현대인도네시아의‘모태’— 역자주] 에갔을때이다. 그는확실히그로부터 3 년전, 식민정권이이후아체인민을정복하기위한잔인한 30 년간의군사작전이될일을시작했다는것을알고있었다. 7 월 20 일아덴으로부터바타비아 [현재의인도네시아수도자카르타 — 역자주] 에도착하여중부자바로보내지전까지그는 2 주간을신병캠프에서보냈다. 2 주일후그는탈영했고, 유럽으로설탕을실어나르는, 선원이부족한배의스코틀랜드인선장과일종의협상에도달할만큼긴시간동안당국을피해지낼수있었다. 선원‘미스터홉즈’로가장하여, 그는 90 일간의극심하게피로한항해를견디어내며희망봉을거쳐코크에도달했고, 12 월초프랑스에모습을나타냈다. 그가그 2 주간복했던툰탕의막사는스마랑항구뒤의서늘한언덕에아직평온하게존재하고있다. 그는 1879 년 6 월에덴으로돌아갔다. (조스위비소노 Joss Wibisono 에게이정보와아래참고문헌에대한감사를전한다.) 1882 년초여름, 배가유럽을향하면서홍해에들어가기전에아덴항에달을내렸다떠날때, 쟈나호의갑판에서스몰여덟살의랭보를향해손을흔드는스무살의리살을상상하는것은흐뭇한일이다. Graham Robb, Rimbaud (London: Picador, 2000), chapter 25; Wallace Fowlie, Rimbaud: A Critical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51ff 참조.

아노웨일레르장군, 그전에아바나에서직책을수행하며가혹함으로이름을날렸으며 1890 년대중반에는미국의언론덕분에세계적으로‘쿠바의도살자’로악명이높아진자를임명하는치명적인결정을내렸다.⁷¹ 테레로의자유주의적고문들은금세해고되거나전속되었다. 1891 년웨일레르는포병 1 개분대를보내집몇채를통째로불태우고‘불법’점유지를강제로비워버림으로써칼람바임차인들의불응이라는문제를마침내‘해결’하는인물이된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서웨일레르는시모운의파베르제폭탄의주요목표물로서이명으로등장한다. 리살이이냉혹한장군의임기가끝날때까지필리핀으로의최종귀국을늦춘것은놀랄만한일이아니다.

이주자민족주의내부의분열

유럽에서음으로장기체류할때에리살은주요학업과소설창작으로서기간을보냈다. 이것은멀리지나간일들로, 그는이제무엇을할지심사숙고해보아야했다. 스스로깊이책임감을느끼고있던칼람바의재난으로크게쓴맛을본데다사가스타가웨일레르를마닐라로보낸것에대해큰멸을느낀그는, 해답은(문화적) 민족주의정치에더직접적으로뛰어드는것이라고생각했다. 런던에서살기로한결정에부분적으로박차를가한것은블루멘트리트를비롯한학자친구들이그에게중요성을깨우쳐준대영박물관의연구관련컬렉션이었다. 신문과저널로부터그는쿠바와오스만제국, 동방은말할것도없이, 유럽의왕정제국들내에서민족주의가떠오르고있음을관찰할수있었다. 이모든민족주의의자기표현에서중심이되는것은수치스러운현재뒤에있는영광스러운과거를되살리기위한민속학자들과역사가들, 사전편찬자들, 시인들, 소설가들, 음악가들의노력, 특히제국의언어를현지에서쓰이는지방어로대체하여민족적정체성을세우고공고화하려는움직임이었다. 그는중국인, 일본인, ‘아메리카인’으로오해받았으며, 그의나라가유럽에전혀알려져있지않다는것을깨달았던초기의충격을결코잊지않았다. 나아가그는, 이를테면말라야⁷²나버마, 인도, 실론, 캄보디아, 베트남같은나라들과는달리, 필리핀에는유럽정복을거치고도살아남아있는식민지배이전의문헌화된기록이없

⁷¹ 웨일레르 (1838 년생) 는이력의처음 10 년 (1863~73) 을대부분카리브해에서보냈다. 제 1 도미니카공화국이 1844 년아이티로부터성공적으로떨어져나갔다가, 1861 년페드로산타나대통령의주도로다시스페인제국에편입되었다는사실이기억날것이다. 1863 년이반역에대항하여아이티의도움을받은대중적항쟁이터졌다. 웨일레르는반란진압을위해쿠바로부터최초로파견된젊은장교들중한명이었다. 미국의압력과군사적패배로인해마드리드는 2 년후군대를철수하고제 2 도미니카공화국을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다.

⁷² 말레이반도의영국식민지, 말레이시아의전신.-역자주

는것이명예를따내는포인트였다.³⁴ 동등하게선봉적인반응을불러왔던『거꾸로』와『일루미나시옹』의중간시점인 1885 년후반리살이파리에체류했다는것과, 이후에도그각파리를빈번히방문했다는것을생각하면『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서의남녀동성애에대한암시는부분적으로그가파리에서탐독한책과잡지로부터나왔을듯하다. 더구나레비언의애정은발자크의시대이래로 19 세기프랑스문학에서무척세련된주제로여겨졌다. 그렇다면이구절들은카사노바의‘문학공화국’에서확실한회원권을주장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이전에위스망스가파리지엔사회의스케치 — 그의초기문학사부엌에밀줄라의건전한계열인 — 를펴냈다는점에 주목할만한것같다. 그제목은“파리지엔부류들 Types parisiens”로, 어조는다르지만이름으로는『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풍자적인“마닐라인부류들 Tipos manileños”과일치한다. 그리고리살의두번째소설이위스망스가그의다음아방가르드폭탄, 악마적인『라-바 Là-bas』 — 스페인어로는‘Allá’로꼭맞게번역되는 — 를발표한것과같은해에나왔다는것도즐거워할만한일이다.

프랑스어의사치

위스망스에대한이야기가길어지는데, 1884 년 5 월에나온『거꾸로』가특히로마가톨릭성직자들과‘좋은생각 bien-pensant’에익숙한부르주아사회를분노시키면서‘스캔들로인한히트 succès de scandale’를크게쳤다는것까지만관찰해두기로하자.³⁵ 스물네살의리살은 14 개월후파리에도착했고, 1886 년 1 월독일로떠날때까지그곳에머물렀다. 『거꾸로』는여전히회자되고있는문학적화제였다. 우리는리살이당시 유명했던안과의사에게수업을받았다는것말고는그가파리에서뭘했는지거의모른다. 그러나그는친한필리핀친구들과살았고, 그중에는문헌학자트리니다드파르도데타베라뿐만아니라그마술적인도시에서오래살았고프랑스어가더유창했던화가후안루나도있었다.³⁶

³⁴ 잠시언급하고넘어가자면, 당시파리에는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에서와마찬가지로이미남녀동성애자들의바와그들이어슬렁거리는지역들이루어진조직된지하세계가있었으며, 위스망스는관광객마냥동성애자친구인작가장로랑과함께그세계를이따금방문하였다. Ellis Hanson, *Decadence and Catholicism*(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chapter 2 “Huysmans Hystérique”, 특히 p.149 참조.

³⁵ 위스망스 자신이 1903 년의서문에서회상하기를그의책은‘운석같이문학박람회장에떨어졌고, 망연자실함과격노가뒤섞여있었다.’ 그가일으킨온갖서로다른, 그리고서로모순되는적의에대한그의유쾌한묘사는 pp.25~26 에서찾을수있다.

³⁶ 리살의프랑스어능력은아직진지하게연구된바없다. 그의 *Diario de viaje. De Calamba à Barcelona*(1882) 에서 5 월 12 일항목을보면, 배에서윌터스콧의『쿠엔

리살은 『놀리메탕헤레』의 4분의 1을파리에서썼다고말한적이있다.³⁷ 이후그는세계적독자층에다달기위해두번째소설을프랑스어로쓰는것을심각하게고려했다. 베를린에서리살과함께했던시간에대해쓴회고록에서, 막시모비올라는이렇게떠올린다.

내가그에게이끌대없는프랑스어의사치에대한이유를물었을때, 그는그목적이『놀리메탕헤레』가실패로드러나고, 동포들이그작품이뜻한바에반응하지않을경우에는프랑스어로쓰기시작하려는것이라고내게설명했다.³⁸

1890년 7월 4일자편지에서블루멘트리트(Ferdinand Blumentritt)는리살에게이렇게썼다. “나는자네가프랑스어로쓰려고하는그책을열렬히기다리네. 어마어마한반향을일으킬것이라내다보네.”³⁹ 중국에는, 물론 『엘필리부스테리스모』는프랑스어가아니라스페인어로쓰였다. 책이인쇄된것은 1891년젠트에서였는데, 이는그로부터 3년전인 1888년제임스앤소르가그의비상하고예시적인아나키스트혁명화畵〈1889년그리스도의브뤼셀입성〉, 매우리살적으로신랄한사회풍자와만화적익살, 낭만주의, 반란을섞어놓은그작품을끝낸오스텐드에서 64킬로미터밖에떨어지지않은곳이었다. 명확히우연의일치이나, 흡족한일치이다.

복수를쓰다

위대한네덜란드인작가에두아르트다우에스테커(Eduard Douwes Dekker, 필명몰타툴리, 1820~87)와 1860년에처음발표된후 1860년대와 1870년대에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번역된그의폭

틴더워드 Carlos el Temerario를프랑스어로읽는데에는말하기나쓰기는꼭필요하지않다고하더라도어떤실질적인독해능력이요구되었을것이다. Rizal, Diarios y memorias(주 52)에인용된, p.47을보라. 그런데 8년후브뤼셀에서막역한친구인오스트리아인민족학자페르디난트블루멘트리트에게보낸 1890년 6월 28일자편지에서는주위에있는가장좋은선생에게프랑스어를열심히배우고있다고썼다. Cartas entre Rizal y el Profesor Fernando Blumentritt, 1890~1896, in Correspondencia epistolar(Manila: Comisión del Centenario de José Rizal, 1961), Tomo II, Libro 2, Parte 3, pp.668~71 참조. 말하기와쓰기만배우고있었던것일까?

³⁷ León Ma. Guerrero, The First Filipino, a Biography of José Rizal(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87), p.121. 이책은리살의파리체류에대해 2쪽만을할애한다. 그하나의이유는리살이그 7개월동안가족을비롯하여사람들에게보낸편지가눈에띄게드물다는점일것이다.

³⁸ Máximo Viola, Mis cjaes con el Dr Rizal, in Diarios y memorias, p.316 참조.

³⁹ Cartas entre Rizal y el Profesor Fernando Blumentritt, 1890~1896, p.677에있는편지.

았다.⁶⁹ 마닐라에서며칠머무른뒤, 리살은가족과함께지내며진료를열기위해고향갈라바르돌아갔다. 그러자그의적여러명이작업에들어갔다. 1887년 9월 5일에블루멘트리트에게보낸편지에서그는이렇게쓴다.

나는매일위험을받습니다. …… 우리아버지는내가혼자산책을나가지도, 다른가족과식사를하지도못하게합니다. 어르신이겁을먹고떨고있는거지요. 사람들은나보고독일의스파이나요원이라고하더군요. 비스마르크의요원, 개신교도, 프리메이슨, 요술사, 이미지옥에반은떨어진영혼, 등등이라는겁니다. 그래서집에머무르지요.⁷⁰

더나쁜일이기다리고있었다. 앞서이야기했듯이리살가족의부富有는지역도미니크회대농장에서임차한광대한토지에기대고있었다. 1883~86년의공황시기부터수사들은, 심지어세계설탕가격이폭락했을때에도, 임차료를가파르게올리기시작했다. 게다가그들은주민들이생각하기에그들에게어무런권리가없는다른토지들까지도전유하였다. 리살이돌아올무렵리살의친척들을비롯한여러임차인들이임차료납부를중단하고자신들을위해개입을해달라고마닐라에청원하고있었다. 도미니크회가세금을속이고있다고의심한테레로는조사단을파견했지만그리고나서는아무것도하지않았다. 이시점에서수사들은법원의퇴거명령을언어내공격에들어갔다. 리살의가족은의도적인주요목표물로선택되었다. 양쪽모두이후 4년동안상급심으로올라가며소송을했고, 심지어스페인의대법원까지갔지만, 의외의일은일어나지않았고도미니크회가이겼다. 그동안리살의식구들은집에서쫓겨났고굶허기질않았던다른주민들도같은꼴을당했다. 그때즈음리살은모든이들에게서나라를떠나는게 좋겠다는충고를받았는데, 이는그가이저항의배후조종자라는의심을받고있었기때문이다. 총독조차더이상젊은소설가를보호해줄수없다는말을전했던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1888년 2월리살은나라를떠나, 먼저빠른속도로자율적근대화를이루고있던독립적인아시아강국을얼른직접둘러보기위해일본으로향하는배에올랐으며, 그리고나서며칠간미국에들른후마침내영국으로향했다.

거의같은시기에테레로의임기가끝났고, 사가스타정부는스페인과식민지의보수주의자들로부터거센정치적압력을받아그자리에발레리

⁶⁹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180.

⁷⁰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vol. 1, p.133 이후번호가없는다섯번째쪽. 비스마르크는제국에게 1순위의충성을바치도록독일로마가톨릭에강요한 1870년대 10년간의문화투쟁(Kulturkampf)으로교회인사들에게는뿔달린괴물로인식되고있었다. (이는부분적으로교황의무오류성이공표된데대한그의대응이기도했다.) 그러나스페인령오세아니아에관한비스마르크의계획으로인한더큰두려움이존재하기도했다. 1885년제국해군이케를라린제도에서독일인사업가들의안전을보장할것이라는제국총리의발표가있었던것같다. 스페인군대는저항을진압하고마드리드의주권을완전히관철하기위해급히그곳으로달려갔다.

었다. 1891년이되어리살이그의벗에게 『엘필리부스테리스모』 의서문을 써달라고청한것은자연스러운일이었다.⁶⁷

최초의귀향

두번째로권력을잡으면서사가스타는온건한편인에밀리오테레로이페리나트(Emilio Tererro y Perinat) 중장을새로운필리핀총독으로임명했다. 총독은능력있는반교권주의적인부하두명에게크게의존했는데, 두명모두프리메이슨단원이었다. 마닐라의민정장관 civil governor 인호세센테노가르시아(José Centeno García)는공화주의에동조하는광산기술자로, 보기드물게도필리핀에서 20년이나지낸경험을갖고있었다. 또한더젊은쪽인민정담당관 director-general of civil administration 베니그노키로가로페스바예스테로스(Benigno Quiroga López Ballesteros)는코르테스에서자유주의자의원직을지낸적이있었다(센테노는이름은밝혀지지않지만경의를표하는방식으로 『엘필리부스테리스모』 에등장한다). 이두사람은기초단위의사법권을행정지사로부터빼앗아새로운직책인치안판사에게넘기는법을단호하게시행했으며, 마찬가지로도단위지사의사법권을제 1 심판사에게반환시켰다. 이러한조치들은전통적으로지방행정부를통제함으로써지방정부에대한확고한지배를유지하던수사들의권력을깎아내고자의도된것이었다.⁶⁸

리살은이런유망한분위기에대해알고있었다. 블루멘트리트와작별한후그는스위스를재빨리돌아보고로마에들른후마르세유에서배에올랐다. 1887년 8월 5일그는마닐라에돌아왔다. 『놀리메탕헤레』에관한소식(그리고그책몇권)이그보다먼저들어와있었고, 그는자신이명성과악명을모두가진인물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 교단과마닐라대주교는이이단적이고반역적이며, 비방이담긴책을금지하고저자를엄하게처벌할것을요구했다. 그러나리살은, 아마스스로도놀랐을텐데, 다른누구도아닌테레로총독과의단독접견을위해불려갔고, 테레로는자신도그소설을읽어보고싶으니한권달라고청했다. 우리는총독이책에대해어떻게생각했는지알수없지만, 그소설은그의통치기간동안에는금지되지않

⁶⁷ 이문단들은부분적으로 1983년빈에서처음출판된 Der Revolutionär von Leitmeritz 의번역본인 Harry Sichrovsky, Ferdinand Blumentritt: An Austrian Life for the Philippines(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87) 의짧은제 1 장부터제 3 장까지에의존한것이다.

⁶⁸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178~80 과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109~14 를비교해보라.

탄같은반식민지소설 『막스하벨라르』 에대해연구하다가나는상당히다른방향에서의통찰을얻게되었다. 이책은식민지에서구체적인경험을바탕으로쓰인최초의반식민지소설들중하나로남아있다. 또한 『막스하벨라르』 는무엇보다도, 억압받는토착민들을옹호하려다부패한식민관료들과음험한토착민우두머리들의작당으로정치적·재정적파멸을맞는젊고이상주의적인영웅(『놀리메탕헤레』 의이바라와같은) 에대한이야기이다. 이소설은다우에스테커가자신을식민지의관료직에서내몰아빈털터리로집에돌아가도록했을뿐만아니라자바농민들에대한잔인한착취를계속하고있던힘있는적들에게놓은맞불로이해된다.

리살은 1888년런던에있는동안 『막스하벨라르』 를마주했는데, 아마상당히괜찮은영역본이었을것이다. 그는 『놀리메탕헤레』 가나오고다우에스테커가죽은직후에이책을읽고있었다. 12월 6일자편지에서리살은블루멘트리트에게이렇게쓴다.

내가하나구하는대로자내게보내려고하는물타물리의그책은비상하게흥미롭네. 의심할바없이, 내책을훨씬능가하네. 그래도작가가자신이네덜란드인인가답에, 그의공격은내것만큼강력하지가않아. 자바에서는네덜란드인들의삶의한측면만을드러내고있을뿐이지만, 한층예술적이고한층격조가높기는하네.⁴⁰

이렇게리살은, 사반세기나떨어져쓰이긴했지만, 자신의소설과다우에스테커의소설사이의유사성을인지하고있었다. 이젊은필리핀인이 『막스하벨라르』 에서어떻게소설이반식민적인정치적, 그리고개인적복수를위해강력하게쓰일수있는지에대한하나의예를찾아냈을가능성이매우크다. 이주장에대한근거는 『엘필리부스테리스모』 를더자세히분석하는다음장에서펼쳐질것이다.⁴¹

로돌프의아이들

폴빈센트의뛰어난논문은 『막스하벨라르』 와 『놀리메탕헤레』, 『엘필리부스테리스모』 를명시적으로비교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의시대네덜란드어문학세계를경멸하고있었던다우에스테커가 『돈키호테』 와 『트리스트럼샌디』 를송배했으며, 영어권의윌터스콧과프랑스어권의빅토르위고, 뒤마페레, 외젠쉬에게영향을받았다고지적한다. 또한빈센트는막스하벨라르와크리소스토모이바라가명백하게쉬(1804~59) 가그

⁴⁰ Cartas entre Rizal y el Profesor Fernando Blumentritt, 1888~1890 in Correspondencia epistolar, Tomo II, Libro 2, Parte 2, p.409 에담긴편지.

⁴¹ 우리가발견하게될것처럼, 1889~91년사이리살의가족은식민정권과도미니크회 의합작에의해재정적으로파산에처했다. 그의아버지와파시아노형, 두누이들과그남편들은군도의외딴지역으로유배당해있었다.

의 1844~45 년작블록버스터 『파리의신비 Les Mystères de Paris』에서 영웅으로 만들었던 ‘사회주의자’ 귀족로돌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승화된 영웅들이라고 언급한다.⁴² 리살이나 다우에스테커와 마찬가지로 쉬는 댄디로 출발했지만, 1843 년경 정치적 전환을 겪고 열렬한 (프루동주의) 사회주의자이자, 모든 프랑스 제국주의자 가운데서도 우뚝 선 자이자 자신을 망명과 궁핍, 그리고 리살이 태어나기 3 년 전에는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루이나폴레옹의 정력적인 적이 되었다.⁴³

쉬는, 경쟁적인 일간신문들에 연재되면서 소설가들에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주었던 신문소설 romans-feuilleton 이라는 혁신으로부터 크게 이득을 보았고 그것을 이용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모든 주요 유럽 언어들로 빠르게 번역되었다.) 신문 발행인들은 재능 있는 작가들을 독려하여 기고하는 스펠스와 음모, 이국적 취미, 꺼지지 않는 비극적인 사랑들, 복수, 풍자,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파노라마식의 전경으로 독자들을 매혹하며 다 붙잡아 두도록 했다. 이런 종류의 연재 소설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의 명의 전지적 화자와 이 배경에서 저 배경,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의 빠르고 급작스러운 이동, 그리고 상당히 자주, 교화적인 대중주의 populist 정치를 통해 다수의 플롯을 함께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소설은 루이나폴레옹 치하에서 대개 탄압을 받았다.) 쉬의 두 번째 대히트작으로 1845~46 년에 걸쳐 발표되었던 『방랑하는 유대인 Le Juif Errant』은 그 축수가 시베리아, 북미, 그리고 …… 자바! 자바까지 닿은 사악한 예수회 수사에의 해사방으로 뻗친 구조를 하나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하나의 흥미를 끌었다.⁴⁵ 리살의 소설들은 한번

⁴² Paul Vincent, “Multatuli en Rizal Nader Bekeken”(Further Reflections on Multatuli and José Rizal), *Over Multatuli*, 5(1980), pp.58~67.

⁴³ 쉬에 대한 재치 있고 지적이면서 호의적인 전기로는 Jean-Louis Bory, Eugène Sue, le roi du roman populaire (Paris: Hachette, 1926) 가 있다. 1,300 여쪽에 달하는 이 소설의 관찰은 최근 판본으로는 1989 년 파리의 로베르 라퐁 (Robert Laffont) 출판사가 펴낸 것이었다.

⁴⁴ Charles Bernheimer, *Figures of Ill Repute: Representing Prostitution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47; Paolo Tortonese, “La Morale e la favola: Lettura dei Misteri di Parigi como prototipo del roman-feuilleton [도덕성과 이야기: 신문소설의 원형으로서의 『파리의신비』에 대한 독해]”(mimeo, n.d.) (이 글을 나에게 한 부준프랑코 모레티에게 감사할 전한다) 참조. 선구적인 편집자는 1836 년에 그의 새물운 신문 『라프레스 La Presse』에 발자크의 『노처녀』를 연재하기 시작한 에밀 드 지라르맹 (Émile de Girardin) 이다.

⁴⁵ 내가 손에 넣은 텍스트는 1,500 쪽이 넘으며, 런던과 뉴욕에서 조지 러트리지 앤스 George Routledge and Sons 가 1889 년 출판한 3 권짜리 영역본이다. 이 판본은 19 세기 스타일의 빼어난 삽화들을 담고 있다. 예수회 수사의 대리인 중에는 수상한 네덜란드인 식민지 사업가도 있고, 인도로부터 망친 살인에 능숙한 암살단원 Thug 도 있다. (동인도 회사 총독 윌리엄 벤틙크가 직업적 강도와 살인자들의 계층으로서 희생자를 보통 교살하곤 했던 암살단에 대한 근절 작전이나 선것은 1831 년으로, 『방랑하는 유대인』이 연재되기 시작한

문계 중등 교육 기관의 교사로 일했다. 해야 할 일들과 건강에 대한 병적인 우려로 인해 그는 삶의 남은 기간 동안 보헤미아 바깥으로 육체적인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아이였을 때, 페루인 크리올과 결혼했고 모가왕 정주의 자남편이 1824 년 절정의 아야쿠초 전투에서 볼리바르의 군대에 의해 죽은 후 페루로부터 돌아왔다. 소년은 고모의 집에 있는 이국적인 책들과 스페인 식민지의 자잘한 물건들에 흠뻑 빠졌다. 리살처럼 천부적으로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일찍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영어의 독해 능력을 습득했다. 스페인 제국 내에서 그는 특히 필리핀에 반했으며 1879 년이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책을 출판했다. 3 년 후, 정확히 리살이 유럽에 처음 도착했을 무렵, 필리핀 제도의 수 십 가지 나 되는 언어-종족 집단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학술 연구인 블루멘트리트의 획기적인 저서 『필리핀 민족지학 시론 Versuch einer Ethnographie der Philippinen』이 나왔다. 그 후 30 년간 필리핀의 언어·역사·지리·정치를 다룬 업적들이 200 가지도 넘게 뒤따랐다. 그 결과로, 그는 빠른 속도로 유럽 내에서 필리핀 제도에 관한 학문적 권위자가 되었다.

지적인 젊음은 필리핀인들이 그에게 끌리고 자신들의 대의 명분이 그를 끌어 넣으려 했던 이유가 이것뿐이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는 프란츠 요제 프황제에 전적으로 충실했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로베르트 무질이 냉소적으로 표현했듯이 “식민지”나 “해외” 같은 말들이 아직 완전히 새롭고 낯선 것으로 들리던 그런 유럽 제국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는 반동적인 스페인 교회를 배려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였던 그는 곧 필리핀의 곤경에 공감하게 되었다. 현학자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지방 정치에 투신했으며, 아마추어 연극을 조직했고, 스케치를 즐겼으며, 날카롭고 위트 있는 펜을 연마했다. 그는 뛰어난 요리사이기까지 해서, 리살이 라이트메리츠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의 대표적 음식들을 빠짐없이 차린 향연을 준비하여 그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집은 필리핀의 물건들로 꽂아서 도서관과 박물관을 합친 것 같이 보였다.

두 자그마한 남자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들은 리살이 1886 년 9 월 하이델베르크로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공식적 편지를 보낸 후 곧 이를 알아차렸다. 18 개월 안에 그들은 호칭을 존칭 ‘지 Sie’에서 비존칭 ‘두 Du’로 바꾸었다. 리살은 더 나아가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필리핀, 특히 고향인 타갈로그 지역에 관해 익숙한 정보를 제공했다. 블루멘트리트는 그에게 베를린, 라이덴, 런던의 관련 학자들을 소개 해주었으며, 이 필리핀인이 아무 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던 초기 필리핀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 주

진정한공포를날았다.⁶⁴ 경찰은수백명이나되는사람들, 아나키스트들, 농민들, 산적들을잡아다문한직후‘검은손 La Mano Negra’이라는 거대한반란음모조직이적발되었다고주장했다.⁶⁵ FTRE 는지지의손길을내밀기는커녕탄압을피해보려는희망으로이를범죄행위라부르며확실히선을그었다. 이입장은도움이되지않았고조직은 1888 년해산할때까지꾸준히쇠퇴했다.⁶⁶ 그러나우리는검은손의유령및안달루시아의공포가『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후반부에반영되어있는것을보게된다.

막역한친구

사가스타는 1885 년권좌로돌아와 1890 년까지머물렀다. 마침내쿠바에서도예제를폐지하고, 결사에관해패자유주의적인법을제정하여급진주의자들이다시금합법조직을시작할수있도록하고, 언론의자유를상당히증진시킨것이이정부였다. 이정부는필리핀에서몇가지진지한개혁조치를취하려하기까지했다. 1887 년스페인의형법이필리핀에도적용되기시작했으며, 1889 년스페인의상법과행정소송에관한법률, 결혼관련부분을제외한(필리핀의교회가기를쓰고반대했다) 민법이마찬가지로확장되었다. 그런데리살이스페인을거의영원히떠나프랑스와독일로가서, 의학공부를계속하고첫번째소설을완성하느라빠지게된것이정확히 1885 년 7 월의일이였다. 1887 년봄소설이출간되자그는필리핀에돌아갈때가되었다고결심했다. 그러나돌아가기전에그는자신이좋아하는서신교환자이면서의심할바없이가장가까운벗이자상담자였던페르디난트블루멘트리트를처음이자마지막으로만나기위해오스트리아로향했다. 우리가나중에이오스트리아인학자에대해많이살펴볼것이니만큼, 그의성격, 그리고이두남자의우정의성격을묘사할만한가치가있어보인다.

제국의하급관료의아들인블루멘트리트는 1853 년(그러니리살보다 8 년앞서) 프라하에서태어나, 지리학과역사학학위를받고 1877 년카렐대학을졸업할때까지거기에살았다. 그리고나서그는역시보헤미아도시인라이트메리츠로이사를가고, 거기에서경력익은기간동안빈인

⁶⁴ Bécarrud and Lapouge, Anarchistes, p.36 에따르면, 이러한물결의초기현상이 1878~80 년에일어났다.

⁶⁵ 라몬셈파우는이제“(종교재판소에서이단을심문하던시대의) 잊혀진권행이되살아났다”고논평했다. Los victimarios, p.275. 자유화된체제아래에서사반세기후발표된두편의유명한스웰인소설이이시기동안의바르셀로나와안달루시아의지하운동을훌륭하게떠올려준다. 피오바로하의『붉은새벽 Aurora roja』과비센테블라스코이바네스의『술창고 La bodega』 두편모두 1905 년에마드리드에서처음발표되었다.

⁶⁶ 이러한사건전개에관한간명한설명에대해서는 Núñez, El terrorismo, pp.38~42 참조.

도연재된적은없지만이모든구조와주제의요소들을다지고있다. 그런데우리는그의서재에쉬의작품이 10 권있었으며, 이는다른모든작가의작품수를훨씬능가하는것이였다는점을떠올릴수있을것이다. 그렇다고이것이그가선배에대한능란한비판을아꼈다는뜻은아니다.

뒤마페레 (1803~70) 는신문소설의또다른거장이었으며, 그의『몬테크리스토택』 — 적들의음모에의해파멸된채여러해동안투옥되었다가몬테크리스토택으로가장하고다시나타나적들에게복수를피하는에드몽단테스의이야기 — 은마치이바라와시모운의이야기를하나라로말아놓은것과같다. 우연의일치? 글썄. P. 하신토 (Jacinto) 라는 필명으로 1878 년에쓴『어떤마닐라학생의기억 Memorias de un estudiante de Manila』을보면, 열여섯살의리살은자신이열두살에『몬테크리스토택 El Conde de Montecristo』을‘만연체대화를음미하고, 그매혹을즐기며, 영웅과그의복수를한걸음한걸음따라가면서’ 읽었다고회상한다.⁴⁶ 그러나쉬도뒤마도식민주의나제국주의의악탈에는별관심이없었고, 인물들의복수는기본적으로개인적이면서본국적인 metropolitan 것이였다.

웃음과자살

그리고‘모국스페인’은? 이장초반에서리살의개인서재에『돈키호테』 말고는스페인어소설이전혀없었다는점, 그리고그의문헌학자친구트리니다드파르도데타베라의서재에는상당히있었다는점이주의를끌었다. 설명의일부는두사람의삶의폭이달랐다는데있을것이다. 파르도의서재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블라스코이바네스 (1867 년생) 와피오바로하 (1872 년생) 는리살의세대였는데그가죽은후한참이지나서야이름이알려졌다. 그러나파르도는친구보다 30 년이나더살았다. 그렇지만이런식의설명은이른바스페인의발자크라블리며, 세르반테스이후스페인의가장위대한소설가라는평을종종들었던베니토페레스갈도스 (Benito Pérez Galdós, 1843~1920) 의경우에는적용될수없다. 쉬가리살의서재에서차지했던비중을갈도스는파르도의서재에서차지하고있었다. 어마어마하게생산된갈도스의소설들을리살이단한편도읽지않았다는것이정말있을법한일인가? 리살이그의방대한저작에서갈도스의이름을한번도언급하지않았다는것은확실하다. 그러나많은학자들은리살이열네살이었던 1876 년에발표된갈도스의『도나페르펙타 Doña Perfecta』

때로부터 10 여년전의일이였다.) 그러나이프루동주의사회주의자는인도제도 Indies 에서의네덜란드지배는완전히당연한것으로받아들였다.

⁴⁶ 같은책, p.13.

와 『놀리메탕헤레』 사이의주제적유사성들을지적해왔다. 갈도스의기준으로는짧은소설인 『도나페르펙타』는제목과같은이름의, 교회를배후에둔종교적광신도인아주머니에의해파멸하는정치적으로순수한자유주의적엔지니어에대한이야기인것이다. 어느모로보나 『놀리메탕헤레』가훨씬낫다. 그러나리살이물론그런것을전혀자인하지는않으면서도본국의가장유명한소설가를그의영역에서손들게하려는바로이러한‘반식민적’기회를일부염두에두고있었다고추측해보는것은전혀설득력없는일이아니다. 더욱말이된다고할수있는것이, 갈도스는자유주의자이기에는하지만스페인제국주의에대해서는뉘라하지않았다. 그러나필리핀의반식민주의자로서리살쪽에서도갈도스에대해서는할말이없었던것이다.⁴⁷

그러나리살에게는억누를수없는웃음이있는데, 이는반식민지문학에서는극히드문것이다. 이웃음, 먼도날같이날카로운경구들과신랄한비꼼만의문제는아니지만두소설모두를뒤덮고있어독자로하여금종종커다랗게크크거리고싶은기분이들게하는이웃음은위고나뉘마, 쉬, 갈도스로서슬러올라갈수는없는데, 이중누구도웃음을강력한패로내밀지않았기때문이다. 다우에스테커는우스위죽을지경으로재미있을수있었겠지만, 리살은 『놀리메탕헤레』가출판된이후에데커를읽었을뿐이었다. 리살의웃음일부는식민주의그자체의비참한희극으로부터나왔다. 『놀리메탕헤레』의에필로그에서스물다섯살의이필리핀인은이렇게쓴다.

우리의인물들중많은이들이아직살아있는가하면, 다른이들은소식이끊긴관계로, 진정함에필로그는가능하지않다. 공익을위하여우리는살비신부로부터시작해서도나빅토리아까지우리의인물들을기꺼이죽일수도있었지만, 이는가능하지않다…… 그들을살아있게하라! 중국에는우리가아니라나라가그들을먹여살려야할것이다…….⁴⁸

내가다른곳 어디에선가말했듯이, 작가가이런식으로독자, 인물, ‘현실’과장난을치는것은진지한 19세기유럽소설대부분의특징과는꽤거리가먼것이지만, 겨우 5년전에나온마샤두지아시스의 『브라스쿠바스의희상』을바로떠올리게한다. 소설은그브라질인에게와마찬가지로,

⁴⁷ 1884~85년에걸쳐리살보다아홉살나이가많은레오폴도알라스(Leopoldo Alas, 필명클라린 Clarín)는그의가장중요한소설인 『재판관부인 La Regenta』을출판했는데, 이는주교좌성당이있는스페인지방도시에서의사회적삶을강력하게궤뚫는반교권주의적작품이다. 이작품은성직자사회와‘좋은생각’의소유자들에게서격노의올부짓음을이끌어냈다. 리살은 1885년늦여름까지마드리드에서공부하다프랑스와독일로떠났으니, 입을시간은없었다하더라도그소설에대해확실히알고는있었을것이다. 그러나이소설은리살의저작에서전혀언급되지않는다. 갈도스의경우와마찬가지로, 이침묵은고의적인것일지도모른다. 그런데 『재판관부인』은파르도데타베라의서재에서도빠져있었고, 이것이더많은것을말해주는암시인것같기도하다.

⁴⁸ Noli me tangere, p.350.

리를잡은다음, 그는마르크스의지침에따라바쿠닌주의자들의영향력에대항한싸움을벌였다. 그러나이때를많이놓친일이었다. 12월, 코르테스는인터내셔널을금지했다. 그해를전후하여라파르그는스페인에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운이없었지만마드리드에서는마르크스주의그룹의건설을도왔다. 라파르그는재앙과같은 1872년인터내셔널의헤이그대회에서유일하게마르크스편에선‘스페인’대표였다. 지하정당의성격을얼마간띠고있었던마르크스주의사회당은 1879년이되어서야창당되었으며, 1880년대초반사가스타통치시기까지는활동을공개로전환하지않았다. 기관지인 「노동자 El Obrero」는 1882년에처음나왔다.⁶³ 여러해가더흘러서야당은스페인좌파정치에서주요행위자가될수있었다. 리살이마드리드에서학생이있을때당에대해들어봤을것이라고믿을만한특별한이유는전혀없다.

그러나그는다음에전개된일에대해서는확실히잘알고있었고, 우리는그흔적을 『엘필리부스테리소모』에서찾게된다. 카노바스의 6년에걸친억압체제가 1881년더온건한사가스타정권으로바뀐것은알렉산드르 2세의암살직후이자런던에서여러종류의아나키스트들이폭력적인‘행동에의한선전’의필요성을승인하기로결의한이후의일이었다. 스페인정부가교체되자대개카탈루냐인이었던스페인지역연맹의최고지도부는더광범위하고합법적인노동계급의조직이라는길이열렸다고믿고 9월스페인지역연맹을스페인지역노동자연맹 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la Región Española(FTRE)으로대체하였다. 이정책은런던에서승인된급진적인결의안과는방향을달리하는것이였기때문에, 그들은이결정을가능한한비밀로하려고노력했다. 그러나어떻게든소식은새어나갔다. 가입자가 1년에 58,000명씩이나눈부시게증가했음에도, 산업적인바르셀로나의합법노선과안달루시아농촌에기반을둔급진파사이의갈등이빠르게거졌다. 세비야의 1882년총회에서대부분의안달루시아인들이갈라져나와스스로‘무산자들 Los Desheredados’이라부른그룹을만들었다. 1883년은어찌되었든어려운해였다. 세계적공황이닥치면서안달루시아에특히심각한결과를낳아굶주림과비참함이빠르게퍼졌다. 게다가카노바스가권좌로돌아왔다. 총리의고향지역전체에농촌방화와강도의새로운물결이일어, 곳곳에서

풀과그의부모는모두산티아고데쿠바에서태어났다. 가족은 1851년조부모가태어난보르도로이주했는데이번에는쿠바의반란과스페인의탄압을피하기위한것이였다. 폴은스페인어권을가지고다녔고프랑스어와스페인어두나라말을했다.

⁶³ Bécarrud and Lapouge, Anarchistes, pp.29~34; David Ortiz, Jr, Paper Liberals. Press and Politics in Restoration Spain(Westport, CT: Westwood Press, 2000), p.58.

이나 퍼뜨릴 것이냐 하는, 쿠바인들이나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어려운 선택에 부득이하게 직면했던 셈이다. 우리는 나중에 이 질문이 『엘 필리부스테리슴』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검은 날개

놀란 이스키에르도 총독이 범상치 않았던 1872 년 가을의 카비테 파업 배후에 인터내셔널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했을 때, 그 생각이 그에게 그럴듯해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사벨이 1868 년 9 월 마드리드에서도 망친 후, 바쿠닌이 마르크스보다 훨씬 빨리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마치니주의자와 가리발디주의자였던 전력이 있는 가까운 이탈리아인 친구 주세페 파넬레 (Giuseppe Fanelli) 를 즉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로 보내 현지에서 가장 선진적인 급진적 활동가들을 지도 및 조직하도록 했다.⁶⁰ 파넬레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몰랐지만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바르셀로나의 이탈리아인 사회 사람들이 도와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중앙 협회 연맹 The Centro Federal de las Sociedades 이 다음 해 초 결성되어 9 월 바젤의 인터내셔널 총회에 바쿠닌주의자 대표 두 명을 보냄으로써 바쿠닌의 다수파적 위치를 더 공고히 했다. 1870 년에 이 미 인터내셔널의 스페인 지부인 스페인 지역 연맹 Federación Regional Española (FRE) 은 「연대 La Solidaridad」 를 펴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화 초기의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총회를 열었다.⁶¹

한편, 파리에서 코뮌과 함께 했으나 파리지엔 반란자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자 보르도로 옮겨 갔던 마르크스의 쿠바인 사위 폴라 파르그는 결국 가족과 함께 피레네를 넘어 도망쳤다 (도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의 아기가 죽었다).⁶² 파블로 파르그라는 가명으로 (1871 년 6 월) 마드리드에서

⁶⁰ 파넬레와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Percnicon, Italian Anarchism, pp.19~20 참조. 또 다른 나폴리인인 데다덤으로 건축가이자 기술자였던 그는 1848~49 년에 롬바르디아와 로마에서의 혁명적 활동으로 두드러진 인물이었으며, 시칠리아에서는 남부 이탈리아를 부르봉 지배에 무릎까지 담기게 한 가리발디의 1 천의 용대와 함께 싸웠다. 1865 년 신설된 국회에 선출되어서는 의회의 토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의원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기자표를 이용하여 나라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급진적인 선전을 펼쳤다.

⁶¹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p.14~18; Bécarud and Lapouge, Anarchistes, pp.27~29.

⁶² 어떻게 쿠바인이 이렇게 훌륭한 프랑스어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양가조부는 ‘프랑스계 아이티인’이었으며 투쟁의 혁명을 피해 쿠바로 이주했다. 한쪽의 할아버지 (라파르그) 는 노예를 소유한 소규모 농장주였으며 다른 쪽 (아브라함 아르마냐) 은 유대인 상인이었다. 한쪽의 할머니는 아이티인 몰라토였고, 다른 쪽은 자메이카인 카리브족이었다.

이 필리핀인에게도, …… ‘저편 allá’ 으로부터 왔다. 이는 드뷔시가 자바인들의 가를란 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수입품이었다.

동시에 세르반테스 이후 리살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스페인 작가는 1809 년에 태어나 28 년 후 자살한 마리아노 호세 데 라라 (Mariano José de Larra)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⁹ 짧은 생애 동안, 이 프랑스 취향의 자유주의-급진주의적 작가는 늘 정치를 기본으로 두고 저널리즘과 소설의 뚜렷하지 않은 선을 넘나들었다. 모든 것이 조롱될 수 있었지만 원거리에서는 아니었다. 라라가 빚어낸, 지독한 반동 페르난도 7 세 치하 마드리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가차 없는 흉내를 비롯하여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날카롭게 성격을 묘사한 초상, 리살에게 식민지 마닐라의 황폐한 사회를 흉내 내면서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리라.

협동과 경쟁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와 리살의 작품 사이의 기본적인 대조점은 그들이 채택한 장르 자체에 있다. 이사벨로가 소속감을 느낀 지구적 민족 학과 민족 학 연구의 세계에서, 기본적인 규범은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것이었다. 거론하는 생각도 결코 빠져있지는 않았지만, 모든 참가자에 의해 각자가 제 몫의 기여를 하는 세계적 사업으로 이해되는 분야에서 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이사벨로는 그의 주요 저작 magnum opus 을 스페인의 민족 학자 동료들에게 헌정하고 각주에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민족 학자들의 글을 풍부하게 인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동료’는 실로 유럽과 그의 관계를 고찰하는데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에게는 동료가 없고, 소설 장르의 기본적인 규범은 독창성에서든 시장에서의 인기에서든 뿌리 깊게 경쟁적인 것이다. 『놀리메 탕헤레』의 64 장 중 거의 5 분의 1 은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림자 각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구들과 함께 시작한다. 그런데 이 모두는 시인들, 희극 작가들, 철학자들, 성경, 그리고 방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속담의 세계로

⁴⁹ 1888 년 6 월 16 일 런던에서 친한 친구 마리아노 폰 세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 리살은 라라를 ‘급진적 가좌 위대한 스페인 산문 작가’ 로 묘사했다. 그보다 앞서 4 월 30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쓴 편지에서 리살은 폰 세에게 라라 전집을 사서 런던으로 부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선집밖에 받지 못했다. 6 월 16 일 자편지에서 리살은 이어 말한다. “나는 위대한 작가일 경우에는 그냥 선집보다는 전집을 선호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전집을 보내 달라고 자네에게 간청하려네. 그러나 나는 이 선집을 다른 여러 판본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큰 기쁨으로 간직할 것이네. 이유는 …… 위대한 인물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낫고 무엇이 못한지 절대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네.” Epistolario Rizalino, vol. 2, 1887~1890 (Manila: Bureau of Printing, 1931), pp.7~8, 12~14.

부터,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심지어히브리어로가져온것이다. 단하나도소설가로부터따오지않았다. 그래도작가가쉬와라라, 뒤마와다우에스테커, 갈도스와포, 위스망스와세르반테스, 그리고필사다른이들에게도졌을때매한빛을의심할수는없을것이다. 리살의독창성은그가읽은것을바꾸어쓰고, 엮고, 변형하는방식에있었다.⁵⁰ 이장의분석이정확하다면, 그의소설에서도-보들레르-말라르메의꼬마도깨비-악마 imp-demon 가식민지하지식인에불어따라다니는‘비교의악마 demonio de los comparaciones’가되고, 뒤마의‘만연체대화’는자유로의길에대한절박한논쟁으로다시만들어졌으며, 파리의사회구조에대한쉬의파노라마는식민지사회의병폐에대한개관적인진단으로다시그려졌다는것등을알수있다. 그러나이후젊은필리핀반식민주의민족주의자들의정치적상상력을자극하도록위스망스의아방가르드미학을차용하고급진적으로변형시킨방식보다리살의창조성을더잘드러내는것은없다.

⁵⁰ 지금이리살이 1888년 11월 8일런던에서블루멘트리트에게보낸편지에서무언가를꺼내볼적절한순간이아닌가한다. 그는친구에게필리핀의문제는실제로책이부족한것이아니라고말했다. 서적상들은사실사업을잘하고있었다. 인구가 5~6천명정도되는작은읍인칼람바에만도 6개의작은도서관이있었고, 그의가족이소장한것도천권이넘었다. “그들이파는책대부분이종교서적이거나진정제같은책들이기는하지. 많은이들이작은서재를갖고있다네. 책이무척비싸기때문에크지는않아도. 칸투(당시유명했던로마가톨릭이탈리아인세계사저술가) 나로랑(위대한프랑스화학자오귀스트로랑인듯), 뒤마, 쉬, 빅토르 위고, 에스크리치, 실러, 그리고많은다른이들의작품을읽는다네.” Cartas entre Rizal y el Profesor Fernando Blumentritt, 1888~1890, in Correspondencia epistolar, Tomo II, Libro 2, Parte 2, pp.374~80 참조.

토착어들로개종을실행할것을주장하며(그래야만개종이깊이있고신실하게된다는주장이었다.) 열심히그말을배우려했다. 토착민들에게의언어적접근을이렇게독점하다보니그들은어떠한비종교세력도공유하지못했던막대한권력을갖게되었다. 이를충분히잘깨닫고있었던수사들은스페인어보급에완강히반대하였다. 리살의시대에초차군도의인구중 3퍼센트정도만이식민본국의언어를조금이라도구사할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 이는스페인제국에서는(전에예수회가우세했던파라과이라는부분적인예외를제외하고는) 특이한것이였다. 19세기스페인의정치계급은이상황에대해아주잘이해하고있었고교단없이는스페인의필리핀지배가붕괴될것이라고아마도정확하게짐작하였다.⁵⁹ 그리하여오르티스의조치이후스페인에서유일하게허용되던교단이통제하는신학교는오직필리핀에젊은신참수사들을공급하기위한것이였다. 동시에많은수사들이스페인에서‘내던져진것’에충격을받아안전함과권력을찾으러세계의반대편으로떠났다. 이렇게되어, 카노바스시대에필리핀에서수사들이가진권력은쿠바의노예제만큼이나독특한것이였다. 그렇지만노예제가 1886년마침내폐지되었던반면마닐라에서의수사권력은 1898년체제가튼재로무너지기전까지는심각하게훼손당하지않았다. 다른각도에서보면필리핀의반식민지활동가들은스페인어를거부할것

위를되살렸지만그구성원들은기반의많은부분을잃은상태였다. 필리핀에서그들은 1859년까지다시등장하지않았고오랜기간동안교회내의라이벌들에비해뒤떨어지게되었다.

⁵⁹ 빠르게쇠퇴하고있었던또다른제국의속령이었던네덜란드령동인도와비교해보자. 진지한네덜란드교육은 20세기초에야시작되었는데이는네덜란드군도에간섭하기시작한지 300년이지난다음이자스페인의필리핀지배가붕괴한다음의일이다. 처음두세기를다스렸던위대한‘다국적’동인도회사는학교에돈을낭비할이유를찾지못했다. 19세기의식민국가는(나폴레옹전쟁과 1820년대의거대한디포네고로반란으로부터재정적회복을피하기위해) 식민지를착취하느라너무바빠서전임자보다더잘할유리가없었다. 토착언어의교육은 1870년대에야진지하게시작되었고그나마자바어에만집중되어있었다. 게다가네덜란드에서도지배계급은네덜란드어를하녀나종업원들에게이야기하는데주로 썼다. 1880년이후의민주화, 특히투표권의확대는식민지정책에민족주의적압력을가하기시작했으며그리하여식민지교육체계가등장하기시작했을때마침내매개가된것은네덜란드어였다. 필리핀보다 40년늦은 1920년대무렵에는민족주의와사회의선동을시작한소수의일루스트라도민족주의엘리트가 생겨났다. 그러나이는너무늦은일이였다. 1942년일본의습격으로네덜란드어는행정적으로종말을맞게되었고, 조금이라도중요한인도네시아의소설중네덜란드어로쓰인것은 1930년대작품이마지막이였다. 토착민이절대다수를차지했던 1930년대의 7,000만식민지인구중기껏해야 0.5퍼센트가식민언어를이해하고있었다. 그러나동인도회사시대로부터시작되는긴세월동안, 섬간의교역에서뿐만아니라지배자들의행정업무차체에서도, 일종의피진말레이어가쓰이고있었다.(동인도제도논지리적으로대양을넘나드는해상교역의고속도로에위치하고있었고, 이는필리핀의주변적위치와알맞은비교가된다.) 1890년대부터지방언론이발달하기시작하면서‘말레이어’가네덜란드어, 자바어, 아랍어라는경쟁자들을시장에서위낙능가하게되어 1928년에는젊은민족주의자들의해피진말레이어가아니라‘인도네시아어’로서선언될채비가 끝난상태였다. 네덜란드어는 1960년대까지일루스트라도엘리트의사적인언어로남아있었으나, 1942년이후공적인자리에서네덜란드어로말하는사람은아무도없었다.

교단: 빼앗긴그리고열중한

다음에일어난일을알기위해서는, 전반적으로반동적이었던스페인 의교회에취한카노바스의정책을이해하는것이필수적이다. 1836년설정의첫번째총리였던후안멘디사발(Juan Mendizábal)은스페인에서 종교교단의모든자산을몰수하겠다고선포하고실행하였다. 1868년의스페인명예혁명기에법무부 Gracia y Justicia ministry 를이끈안토니오오르티스(Antonio Ortiz)는스페인본국내에서교단자체를폐지했다. 멘디사발은토머스크롬웰이아니었기에교단은국가의임금대장에오르는것으로보상을받았다. 교회의자산은경매에붙여졌고, 특히비옥한안달루시아농촌에서는귀족들과민간맞군대의고위공직자, 부유한부르주아들이이들법척가져갔는데, 이들중많은수가부채지주였다. 비교적부드러웠던교회의착취는무자비한농산업기법들로대체되었다. 수십만명의농민들이토지경작권을잃었고, 구호대상자와반쯤굶는일용직노동자, 1840년이후그지역을유명하게해준‘산적들’의숫자가크게늘어났다. 안달루시아인인카노바스는자유주의와프리메이슨, 공화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의숫구치는물결에대항하기위해강력한교회의지원을얻고자하였으며실제로얻었음에도불구하고멘디사발의포고령을해제하려는시도를전혀하지않았다.⁵⁶ (1884년주교들의요청을받고센트랄대학에경찰을투입한것이그였다.) 그는결국은그가아니라로마에직접적으로책임올지는교단에독립적지위를복원해주지도않았다. 그러나이모든변화에서두드러진예외가있었는데그것이식민지필리핀이었다.

이는몇세기이전펠리페 2세의시대에시작되었다. 늙어가는왕은데라스카사스 de las Casas 를비롯한이들이아메리카에서정복자들이지르던비인간적인약탈행위를폭로한것에양심이크게자극되어그의마지막주요제국주의적노획물을주로종교교단에맡기기로했는데, 이들은실제로현지구대부분을상대적으로평화롭게개종시켜냈다. 외딴필리핀에는포토시⁵⁷에비교할만한‘속인들에게의 lay’유혹이없었고, 따라서교단이주로식민지를다스렸는데, 특히마닐라바깥에서그러했다. 이윽고특히도미니크회와아우구스티누스회는마닐라의부동산과농장농업모두에서막대한자산을취득했다.⁵⁸ 거기다가교단은처음부터수십가지의

⁵⁶ 멘디사발과오르티스에대해서는같은책, p.134, note 16 참조. 교단자산몰수의더전반적인결과, 특히안달루시아에서의결과에관해서는 Bécarrud and Lapouge, *Anarchistes*, pp.14~20 참조.

⁵⁷ 현재의볼리비아영토내에있는포토시는 16세기거대한광이발견되었던도시이다. -역자주

⁵⁸ 예수회는예외로서, 1768년카를로스 3세의해그의영지에서쫓겨났다. 프랑스와스페인, 포르투갈, 나폴리왕가가연합하여 1773년클레멘트 14세에게예수회를세계적으로억압하도록압력을넣은결과는성공적이었다. 피우스 7세가 1814년예수회의법적지

제 3 장 비스마르크와 노벨의 세계적 그늘에서

『엘필리부스테리소』가출판되었을무렵인 1891년에리살은유럽에 10년간머무르고있었으며, 이아대륙의두주요언어인독일어, 프랑스어와약간의영어도배웠다. 또한그는긴기간동안파리, 베를린, 런던에살았다. 그는자신의두번째로중요한소설에, 나중에보게될것처럼관찰은정치적이유를가지고, ‘필리핀소설 novela filipina’이라는부제를붙였다. 그러나다른각도에서보자면, ‘필리핀소설’인것은 『놀리메탕헤레』이고, 『엘필리부스테리소』는‘세계소설 novela mundial’이라 이름붙일만하다. 『놀리메탕헤레』에는식민지의지배자와피지배자가아닌인물이한명도나오지않는다. 그러나우리는이미 『엘필리부스테리소』에서마닐라에프랑스보드빌패가나타나고, 남미에오래살아스페인어가유창하다는‘진짜미국인 verdadero yankee’미스터리즈도나온다는것을알아차렸다. 핵심인물로는막대한부를지닌‘중국인 Chinaman’키로가가있는데, 그는자기나라 nación 를위해지방영사관을세우려고계획하는사람이다. 게다가이책에는이집트·폴란드·페루·독일·러시아·쿠바·페르시아·캐롤라인제도·실론·몰루카제도·리비아·프랑스·중국·일본, 그리고아랍인과포르투갈인, 광저우와콘스탄티노플에대한가벼운 언급이흩뿌려져있다.

그러나여러언어로번역되었고필리핀에서널리알려졌으며사랑받는 『놀리메탕헤레』와비교했을때, 『엘필리부스테리소』는등한시되는편이다. 이것은어떤수준에서보면이해하기쉽다. 이소설에는진정한영웅이하나도없는데비해, 『놀리메탕헤레』에는적어도한명이있고, 아마세명이있다고도할수있을것이다. 중심적인역할을하는여성들은하나도없으며인물로도거의제대로묘사되지않는반면, 『놀리메탕헤레』에서가장강력하게상상된인물들중세명은리살이‘아름다운성 bello sexo’이라부른집단에속해있다. 『엘필리부스테리소』의주요플롯및부수적플롯은실패와좌절, 죽음에대한이야기이다. 도덕적인분위기는더어둡고, 더정치중심적이며, 문체는더냉소적이다. 이책이필리핀민족의아버지가쓴작품이아니었다면오늘날까지다른곳은고사하고필리핀에서도독자가거의없었을것이라고말할수도있다. 그래도많은방면에서놀라

운작품이다. 필리핀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에게 이 책은 수수께끼였는데, 특히 1880년대 필리핀 식민지 사회에 대해 알려진 것과는 이 책이 부합하는 점이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이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이 책을 작가가 실제 삶에서 겪었던 반식민지 혁명과 정치적 폭력(나중에 다루어질)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관련지어 '도덕적으로' 분석하려는 유혹이 강했다. 그러나 언어적 오류들 중 최소한 몇몇은 우리가 텍스트를 지방적인 것만 큼 지구적이기도 한 것으로 여기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다 중심적 관점을 만들어 내려면, 내러티브 기법은 불가피하게 못타주어야 한다. 분석자는 젊은 리살이 1882년 유럽으로 출발하기 전의 정치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후에는? 서로 교차하는 세계의 '세계'가 있다. 시간상으로만 첫 번째인 세계는 비스마르크가 위압하고 있던 1860~90년의 국가간 inter-state 세계 체제이다. 프로이센이 1866년 쾨니히그라츠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에게, 1870년 스탕에서 프랑스 군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일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을 유럽 대륙의 맹주로 세우고 독일 제국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군주제에 종말을 선고했고, 교황청의 세속적 권력을 파괴했으며, 그의 나라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신참제국주의자로 진출시켰다. 리살의 『놀리 메 탕헤레』는 이 세계의 관관이 실각하기 겨우 3년 전에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부에서는 도쿠가와 이후의 일본과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유럽의 세계 체계 모니를 전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두 번째 세계는 지구적 좌파의 세계였다. 부분적으로는 비스마르크 덕분에, 1871년은 (당시의) 상징적인 '세계 문명의 수도'가 그민중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다. 파리 코뮌은 전 지구에 반항을 보였다. 비스마르크보다 코뮌 나르들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프랑스 정부에 의한 코뮌의 잔혹한 탄압과 뒤이은 마르크스의 사망은, 세기 말 즈음에는 산업자본주의와 전제정치, 대토지 소유, 제국주의에 대한 지구적 대항의 주요 매개가 된 국제적 아나키즘이 떠오르는 길을 열었다. 스웨덴의 사업가이자 과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은 전 지구에 걸쳐 거의 어디에서나 억압받는 계층의 열성적 구성원들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최초의 대량 살상 무기를 발명함으로써 부지중에 이 부상하는 운동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

세 번째는 리살이 태어난, 쇠잔해가는 잔여 스페인 제국의 더 좁은 세계이다. 본국 자체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과 종족-지역간의 맹렬한 경쟁, 계급 갈등, 여러 종류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카리브해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태평양 연안까지 뻗어 있는 멀리 흩뿌려진 식민지들에서는 쿠바의 운동이 이끄는 반식민지 운동이 격렬함에서도, 사회적 지에서도 꾸준히 팽창하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 진지한 접촉을 시작했다.

말했다. “그는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유럽인이었다.”⁵² 그러나 카노바스는 비스마르크 체제가 왕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루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 길이가 있고 더 오래 지속되는 질서를 그는 영국, 권력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엘리트 사이에서 안전하게 왕복하는 가운데 산업화가 무섭게 진척되고 제국주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발견했다. 이것이 그가 입버릇처럼 영국의 회정치를 칭찬하던 이유이자 사가스타의 도움을 얻어 클레드스틴-디즈레일 리양 두 정치의 기묘한 패러디를 수립하게 된 이유이다. 슈메이커는 본질적으로 그 세기의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부패한 토호 지배 cacique-ridden 정권을 함축적으로 묘사했다. “그 두 지도자들은 체제 전체가 관리된 선거를 통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 더 심각한 위기들이 해결되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권력을 휘둘렀으며 ‘그러고 나면’ 다음 정부가 코르테스에 박진감을 부여하기 위해 걸출한 공화주의자와 카를로스주의자 Carlist⁵³를 드문드문 포함하여 상당한 소수 후보들이 선출되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이 진행되곤 했다.”⁵⁴ 살바도르 데 마리아가 (Salvador de Madariaga)는 현지의 언어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카노바스 체제는 ‘투우사’ 정치, 선거는 조작되고, 토호 지배가 시대의 질서이자, 코르테스는 카노바스의 연출과 각본에 따라 고전적, 집시 스타일, 아니면 뮤지컬 코미디 장르를 상연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극장이었던 정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었다.⁵⁵ 스페인의 디즈레일 리는 1875~81, 1883~85, 1890~92, 1895~97년을 다스렸으며 그의 클레드스틴이 그 사이 대부분의 시기를 채웠다. 본국과 식민지에서 최악의 탄압은 주로 카노바스 치하에서 일어났고 사가스타의 시기에는 미지근한 개혁이 간혹 이루어지곤 했다.

⁵² 같은 책, p.1.

⁵³ “카를로스주의는 페르난도 7세의 동생 돈 카를로스과 …… 이사벨 2세간의 왕조갈등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중세의 특권 (푸에로) 이 허용한 바스크 지방의 자치 옹호와 더불어 교회에 박해하고 약탈한 불경건한 자유주의자들에게 맞선 십자군 운동이었다 …… 카를로스주의는 종교성이 깊은 농촌이 자유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쟁이었다.” (레이몬드 카,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자유주의와 반동, 1883~1931』, 『스페인사』, 까치.) 주요 카를로스주의 전쟁은 1833년에서 1876년까지 세 차례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도 그들은 정치 세력으로서 남아 있었다. -역자주

⁵⁴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21~22. 작은 따옴표 안은 저자의 강조.

⁵⁵ Fernández, La Sangre, p.5.

윤번제대통령⁴⁹ 4 명이 거처간 새로운 체제는 실제로는 (교활한 안달루시아인 보수주의 정치가 안토니오 카노바스 델 카스티요 Antonio Cánovas del Castillo 의 막후 지휘로) 장군들이 개입하여 1874년 1월 콜코르테스를 해산시키고 그해 말 알폰소 12세 로보르본 왕조를 복원할 때까지 11개월간만 지속되었다. 이 조치 demarche 의 주요 원인으로 쿠바의 세스페데스 반란이 노쇠한 스페인 제국의 남은 부분을 보존하는데 끼친 급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스페인의 공론장에는 범상치 않은 열기가 끓어올랐다. 공화주의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잠시 합법적인 위치를 누렸다. 바쿠닌주의적·마르크스주의적 급진 사상이 최초로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정치체의 급진적인 분권화를 표방하면서 널리 인기를 얻었던 1873년의 ‘칸톤주의 cantonalist’ 정치 운동에서 젊은 아나키스트들을 비롯한 급진주의자들 여럿이 개방적 대중 정치를 최초로 경험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제 우리는 1880년대 초 리살이 조우한 왕정복고 스페인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를 압도하는 정치가였던 안토니오 카노바스 델 카스티요는 톨스토이와 같은 해인 1828년 말라가의 뽀띠부르주아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준 높은 다작형의 역사가였던 그는 또한 교활하며 무자비한 정치가이기도 했다.⁵⁰ 서른두살에 자유주의 내각의 각료였던 그는 이사벨의 몰락 이후 재빨리 우파 쪽으로 옮겨 보르본 왕정복고의 핵심적 설계자가 되었다. 권력을 쌓아 올리는 것 외에 그의 야망은 수십년간 혼란스러운 내분으로 악명이 높았던 국가에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질서란 나라의 내전들을 끝내고 카우디요 지배 caudillism 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⁵¹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요소들은 보복과 함께 되돌아오게 된다. 질서란 또한 급진적 좌파와 더불어 제국 내 반식민적 분리주의의 어떠한 심각한 조짐도 억압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스페인의 비스마르크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897년 카노바스가 암살된 후 그 전직 (독일) 제국 총리는 이렇게

⁴⁹ 1848년부터 제도화된 스위스의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7명의 연방 장관 중 선출하는 데 보통 장관들 중 가장 오래 대통령직을 맡지 않은 자가 뽑히게 된다. 임기 1년의 대통령은 연방의회의장직 등 몇 가지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하지만 말은 부서의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역자주

⁵⁰ 그의 이력이 끝날 무렵의 가장 뛰어난 부관이었던 장래의 총리 안토니오 마우라 그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들으면 덜덜 떨리고, 읽으면 두려워진다.” Frank Fernández, *La Sangre de Santa Águeda*. Angiolillo, Betances y Cánovas (Miami: Ediciones Universal, 1994), p.4.

⁵¹ 카우디요는 군벌 내지는 대중적인 호소력을 통해 카리스마적인 인기를 누리는 권위주의적 지도자 타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책에서는 이후 등장하는 필리핀 혁명 운동의 지도자 야기날도가 카우디요로 불리는데, 카우디요가 특별히 야기날도를 지칭하는 경우 ‘수령’으로 번역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두었다. -역자주

이장이 『엘 필리부스테리시모』에 대한 정치적 분석의 결론으로 진행해가면서, 이 세계들 사이의 끼어듦이 점점 더 더 얽히며 독자적 참여를 시험하게 될지라도, 스페인과 프랑스·이탈리아·러시아·카리브해·미국·필리핀 사이의 대조적 장면들의 삽입이 필수적이다.

유럽으로 가는 길

1833년 스페인에서는 연이은 두 차례 내전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기 말까지 괴롭힌 왕조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해, 나폴레옹에 의해 투옥 및 퇴위되었다가 1815년 이후 비신성 동맹에 의해 복위된 지독하게 반동적인 페르난도 7세가 죽으면서 왕위는 유일한 자식인 세살 짜리 왕녀 이사벨에게 넘어갔으며, 이사벨의 나폴리 출신 어머니가 섭정이 되었다. 그러나 페르난도의 동생 카를로스 3세는 1830년 여성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는 살리카 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자신의 계승권을 강탈하기 위해서라며 계승을 문제 삼았다. 그는 초보수적인 북부 (나바라, 아라곤, 바스크 지역) 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은 1830년대 말까지 지속되다가 불안한 정전 협정으로 겨우 끝을 맺었다. 섭정과 그 측근들은 재정적·정치적 이유로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구하려 돌아섰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그 결과를 멀리까지 가져가게 될 조처로서 그 힘 있는 교단의 자산을 빼앗았다. 열여섯살에 이사벨은 ‘여자 같은’ 카디스 공작에게 시집 보내졌고, 곧 쾌락을 다른 곳에서 찾는 데 익숙해지게 되었다. 나아가 들면서 이사벨은 어머니의 방침에서 벗어나 몇몇 통보수 파시스트자들의 영향력 아래 떨어지게 되었고, 부패와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는 정권을 통할하였다.

이정권이 마침내 무너지기 직전의 몇 달 중 1868년 9월에 여왕은 자신의 공화주의자적 동료 여러 명을 필리핀으로 강제 이송하여 마닐라만의 요새화된 코레히도르 섬에 투옥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여왕의 양위와 프랑스로의 도주에 따른 들뜬기 분속에서, 호아킨 파르도 데 타베라 (Joaquín Pardo de Tavera), 안토니오 마리아 레히도르 (Antonio María Regidor), 호세 마리아 바사 (José María Basa) — 레히도르와 바사는 이후 리살의 좋은 친구가 된다 — 등의 몇몇 유복한 자유주의 성향의 마닐라인 Manileño 크리올과 메스티소들이 고통받는 죄수들을 옹호하는 대중적인 서명 운동을 조직했다.¹ 1869년 6월 무제한 안달루시아인 자유주의자 카를로스 마리아 데 라 토레 (Carlos María de la Torre) 장군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여, 크리올과 메스티소들을 그의 궁으로 초대

¹ William Henry Scott, *The Unión Obrera Democrática: First Filipino Trade Union* (Quezon City: New Day, 1992), pp.6~7.

해 '자유'를 위한 축배를 드는 가하면 평상복으로 마닐라의 거리를 거니는 행동으로 본국 출신의 많은 식민 엘리트들을 경악케 했다. 나아가 그는 간행물의 검열을 폐지하고,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장려하였으며, 군대의 처벌 중 하나인 태형을 중지시키고, 반란자들을 사면하고 그들을 특수 경찰병력으로 조직함으로써 마닐라에 이웃 카비테 지방의 농민 반란에 중지를 찍었다.² 다음해, 자유주의자인 해외 담당 장관 Overseas Minister 세히스문도 모레트 (Segismundo Moret) 가 도미니크회의 유서 깊은 산토 토마스 대학을 국가의 통제하에 놓는 법령을 공포하였으며, 수사들에게 재속신부가 될 것을 장려하면서 그럴 경우 교회의 상급자들을 무시하고 교구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주겠다고 보장하였다.³ 마찬가지로의 들뜬 기분이 유복한 지주 카를로스 마누엘 데 세스페데스 (Carlos Manuel de Céspedes) 의 유능한 리더십 하에 쿠바의 10 년 전쟁 (1868~78) 이 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세스페데스는 한때 그 부유한 식민지의 동부 반쪽을 통제하기도 했다.⁴

그러나 마드리드에서는 사보이의 아마데오를 새로운 (인기 없는) 군주로 앉힌다는 결정과 함께 정치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⁵ 1870 년 12 월, 이사벨에 대한 공격을 이끈 후 아마데오의 계승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총리 후안 프림 이 프라츠 (Juan Prim y Prats) 장군이 암살당했다. 이에 따라 1871 년 4 월 데 라 토레는 보수주의자 라엘 데 이스키에르도 (Rafael de Izquierdo) 장군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스키에르도는 모레트의 법령들을 중지시키고 카비테의 군함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면제시켜 주던 전통을 폐지하였다. 1872 년 2 월 20 일, 카비테에서 무장 항쟁이 발생하여 7 명의 스페인 장교가 살해당했다. 이 항쟁은 빨리 진압되

나 폴레옹의 패배는 마드리드에서 비신성 동맹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페르난도의 권좌 복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1814 년 그는 헌법을 승인하기를 거부했고, 새로운 반동적 절대주의의 시대를 열었으며, 무너진 경제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와 스페인에서는 억압된 자유주의가 두 가지 주요한 원칙이던 아메리카에서의 혁명들을 저지하려 했다. 페르난도는 대륙 부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스페인령 카리브해에서는 볼리바르의 카리스마가 힘을 미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아이티의 성공적인 노예 혁명에 망연자실해진 노예 소유주 스페인인들과 크리올들의 절대적 지지를 유지했다.

그리고 필리핀은? 루손의 북서쪽 구석 일로카노인들이 사는 읍의 이름을 딴 사랏 Sarrat 반란은 신속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1820 년, 카디스의 시장이 이끄는 안달루시아의 군사 반란은 페르난도로 하여금 잠시 억지로 자유주의적 헌정 질서를 받아들여도 록 했다. 그러나 캐슬레이의 런던, 메테르니히의 빈, 알렉산드르 1 세의 페테르부르크, 파리에 있는 페르난도의 친척은 이런 일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군사원정은 1823 년 전 제정치를 부활시켰다. 카디스의 시장은 목이 매달렸고, 내장이 꼬집어 내지고, 사지가 찢겼으며, 수백 명의 자유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이 처형당하고, 잔인하게 투옥되거나 살아 남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같은 해, 식민 본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식민지 군대 내에서 크리올이 이끄는 무장 항쟁이 거의 마닐라를 손에 넣을 뻔했으며, 내부로부터의 배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⁴⁷ 그 지도자였던 안드레스 노발레스 (Andrés Novales) 대위는 일찍이 남아메리카 독립 운동에 맞서 마드리드의 편에서 싸웠었다.⁴⁸

1869~74 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비교 가능한 국면을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사벨의 정권은 1868 년 9 월 프림 이 프라츠 장군과 마키아 벨리적인 자유주의 정치가 프락세데스 사가스타 (Práxedes Sagasta), 음모 성향의 급진적 공화주의자 마누엘 루이스 소리아 (Manuel Ruiz Zorrilla) 가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군사-민간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우리는 이미 이 폭발이 쿠바와 필리핀에 가져온 결과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스페인 내에서 이어지는 6 년은 보기 드문 정치 격동의 나날이었다. 1870 년 말 프림 이 프라츠가 암살됨으로써 사보이의 아마데오 왕정은 운이 다 했고, 이는 1873 년 2 월 11 일 스페인 공화국의 선포로 이어졌다. 스위스식의

²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9~11.

³ John N. Schumacher, SJ, *The Propaganda Movement, 1880~1895*, rev. ed.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Press, 1997), p.7.

⁴ 게레로의 관찰에 따르면 무장 항쟁 전으로 끝난 이 전쟁을 스페인에 7 억 페소의 비용과 사상자 14 만 명 (주로 병에 의한), 자치를 비롯하여 다른 개혁들에 대한 약속, 쿠바인들의 복미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미국과의 굴욕적인 협정을 부담시켰다. *The First Filipino*, p.283. 쿠바에서의 사건 전개는 제 4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⁵ 이사벨의 도주로 야기된 왕위 계승 위기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카수스 벨리 (전쟁의 원인) 가 되었음이 생각날 것이다. 적당한 후계자를 찾던 스페인 내각은 프로이센 왕의 먼 사촌인 레오폴트 공과 교섭하기로 결정했으며, 마드리드의 왕좌에 호엔촐레른 왕조의 일원을 두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이점을 파악한 비스마르크는 레오폴트에게 이 권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이 소식에 파리로 갔을 때, 프랑스의 무장 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빌헬름 1 세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엠스도달러가 레오폴트의 사퇴뿐만 아니라 앞으로 호엔촐레른의 왕위 후보가 아무도 내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빌헬름은 이를 거절했다. 비스마르크는 이 만남에 대한 설명을 전보로 받은 후 실제보다 파리의 측의 요구가 더 독단적으로 보일도록, 그리고 빌헬름의 거절은 더 투명스럽게 보이도록 손질을 보았다. 이 손질본 전보의 공표는 철의 수상이 바랐던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냈다. 이는 루이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바보같이 전쟁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이다.

⁴⁷ D.G.E. Hall, *A History of South-East Asia*,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8), p.721. 크리올이 조직하는 것이 전형적이었던 이러한 소 요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Sarkisyanz, Rizal, pp.76~79 참조.

⁴⁸ Luis Camara Dery, "When the World Loved the Filipinos", *Kasaysayan*, I: 4 (December 2001), p.57. 어리석게도 그는 스스로를 필리핀의 황제라 선언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몇몇 반란군 장교들은 멕시코인이었다고 한다. Mojares, Brains, p.412.

가 충분하지 않았을 파리에서 ‘니힐리스트’라는 단어가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널리 칭하는 데 쓰였을 거라고 의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카시케스페인 CACIQUE SPAIN

리살의 세 번째 세계는 스페인과 한 때 광대했던 그 제국 — 1880 년대에 남은 지역은 쿠바·푸에르토리코·필리핀·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스페인령 모로코와 베를린이 가져간금이 없는 리오데오로⁴⁴ 뿐이었던 — 이다. 19 세기에 이 세계가 특이했던 점은 식민 본국과 식민지에서 서지 그 재그식으로 항쟁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몇 개나마 비교할 만한 사례도 없다. 프랑스: 디엔비엔푸에서 호치민이 정치적으로, 보응우옌지압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면서 도화선이 당겨졌고, 알제리의 FNL 항쟁이 불을 붙여 제 4 공화국의 붕괴와 드골의 권좌로의 귀환, OAS 의 보복적 테러리즘으로 이어졌다. 포르투갈: 앙골라와 모잠비크, 기니비사우에서의 군사적 실패가 1974 년 4 월 리스본에서 살라자르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무혈 쿠데타로 이어졌다.) 이 지그재그식 상호작용의 주요 특징들은 간단하게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리살이 잘 알고 있었던 현상이며, 이로 인해 그의 사고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808 년, 장차 페르난도 7 세가 될 가증스러운 자가 아란 후에스에서 군사 반란을 조직하여 그의 아버지 카를로스 4 세의 강제 퇴위라는 주요 목적을 달성해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나폴레옹은 이를 스페인에 군대를 보내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포르투갈에 주요 개입을 할 구실을 대는 기회로 활용했다. 곧바로 바오르로 달려가 세계 정신 담당 대신 Secretary of the World-Spirit⁴⁵ 과 자신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일을 협상하려 했던 페르난도는 즉시 투옥되었다. 그리고 조제프 보나파르트 가 스페인 왕좌에 앉혀졌다. 저항 운동과 반란이 안달루시아와 이달고의 멕시코에서 거의 동시 에 터졌다. 1810 년 자유주의 자가 지배적이었던 코르테스의 회의가 카디스에서 열렸으며, 이들은 1812 년 스페인 최초의 헌정 질서를 만들어냈다. 필리핀을 포함한 식민지들에 입법부에서의 대표권이 주어졌다.⁴⁶

⁴⁴ 리오데오로는 스페인어로 ‘금의 강’이라는 뜻. -역자주

⁴⁵ 나폴레옹: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을 격파한 나폴레옹이 말위에 올라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헤겔이 “나는 세계 정신을 보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역자주

⁴⁶ 필리핀은 남아메리카 제국의 붕괴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인 1837 년 이 권리 가 폐지될 때까지 그 후 입헌의 순간 constitutional moment 마다 대표권을 지켰다. 리살은 벗이었던 블룸엔트리트에게 실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본국의 입법부에서 필리핀 대표였다고 말한 바 있다.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vol. 1, p.268. 이후 번호가 없는 세 번째 쪽 (런던으로부터의 1888 년 11 월 8 일자편지) 을 참조.

었지만 이스키에르도는 재속신부, 상인, 변호사, 심지어는 식민 행정관료들까지 포함한 수백 명의 크리올과 메스티소를 체포하는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⁶ 바사, 헤리도르, 파르도를 포함하여 이들 대부분은 이 육고 마리아나 제도나 그 너머로 강제 이송되었다. 그런데 정권은 몇몇 보수적인 수사들의 부추김으로 세 명의 자유주의적 재속신부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적인 본보기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간단한 영터리 재판 후 크리올 호세 부르고스 (José Burgos) 와 하신토 사모라 (Jacinto Zamora), 그리고 나이든 중국인 메스티소 마리아노 고메스 (Mariano Gómez) 가 4 만명이라 전해지는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 garrote 을 당했다. 부르고스의 집에 살고 있었던, 리살의 사랑하는 열살 위의 형 파시아노는 은신과 더불어 그 이상의 공식적 교육을 포기해야만 했다.⁷

6 개월 후인 9 월 2 일, 거의 1,200 명에 이르는 카비테 조선소와 병기고 노동자들이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에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당했고 심문을 받았지만 정권은 체포할 만한 주모자를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모두가 석방되었다. 윌리엄 헨리 스킷은 이 뜻밖의 불쾌한 일 대 한 이스키에르도의 반추를 인용한다. “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어떤 마키아벨리식의 리더십 없이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군은 “인터내셔널이 그 검은 날개를 뻗어 가장 외딴 곳까지 사악한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마 별로 그럴 법하게 들리지 않을 텐데, 사실을 말하자면 인터내셔널은 1871 년 11 월에 야코르테스⁸에 의해 금지되었고, 바쿠닌주의자들의 마드리드 지부가 세계 노동자들을 일깨우는데 바쳐진 공식 기관지 「연대 La Solidaridad」 의 창간호 (1870 년 1 월 15 일자) 에서 “버진 오세아니아와 풍요롭고 넓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대들”을 언급했다는 것이다.⁹

여러 해가 지난 후 리살은 이렇게 썼다. “1872 년이 아니었다면, 리살은 지금 예수회 수사가 되어 『놀리 메 탕 헤레』 대신 그 반대의 것을 쓰고 있을 것이다.”¹⁰ 파시아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리살의 첫 번째 성씨 메르카도는 어린 호세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 오에 두 번째 성씨인 리살로 등록하였다. 1891 년 그는 『엘 필리부스테리스모』 를 열사가 된 세 명의 신부에 대한 기억에 헌정

⁶ 그 세대의 다른 이들처럼 이스키에르도는 토착민들은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 대륙의 제국을 잃은 것은 토착민들이 아닌 크리올과 메스티소들 때문이며 당시 쿠바에서 세스페데스의 놀랄 만한 성공 배후에 있는 세력도 그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⁷ 같은 책, pp.8~9;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3~6, 13.

⁸ 스페인의 입법부. -역자주

⁹ Scott, The Union Obrera Democrática, pp.6~7.

¹⁰ 리살이 친구인 마리아노 폰세와 1890 년대 스페인의 필리핀 인민족주의 자기 관지였던 「연대」 의 편집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608, 주 13) 에서 인용, 나 [저자] 의 번역.

했다. 1887년에 오스트리아인 친구인 민족학자 페르디난트 블룸트리트가 기묘한 단어 ‘필리부스테로 filibustero’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필리부스테로라는 단어는 아직 필리핀에 아주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1872년이었는데 [그는 그때 열한 살이었다] 그 처형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단어가 불려 일으키던 공포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단어를 입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게 하셨지요 …… (그의 미는) 곧 목이 매달릴 위험한 애국자, 아니면 주제는 인간입니다.¹¹

이 단어는 1850년경 에스페데스의 카리브해에 있는 어떤 놀라운 해안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져 거기에서부터 쿠바와 스페인을 거치고 인도양을 건너 마닐라로 흘러온 것으로 밝혀진다.¹²

1882년 늦은 봄, 스무살의 리살은 스페인에서 공부하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 부모에게는 계획을 숨겼지만, 존경하는 형 파시아노와 호의적인 삼촌의 지지를 받으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메르카도가 문은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를 구사하는 교양 있는 집안으로서 ‘말레이’와 스페인, 중국 혈통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사는 칼람바 (Calamba, 오늘날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리) 에서는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토지는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지방도미니크회의 거대한 농장 hacienda 에서 상당한 땅을 임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 기반이 취약했다. 1882년에는 아직 높았던 세계의 설탕 가격이 1883~86년까지 지속된 공황에 의해 폭락하게 된다. 집안에서는 언제나 호세에게 보낼 수 있는 돈은 다 보내주려고 했지만 늘 충분하지 못했고, 젊은 이는 생활비가 늘 빠듯하다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어찌되었든 6월 초 리살은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마드리드로가 센트랄 대학 Central University 에 학생으로 등록하기 전 네덜란

¹¹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Vol. 1, 1886~1889 (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92), p.65 이후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번호가 없는 쪽. 1887년 3월 29일 베를린으로부터의 편지.

¹² F[ernando] Taarrida del Mármol, “Aux inquisiteurs d’Espagne”, La Revue Blanche, 12:88 (February 1, 1897), pp.117~20. 117 쪽에서 그는 스페인의 “근대적인 심문관들 inquisiteurs modernes”에 대해 이렇게 쓴다. “이 근대적인 심문관들의 방법은 언제나 똑같은 고문·처형·중상이다. 그들이 그 삶을 파괴하려는 불쌍한 사람이 쿠바에 살면 그는 혁명선동자 filibustier 라 불린다. 스페인 본국에 살면 아나키스트라 불리고, 필리핀이면 프리메이슨이라 한다.”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인몰타리다와 조우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가 스스로 무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는 1861년 리살이 태어난 것과 같은 해에 쿠바에서 태어났고, 위의 글에서 스스로에 관해 ‘나는 쿠바인 (je suis cubain)’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George Richard Esenwein, Anarchist Ideology and the Working Class Movement in Spain, 1868~189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135 참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 그러나 그 애들은 자네의 영적인 누이야. 자네들 모두는 종교적·정치적 폭정이 지배하는 나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자유의 무사함에도 달했기에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이지.

파르도는 그들을 꽤 자주 만나러 갔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둘 다 카잔의 유복한 가문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하려 샤프테르부르크에 갔다. 거기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 활동적인 니힐리스트가 되어 차르의 전제정과 경찰의 테러, ‘시베리아’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 오호라나⁴²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부모들은 대어주던 돈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지만, 스무살 쯤 된 소녀들은 파리로 도망쳐 거기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끔찍하게 가난했던 그들은 임시 일자리들과 과중 있는 번역 일에 의존해 살아가다. 프랑스 경찰과 러시아 대사관의 감시 아래에서 그들은 불평한 번 없었으며 알고 지내던 죽어가는 늙은 니힐리스트들을 상냥하게 돌보았다. 파르도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들의 마음씨가 선하다는 것과는 타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라틴어 구역 Arrabal Latino 의 주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학과의 학생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계속 파리에 머물다가 1894년 니콜라이 2세가 즉위할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해 그들은 새로운 차르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시베리아 중진 유형 선고를 받았다. 마리아 미하일로브나 루진은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파리에서 옴을 결핵으로 죽었고, 루이제 바노브나 크릴로프 역시 몇 달 후 토볼스크의 감옥에서 같은 병으로 죽었다.⁴³

파르도의 러시아어 선생님은 리살이 유럽에도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리살은 틀림없이 친구로부터 그 유명한 니힐리스트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살이 파르도와 함께 러시아 소녀들의 방에 들러 손님들을 위해 언제나 뜨겁게 해놓은 사모바르 옆에서 수다를 떨지 않았을 리가 없다. 훨씬 덜 분명한 것은 과연 엄격하게 말해 그들을 니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전복적 지하 운동의 복잡한 전개에 대한 정보

⁴² 차르의 비밀 경찰 - 역자주

⁴³ 트리니다드 파르도 데 타베라가 마닐라의 The Women’s Outlook 을 위해 쓴, “Las Nihilistas”라는 제목이 붙은 1922년 11월 10일자 기사. 파르도의 아버지인 호아킨 (부친의 이른 사망 이래 그를 돌보아 주던) 은 마리아나 제도에서 4년간 유형 생활을 한 이후, 1875년 파리로 옮겨와서 같이 살자고 조카를 불렀다. 마드리드에서의 리살처럼 그는 의학과 문학을 모두 공부했으며, 의학으로는 소르본을, 문학으로는 국립 동양학 대학인 É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를 1885년에 졸업했다. 전공이 말레이 세계의 언어들이기는 했지만, 그는 러시아어와 산스크리트어도 알았다. 파르도의 다채로운 정치적 역량과 학문적 인공헌에 관해서는 방금 출판된 Resil Mojares, Brains of the Nation, Pedro Paterno, T. H. Pardo de Tavera, Isabelo de los Reyes, and the Production of Modern Knowledge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6), pp.121~252 참조.

livertarian enclaves 을 건설했다.”⁴⁰ 말라테스타 자신도 1885~89 년 을부에노스아이레스안팎에서 전도하는 데 바쳤다.⁴¹

그리고 리살은? 그는 1885 년에 스페인을 떠났으며 이는 아나키스트 ‘본노 outrage’의 첫 번째 물결이 1888 년 스페인에서 시작되기 한참 전의 일이었다. 그가 파리에서 보낸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1885 년 이후 유럽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대부분 독일, 영국, 벨기에에서의 것이었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아나키스트 활동이 별로 대단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신문의 열독자였으며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 정치의 동향을 쫓았다. 이런 명백한 질문이 떠오른다. 실제로 그는 유럽의 급진주의자들 중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까? 증거는 정황적이지만 재미있다.

리살의 좋은 친구였던 트리니다드 파르도 데 타베라는 노년에 파리의 러시아 니힐리스트 두 세대와 자신의 가까운 관계를 묘사하는 글을 썼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자신도 알렉산드르 2 세를 숭배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니힐리스트들의 대담하고 무척이나 큰 책임감에 감탄했다. 이들에 대해 내가 갖고 있었던 정보는 당시 그 똑같은 차르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들로 인해 이미 세 번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나의 러시아어 교수 미하일 아치나츠키 (Michael Atchinatski) 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내게 더욱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 ‘끔찍한 니힐리스트’는 교수형 집행관을 피하려 고파리로 도망쳤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거물적 수가 파멸한지 겨우 세 달 지나 결핵으로 죽었다고 파르도는 언급한다.

글의 나머지 부분은 파르도가 그의 의학 교수였던 ‘유명한 타르디외 (Tardieu)’로부터 소개 받은 두 명의 러시아 소녀에게 바쳐진다. 놀란 필리핀인이 과감하게 그들과 자신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하자, 그 위대한 남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⁴⁰ Perernicon, Italian Anarchism, p.3. 당시 나폴리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며한참 후 총리가 된 프란체스코 니티 (Francesco Nitti) 가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탄식하며 이에 대한 보완적이며 동시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학교들에서 아무리 개탄해도 지나치지 않을 오류로서 시해에 대한 변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해야 하겠다. 배운 것 없는 선생들은 열사와 살인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고대로마의 역사는 독재자와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살해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한 개인은 사회의 복수자이자 구원자가 된다. 나는 우연히 이탈리아의 꽤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문을 입수하였다. 브루투스부터 아게실라오 밀라노 (Agesilao Milano) 까지, 얼마나 많은 독재자 시해가 정당화되는지를 관찰해보면 놀랄 만하다. 모든 이들에 대한 찬사가 가나와 있다. 이탈리아, 특히 중부 이탈리아가 작은 독재자들이 가득 차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서 해자는 해방자가 되었다. 이전 통은 불운하게도 연속화되어 왔다. 시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정적 살해에 갈채를 보내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덜가증스러운 시해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쁜 이탈리아 아나키스트’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North American Review, 167: 5 (November 1898), pp.598~607 중 p.607.

⁴¹ 같은 책, p.7.

드의 호화선박 접나호로부터 마르세유에 상륙하였다.¹³ 육지에 내려서 겪은 최초의 불쾌한 충격은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마닐라와 마찬가지로 돌로포장되어 있고 사람들로 붐비는 넓고 깨끗한 거리를 따라 걸으며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들은 나를 중국인, 일본인, 아메리칸인 [americano, 즉 라틴 아메리카 사람] 등등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필리핀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더군요! 불운한 나라!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라니!¹⁴

마드리드에서 그는 동료 학생들에게 필리핀이 영국 소유인지 스페인 소유인지,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질문을 받았다.¹⁵ 그렇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스페인의 압도적인 무지와 무관심은 공유용한 결과를 낳게 된다. 식민지 내에서는 — 스페인 국가가 절대 필리핀도 쿠바도 식민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식민지 관할 부서도 없었지만 — 법과 징세 방법, 사치 금지 법에 뿌리박힌 인종적 위계 질서가 모든 이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본국인, 크리올, 스페인계와 중국계 메스티소, ‘중국인’, ‘인디오’는 밑줄이 짝 그어진 사회적 계층이었다. 필리핀에서 ‘필리피노 filipino’라는 말은 크리올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살과 그 동료 학생들은 스페인에서는 이런 구별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상관 없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챘다.¹⁶ 18 세기 후반 마드리드의 라틴 아메리칸인들이 리마에서 왔는지 카르타헤나에서 왔는지, 크리올이든지 조상의 피가 섞였든

¹³ 리살의 Diarios y memorias 에 포함된 Diario de viaje. De Calamba á Barcelona, p.57 에서 스무살의 리살은 (행보의) 아덴이 “내게 단테의 지옥편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썼다. 6 월 23 일 바르셀로나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가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잠시 멈추었으며, 재판에서 에드몽 단테스가 그토록 오래 갇혀 있었던 이프섬에 감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Correspondencia epistolar (Manila: Comisión del Centenario de José Rizal, 1961), Tomo II, Libro I 의 Cartas entre Rizal y los miembros de la familia, 1886~1887, pp.20~21.

¹⁴ One Hundred Letters of José Rizal (Manila: National Historical Society, 1959), p.26.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1882 년 6 월 23 일 라자 편지. 이 편지들은 큰 Correspondencia epistolar 가 출판될 당시에는 입수되지 않고 있었다.

¹⁵ “Que nos tomen por chinos, americanos Ó mulatos y muchos aun de los jóvenes estudiantes no saben si Filipinas pertenece á los ingleses ó los españoles. Un día preguntaban á uno de nuestros paisanos si Filipinas estaba muy lejos de Manila.” 같은 책, p.85. 마드리드에서 집으로 보낸 1883 년 1 월 29 일 자 편지.

¹⁶ 『놀리메타헤레』의 새로운 프랑스어 번역본에 붙인 일류의 서문에서, 번역자 호비타 벤투라 카스트로 (Jovita Ventura Castro) 는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이 본국의 대학에 등록할 수도 있도록 용된 것이 1863 년 이후였다고 지적한다. 처음 등록한 것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과 신체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크리올들이었다. 색깔이 섞인 메스티소와 인디오는 1870 년대 후반에야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러므로 눈에 띄게 새로운 존재였다. N’y touchez pas! (Paris: Gallimard, 1980) 참조. 이 판본은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았다.

시간에 ‘아메리카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의 지위가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서 그들 모두는 ‘필리피노’였다.¹⁷ (똑같은 과정이 현대 미국의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1887년 4월 13일 리살은 블루멘트리트에게 이렇게 쓴다.

우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도 다들 정치에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지요. 마드리드에서 우리 신문을 내는 나의 친구들도 이것을 이해합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젊은 이들, 크리올·메스티소·말레이인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그저 필리핀인 Philippiner 이라 부른답니다.¹⁸

그들이 ‘무엇인지’(식민지에서)는 그들이 본국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는지’(공적으로)와 대조된다. 그러나 실은 생략된 것이 더 있는데, 이 메스티소들 대다수는 스페인계가 아니라 중국계라는 것이다. (실로 중국계 메스티소들은 필리핀에서 스페인계 메스티소의 수를 훨씬 능가했다.)¹⁹ 개입되어 있는 정치적인 노력 esfuerzo 이 왜 그들의 신문이 스스로를 희망적으로, 또한 인터내셔널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연대 La Solidaridad」라 불렀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필리핀 민족주의는 그 장소의 기원을 필리핀보다 스페인의 도시 지역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해 동안 리살은 마드리드의 센트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1885년 여름까지 그는 철학과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돈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의학 박사 학위도 받았을 것이다. 1896년 말 리살이 처형된 이후, 그 필리핀인보다 세 살 어렸지만 철학, 문학과에 그보다 2년 일찍 입학하여 1884년에 졸업한 미겔 데 우나무노가 학생 시절 그를, 말하자면, 주변에서 종종 보았다고 진실된 듯한 주장을 했다.²⁰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리살이 졸업반이 되던 해 (1884/85) 초에 그의 역사 교수가 자스페인 프리메이슨의 총본부장인 미겔 모라이타 (Miguel Moraytra) 성직자들의 반계몽주의에 대한 통렬한 공격과 학문의 자유

일부 아나키스트들이 더 이상 러시아식으로 국가지도자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계급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향한 새로운 종류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징표이다.

우리는 나중에 젊은 아나키스트들에 의한 ‘이른 테러리즘’의 사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제 1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의 20년 동안 분출한 극적인 암살 사건의 홍수에 잠시 시선을 돌림으로써 몇몇 재미있는 특징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럽 안에서는 영국과 독일, 그 바깥에서는 중국과 오스만 제국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국가가 목록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³⁹ 둘째, 1894~1901년의 아나키스트 암살 사건들은 그 이후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셋째, 민족주의자들이 대개 그들의 지배자를 죽인 반면, 아나키스트 암살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의 명분을 실천했다. 마지막으로 아나키스트들 중 이탈리아인들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상당히 인상적이며 “이탈리아인들이 아나키스트 이상의 선교사로서 행한 독특한 역할”에 대한 페르니코네의 언급을 확증하는 듯하다. “정치적 망명자들과 이주자들로서 그들은 프랑스, 스위스, 영국,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튀니지의 이탈리아인 사회에 자유지상주의 구역들

¹⁷ 나의 책,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91), p.57 참조.

¹⁸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1886~1889, p.72 참조. 필리핀인 Philippiner 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필리피노’를 둘러싼 모호함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명쾌하고 간단하게 (원시)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¹⁹ ‘중국계 메스티소 mestizo chino’라는 말이 『놀리메탕헤레』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엘 필리부스테리스모』에서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나온다는 것은 꽤 인상적인 일이다. 그런 메스티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살은 그들의 결정적인 성씨를 언급하지 않음도 민족주의를 기을 인다. 참슬프게도, 중국인에 대한 스페인의 편견은 이 젊은 반식민주의 엘리트에게 꽤 심한 정도를 흡수되었다.

²⁰ 바스크인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 시인, 소설가인 미겔 데 우나무노 이후고 (Miguel de Unamuno y Jugo) 의 ‘찬사 Elogio’는 W.E. Retana, Vida y escritos del Dr José Rizal (Madrid: Victoriano Suárez, 1907) 에서 인용된 것으로, 『놀리메탕헤레』의 베네수엘라판 (Caracas: Biblioteca Ayacucho, 1976) 에 대한 맥시코인 레오폴도 세아 (Leopoldo Zea) 의 유익한 서문에 언급되어 있다 (p. x v iii).

³⁹ 사실 1878년에 카이저 빌헬름 1세에 대한 진짜 아나키스트들의 살해 기도가 5월 11일 막스 페델에 의한 것, 그리고 6월 2일 일칼노 빌링에 의한 것, 이렇게 두 차례나 있었다 (Pernicone, Italian Anarchism, p.148). 다른 계획이 프랑크푸르트 경찰 본부에서의 폭발이 후적 발되었다. 그 ‘아나키스트’ 지도자 라칭해지는 아우구스트 라인스도르프는 재빨리 처형되었으며 경찰 총수인 롬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되었다. 안개로 덮인 사건으로, 롬프가 조작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런던에서는 런던 탑과 빅토리아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탄 투척 음모가 있었다. Núñez, El terrorismo, p.18 참조. 이 ‘사건들’은 재빨리 헨리 제임스의 『캐서머서머 공작부인 Princess Casamassima』 (1886) 에, 그리고 한참 지난 후 조지 프렌치의 『비밀정보원 The Secret Agent』 (1907) 과 『서구인의 눈으로 Under Western Eyes』 (1911) 에 반영되었다. 1882년 5월 신임 아일랜드 담당 장관인 캐번디시 (Cavendish) 경과 그의 차관에 대한 페니언어회 (Fenian[아일랜드 민족주의 비밀결사 — 역자주]) 의 암살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했다. 그들의 지위가 위에 언급된 인물들에 비해 면한 참 떨어지는 데다, 페니언어회도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죽인 민족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와는 거리가 한참 멀기는 했지만 말이다.

1878년 젊은 옴베르토 1세의 왕위 계승이 빚어낸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석방되었다. (이 분위기를 인하여 '인터내셔널 공화국 만세'라는 말이 새겨진 단검으로 젊은 왕을 죽이려다가 아깝게 실패한 젊은 아나키스트 요리사 조반니 파사난테 Giovanni Passanante 도 가벼운 형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³⁶ 베네벤토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후, 말라테스타의 가까운 동료 안드레아 코스타 (Andrea Costa) 가 제네바에서 새로운 전술을 이론화하는 강연을 했다. 8월 초에는 폴 브루스 (Paul Brousse) 가, 종이에 쓴 말 words on the paper 은 민중의식 conscience populaire 의 각성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글을 급진적인 「쥐라 연맹회보 Bulletin de la Fédération Jurassienne」에 발표했다. 러시아인들이 차르 정권만 큼 무자비해 질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자신사적인 크로포트 킨이 12월 25일 「반역자 Le Révolté」의 1880년판에서 아나키즘이란 이론적으로 “말과 글, 단도, 총, 다이내마이트를 이용한 영구적 반역…… 합법적 영역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정의 를 내리며 행동으로 방향을 틀었다.³⁷ 이제 1883년 9월 2일 『검은 깃발 Le Drapeau Noir』이 <프랑스 니힐리스트 선언 manifeste de Nihilistes Français>을 비밀스럽게 출판해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일만 남게 되었다.

동맹이 존재했던 3년 동안, 수백의 부르주아 가족이 의학이 정의를 내릴 수도, 물리칠 수도 없었던 불가사의 한 질병에 삼켜짐으로써 스스로를 파멸의 공물로 바쳤다.

대규모의 독살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촉구가 혁명가들을 향했다. (몇 달 전 리살은 첫 번째로 행복한 파리에 여행을 했었다.)³⁸ 이 모든 것은

체에 자리를 잡았으며, 1865년 나폴리로 이주하여 1867년까지 그 지역이 머물렀다. (그는 어떤 피렌체인 추종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여기에는] 피렌체보다 무한히 많은 활기와 진정하고 정치적·사회적 삶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이탈리아 지부를 그곳에 설치하였으며, 말라테스타는 그가 가장 초기에 충원한 이들 중 하나였다. 나중에 말라테스타는 러시아인이 “나폴리의 전통이라는 죽은 저수지에 신선한 공기의 숨결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에게 접근한 청년들의 시각을 광대한 새로운 지평선으로 향해 열어 준 남자였다”고 회상한다. 사실 남부 이탈리아는 혁명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였는데, 전통적 농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제가 카보우르와 그 계승자들의 자유무역 정책에 의해 몰락한 데다 정치적 계급은 그 전에 스페인의 부르봉 왕가에 의해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나 (1861년 이탈리아 재통일의 여파로) 피에몬테의 의회에 해정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고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니코네는 또한 바쿠닌이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앙겔스의 다소간의 바보스러움과 이탈리아의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었던 코뮌에 대한 마치니의 병적 인공격에 힘입어 마르크스와 앙겔스를 완전히 능가하였는지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제공한다. 바쿠닌이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듯이, 마치니는 “언제나 ‘이탈리아를 위한 이탈리아 국민’을 원했지만, ‘이탈리아 국민을 위한 이탈리아’를 원하지 않았다.” 같은 책, pp.17, 27, 44-53, 24.

³⁶ Joli, The Anarchists, pp.102-05.

³⁷ Maitron, Le mouvement, pp.77-78.

³⁸ 같은 책, p.206.

에 대한 공격적인 방어를 담은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일어났다.²¹ 이 학자는 아빌라의 주교를 비롯하여 주교관을 쓴 다른 이들로부터 이단의 죄목과 스페인의 전통과 문화를 더럽힌 죄목으로 즉각 파문당했다. 학생들은 모라이타를 옹호하는 두 달 간의 휴업에 돌입했고, 그라나다와 발렌시아, 오비에도, 세비아, 바야돌리드, 사라고사, 바르셀로나의 큰 대학들의 동료 학생들은 이들을 재빨리 지지했다.²² 그러자 정부는 경찰을 보냈고,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거나, 구타당하거나, 그 두 가지 모두를 당했다. 나중에 리살은 자신이 모라이타의 집에 숨고 세 가지 다른 변장을 하여 겨우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²³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듯이, 이 경험은 변형을 거쳐 『엘 필리부스테리슴』의 플롯에서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된다.

학생 시절의 사건들 중 밑줄을 칠 만한 일이 여기에 딱 한 가지 더 있다. 1883년 봄 파리에 서보넨 리살의 첫 방학이다. 앞서 우리는 그가 프랑스의 수도에서 가족에게 보낸 흥분 섞인 편지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 없다. 파리는 그에게 제국 스페인을 경제적·과학적·산업적·교육적·문화적·정치적으로 심각하게 후진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한 최초의 지리적·정치적 공간이었다.²⁴ 이것은 그의 소설이 식민주의 하에서 쓰인 반식민지 소설 가운데서 유독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유의 한 가지이다. 그는 식민주의자들을 단순하게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비웃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놀리 메 탕헤레』를 출판한 이후에 야에두아르트 다우에스 데커의 『막스 하벨라르』를 읽었지만, 왜 그가 그 네덜란드인의 남의 기분 따위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의 풍자를 즐겼는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²¹ 모라이타가 교단을 특히 분노케 한 것은 리그베다가 구약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강조와, 이집트인들이 사후 세계에서 의 응보라는 관념을 선구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주장, 그리고 대홍수와 천지 창조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였는데, 당시 로마 교황청은 여전히 천지 창조가 기원전 4404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Manuel Sarkisyanz, Rizal and Republican Spain (Madrid: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95), p.205.

²² Rizal, El Filibusterismo, endnotes, pp.38-39. 편집자들은 볼로냐, 로마, 피사, 파리, 리스본, 쿠임브라, 그리고 독일 각지의 학생들로부터의 축전과 지지 시위가 무덤뚫이 쇠도했다고 덧붙인다.

²³ 리살이 1884년 11월 26일자 편지 (One Hundred Letters, pp.197-200)에서 가족에게 보낸 생생한 설명을 참조.

²⁴ 1860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 노동 인구는 직업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었다. 농업 노동자 2,345,000명, 소농 1,466,000명, 하인 808,000명, 직공 665,000명, 소상공인 333,000명, 극빈층 262,000명, 공장 노동자 150,000명, 전문직 및 그와 관련된 직업 100,000명, ‘고용인 (국가 공무원)’ 70,000명, 성직자 63,000명 (여성 20,000명 포함), 광부 23,000명. Jean Bécarud and Gilles Lapouge, Anarchistes d’Espagne (Paris: André Balland, 1970), vol. I., pp.14-15. 40년 후인 1901년에는 바르셀로나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있었지만 절반만은 문맹이었다. J. Romero Maura, “Terrorism in Barcelona and Its Impact on Spanish Politics, 1904-1909”, Past and Present, 41 (December, 1968), p.164 참조.

졸업할 즈음 이 되어서는 그는 식민 본국에 대해 충분히 겪은 상태였다. 그 후 6년간을 그는 ‘선진’ 북쪽 유럽에서 보냈다. 이는 리살보다 여덟살 많은 호세 마르티가 1870년대 중반 스페인에서 공부한 후 그곳을 영원히 떠나 남은 삶의 많은 부분을 뉴욕에서 보낸 것과 유사하게 보인다.

비스마르크와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놀리 메 탕 헤레』가 출판되었으며 『엘 필리부스 테리소모』가 기획되었던 1880년대에 그가 놓여있었던 세 가지 세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스물네살의 리살을 잠시 떠나기로 한다.

1866년 빈 회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군대를 참패시킨 후, 철강의 재상은 1870년에 루이나폴레옹과 10만명의 프랑스 군대에 게 항복을 받아내며 마당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로는 베를린이 아니라 베르사유에서 1871년 1월 새로운 독일 제국이 선포되게끔 추진하고 알자스-로렌을 합병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부터 제 1차 세계 대전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제국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다.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그 전 시기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유럽 바깥에서의 제국주의적 모험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경쟁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주요 관심 지역은 아프리카였지만 극동과 오세아니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리살의 궤적과 가장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다.

아무지도책이나 펼쳐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하와이와 필리핀을 잇는 직선을 따라 넓게 위치한 지역에 삼각형을 이루며 세 개의 군도가 펼쳐져 있는데, 북쪽 끝에 마리아나 제도, 동쪽 끝에 캐롤라인 제도와 마셜 제도가 각각 남서쪽과 남동쪽 끝에 있다. 마리아나 제도는 마닐라 동쪽에서 대략 직선으로 2,30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캐롤라인 제도의 서쪽 끝은 필리핀 남부의 섬 민다나오에서 직선 거리로 1,000킬로미터 동쪽에 있고, 마셜 제도는 그보다 2,600킬로미터 더 동쪽에 있다. 교황청이 태평양을 스페인 제국 지배자의 영해 *mare clausum* 라 선포했던 제국주의 초기 시대부터나 폴레옹 전쟁 시기까지 이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스페인에 복속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사실 스페인은 석탄을 공급하는 항구와 정치적인 말썽꾼들을 추방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 말고는 제도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통치가 조급이라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임무는 필리핀 총독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1878년 독일 이민간 상업의 바닷길을 따라 마셜 제도에 몇 대로 석탄 공급지를 설치했다. 1884년 베를린은 그때까지 사유회사가 지배하던 뉴기니 북동부(캐롤라인 중부에서 남쪽으로 직선 거리 1,300킬로미터)를 합병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야프 섬에 제국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캐롤라인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의 힘을 두려워한 스페인인들은 마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강조, 위계적인(‘관료적인’) 조직에 대한 전형적인 의심, 신랄한 수사적 선호로 인해 아나키즘이 우익 정권의 엄혹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조건 하에서 갖는 매력은 특히 큰 것이었다. 이러한 정권들은 수 십개나 되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소집단들 groupuscules’을 쫓아서 뚫고 파괴시키는 것보다 노동 조합과 정당을 박살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다. 아나키스트 이론은 당시 주류 마르크스주의의 경향에 비해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에게 덜 경멸적이었다. 또한 더 노골적으로 반 교권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혁명적 아나키즘이 아직 농민의 수가 상당히 많았으며 로마가 톨리크가 있던 코뮌 이후의 프랑스와 왕정 복고 스페인, 통일 이후의 이탈리아와 쿠바, 심지어 황금 광시대의 아메리카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퍼진 데 비해, 대개 개신교였으며 산업적이고 준민주주의적이었던 북쪽 유럽에서는 주류 마르크스주의에 비해 훨씬 덜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에는 아마 이러한 조건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모진 1870년대가 끝날 무렵 지식인 아나키스트 서클들 내에서는 ‘행동에 의한 선전 propaganda by the deed’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떠올랐는데, 이는 반동적인 당국과 자본가들에 대한 극적인 암살 시도 attentat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받는 자들이 혁명을 위해 스스로를 재정비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역사가들은 이 새로운 국면이, 거의 우스울 정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1877년 4월 나폴리의 북동쪽 베네벤토의 봉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곤 하는데, 이 봉기는 에리코 말라테스타(Erriko Malatesta)와(일찍이 마키오레 호수의 안전한 북부 기슭³⁴으로부터 바쿠닌에게 자금을 제공했던) 그의 부자 친구 카를로 카피에로(Carlo Cafiero)라는 두 젊은 나폴리인들과, 투르크에 대항한 1875년 보스니아 봉기에 참여했으며 우리가 보았듯이 차르 비밀 경찰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스물다섯살의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크라프친스키, 일명 스텝니악(1852~95)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다.³⁵ 재판에 부쳐진 두 이탈리아인은

1,300 부에서 2,000 부로 뛰어올랐다. 1894년 사디카르노대통령의 암살 전야에 국가에의 해박살날 무렵 부수는 7,000 부에 달했고 프랑스, 알제리, 미국, 우크라이나,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우루과이, 인도, 이집트, 과테말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 구독자들이 있었다. 러시아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 조직적 apache 대응물이었다면 푸제(Emile Pouget)의 풍자적인 「르페르페나르 Le Péré Peinard」(“Bons bougres, lisez tous les dimanches”)의 반경은 약간 더 좁았지만, 그럼에도 이 잡지의 언어가 파리의 언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알제리, 영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벨기에,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모나코. Le mouvement, pp.141~46.

³⁴ 스위스를 뜻함. 역자주

³⁵ Nunzio Pernicone, *Italian Anarchism, 1864~1892*(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118~28 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 바쿠닌은 1864년에 피렌

하러는레프하르트만의시도가수포로돌아갔다. 1880년: 스테판할투린 이성공적으로제국공전의일부분을날렸다. 8명이사망하고, 45명이부상을입었다. 이제노벨의발명이정치적으로도래하게되었다. 그리하여 1881년 3월 1일, 리살이마르세유에내리기 15개월전, 스스로를나로드나야볼라(인민의의지)라부르는그룹이차르를폭탄으로암살하는극적인사건이일어났으며, 이는온유럽에반향을일으켰다.³¹(몇달후의미국필드대통령암살은거의주목을 끌지 못했다.)

러시아의돌풍은유럽전체에걸쳐심대한효과를갖게된다. 이는 1876년에서사망한바쿠닌(1814년생)의한시대와, 같은해차르의감옥으로부터서유럽으로도망쳐온표트르크로포트킨공(1842년생)의두번째시대에의해상징적으로대표될수있다.

평화로운스위스에서 1866년과 1867년에열린공산주의인터내셔널의처음두번의총회는마르크스를중심적위치에두고충분히조용하게진행되었다. 그러나다음해브뤼셀에서열린제 3차대회에서는바쿠닌의영향력이강력하게느껴졌으며, 1869년에바젤에서열린제 4차대회에서는바쿠닌주의자들이이미다수파였다. 제 5차대회는파리에서열리기로되어있었으나스당때문에불가능해졌다. 1872년헤이그에서마침내대회가열리게되었을무렵, 인터내셔널은가망이없을만큼분열되어있었다. 바쿠닌주의자들의대회가 1877년까지계속열리긴했지만, 바쿠닌이죽은해인터내셔널은해산되었다.³² 같은해전문적-정치적의미로서 ‘아나키스트’라는단어가만들어졌으며, 빠르고넓게퍼져나갔다(아나키즘의목적과방법에대하여경쟁적이면서서로가루반이름하는여러사상적조류들이존재한다는것도한명백하기는했지만).³³

³¹ Núñez, *El terrorismo*, pp.66-67; Norman Naimark, *Terrorists and Social Democrats: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under Alexander III*(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chapter 1; Derek Offord,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1880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hapter 1; 그리고특히 David Footman, *Red Prelude*, second edition(London: Barrie Rockleff, 1968), passim. 첫번째폭탄은차르의몸에달았는데실패했다. 이를깨닫고셈파우가“미겔이바노비치엘니코프”라고이름붙였지만실제로는이그나테이그리네비츠키(Ignatei Grinevitsky)인인물은두번째폭탄을던지기전그가희생자와함께죽기에충분할만큼가까이다가갔다. 초기자살폭탄공격자라고도할수있겠다. 푸트먼의책의가치있는특징은나로드나야볼라활동가들 55명의일대기를담은부록이다. 열세명은처형당했으며, 열네명은감옥에서죽었고, 다른열네명은감옥에서살아남았으며, 여덟명은해의로도망쳤고, 네명은암살시도도중이나그이후에자살했고, 두명은비밀경찰을위해일하게되었다.

³² Jean Maitron, *Le mouvement anarchiste en France*(Paris: Maspéro, 1975), vol. I (Dès origines à 1914), pp.42~51 의간결한설명을참조.

³³ 메트론(Maitron)은이점에대한몇몇재미있는자료를제공한다. 가장중요한이론적인아나키즘출판물을하나만꼽으려면 1879년 2월안전한제네바에서처음출판된장그라브(Jean Grave)의「반역자 La Révolté」를꼽을수있는데, 그라브가파리로장소를옮기는것(1885)이가능하다고느끼고「반역 La Révolte」으로이름을바꾸기전에부수가

리드의성급한‘주권’확장에대한현지의저항을급히진압하고교황청에게입을요청했다. 로마는이주권을확인해주었지만, 독일인들이무역과석탄공급의특권을따냈고, 런던과의협상을통해마셜제도의지배권을갖게되었다. 다음해에는솔로몬제도가영국과독일에의해분할되었다. 1889년에는사모아섬이미국, 영국, 독일의합동지배하에 3국보호령이되었다.²⁵(제국주의가파우는이모든소동은『엘펠리부스테리스토』에명확한반향을남기는데, 마음씨가고운‘인디오’학생이사가나가억압받는섬의토착민들에대한공감과위협적인독일에맞선스페인과의연대감사이에서망설이는부분이있다.) 리살은비스마르크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아무런환상을갖고있지않았지만, 프로테스탄트적진지함, 그질서정연함과규율, 그인상적인지적삶과산업적진보가본국스페인과유익한대조를이룬다는점에서는독일에대해매우큰감명을받았다. 그는첫번째소설을마드리드가아니라비스마르크의수도에서출판한것에대해확실히행복해했던것같다.

프랑스에서는프로이센이스당에서승리한후파리를가차없이포위공격했으며, 이에루이나폴레옹을승계한흔들거리는정부는보르도로도망친후기껏굴욕적인후전협정, 그리고나중에는조약에서명하기위해다시베르사유에나타나게된다. 1871년 3월코뮌은버려진도시의권력을잡고두달동안장악하였다. 그러자베를린에굴복한베르사유는공격의기회를잡아소름끼치는일주일동안코뮌나르및동조자들의심되는자들 2만명가량을처형했는데, 이는당시전쟁에서사망한사람이나 1793~94년로베스피에르의공포정치기간에처형당한사람의수보다도훨씬더많은 것이었다. 7,500명이상이투옥당하거나뉴칼레도니아나카옌등의먼곳으로추방당했다. 다른수천명은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으로도망쳤다. 1872년좌파의조직가능성을모두차단하는엄중한법이 통과되었다. 1880년까지추방당하거나투옥당한코뮌나르들에대한일반사면은없었다. 그러는동안제 3공화국은인도차이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루이나폴레옹의제국주의적팽창정책을다시금부활및강화시키기에충분한힘을되찾았다. 프랑스의주요지식인및예술가들중꽤 상당수가코뮌에참여하거나(쿠르베는코뮌의문화부장관비슷한 것이었으며, 랭보와피사로는활동적인선전일꾼이었다) 동조적이었다.²⁶ 1871년과그이후의잔인한탄압은이런쪽사람들에게제 3공화국을멀리하게

²⁵ Karl-Heinz Wionsek ed., *Germany, the Philippines, and the Spanish-American War*, translated by Thomas Clark(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2000), pp.63~64 의의용한연대기를참조.

²⁶ Kristine Ross, *The Emergence of Social Space: Rimbaud and the Paris Commune*(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의생생한설명과 훌륭한분석, 또한 James Joll, *The Anarchists*(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pp.148-49 참조.

하고프랑스와해외에서희생당한이들에대한그들의공감을불러일으키는주요원인이었다. 나중에우리는이러한전개에대해더자세히살펴볼것이다.

스당은또한교황청의쇠퇴하는영토주권을보장해왔던프랑스수비대를로마에서빼내갔으며, 점점억압적이고비효율적이되어가는새이탈리아왕국의병력이그공백을차지했다. 그때까지완벽하게반동적이었던피오노노 (Pio Nono, 또는조반니마스터가-페레타) 는모든세속적권력을빼앗긴채스스로와그의사무실에유폐를선언하였으며, 왕국의정치적기관에참여하는로마가톨릭신자는모두파문하겠다고위협함으로써정치적·영적으로되받아쳤다. 이입장은 1920 년대후반무솔리니와의행복한정교협약이있기까지지속되었다. 2 류쥘되는이탈리아제국주의가동아프리카에서시작되었는데, 당시이탈리아남부농촌의비참함은너무나심각하여 1887 년부터 1900 년사이에매년 50 만명의이탈리아인들이나라를떠날정도였다. 리살은 1887 년로마를잠깐들렀지만유적외에는아무것도그의주의를끌지않은듯하다.

1888 년 2 월태평양을거쳐유럽으로돌아오는길에리살은메이지중기의일본에잠시머무어그질서정연함과활기, 야망에감명을받고, 인력거에소스라쳤다. 물론비유럽민족이그독립을보전하면서근대성을향하여빠르게성급성급나아가고있는모습을보는것은유쾌한일이었다. 홍콩에서도잠시머물렀지만중국자체는그의지도에서빠져있었던것같다. 그는반아시아선동이극에달해있던선거시기에샌프란시스코에다다랐다. 배는 650 명의중국인을태우고있었으며, 따라서인종주의적이민반대선거운동에무척유용했다. ‘검역’때문에며칠동안이나배에서나오지못했던것에화가난그는이대륙을가능한한빨리건너려고서둘렀다. 황금광시대의부패와남북전쟁재건이후예전에노예였던흑인들에대한억압, 잔혹한인종간혼인금지법, 린치등등이그에게가장깊은인상을남겼던것으로보인다.²⁷ 그러나그는이미태평양에걸친미국의팽창정책을예견하고있었다. 그리고나서그는대영박물관에서초기필리핀역사를연구하기위해느긋하게런던에정착했으며, 아일랜드에서서서히커가고있던위기는별관심을두지않았던것같다. (프림로즈힐에살면서앵겔스가가까이에자리를잡고있었다는것을알았을까?)

그러나이보수적인정치적지배와자본축적, 지구적인제국주의의걸로보기에는평온한세계는동시에리살의소설과더직접적으로관련된다른종류의세계의창조를촉진하고있었다. 실로 1883 년에이미그는앞으로오게될것들의방향을감지했다.

유럽은무서운전란이라는위협을지속적으로겪고있습니다. 세계의지배권은쇠퇴하는프랑스의떨리는손에서빠져나오고있지요. 북쪽의국

²⁷ 자세한묘사에대해서는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198 참조.

가들은이것을잡을준비가되어있고요. 고대의인물다모클레스의머리위에매달렸던갈처럼러시아황제의머리위에는니힐리즘의위협이매달려있으며, 이것이문명적인유럽입니다…….²⁸

검은깃발

리살이태어난해, 미하일바쿠닌은 1840 년대에차르의지배에대한한음모활동으로종신형을살고있었던시베리아로부터서유럽으로도망쳐왔다. 다음해인 1862 년투르게네프는일종의니힐리스트의사고방식과심리학에대한결작연구인 『아버지와아들』 을출판했다. 4 년후카라코조프라는모스크바학생이알렉산드르 2 세를저격하려다다른네명과함께스몰렌스크의거대한광장에목이매달렸다.²⁹ 같은해노벨이엄청나게불안정한니트로글리세린을기초로하고있지만사용하기쉽고안정적이며후대가편안하다이너마이트로특허를취득했다. 1869 년 3 월스물두살의니힐리스트지도자세르게이네차예프가러시아를떠났다. 그는제네바에서바쿠닌을만나, 센세이션을불러일으킨 『혁명가의교리문답』 을공저하고몇달후에모스크바로돌아왔다. 바쿠닌은이후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으로소설화된, 회의적인학생추종자를살해한악명높은사건에도불구하고이니힐리스트지도자와의 (긴장된) 관계를지속했다.³⁰

1870 년대말이 가까워지면서전제정치에대항하는급진적지조직으로서작은나로드니키집단들이니힐리스트들을대신하게되었고, 러시아에서성공이든실패든정치적압살은상당히흔한것이되었다. 1878 년: 1 월, 베라자술리치가상트페테르부르크군정장관인표도르트레포프장군을저격했으나죽이는데실패하였다. 8 월, 세르게이크라프친스키가차르의비밀경찰우두머리인메첸초프장군을찔러죽였다. 1879 년: 2 월, 그리고리골덴베르크가하르코프시장드미트리크로포트킨공작을저격살해하였다. 4 월, 알렉산드르솔로비에프가같은방식으로차르를죽이려고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다. 11 월, 제국철도의기차를지뢰로폭파

²⁸ One Hundred Letters, p.174. 1883 년 10 월 28 일자마드리드로부터집에보낸편지. 스페인은언급할가치조차없었나보다!

²⁹ 생생한그림 tableau vivant 은 Ramón Semp 며, Los victimarios(Barcelona: Manent, 1901), p.5 참조. 1877~90 년사이에러시아에서일어난, 성공하거나실패한암살시도의인상적인목록에대해서는 Rafael Núñez Florencio, El terrorismo anarquista, 1888~1909(Madrid: Siglo Veintiuno de España, SA, 1983), pp.19~20 참조.

³⁰ 이‘소집단 groupuscule’에는인민의복수 The People’s Retribution 라는특정적인이름이붙여졌다. 네차예프는스위스로다시도망쳤으나, 1873 년에인도처분을받은후 20 년형을선고받았다. 1882 년그는바더-마인호프식으로 “감방에서숨진채발견되었다.”

는 파괴된 상태였으며, 여기에는 대농장주들에 대항하기 위한 고메스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도 일익을 담당했다.⁴⁴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카노바스도 웨일레르도 군사적인 해결책 외에 그럴듯한 정치적인 해결책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볼 수 있듯이, 이 난국은 10 대를 간신히 벗어난 방향하는 이탈리아인 젊은이들의 해결될 것이었다.

쿠바로 가는 리살?

오랜 기간 좁은 다피탄에서 유형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리살은 도착 후 금방 정착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고요한 만의 해안 부근에 직접 기둥위에 올려진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고, 진료소와 동네 소년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열었으며, 농업과 식물학에 관심을 가졌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내준 것들 중 들여 보내진 것은 뭐라도 읽었다. 물론 그의 서신은 검열되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편지들은 차별하지만 신중하다. 그는 정착지 내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지휘관에게서 대개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1893년 여름, 마닐라의 본국 출신 인사회와 교단에게서 죽미움을 받는데 스푸홀의 이른 후임으로 새로운 총독 라몬 블랑코가 마닐라에 도착했다. 카를로스의 전쟁과 쿠바 10년 전쟁의 노장이기는 했지만, 블랑코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한편 리살의 다양한 친구들은 그를 구출하려 가려는 계획들,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배를 한 척 빌려서 홍콩으로 데려간다는 등, 사가스타 총리에게 사면을 받아 코르테스의 스페인인의 석에 출마하게 한다는 등 가하는 것들을 꾸며냈는데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1894년 11월 블랑코는 민다나오 중북부의 무슬림 마라나오 지역에서 벌인 작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직접 다피탄에 들렀다. 그는 리살에게 스페인으로 돌아갈 것을 (리살은 이를 거절했

하여 총 221,079 명으로 줄어들었다. 손실은 1,115,320 명, 즉 인구의 83 퍼센트에 달했다. 파라과이의 세력국도 백만의 목숨을 잃었다. Byron Farwell ed., Encyclopedia of Nineteenth Century Land Warfare (New York: Norton, 2001) 참조.

⁴⁴ Ojeda, El desterrado, p.340 은 쿠바군대의 도미니칸 대장이 내놓은 변명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심장에 손을 얹으면, 나는 내 손이 슬픔으로 다치는 것 같아 느낍니다. 그 모든 풍요의 옆에 놓인, 그 놀라운 부유함에 둘러싸인 그 비참함과 그 도덕적 빈곤을 만질 때, 내가 조각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볼 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너를 입고, 다른 이의 땅 위에 세워 올린 초라한 오두막에 살면서, 숙임수에야만 적으로 당하며 감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학교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런 것은 있는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 그럴 때 나는 분노하며 이 나라의 상류층에 깊은 적개심을 느낍니다. 그런 처절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불평등을 목격하는 격노의 순간, 나는 외칩니다. ‘헛불이 되게 할 은 총에 감사하옵고.’” 이 인용구는 Juan Bosch, El Napoleón de las guerrillas (Santo Domingo: Editorial Alfa y Omega, 1982), p.13 에서 가져온 것이다.

Pilar) 가 1889년 1월에도 도착하면서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 토착민 신부였던 델 필라르의 형은 1872년 이스키에르도의 탄압 당시 구속되어 마리아나 제도도 이송되었으며, 마르셀로는 테레로, 센테노, 키로가의 관대 한 지배 아래에서 수사지배 반대 및 민족주의 조직가로 기민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웨일레르가 도착한 후 그는 자신이 적혔다는 것을 알고 스페인으로 망쳤다. 그는 곧 필리핀 활동가들과 그들의 새로운 저널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윽고 국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마드리드로 저널을 옮겼다. 그때부터 1896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는 스페인을 한번도 떠나지 않았다.

델 필라르의 목적이 확실히 최종적으로는 필리핀의 독립이었고, 그가 마닐라와의 긴밀한 유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마닐라에서의 조직을 장려하기도 했으나, 그는 필수적인 초기 주요 조치들은 스페인 내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주의’ 내각과 코르테스의 자유주의자 및 공화주의자의 원들에 대한 로비를 전개해야 하며, 그동안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동화 assimilation 라는 강령을 통해 쿠바를 따라 잡는 것이었다. 쿠바는 오랫동안 코르테스에 대표를 보내고 있었지만 필리핀은 1837년에 이 권리를 상실했다. 1886년의 노예 제 폐지 이후 쿠바는 기본적으로 스페인과 똑같은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 카리브해 식민지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비종교적이면서 국가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교회의 정치적 권력은 미미한 편이었다. 델 필라르는 수준 높은 타갈로그어 문필가였으며 (사실 리살보다 나았다), 사석에서는 장래의 독립 필리핀에서의 언어 정책을 논의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오직 동화와 스페인화만이 마드리드가 쿠바와 같은 정치적 지위를 필리핀에 허용할 만한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필리핀에 국가가 지원 하는 진지한 스페인어 교육 체계를 관철해 내는 것은 또한 조국 특유의 교단지 배라는 기반을 파괴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었다.⁷⁶

⁷⁶ 슈메이커의 The Propaganda Movement 는 델 필라르의 삶과 생각, 목표, 정치적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면서도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위의 문단은 그의 논의를 상당히 불완전하게 축소해 놓은 버전이다. 아마 이 쪽에서 스페인에서의 쿠바인과 필리핀인의 접촉에 대해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식민 본국에서 프리메이슨 단원이 된 필리핀인들은 대개 쿠바인들이 다수인지 부에 가입해 곤 했었는데, 이는 아마도 쿠바인들이 스페인인들보다 더 친절하고 그들을 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코르테스의 공화주의의 그룹 크리올 쿠바인 원로 (왕정 복고 시대의 독특한 방식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와 아스투리아스를 대표했던) 였던 라파엘라 브라 (Rafael Labra) 는 강력한 지지론자였으며, 식민지 문제에 대한 반대 한 저작으로 인해 지적으로 영향력이 컸을 뿐 더러 필리핀 활동가들이 조직한 정치 연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연설을 했다. 그는 일찍이 스페인에서 최초의 노예 제 폐지 운동을 이끌었다 (1860년대 에!) (Thomas, Cuba, p.240). 이 이상의 유대는 189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바의 정치 지위 는 필리핀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며, 스페인에서의 쿠바인 대표들은 (메스티소나 ‘토착민’ 보다는) 본국 출신 자나 크리

델필라르와 그의 일파는 온건한 자유주의-공화주의 언론과 매우 적극적으로 유대를 맺어나갔으며, 보수주의 신문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논박을 펼쳤고, 아나키스트 좌파와의 관계는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인 이유들이 있는 신중함이었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식민지의 가난한 피지배자들을 위한 장학금이 전무했던 시대라 부유하고 연줄이 좋은 집의 자식들만이 식민본국에서 학업을 추구할 만한 여유가 있었다.

기질이 나재는 전혀 달랐지만, 리살과 델필라르는 서로를 존중했으며, 리살이 잠시 그 새로운 저널을 위해 열정적으로 글을 쓰던 시기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긴장되어 갔다. 델필라르는 리살보다 열한 살 더 많았으며, 필리핀에서 조직화라는 위험한 일에 몇 년간을 투자했고, 스페인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조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고현실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명민하고 끈질긴 로비스트였다. 사실, 그와 도역시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블루멘트리트와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그럴듯한 행동의 노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는 세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첫째는 이면에서 가장 큰 불리함은 그의 정책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환멸이 들어서 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칼람바사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때 그는 리살의 가족과 주민들의 대의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으나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다. 둘째, 그의 로비가 주장하는 효과는 스페인 정치가들과 정치평론가들에게 스페인의 필리핀인 사회가 굳건히 그의 배후에 있다고 설득하는데 달려 있었고, 따라서 그는 리살이 이렇게도 격렬하게 비난했던 도박과 여자 문제, 음주, 사소한 파벌 다툼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연대」의 편집 방침은 쓸데없이 스페인 독자들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가마드리드의 우익 언론에 의해 이용당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피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리살을 멀리 북쪽 유럽에 있었으며, 필리핀에서든 스페인에서든 실제적인 정치적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현실적인 결과들을 산출해 내거나, 필리핀인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었다고 여긴 도덕적 결점들을 용인하거나, 자신이 경멸하거나 혐오했던 스페인인 정치가와 기자들의 개인적인 감수성에 대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가 스페인인 대중이 아니라 필리핀인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890년 4월, 두 사람 모두에게 아직 일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 리살이 그의 기고문 하나의 편집본을 돌려주면서 권고된 부분을 모두 수정했다고 말하면서 도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덧붙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정은 “나의 생각이 바뀌거나, 그에 따라 나 자신을 표현하는 나의 방식이 망쳐지지 않

을 일 가능성이 더 높았고, 두 식민지의 당면 문제들은 무척 달랐다. 나는 1890년대 이전 스페인령 필리핀에 가보았다는 쿠바인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식민지 시대 후반에 쿠바를 직접 경험한 필리핀인은 한 두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시키기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의 충심에서 나온 거저 없는 의견은, “개혁여부와는 상관없이” 12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이네.⁴⁰

멀리 내다보는 노련한 총독은 제국주의의 명분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돌렸다.) 개혁은 민족주의의 파도에 맞서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군사적 승리는 막대한 피해를 동반할 것이며, 12년 내에 재차 벌어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었다. 카노바스가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는 쿠바에서의 패배가 단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그와 사가스타가 지난 세대에 걸쳐 스페인에 건설해 놓은 토호 민주주의를 거의 틀림없이 파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2류 유럽 국가의 지위로 떨어뜨림으로써 그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에 통렬한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웨일레르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그를 아바나로 급파했다.⁴¹ 장군은 1896년 2월 10일 쿠바에 도착했으며 그 후 18개월간 거기에 머물렀다. 카노바스는 그의 말에 충신했다. 웨일레르를 지원하기 위해 그는 20만 명에 달하는 스페인 군대가 조속히 카리브해의 섬으로 수송될 것임을 보증을 했는데, 이는 그때껏 대서양을 건너 운송된 군대 중 가장 큰 규모였다.⁴²

웨일레르는 카노바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강철같은 프로이센적 효율성으로 그는 1896년 중에 군사적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12월, 마세오와 막시모 고메스의 아들 ‘판초’가 전사했으며, 살아남은 아버지는 대개 쫓기는 쪽이 되었다. 그러나 대가는 엄청났다. (전쟁까지 이르는 기간, 그리고 전쟁 종국 이후에 위선적인 미국인들이 벌인 짓에 대한 경멸을 주된 이유로 하여) 전반적으로 카노바스와 웨일레르에게 호의적인 후토머스는 “섬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로 변했다”라고 논평한다. 1895년과 1899년 사이에 쿠바의 인구는 18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섬 전체에 걸친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은 영양실조와 그에 생하는 질병으로 죽은 어린아이들이었다. 토머스의 주장에 의하면 1899년 쿠바는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 세계에서 5세 이하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였다. 19세기에 인구의 6분의 1을 잃은 나라는 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다.⁴³ 경제

⁴⁰ Thomas, Cuba, pp.320~21에서의 인용. 강조를 위한 따옴표는 나 [저자] 의 것.
⁴¹ 웨일레르는 1893년 11월 29일 부터카탈루냐 사령관직에 있었으며, 그의 임기는 파울리노 파야스의 처형을 맡기에는 두 달 늦은 것이었지만, 산티아고 살바도르의 처형을 감독하게 되는 시기였다.
⁴² Thomas, Cuba, p.349. 마드리드가 1898년 6월 (미국인들에게) 항복했을 무렵, 스페인이 지른 비용은 15억 페세타 이상이었으며, 게다가 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황열병을 비롯한 질병의 희생자였다. (p.414)
⁴³ 같은 책, pp.328, 423. 토마스의 비교상의 주장은 적어도 하나의 사례를 보아서는 부당한 것이다. 186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 파라과이의 인구는 1,337,439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과라니였다. 5년 후 전쟁이 끝났을 때 이는 28,746명의 성인 남자와 15세 이상의 여자 106,254명, 86,079명의 어린이를 합

되었다. 3 월마드리드에서는자유주의총리사가스타가, 스페인은반란을쳐부수기위해“마지막페세타까지다쓰고, 우리아들들의마지막핏방울까지다바칠”준비가되어있다고상원에엄숙하게선언했으나, 전쟁의시기에나라를이끌도록마련돼있지는않았다. 그의정부는 8 주가지나기도전에무너졌던것이다.³⁹ 여섯번째로, 그리고마지막으로권력을잡은카노바스는재빨리유능한정치장군이자 10 년전쟁을협상으로종식시킨설계자였던아르세니오마르티네스캄포스에게총독겸사령관으로쿠바로돌아가라고설득한다. 우리는마르티네스캄포스가바르셀로나총사령관으로있던시기인 1893 년 9 월 24 일, 파울리노파야스가감행한아나키스트폭탄공격의표적이되었던것을기억할것이다. 상처를입지않은그는이후스페인령모로코의반란을진압하기위해파견되었다. 그는제국내의군사-정치적안정이라는목적을달성할만한경험과신망을지닌유일한인물이었다. 여덟달후, 그는쿠바땅에서사라진다.

1895 년 6 월이라는이른시기에, 마르티가그전달전투중사망했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 신임총독은새로운현실에대해망상없이묘사한다. 그리하여그는카노바스에게이런편지를쓴다.

이섬의몇안되는스페인인들만이스스로스페인인이라선언하고 …… 나머지 …… 스페인을증오하네 …… 문명국의대표로서, 나는 …… 비타협의전례를먼저만드는쪽이될수없으며, 그들이시작하기를바랄수밖에없네. 농가의가구들을도시에집결시킬수있겠지만, 그렇게강요하는데에는무력이필요할텐데, 이미내륙에는 [스페인쪽에] 지원해서싸우고자하는이들이거의없기때문이지 …… 비참함과공공은끔찍해질것이야. 그러면그들에게배급을주어야하는데, 그대상은지난전쟁에서하루에 4 만명에달했네. 이렇게하면농촌을도시로부터격리시킬수는있겠지만, 정탐을막지는못할텐데, 정탐은여자와과아들이할것이기때문이지. 아마우리는여기까지오게되겠지만, 이는최종수단일뿐이고, 나자신은이러한정책을실행할만한자질이부족하다고생각하네. 현직장군들중에서는웨일레르만이이러한정책을실시하는데필요한역량을갖추고있는데, 그만이필수적인지적능력과용기, 전쟁에대한지식을겸비하고있기때문이라네. 친애하는친구여, 생각해보게나. 논의이후에내가이야기한정책에찬성하게된다면, 지체하지말고나를소환하게. 우리는스페인의운명을가지고도박을하고있네. 그렇지만나는어떤신념들을지키고있고, 이신념들이모든것에우선해. 그로인해나는즉결처형이나그런비슷한행위들을실시할수가없네 …… 우리가전장에서승리하여반도들을진압한다하더라도, 나라는우리의적들을사면하기도, 그들을절멸

³⁹ Carlos Serrano, *Final del imperio. España 1895-1898*(Madrid: Siglo Veintiuno de España, Edit. SA, 1984), p.19 로부터인용한 Fernández, *La sangre de Santa Águeda*, p.125. 페르난데스는이유명한경구가총독카노바스에게로잘못 돌려진다고말할기회를잡는다. 자유주의자들의인지부조화사태인가?

는한에서만”받아들일수있다는것이였다.⁷⁷ 그러나 5 월 26 일, 그는델 필라르에게당분간「연대」에의기고를중단하기로결심했다는편지를보내면서, 독자들은그의에세이를읽는것으로부터의‘휴식’이필요하고다른필리핀인들도스스로를드러내기위한기회를더많이 가져야한다는, 별로그럴듯하지않은이유를댔다. 11 일후깊은근심에잠긴델 필라르는역시타갈로그어로된답장을보내, 자신이누우칠수있도록무엇을잘못했는지확실히말해달라고요청하면서, 다음과같이슬프게덧붙였다. “내삶에 쌓이고있는온갖비참함과불운가운데서도, 이토록버리지리라는예상은참을수가없다는것을믿어주소.”이호소에확실히마음이흔들린리살은델 필라르가과하게반응하고있으며, 「연대」에의기고를중단하기로한이유들을액면 그대로받아들이지않고있다는답장을 썼다.

내상상력은침울한생각들로자극을받습니다. 어릴때에는서른살까지못살것이라고확신했는데, 왜그랬는지는모르겠어요. 밤마다죽은친구들과친척들만꿈에나온것이두달째입니다.⁷⁸

1890 년이지나가면서, 델 필라르는「연대」를맡기에는너무업무량이과중해서, 이일을허영과야심을지닌크리올에두아르도데레테(Eduardo de Lete)에게넘기는전술적오류를저질렀다. 레테는 10 대에는리살의좋은친구였으나이제는그에게서등을돌리고있었는데, 리살이『놀리메탕헤레』로언은막대한명성을길두해서였던것같다. 언제나민감했던이소설가는점점자신의글이「연대」에실릴때면검열을받고, 다른곳에실릴때면무시당하거나알잡아보인다고느끼게되었다. 이른바 필라르파 Pilarista 와리살파 Rizalista 사이의파벌다툼이현저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개인적인대립에뿌리를두고있었지만, ‘동화’대‘분리주의’에대한내부논쟁으로나타났다.

리살이필리핀인사회에자체헌법을제정할것과정책을수립할권력을지닐지도자를선출할것을설득하려마드리드에온그해말에이런일들은절정에이르렀다.⁷⁹ 자신의저작들이애국적활동의주요한분출을있게했다는내용의편지들을마닐라로부터받고확신을갖고있었을그는, 세번의계속된투표가자신과이미오랜기간동안스페인내필리핀인들의사실상의지도자였던델 필라르쪽으로거의똑같이나뉘자충격을받았던것으로보인다. 결국재난과도같은분열을피하려고마음을줄이고있었던델 필라

⁷⁷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517. 편지자체가타갈로그어로되어있는데이는리살에게는흔치않은일로, 명백히친밀함과호의를전달하기위한것이였다. 편지는브뤼셀에서쓴것으로, 리살은생활비와책을인쇄하는비용이파리에서보다훨씬저렴하다는이야기를친구들로부터듣고 1 월말브뤼셀로이사해왔다. 여기에서그는『엘필리부스 테리스모』에대한본격적인작업을시작하였다.

⁷⁸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539~41, 547~51. 마지막두통의편지는 1890 년 6 월 8 일자와 11 일자로되어있다.

⁷⁹ 여러가지로복잡한리살과델 필라르의대립은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의출판한제 12 장에서충분히그리고공정하게설명된다.

르는자신의지지자들에게대신리살에게투표하라는지침을내렸고, 그러 자기분이나빠진리살은자신이불신하고있던, 두명의부지도자중한명으로선출된사람이그직책을맡게된다면자신은사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형식적으로는승리했지만, 리살은자신이바랐던통합지지자가자신을누그러뜨리기위한허구일뿐정치적목적에대한동조때문이라는것을알았다. 그래서그는직책에서사퇴하고브뤼셀로돌아갔다. 1891년 5월 그는델필라르에게「연대」에다시기고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지만반대 활동을하지도않겠다고편지를쓴다. 대신새소설을완성하는일로분주할 예정이라는것이였다. 스스로가현명치못하게촉발하였던이사건에서본 쓴맛은두가지다른결과로이어졌다. 첫째는, 우리가살펴보게될것처럼, 이것이『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형식과문체를중심적으로만들어냈다는것이다. 둘째로, 선의의, 그리고비난받을만한다양한동기를가지고상징적인지도자들을움직이던두파벌, 필라르파와리살파사이의적의가크게날카로워졌다는것이다.

리살이유럽을떠나기전날인 10월 9일까지블루멘트리트에게이런 것들에대해아무말도하지않았다는것, 그리고편지가그의벗을화나게했던, 「연대」와의결별결정에대한변명의형식을떠었다는것은주목할만하다.

자네는내가「연대」에글을썼으면하지만, 내게이신문을위해글쓰는 작업을하러는생각이전혀없다는것을고백해야겠네. 자네한테더일찍애기를할수도있었는데, 나에대한불쾌한공격들을감추고싶었어. 우리사이에많은일들이있었지. 자네가이미기고를하고있고, 나는자네가쓸수 있는것에전적으로동의하네. 블루멘트리트와리살이할수있는것을, 블루멘트리트가혼자서도할수있는것이지. 나는많은계획을내놓았는데, 그들은나를향해은밀한전쟁을하더군. 나를‘우상’이라부르고, 폭군이라하질않나등등, 내가필리핀인들이일을하게끔하려고들면그런식이라네. 그들은마닐라를향해이런글들을쓰는데, 모든것이사실과다르네. 내가이런저런것을바란다고하는데거의사실이아니야. 몇몇으로부터, 내『필리부스테리스모』가출판되기도전에, 이작품이가치고없고『놀이』보다훨씬못하다는이야기가돈다는것을알게되었네. 이렇게은밀하고도 사소한일들이참많은데, 그들은내가진작은평판을무너뜨리고자하나봐. 나는분열을막기위해물러나려네. 다른이들이정치를이끄는편이낫지. 그들은리살이참어려운성격이라고한다네. 좋아, 그러면, 그리살은 자기갈길을가야지. 내가방해가되어서는안되겠지. 사람들이자네에게 지금까지일어난일에대해실제와다른설명을하는일도가능하지모르네.

려한조치는전혀예상치못했던결과를낳았다. 1882~94년에(1888년에만수치가없다.) 224,000명의스페인인이쿠바로이주해왔는데, 당시쿠바의인구는 200만명이채되지않았다. 이스페인인들중 14만명만이 고국으로돌아갔다.³⁴ 에이다페리는, 1887년의인구조사에의하면‘백인종’으로묘사된이들의 35퍼센트만이읽거나쓸줄알았던데비해, 같은 항목에대한‘유색인종’의수치는 12퍼센트였다고이야기한다. (두집단의문맹률모두아바나에서만훨씬낮았다.)³⁵ 쿠바의‘백인종’3분의 2가 당시문맹이었다는것은새로운이민자들대부분이본국, 특히카탈루냐로부터온전직농민과프롤레타리아였다라는충분한증거가된다. 이것이마르크스주의와아나키즘이쿠바로오게된경위이다. 쿠바아나키즘을창시한 인상적인인물, 제 3장에서등장한바있는카탈루냐인이주자엔리케로 이그는이빈곤한, 그리고때로급진적인이주자들중의핵심적인물이었으며, 1889년때이른죽음을맞기까지마르티의기획에대한강력한지지자였다.³⁶

이인구의변화는조용하고서서히진행된노예제종식과함께마르티가혁명사업을인종의담론을초월한, 아니면초월한것처럼보이는민족주의적스타일로개작하는것을가능하게끔했다. 말하자면, 백인과흑인쿠바인남성들은제국주의지배에대항하는싸움에서서로를동등한상대로서(은유적으로, 혹은전장에서) 끌어안을것이였다.³⁷ ‘아이티’가서서히사라지고설탕‘귀족’이몰락하면서, 마드리드편의광신적인지지자들은점점들어왔다. 그리하여리살스타일의보편적민족주의가 1888년이후거의모든부문에서빠르게퍼지게되었다.³⁸ 이러한변화들은또한 1895년의혁명가들이동부와서부의경계를성공적으로뚫는것을가능케하였다. 10년전쟁의위풍당당한몰라토영웅마세오는동부로부터서부에까지점체를, 찬사와지지를한몸에받으며, 행진할수있는능력을입증했다.

마르티와마세오, 그리고 1868~78년의또다른 5명영웅막시모고메스(Máximo Gómez) 가섬에잠입한 4월, 전쟁은심각한양상을띠게

³⁴ Thomas, Cuba, p.276.

³⁵ 그의날카로운 Insurgent Cuba: Race, Nation and Revolution, 1868~1898(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9), p.116 참조.

³⁶ 토머스는거의 1,700 쪽에달하는그의책에서로이그에대한문단(p.291)을할애한다. 페리는전혀언급하지도않는다.

³⁷ 기본적으로 19세기쿠바의인종/민족문제에대한설득력있는연구인페리의매력적인책은종종무의식적으로개입되어있던인종주의와기회주의의요소들을점검하는데에서는추축했다. 이주제전체가토머스의거대한렌즈에서는벗어나있다.

³⁸ 식민정권에대한적의가점점노골적으로되어가는현상은농장제의간재들로하여금 그들이장기적으로는마드리드에서많은것을기대할수없다고생각하게끔, 그리고이후에 무엇이오든시간에영향력을유지할수있는방법을숙고하게끔 — 아마도미국으로부터적당한종류의지지를얻어 — 하였다.

듯이, 이전쟁은마드리드쪽의압도적인승리가아니라, 정치적타협으로 끝났다. 몇년동안스페데스(공화국을선포하던날그의노예들을해방시켰던)는노예들이상대적으로드물었고경제는상당부분목축업에의존하고있었던동부쿠바의울퉁불퉁한시골을전반적으로통제하고있었다. 그러나그는몇몇반어법을쓰지않는역사가들이‘식민지귀족’이라묘사하곤했던계급에의해거대한노예인구가통제되고있었고, 부유한사탕플랜테이션이 지배적이었으며, 식민지의수도가위치하고있었던서부쿠바에 대한결정적인돌격을해내지못했다. 전쟁동안마드리드를등업은식민정권은쿠바의본국출신자및크리올엘리트들에게서지지를동원하기위해끊임없이아이티라는피투성이의환영을이용했다. 그러니까, 반란이 성공하면‘백인들’은학살될것이며, ‘생도망그의폐허’위에세워진이섬의 번영은심연으로사라질것이라는, 전설적인안토니오마세오(Antonio Maceo) 등스페데스의가장잘나가는게릴라사령관들중몇몇이‘네그로’였다는사실은스페인인들에의해교묘히다루어졌는데, 이는단지서부에서의지지를굳히기위한것뿐만아니라, 반란을일으킨동부의연대를손상시키기위한것이기도했다.

그럼에도 1880 년대, 마드리드는노예제의시대가끝났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남부연방을그랜트와셔먼이쳐부순것, 그리고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제국에서노예폐지론이성공한것은 1878 년에브라질과쿠바만이심각한노예제국가들로남아있었다는것을의미했다.³³ 그러므로 반란자들이사면과개혁을무장해제와맞바꾸었던산혼의타협이후, 마드리드는쿠바의노예제를평화롭게종식시키기위해빠르게그리고숨쉴줄계움직였다. 이평화로운종식은양면적인것으로드러났는데, 이로인해아이티의유령이꼬마도깨비일뿐이라는것이밝혀졌기때문이다. 두번째로, 마드리드의디스레일리와글래스스턴은정치개혁이불가피하다는것, 그리고경제를부활시키기위한진지한조치들이필요하다는것을깨달았다. 동부는장기간의전쟁으로인해물리적으로황폐화되어있었으며, 서부는 1880 년대에세계적공황과비트및사탕수수농산업에서미국과유럽이발휘하던우월한효율성으로인해회청거리고있었다. 쿠바에처음으로정당과상대적으로자유로운언론, 행정개혁과합리화를허용한정치개혁은그러나희망했던대로노쇠한제국에대한지지의공고화라는결과를남지는못했다. 다른한편, 본국의농산업기업들에대한개방은비효율적인대농장제의대부분을끝장냈으며, 스페인으로부터의대량이주를장

³³ 브라질, 쿠바의엠페르토리코가놓여있을것을예상하는사람들이있을것이다. 그러나이사벨이추락하고스페데스의봉기가시작될무렵, 그섬에는노예가 41,738 명, 즉겨우인구의 7 퍼센트밖에되지않았다. (쿠바에는그보다열배나많이있었다.) 이것이푸에르토리코에서 1873 년이라는이른시기에노예제가폐지된이유이다. 예측할수있듯이, 노예소유자들은배상을받았지만노예들은받지못했다. Ojeda, El desterrado, pp.123, 227.

그렇지만자네에게는날카로운눈이있으니다른사람들이하는얘기이상의것을이해할수있겠지.⁸⁰

블루멘트리트로부터곧바로온답신은행방불명되었으나, 1892 년 7 월 4 일자편지로부터그내용을추측할수있는데, 우리가나중에알게될이유로인해리살은아마이편지를끝내받지못했던것같다. 오스트리아인은평소와달리통명스러웠다. 그는델필라로부터자신이받은편지에는예외없이리살에대한크나큰존중이담겨있었다고했다. 그자신도팔라르파와리살과모두에게사소한개인적차이는잊어버리고, 공동의적만을이롭게하고운동을약화시킬대립은피하라고강력하게설득했다는것이다. 그는완전한평화가아니라영리한후전만을주장하고있었다. 나아가그는「연대」에대한리살의관점에전혀동의하지않으며, 그저널의가치는최근적이바로그영향력과싸우기위해격주간지를창간했다는사실로부터 입증되었다고하였다. 그는그렇지만잡지로부터기적을기대해서는안되며, 게다가다른민족들이 40 년걸려서이루어낸일을그잡지가 4 년만에이룰것이라는생각은말할것도없다고덧붙였다. 필리핀인들은이잡지를경멸하지말아야하는데, 나라와민족의영예가그것을통해지켜지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내가하는말이거칠고통명스러울지도모르겠지만, 내마음은부드럽고상냥하며, 나는결코나의딱한필리핀을저버리지 않으려네. 나는도망자가되지않겠어.”⁸¹

리살은동화주의운동전체가쓸모없는것이라고점점확신하게되었다. 코르테스에서쿠바대표권은부패한카노바스-사가스타선거체제아래에서아무런의미가없었다. 이는스페인이계속해서관세조작과독점을통해쿠바의생산을무자비하게착취하고, 바스크와카탈루냐의사업이익에종속시키는것을막을도리가없었다.⁸² 게다가리살은 19 세기말의상황에서수백만명의필리핀인들을동화된스페인어구사자로변화시키는것은전혀가망없는일이라고생각했다. 사가스타가 1888 년간인한웨일레르를마닐라로보낸것, 또한 1890 년그자신이카노바스로대체된것은스페인에서는아무것도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없다는리살의신념을더욱깊게하였다. 해방의과업은필리핀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였다.

1891 년그가『엘필리부스테리스모』에만집중하기위해저널리즘을내던지고, 8 월책의인쇄를필사적으로추진한후곧바로고향으로향한것은이런사고들에서였다. 『놀리메탕헤레』가유럽과필리핀의다양한독

⁸⁰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1890~1896, pp.416~17 사이의변호자없는쪽. 1891 년 10 월 9 일파리에서보낸편지이다.

⁸¹ 같은책, pp.47~48. 이책에는블루멘트리트의원본독일어글은없다.

⁸² 마리아노폰세로부터마음씨는좋은나변덕스러운동지그라시아노로페스하어나(Graciano López Jaena) 가쿠바에가는것을고려하고있다는소식을들었을때, 그는이렇게답장을 썼다. “헛된이야. 쿠바는고갈되었어. 빈껍질이라고.”1890 년 7 월 9 일자편지.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559~60.

자층을거냥했다면, 『엘필리부스테리소』는필리핀독자들만을향한 것이었다. 그는스페인이나달노긋의개인적벗들에게몇부를보냈지만, 전체발행부수의나머지는그가웨일레르의임기가끝날때까지정착하려고했던홍콩으로배송되었다. 20년전이스키에르도에의해추방된희생자중한명이면서, 홍콩에정착하여성공적인사업가(이자기민한밀수꾼)가되었던신뢰하는연상의친구바사에게 7월 9일겐트에서보낸중요한편지에는그에게책을위탁하며, 교단이그영국식민지에도첩보의손길을 뻗치고있으니철저히비밀을지켜줄것을강조하는내용이들어있다. 이편지는그의극한적빈곤과스페인의필리핀인사회의부유한성원들로부터 재정적도움을주겠다는약속이끊임없이깨지는것에대한쓰라림도담고 있다.⁸³

나는우리동포들을신뢰하는것에지쳐가고있습니다. 그들모두가내 삶을더비참하게하려고짜고있는것같아요. 아!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신이아니었다면, 내가아직은 [몇몇] 정말좋은필리핀인들이있다는것을믿지못했다면, 나는우리동포들은전부기꺼이악마에게나보내버리려고했을겁니다. 그들은나를뒤희라고생각하는걸까요? 영혼을평온히하고 상상력을자유로이펼쳐야할바로그런순간에, 술책과작은비열함으로머리를채우게되다니!⁸⁴

사라진서재?

리살의두번째소설을읽는독자들이직면하게되는몇가지수수께끼, 특히그에시적인측면들을제고하는방향으로돌아서기전에, 조사의심각한어려움중한가지인리살의정치적영역에서의철학적형상이라는문제를간단하게논의해야하겠다. 그의칼람바서재에있는책의목록은볼테르, 루소, 헤르더의시대이후에나온정치사상가들의저작을한권도포함하고있지않았는데, 우리가허버트스펜서를정치사상가로치지않는한그렇다. 이목록의특성은아마도동시대의정치이론서들을식민지경찰국가가로가지고들어오려는시도에따르는위험, 특히그의가족에게끼칠위험으로적절하게설명할수있을법하다. 그러나유럽에서리살이교환하였으며 이후에출판된방대한서신들에서도비슷한부재가드러난다. 콩스탕, 헤

⁸³ 사실 『엘필리부스테리소』 의인쇄비청구서는좋은친구인부유한판광가인발렌틴벤투라 (Valentin Ventura) 가지불했다. 리살은보통무척간소하게살았으며친구들로부터구두최취급을받곤했지만, 우리는그가여행할때면보통 1 등석을이용하고값비싼호텔에머무르는것을알아챌만한기회가있었는데, 이는사치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식민지피지배자의자존심을지키기위한것이였다.

⁸⁴ Epistolario Rizalino, vol. 3, (1890~1892), ed. Teodoro M. Kalaw (Manila: Bureau of Printing, 1935), pp.200~01.

남단의무슬림세력권 (솔루와민다나오) 사이의불확실한경계에대한선교로주요활동을제한한다는조건이붙어있었다. 그들이마닐라에엘리트중등학교, 즉우리의이야기에몇번나왔던아테네오학교를세우려고했을 때, 세속마닐라지사의도움이아니었더라면도미니크회의독기품은반대를이겨내지못했을것이다. 19세기유럽에서예수회가종종교활하고정치공작에능한로마가톨릭교회의지적전위로여겨졌다면, 식민지필리핀에서는보호할만큼가치있는자산관련이익이없었던그들은자유주의자같이보였다. 1892년아테네오에는여전히그들의예전제자를좋아하고, 『놀리메탕헤레』 가주로도미니크회와작은형제회를조롱했다는것을알고있었으며, 어찌되었든적을골탕먹일기회에기빠하던, 파스텔스를비롯한교사들이있었다. 대교구장스스로에관해서라면, 데스푸홀과의공모를위한다른동기가또있었던것으로보인다. 예수회의다피탄에교립된리살이예수회의설득으로로마가톨릭의품에다시안기게되리라는확신이그것이였다. 이얼마나다른교단들의면전에서기빠날땐만한승리가될것인가!³¹ 신사적으로마키아벨리적인데스푸홀에게, 도미니크회의클로버책과예수회의하트퀸을맞붙게하는것보다더즐길만한일이있었을 까?³²

마르티의반란

바로이때지구위의반대편에서는마르티가혁명적인망명정당을창설하고최종적인혁명전쟁을준비하려는체계적인노력을펼치고있었다. 1894년말이 가까워지면서, 그는때가됐다고느꼈고, 다음해 2월교전을시작하기로결정했다. 쿠바는그전 20년동안극적으로변화하고있었으며, 이는그의목표에유리하게보이는방식의변화였다. (필리핀에서는 1872년의카비테와 1896년보니파시오의반란사이예비교환만한변화가전혀일어안바였다.) 10년전쟁은이전환의주요원인이였다. 전에언급했

³¹ 위의분석에서, 나의해석은부분적으로 The First Filipino, pp.333~35 에서의레로의논의및 Coates, Rizal, pp.236~37(슬프게도출처가없는) 에의거하였다. 다피탄에서지내는동안리살은파스텔스와기나긴신학적-정치적서신을주고받아야만했으며, 이는후세에유익하게도출판이되어나왔다. Raul K. Bonoan, SJ, ed., The Rizal-Pastells Correspondence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Press, 1994). 말할필요도없이, 항상극도의공손함을유지하면서도, 리살은남을웃게만드는존뜨기같은면이있었던대교구장의이야기를손쉽게요리조리빠져나가곤했으며, 대교구장은리살의사법살인다음해 그의고향바르셀로나에서분노에찬 La masonización de Filipinas: Rizal y su obra 를출판했다.

³² 그리고장군은즐거움을맞볼만한자격이있는사람이였다. 이것은 19세기필리핀의 지배자에의해내려진모든결정중유일하게지적이고악의가없으며마키아벨리적인결정이였다.

레오 8 세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었다. 그러니 전 단지가 식민정권으로 하여금 갈람바 사건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domineering 도미니크회를 스페인의 최고법정까지 끌고 올라갔던 ‘필리부스테로’를 단호하게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 고안된 위조품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 또한 데스푸홀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심하고는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전단지들은 편리했다.

데스푸홀이 진짜로 걱정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무엇보다도 동방의 카요우에 소라는 문제, 리살은 데스푸홀에게 몇 번이나 자신이 산다칸정착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홍콩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된다면 이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는데도 소설가가 후원자들을 찾을 수 없으리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되었든, 보르네오에서 리살은 스페인 제국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반면이 젊은이가 마닐라와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면, 그의 명성이 자아낼 열광은 식민지 피지배자들의 소욕을 초래하거나, 식민되어 온 사람들 colon 이나 교회 내적들의 손에, 아니면 그들 모두의 손에 리살이 암살당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를 일이다. 데스푸홀 쪽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정치적 재난이 될 것이었다. 상황의 논리는 명백하게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친구를 필리핀 안에 놓아 두되, 안전한 곳에 두라. 그리고 또한 그가, 특히 본국의 언론에서, 열사가 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대접하라. 게다가 이 장군은 전통적인 로마가톨릭교도이기도 했지만, 구식 신사였으며, 19 세기 스페인에서 쓰였던 특이한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자유주의자이기도 했다.³⁰ 또한 그가 매력 덩어리였던 리살을 실제로 좋아했을 가능성조차 있다.

리살의 목적지와 그 장소가 선택된 방식은 이 추측을 굳힌다. 다피탄은 예수회 선교의 전초기 지였으며, 리살을 그리로 추방하기로 한 결정은 공식 발표 전 데스푸홀과 카탈루냐인 예수회 대교구장 파블로 파스텔스 (Pablo Pastells) 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계몽절대군주 카를로스 3 세가 제국에서 예수회를 내쫓았을 때 라이벌들, 특히 도미니크회와 아우구스티누스회가 예수회의 통제 아래 있던 교구와 자산, 수입을 재빨리 채어갔다. 리살이 태어나기 직전인 1859 년, 예수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교회 동지들에 의한 수용을 인정하고, 식민지의 영토와 최

을 열렬하게 옹호하는 정치 평론가인 동시에, 리살과 그의 동지들에 맹렬하게 반대하는 선전가였다. 그러나 1896 년 리살에게 집행된 야만적인 처형과 1898 년 스페인 제국의 붕괴는 특이한 종류의 전향을 초래했다. 그는 리살 찬미자가 되어 리살이 스페인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모든 것의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장기 체류자이자 교회의 동맹자로서, 그는 수사들이 꾸미는 음모를 알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 가 미그보다 8 년 전 이사벨로의 Sensacional memoria, pp.64~65 에 나왔던 적이 있다.

³⁰ 암베소 캄포는 나에게 리살이 받은 비정상적으로 정중한 대접이 프리메이슨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이사벨 여왕 이후 세대, 즉 데스푸홀의 세대에서는 스페인 교위장군들이 여러 명이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

겉, 피히테, 마르크스, 토크빌, 콩트, 생시몽, 푸리에, 벤담, 밀, 바쿠닌, 크로포트킨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프루동과 톨스토이에 대한 딱한 문장의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그가 마드리드와 파리, 런던, 베를린에서 보낸 10 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이 모든 영향력 있는 정치 사상가들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금까지 직접적인 실마리라고는 약간 애매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1891 년 5 월 13 일 파리에서 친한 친구 인화가 후안 루나가 브뤼셀로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상당히 길기로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내일은 살롱 뒤 샹마르스 Salon du Champ de Mars 가 문을 여는 날일세. 내가 틀 (cimaise, 그림을 받쳐 놓는 데 쓰는 작은 선반) 이나 받침 들에 그림을 두 개 올려 놓은 것은 처음이야. 이렇게 해 놓으니 (지금으로서는) 조금 흡족하네. 자네는 내가 내 그림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지. 시장 바닥의 감자들처럼 말이야. 매장 burial 에 대한 내 그림에는 ‘버려진 자들 Les Ignorés’ 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자네가 알게 될 것처럼 [자네도 알다 시피?] 지금은 초라하고 빼앗긴 이들에 대한 작업으로 바쁘다네. 이제 획에 있어 나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책으로 무엇을 추천하려나? 그토록 별 거 벗은 물질주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토록 파렴치한 착취, 그리고 가진 자들이 비참한 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 대항하여 쏜 누군가의 글로 말일세! 나는 지금 8 미터 짜리 캔버스로 발전시킬 만한 주제를 찾고 있다네. 지금 읽고 있는 것은 E. 드라블레이 (E. de Lavelaye) 의 『현대 사회주의 Le Socialisme contemporain』 인데, 마르크스나 리살의 이론 같은 것들과, 로마가톨릭 사회주의, 보수적 사회주의, 복음주의적 사회주의 등을 요약해 놓은 책이야. 이 책은 무척 흥미롭지만, 내가 읽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 사회의 비참함을 비추는 그런 책이네. 『신곡』 같은 것, 숨도 쉬기 힘든 작업장들, 남자들과 어린 아이들, 여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곳들 사이를 걷는 단테 말이야. 친구여, 나는 철공소를 직접 보러 갔었네. 거기서 다섯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이지 어쩔 줄 모르는 한 자라도 내가 거기에서 목격한 것,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광경을 그냥 지나치는 못할 걸세. 필리핀에서 수사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는 해도, 우리 동포들은 이 비참함과 죽음에 비하자면 운이 좋아. 모래와 탄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작업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프레이즈 반의 움직임으로 가장 미세한 먼지로 바뀌면서, 거대한 검은 구름의 소용돌이가 일고, 온방이 연기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더군.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석탄과 모래를 삼으로 퍼서 기계에 던져 넣느라 바쁜 노동자 열명인가 열 두명인가는 딱시체 같았어. 이런 것이 가난한 자의 비참한 환경이었네! 나는 거기 3 분이 가 4 분 정도 서 있었는데, 마치 평생 모래와 먼지만 삼키고 살았던 것 같더군. 콧구멍, 입, 눈을 뚫고 들어오는 그 먼지라니……. 내생

각으로는 그들은 죽어나가게끔되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버려두는 것은 범죄야.⁸⁵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서장書狀에 대한 리살의 답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루나가 마르크스나 리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은, 리살에게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뜻일 것이다. 더욱이 그는 소설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약탈에 대해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읽을 거리를 좀 추천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다.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실마리라고 할 만한 것은 1890년 1월, 마닐라의 전직 고위 관료로서 자칭 필리핀 전문가가 된 비센테 바란테스(Vicente Barrantes)가 마드리드에서 출간한 글이다. (바란테스는 아마 『놀리메 탕헤레』에 등장하는, 잘사는 메스티소와 ‘인디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처넣는 고위 공무원의 초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블루멘트리트를 비스마르크의 ‘비열한 reptile 자금’의 대리인이라 묘사한 후, 그는 리살을 ‘반로마가톨릭이자 프로테스탄트, 사회주의자, 프루동주의자’라 비난한다.⁸⁶ ‘프루동주의자’라는 말은 단순히 리살을 카탈루냐의 훌륭한 민주주의자이자 연방주의적 공화주의자였으며 1868년 프루동의 『연합사회의원리 Du principe fédératif』를 번역하여 낸 프란시스코 피야마르갈(Francisco Pi y Margall)의 복사服事로 폄하하기 위해 동원된 것일지도 모르겠다.⁸⁷ 리살은 이 비난을 무척 재미있어했으며, 3월 6일 블루멘트리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란테스가 자신이 「연대」에 기고한 신랄한 답변 때문에 화가 나서 죽으면서 짜내야 고비꼬는 편지를 썼다. “이거 내 동물원에 손실이크겠는데. 내뱀하고 하마 표본에서 제일 훌륭한 놈들 중 하나인데 말이야.”⁸⁸

그러나 아마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자 루나에게 보낸 답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암시하는 것은 『엘 필리부스테리슴』 그 자체일 것이다. 델 필라르와 「연대」가 필리핀의 열망에 대한 주적으로서 교단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다른 여러 곳에서와 함께) 사가스타의 자유주의자

⁸⁵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660. 내게 이 글을 보내준 암베소 캄포에게 감사사를 전한다. 루나의 편지에 대한 그의 논평도 참조. Rizal without the Overcoat (Pasig City, Manila: Anvil, 2000), pp.62~63. 라블레이(1822~92)는 잘 알려진 벨기에인 박학다식가로서 다면적인 bimetallic 정치경제학자였다. [그가 복본위제 bimetalism를 주장했다는 것과 여러 분야에 손을 댔다는 것을 엮은 언어유희-역자주]

⁸⁶ 이 글은 1월 2일 “근대 스페인 La España Moderna”이라는 웃기는 제목이 붙어서 나왔다.

⁸⁷ 피야마르갈은 리살보다 거의 40년 손위이기 했지만, 리살의 친한 친구였으며, 필리핀인들의 열망을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스페인의 정치적 저명인사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Sarkisyanz, Rizal의 p.112,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바쳐진) 제 8 장 참조.

⁸⁸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vol. 2 (1890~1896), p.336 이후 번호가 없는 세 번째 쪽.

부스페인 본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 뿐이었다. 대규모 체포는 없었다.

열대의 시베리아

수요일에 리살은 데스푸홀을 일주일 안에 다섯 번째로 만나, 자신이 홍콩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장군은 이제 그에 게 그의 짐속에 교황 레오 8세에 대한 풍자문을 포함할 수사 修士 지배 반대 전단들이 숨겨져 있었던 사실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리살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누이들이 집을 싸주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결코 했을 리 없으며, 특히 그에게 알리지 않고 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데스푸홀은 그를 체포하여 산티아고 요새에 구금했다. 그러나 그는 이송될 때 총독의 마차를 탔으며, 데스푸홀의 아들과 시종무관의 호위를 받았다. 다음 날 그는 멀리 떨어진 남쪽 민다나오 섬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 작은 정착지인 다피탄으로 유배된다는 명령을 전달받았다.²⁸ 거기에서 그는 남아있는 4년간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는 놀랄 만큼 정중하게 대우받았으며, 자신이 결코 ‘망상 1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데스푸홀의 말로는 추방 명령 열흘 전 리살이 홍콩으로부터 도착하던 시점에 발견되었다던 밀반입 전단지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이런 일이 있었다면, 곧장 총독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총독이 전단지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전복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는 밀반입자와 그렇게 여러 차례 우호적인 면담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고, 체포 후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정중함으로 그를 대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리살에 대한 초기의 전기(1907)에서, 웬세슬라 오레타나(Wenceslao Retana)는 이 인쇄된 비방문을 발견했다고 하는 세관 공무원이 도미니크 회소속으로서 대대반동이었던 마닐라 대주교 베르나르디노 노살레다(Bernardino Nozaleda)의 조카였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리살이 도착하기 직전 스페인인 법관인 미겔 로드리게스 베리스(Miguel Rodríguez Berriz)가 아우구스티누스 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수사지배 반대 인쇄물 여러 종이 은밀하게 찍혀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²⁹ 게다가, 리살은

²⁸ 리살의 유배에 동원된 이유들이 리가 필리피나 나라가를 출범시킨 연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부재는 데스푸홀이 리가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리살을 반국가 폭동교사죄로 다루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찌 되었든 이 요절한 침묵은 리가의 설립에 대한 1896년의 자백이 그 스페인에서의 공포와 관계 있는 것이지, 1892년 웨일레르의 느슨한 후임자가 이어받은 평정 때문이 아니라 결론을 뒷받침한다.

²⁹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337. 엔인용된 내용. 레타나는 묘한 인물이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그는 수사들과, 식민지배의 혜택들과, 스페인 다움 hispanidad

허가받았다.²⁶ 리살보다나이가두배는많은장군은즉각리살의아버지를‘사면’했으며, 작가에게사흘내에다시전화하라고말했다.

적어도비교의시각으로보았을때에는, 여기에는무언가남다른것이있다. 이사람은아홉달전무명의총독이식민지의고위층엘리트들과함께노벨의방식으로산산조각이날뻔했다는내용의소설을발표한젊은식민지피지배자이다. 게다가, 식민정권은여섯달전에책을입수했다. (호세바사는작은통관항구들을통해책을필리핀에몰래들여오려는시도를했었는데, 큰탁송물꾸러미하나가중부필리핀의일로일로항에서발각되었다.)²⁷ 영국·프랑스·네덜란드·포르투갈의제국어느곳에서라도, 아니스페인령쿠바에서조차, 이와비교할만한조우를상상하기란불가능한일이다. 한두가지추측, 첫째, 데스푸홀은소설을읽기에는너무바빴거나, 소설읽는사람이아니었다. 둘째, 더다정한쪽, 그는소설의가치를알아보았다.

사건들은대단한속도로움직이기시작했다. 다음날인월요일, 리살은마닐라북쪽으로새로개설된철도를달리는열차에올랐는데, 다양한마을에기차가멈추면서그가알게된사실은, 그를알아보는사람은없지만그의이름이모두의입에오르내리고있으며, 그가마닐라에도착했다는소식도이미알려져있다는것이였다. 데스푸홀은수요일과목요일에그를다시맞이하였으며, 리살의누이들이홍콩으로부터집에돌아올수있도록허가를내주었다. 토론은주로산다간계획에관한것이였는데, 리살은이계획이아직진행되는중이라고주장했고, 장군은이에강력하게반대했다. 다음면담은 7 월 3 일일요일로잡혀있었다. 그동안경찰요원들이리살을그림자처럼따라다니며그가방문한모든집을수색하기위해항시대기상태로있었다. 같은날, 리살은부유한정치적지지자의사저에서리가필리핀나를공식적으로출범시켰다. 참석했던많은사람들중에는 4 년후혁명을일으키게되는젊은직공이자대리상인안드레스보니파시오(Andrés Bonifacio) 가있었다. 리살자신은리가의목표에관한윤곽을그리고, 왜정치적투쟁의중심이스페인에서필리핀으로 옮겨져야하는지설명하고, 여러종류의지지를부탁하는선에서만관여한것으로보인다. 화요일아침, 경찰의계획된대규모급습이있었지만, 소설몇부와프리메이슨의소책자들, 수사지배를반대하는팸플릿들정도밖에찾아내지못했는데, 전

²⁶ 리살의배가홍콩항을떠날때, 현지이스페인영사는데스푸홀에게이소식을전하는전보를치며“취가뒀에들었다”라고덧붙였다. Austin Coates, Rizal-Philippine Nationalist and Patriot(Manila: Solidaridad 1992), p.230. 이말은교묘하게준비된음모의증거라고여겨질수도있지만, 첩보업계에서전형적으로쓰이는상투어일가능성이더크다. 그런말이존재했다면, 데스푸홀이그다음주리살을여섯번이나만나는수고를했을것같지않다. (게다가뒀이라면미끼가있어야하는데, 이경우에는그런것이없었다.) 우리가곤볼수있듯이, 리살을다피탄으로추방한다는결정은어느모로보나즉흥적인것이였다.

²⁷ 같은책, p.217. 대부분은곧소각되었다.

층에서지지를얻고자했던반면, 리살의두번째소설은수사들을꽤가볍게나주었기때문이다. 한두명의적당한수사들만등장할수있었고, 『놀리메탕헤레』의사악한호색한음모가살비신부는여기에서는십지어우어넘겨도될만한미미한존재이다. 이번에가장장인하게웃음거리가된인물은남을밀어보면서안그런척하고, 무능하며, 엄청난계기회주의적인자유주의자돈쿠스토디오(Don Custodio)로서그에게지지를구하는학생들을배반하는자이다.

그러므로 『엘필리부스테리스모』가한편으로는매우선동적이고전복적임에도불구하고, 다른한편으로는편협하며일관된정치적입장을결여하고있다는결론을피하기는어렵다. 이렇게이상하게된주요원인은무엇보다리살이정치사상가가아니라소설가이자모럴리스트였다는데있을것이다. 그는그의서재와서신에서그렇게도눈에띄게부재했던저술가들중몇몇의작품은실제로읽었을지도모르지만, 그들이그에게그렇게큰인상을남긴것같지는않다. 또한특히두번째유럽채류등안두드러졌던조국에대한집착, 그리고가족과고향주민들에게닥친재난으로인해그는유럽자체의사회적비극은전반적으로안중에두지않았거나무심하게대했을것이다. 리살의방대한저작에서파리의철공소에대한루나의전술하는묘사와같은것은전혀찾아볼수없다. 필리핀인들은파리의산업노동자들에게비하면운이좋다는, 그화가의순진하게표현되었으되많은것을말해주는이야기는, 이소설가의준거기준에서는한참벗어나있는것으로보인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 해석: 초대륙주의와예시

처음몇장에서 『엘필리부스테리스모』는확실히발레리아노웨일레르의필리핀통치시기(1888년 3월부터 1891년 4월까지)라는실재하는시기와장소를배경으로하는것으로보인다. 멩청하며잔인하고냉소적인‘각하 Su Excelencia’는명백하게장차‘쿠바의도살자’가될인물을모델로하였으며,⁸⁹ 총독에반대한대가로해고당한, 토착민편에선이를없는자유주의성향의고위관료는마닐라민정장관센테노를얕은베일로

⁸⁹ 『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마지막장(p.281)에서시모운은이바라로서의그가어떻게가보물가지고필리핀에서몰래도망쳐보석거래에전념하게되었는지를이야기한다. 그리고는, “그는쿠바전쟁에참여했는데, 이쪽을돕다가저쪽을돕곤했지만, 언제나이윤을냈다. 그가당시소령이었던장군을알게된것은거기에서였다. 처음에는재정적인도움으로마음을사로잡고, 나중에는그스스로관여했던비밀범죄들덕분으로친구가되었다.”웨일레르는 1863년 3월쿠바에서소령이되었다. 이‘비밀범죄들’이무엇을의미하는지는불확실하다. 잔혹함? 부패? 난봉? 마르틴이쓴찬양일색의전기에는장군의무자비하고탐욕스러운성욕을그리는흥미로운부분이있다. 쿠바의우두머리이던동안은밀하게정사를벌였던유부녀에대해웨일레르스스로가이렇게적어놓았다. “그여자는나를너무나만족시켰다.”

가린초상이다. 이시기적인 위치는 서브플롯 중 하나에 의해 뚜렷이 화증되는데, 이는 독자에게 정직한 농부 탈레스의 슬픈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서 제 4 장에서 시작된다. 탈레스는 (리살의 고향 갈람바를 모델로 한) 이바라의 고향 마을 산디에고에서 삼림 경계 내에 있는 작은 땅땀기를 개간해서 경작한다.⁹⁰ 그가 풍족해지자, 익명으로 등장하는 교단의 근저대 농장대리인들이 그에게 이 땅은 대농장의 법적 경계 내에 들어가지만, 임차료를 조금 낸다면 계속 쓰게 해주겠다고 통지한다. 그 후 임차료는 해마다가파르게 올라, 마침내 탈레스는 지불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지경에 이른다. 퇴거 위협을 받은 그는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땅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다. 그동안 법정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헛된 노력으로 돈을 다 써 버리고 만 그는 이옥고 산적들에게 납치 당해 몸값을 요구받는다. 마침내 몸값이 지불된 후 소유지로 돌아간 그는 땅이 대농장에 접수되었으며, 새로운 소작인이자 신을 대신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날 밤, 새로운 소작인과 그의 아내, 임차료를 담당하는 수사가 몸매 탈레스라는 이름이 피로 발린 채 잔인하게 살해된다.

이 시점에서 상당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화자가 갑자기 울부짖는데, 이 소리는 마치 벨기에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진정하라, 칼람바 Kalamba 의 평화로운 주민들이여! 당신들 중 아무도 탈레스라 불리지 않으며, 당신들 중 아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당신들은…… [다음과 같이 끝나는 이름들이 나열된다] 실베스트레 우발도, 마누엘히달고, 파시아노 메르카도라 불린다. 당신들은 칼람바의 모든 사람들이라 불린다!⁹¹

우발도와 히달고는 리살의 매형이고 파시아노는 그의 사랑하는 형이다. 이들 모두는 1888~1890 년에도 미니크 회에 저항한 죄로 심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산디에고’는 조용히 가면을 벗고 ‘칼람바’가 된다.⁹² 소설 후반부에서 우리는 탈레스가 산적에게 담담하고, 딸 훌리가 카모라 신부의 욕정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 후에는 시모운과 한 패가 되며, 마침내 마닐라 주변의 농촌에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신출귀몰한 산적 두목 마탕라윈 (Matanglawin, ‘매의 눈’이라는 뜻의 타갈로그어) 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란자들의 대부분이 우리만 남을 막으려 한다 해도, 나는 내 앞을 막아선 총검의 숲을 뚫고 그 녀에게 가려 했을 만큼.” Valeriano Weyler, pp.256~57.

⁹⁰ 제 4 장 (“카베상 이야기들”) 과 제 10 장 (“풍요와 빈곤 Riqueza y Miseria”)

⁹¹ 이 돈호법으로 제 10 장은 끝을 맺는다. 데커의 『막스 하벨라르』의 유명한 결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작가가 내놓고 인물들과 플롯을 내던져 버리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걸며 네덜란드령 인도 식민정권과 네덜란드내의 그 후원자들에게 대해 머리끝이 쭈뼛해질 만큼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⁹² 이 시기 리살의 정치적 취미 중 하나는 그가 직접 만든 철자법 체계에 따라 타갈로그어 단어들에 대한 스펠링을 고집하는 것이었는데, 단어들이 스페인어에서 왔을 경우에도, 아니 그럴 경우에는 어쩌면 더더욱 이를 지키려 했다. 이에 수반되는 도발 중 하나는 카스티야어와 평장히 거리가 먼 k 를 c 대신 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Calamba’는 ‘Kalamba’가 된다.

이었던 레테에게 맡겨졌고, 이에 레테는 리살에 대한 개인적 분풀이를 할 야비한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글이나 운문 필라르와 레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델 필라르가 기뻐했을 리는 없다. 그러면 그가 리살에게 보낸 편지는 어색한 양의 성을 띤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꼴통들’을 풍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레테가 실제로 쓴 글이 딱 거기까지 인척하는 것으로, 유일한 단안은 사죄의 글을 쓰는 것이었을 텐데, 이 글은 틀림없이 회람되었을 테고, 그러면 레테와는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늘 민감했던 리살에게 이 풍자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과대망상 증환자에 다 자칭 구세주라는 조롱을 받는 것이야 그렇다치고, 자신의 안전을도 모하면서 동포들은 죽음의 길로 보내는 겁쟁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친족과 고향 사람들의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 풍자가 그의 의지를 단단히 했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 이상이다. 그는 식민지의 수도에 공개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직계가 족 이외에는 어떠한 동반자도 없이 나타남으로써 그 글이 거짓임을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²⁵

마닐라로 떠나며 6 월 21 일 리살이 쓴 세 번째 편지는 수신인이 충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돌아가는 것은 몇 가지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리는 것이며 웨일레르가 그의 가족에게 가한 박해를 끝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죄과를 물어 도 그의, 그리고 그만의 책임으로서 답하고자 하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요일인 26 일 마닐라에 내렸으며, 비논도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최신식 고급 호텔에 방을 잡고, 바로 그날 저녁 그의 편지를 받을 사람과의 짧은 면담을

²⁵ 팔마의 책 Biografía, p.199 에는 호세 알레한드리노의 1933 년 비망록 『희생의 길 La senda del sacrificio』의 두 번째 쪽에 나온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가 우리와 자주 토론하던 주체 중 하나는 필리핀에서 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한 수단은 무엇이 될 수 있을 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고, 아니면 이와 마찬가지로 표현했다. ‘내 양심을 무모하고 헛되게 흐른 피로 짓누르고 싶지 않기에, 나는 성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막연한 혁명은 절대 이끌지 않겠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이가 필리핀의 혁명을 이끄는 일에 착수한다면, 나는 그의 편에 설 것네.’” 이 회상이 정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토론이 있었는지 40 년이 지난 뒤에, 처음에는 스페인인들과, 그 다음에는 미국인들과 싸운 혁명의 가장 유명한 장군들 중 한 명에게서 나온 것인데다, 당시 민족주의 엘리트들이 리살을 혁명가이자 열사로서 기억하려는 소망이 있어서는 뜻을 모았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닐라 바로 북쪽에 있는 팜팡가의 부유한 지주가 문신인 알레한드리노는 누가 뭐래도 1892 년 델 필라르의 굴지를 아파게 했던 리살과 ‘꼴통들’ 중 하나였다.

어깨에지고옴기면되지! 옷? 벗고나가면되지. 숙소? 땅바닥에서자면되지. 의료진? 전사하면되지, 그것이모든애국자의의무이거늘.

남마를입은비무장군중은억압자들을공격하러떠나지만, 금방체포되어만인의웃음거리로전락하며, 교수대나추방지로보내진다. 망상 1세는그대열에없다. “그는조국의불운을통곡하러떠나버린상태였다. 이미열변을토함으로써애국심을증명해보였기때문이다.”그는“그의승고함으로쌓아올린올림푸스산위에앉아”스스로에게이렇게말하곤한다. “나는더고결한일들을할사람이야. 나는유일한선지자야. 조국을마땅히그려야할만큼사랑하는사람은나밖에없어.”그는결국정신병원에서최후를맞는다.²⁴

마드리드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는분명치않다. 델필라르는틀림없이그의지지자들과리살과사이의불화에신경이곤두서고, 루나나알레한드리노, 에반헬리스타같은사람들의언어에자극을받았던것같고, 산다칸정착지계획배후에있는의도를둘러싼왜곡된소문을듣고걱정하고있었던것도같다. 그는어떠한가망없는무장혁명의발발도그가하고있는동화주의정치운동에재난이될것이라는사실을깨닫고있었다. 일단일터지면이운동의폐기를피하기가어려울것이고, 필리핀에는내다보기힘든결과들이닥칠것이다. 그러므로그가가능성을사전에제거해버리기를희망했으며, 그러기위해서는정책으로간주될것이며면밀한정당화가필요할정통적인글보다는‘꼴통들 hotheads’에대한풍자적인글이더유용하다고생각했으리라는것은이치에맞는다. 풍자가“10 원짜리구세주들”, 즉복수의목표를겨냥했다는것은델필라르의의도에대한좋은증거이다. 동시에그는차분한사람이었고, 경험이많은조정자이자빈틈없는전략가이기도했으며, 리살을궁지에몰아넣으려는생각은전혀없었다. 그가소설가에게보낸편지는전부우호적이고합리적이었는데, 그가받은답장들은언제나그렇지는않았다. 동시에풍자글자체는명백히한명의구세주, 즉리살을겨냥하고있었지 (“그들은나를‘우상’이라부르며나더러폭군이러한다”) 꼴통들전반을향한것이아니었다. 가장그럴듯한설명은델필라르와레테가풍자글을쓰자는생각에동의했지만, 집행은「연대」의주간

²⁴ La Solidaridad, April 15, 1892, pp.685~87. 이글전체의, 불완전하고다정확하지는않지만생생한영어번역은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289~92 에서찾아볼수있다. 이풍자문이필명으로발표되기는해도그작가가리살이상당기간동안원칙없는술책가라고여겨온레테라는것은명백했다. 4월 15일 자를받아본리살은델필라르에게, 자신에대한개인적공격뿐만아니라이글이공개적으로스페인에대한(어리석은) 무장공격이계획되고있는것처럼암시하고있는데대해서도설명을요구한다는편지를 썼다. 7월 20일, 델필라르는이풍자는전혀리살개인을향한것이아니며파국적인결과의가능성에대해서는진지하게생각지도않고즉각적인반란을일으키고자하는어리석은꼴통들에관한것이라는차분한답장을보냈다. 우리가공보게되듯이리살은 7월 7일만다나오의유배길에오르게되기때문에, 그가이편지를받았을가능성은거의없다. 이두통의편지글은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809~11, 841~43 에서찾을수있다.

다. 역사적으로그당시필리핀에는, 식민지수도의남쪽구릉지대에작은산적떼가번성하기는했지만, 마탕라윈같은사람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리살의학생시절, 폭력이난무하던배고픈안달루시아에는한두명쯤있지않았을까?

전위

『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주요서브플롯은, 이미언급한바있듯이, 인구의스페인화를향한첫번째단계로서스페인어로이루어지는(세속)교육을시행하는학교를설립해달라고국가에요구하는, 궁극적으로는성공하지못한학생들의운동이다. 역사적사실을보자면그런학생운동이마닐라에서있었던적은전혀없으며, 어찌되었든웨일레르가그런것을잠깐이라도허용할리만무했다. 그러나이서브플롯이 1889년부터계속스페인에서델필라르가펼치던전술적동화운동, 리살이모든믿음을상실했던그운동의축소판이라는것은확연하다. 학생들에대한상세묘사는 1870년대후반마닐라에서리살이경험했던고등학교와대학세계에대해다른출처로부터얻을수있는모습, 즉정치에거의몰두지않은모습과는판이하게달라보인다. 대부분의학생들은어린기회주의자, 허풍선이, 냉소주의자, 무위도식하는부자들, 식객들로풍자적으로묘사된다. 충분히마음씨가선량하고애국적인것으로그러지는단한명의인물은‘인디오’인사가니인데, 이사가니도이운동을굳게, 순진하게믿는데가심각한정치적생각은전혀없는것으로나온다. 그러니이서브플롯의거의전부가단순히 1880년대의마드리드를대양을건너 1890년대의상상된마닐라로 옮겨놓은것이라는결론을피하기는쉽지않다.

그렇지만절대이것이전부는아니다. 바실리오가시모운을우연히알아봄으로써독자가그가사실은『놀리메탕헤레』의순진한영웅이바라라는것을알게되는중요한초반부의장(“시모운”)에서, 운동에대한문제가그들의대화중에제기된다. 냉소적허무주의자음모가시모운의말투가격렬한바스크억양을뒀던것처럼들리는것에독자들은아마놀랄지도모르겠다.⁹³

아, 젊은이여! 늘순진하고, 늘꿈꾸며, 늘나비와꽃을쫓는구나! 장미꽃장식으로모국을스페인에뭍으려는노력으로몽쳤구나, 실은다이어몬

⁹³ 이비교는쓸모없는것이아니다. 세아는우나무노의“찬사”(주 95 참조)에서다음의구절을인용한다. “나의조국바스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는스페인어가외국어이고최근에야이식된것이다. …… 나는더듣는스페인어로말을배웠고, 집에서도스페인어를 썼지만, 이것은빌바오의스페인어, 즉가난에서든겉많은스페인어였다. [그리하여] 우리는이를고쳐야만했으며, 우리만의언어를빛고자노력해야만했다. 그러므로어떤측면에서는, 작가로서의우리의약점은또한우리의강점이기도했던것이다.”(p. x xix)

드보다 단단한 사슬을 엮는 것일진대! 권리의 평등과 관습의 스페인화를 외치면서, 지금 외치는 것이 죽음이요, 민족성의 말살이요, 모국의 파멸이요, 독재의 신성화임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장차 무엇이 되려는가? 개성 없는 민족, 자유 없는 나라. 모든 것을 다 빌려오는, 심지어 단점조차도. 스페인화를 외치면서 그것을 거부당했을 때 수치로 새파래지지도 않는다니! 또 설사 책망한다 한들, 그걸로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얻으려는가? 운이 좋아 보았자 군부 쿠데타의 나라, 내전의 나라, 약탈자들과 불만분자들의 공화국이겠지. 남아메리카의 몇몇 공화국들처럼! …… 스페인어는 결코 이 나라의 공용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은 결코 스페인어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어에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과 그들 가슴속의 정서를 표현할 낱말들이 없으니. 민족마다 감정의 결이 있는 것처럼, 민족마다 스스로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어를 하는 한 줌의 이들이여, 스페인어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가? 독창성을 죽이고, 다른 마음에 너희 생각을 종속시키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진짜 노예로 변질시키려는 것인가! 일루스트라도 인척하는 너희들 열중 아홉은 나라를 배신한 변절자이다.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제 나라 말은 쓰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며 잊는구나. 제 나라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척하는 자들을 내일 만나 술하게 보아 왔는가! 운이 좋게도 너희 정부는 친척들의 정부이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노예로 만들고 자 러시아어를 말하게끔 강요하고, 독일이 정복한 지방에서 프랑스어를 금지하는 와중에, 너희 정부는 너희 말을 지키게 하려 애쓰고, 거기에 너희, 믿기지 않는 정부하의 놀라운 민족인 너희는 스스로의 민족됨을 찢어 없앨 것을 고집한다. 너희는 모조리, 사람이 사고방식을 지키는 한 독립성을 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이 언어를 보전하는 한 자유의 담보를 보전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언어야말로 한 민족의 사상 그 자체인 것이다.⁹⁴

이장광설은 독자로서 급이 바라-시모운이 잔인하고 파렴치한 바스크인 조부를 두었으며, 변장을 위해서 투르고역양이 심한 타갈로그어를 구사하는 척한다는 것, 또는 여기에서 스페인화에 대한 비난이 뛰어난 스페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하다. 독자는 시모운이 몇 줄 앞에서 펼친 모순되는 주장마저 그냥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너희는 이 군도에서 사용되는 마흔가지 남짓한 언어에 한 가지를 더 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더 떨어지도록 하려는 것인가?”⁹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럽에 있는 동안 리살은 이런식의 격정적인 토착문화주의 nativist 의 언어로 글을 발표하는 데 있어 없었다는 사실로, 아마 「연대」 주변의 동료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

⁹⁴ El Filibusterismo, chapter VII (“Simoun”), pp.47~48.
⁹⁵ 같은 책, p.47. 논리적으로, 이것은 필리핀에 하나거나 여러 마흔 남짓한 수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페인어가 공용어로서 그 마흔가지 남짓한 다른 언어 사이의 소통의 고리가 될 결정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살은 헤르더를 너무 가슴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도 타갈로그어는 민족적 ‘언어 national idioma’ 보다는 시장의 공용어로서 더 빨리 퍼지고 있다.

지고자하며, 그렇게 하여 다른 모든 희생을 아낄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편지는 그의 목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비춘다.

그리고 나는 애국심 [을 가질 우리의 역량] 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죽는 법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조국을 위해 그리고 숭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면, 죽음이 무슨 문제가겠는가? 만일 내가 오직 나만이 필리핀의 정치를 위한 발판이라 생각했다면, 그리고 동포들이 나의 수고를 이용할 것이라 확신했다면, 아마도 나는 이 길을 가기를 망설였으리라. 그러나 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이들, 나의 자리를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있다. 나아가, 내가 활동을 그만두도록 몰아붙이는 것을 보건대, 내가 불필요하고 나의 수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 나나의 의가 없는 조국을 사랑했으며,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 다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할 것을 믿는다. 나의 앞날, 나의 삶, 나의 기쁨들, 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두를 희생하였다. 어떤 운명이 닥쳐 오더라도, 나는 조국을 축복하고 그 구원의 새벽을 열망하며 죽어 가리라.²³

애국적 파토스와 개인적 쓰라림의 기묘한 결합에 대한 해설이 따로 필요하겠다. 그보다 두 달 전, 「연대」는 리살이 그와 그의 정치에 대한 약의 에찬 개인적 공격으로 여길 만한 글을 실었다. 공격은 “10 원짜리 구세주들 Redentores de Perro Chico”이라는 제목으로, 노골적인 풍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리살은 이 글에서 자신이나 폴레옹 스타일을 흉내 내는 허영에 찬 선동가이자 스스로를 망상의 도시 (그러니까 필리핀) 의 해방을 위해 신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는 ‘망상 1 세’ 라 조롱받았다고 확신했다. ‘망상 1 세’ 는 주변에 친척, 광신도, 순진 무구한 자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에게 억압자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부르짖는다. 좌중에서 무기도, 배도, 자금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 험잡꾼은 이렇게 대답한다.

불행한 자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무슨 반대를 하는 것인가? 돈? 필요 없다. 칼한 자루와 강건한 심장, 이것이 비책이지. 신이 너희들을 훌륭한 애국자로 창조하신 것을! 언론? 글은 이미 쓸 만큼 썼는 걸. 지사와 시장에 가서, 그리고 고교 신부에게서조차,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내가 큰 소리를 이만큼 쳤는데 충분한 몫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너희들에게 길을 가리켜 주었는데? 너희들을 전투에 떠밀어 넣었는데? 나 자신은 싸움에 나가면 안 되지. 내 삶은 신성하니까. 내 사명은 더 고결하니까! …… 군량이 필요하다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릴 거야, 하늘은 옳은 대의를 도우니까. 안 떨어지면, 굶으면 되지! 무기? 사면 되지! 군대 조직? 알아서 하면 되지! 배? 헤엄 치면 되지! 운송? 짐이 야

²³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831~32.

지배를받고있었다. 영국은인도-버마와말라야, 싱가포르, 그리고분명치않은정도로북보르네오를지배하고있었고, 프랑스는베트남과캄보디아, 라오스를, 네덜란드는광대한네덜란드령인도²¹를지배했다. 태국 Siam 만이공식적으로독립국의지위를유지했다. 리살이이런여러곳들, 특히그의모어와관련된오스트로네시아어군의언어를사용하는지역에 대한독서를많이하기는했지만, 싱가포르및며칠간의북보르네오방문경험을제외하고는이장소들에발을디딘적은없었다. 만주왕조의중국은최후의고통을맞이하고있었다. 그에게는마르티의광대한공화주의의신세계와같은, 가까이있는발판 point d' appui 이없었다. 필리핀에지방의 농촌항쟁과크리올의무장폭동전통이있기는했지만, 이모든것은지나간 지오래된일로, 그에게는카비테 (1872) 와그소름끼치는교수형의여파 말고는활용할만한것이거의없었다. 1890 년대초로마가톨릭신자필리핀인들중에는게릴라전투경험자가한명도없었다.

1892 년의늦은봄, 리살의선택은제한되어있었다. 그는영원히유럽을떠났다. 산다칸은점점환상으로느껴졌다. 홍콩은영국이그에대해관용을베푸는한에서만안식처가될수있었으며, 영국은식민지마닐라의화를돌우는데아무런관심이없었다. 그의신념과그를민족의지도자로여기는모든이들에게계속충실하려면, 그가갈수있는길은단한갈래인것으로보였다. 고향으로돌아가당당하게나아가는것.

두번째귀향

1892 년 6 월 19 일리살은서른한살이되었다. 다음날그는편지두통을완성하여홍콩의형무소담당관인포르투갈인친구 P. L. 마르케스 (Marquez) 박사에게맡겼다. 편지들은봉해져있었고, 그의사망시개봉및공표하라는설명이붙어있었다.²² 21 일에는데스푸홀총독에게보내는개인적편지를 썼으며이편지는그를마닐라로태워간것과같은배에실려갔다.

봉해진편지두통가운데한통은수신자가가족으로되어있었고다른한통은‘필리핀사람들 the Filipinos’로되어있었다. 두통모두왜그가필리핀으로돌아가는위험천만한여행을결심했는지설명하고자하는것이였다. 그의행동이죄없는사람들, 특히누구보다도그라는사람으로인해가혹한박해를받은식구들과고향사람들에게고통을안겨주었다고그는 썼다. 택한진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국과몹소맛섬으로써 책임을

²¹ Indies: 현재인도네시아의모태.-역자주

²² 훌륭한마르케스에대해서는 Palma, Biografia, p.220 참조. 이편지들이부모나누이들에게맡겨지지않은이유는, 가족이흔히그렇듯이, 그들이옛보지않으리라고믿을수 없었기때문이라추측할수있겠다.

다. 스페인에서그는현재를향해말하고있었지만, 마닐라로 옮겨오는, 폴란드와알자스를경고로끌고들어오면서, 미래를향해말하고있었다.

유사한시공간의변화가소설이절정으로향해가면서눈에띄게된다. 스페인어학교를설립하려는운동이실패한후, 불가사의한전복적대자보들 pasquinades 이하룻밤사이온학교에나붙고이는정권에의한무차별적인체포라는결과를낳는다. 이것은명백히리살의학업마지막해초반마드리드센트랄대학에대한카노바스의습격을복제한것이다. 불가사의한대자보들은전반적인공포를빠르게야기하며, 잔인한산적들의반란과침입에대한야단스러운소문이이를부추기는데, 이것은 1883 년안달루시아의‘검은손’공포를떠올리게하는동시에, 1892 년초반이른바‘혁명적’농민들에의한헤레스 Jerez 공격을예시한다. 리살이관련장에 (번역없이) 타갈로그어제목, ‘공포’를의미하는‘타타쿿 Tatakut’을달아플롯의전개를필리핀에묶어두려했다는것이흥미롭다.

라바솔춤곡

드디어우리는시모운의폭탄투척계획, 이수수끼끼의보석상과협조하기로한탈레스의사나이들및다른무법자들의무장공격과함께진행될이계획까지왔다.

이실패한음모에는여러가지흥미로운특징이있다. 첫째로, 1890~91 년에상상된것으로서, 이계획은 1892~94 년스페인과프랑스를뒤흔든눈부신폭탄공격의물결을따른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그보다앞선것이였다는점이다. 그러나 1888 년부터크고작은폭탄을이용한사건의횡수가점점늘어나는데, 이는주로산업적바르셀로나에서일어났지만, 마드리드와발렌시아, 카디스에서도있었다. 대부분은공장에설치되었으며, 인명손실이나중상을야기하는일은드물었고, 범인의신원이밝혀진경우는거의없다시피했다. 어쩌면몇몇은경찰이고용한앞잡이들이조직했는지도모르겠지만, 대개의경우아나키스트사상의영향력아래에있던분노한노동자들이계획한일이라고믿을만한이유가충분하다. 그런데폭탄투척의횡수와그심각성은 1892 년 1 월 8 일‘헤레스붕기’이후눈에띄게증가하였다. 그날밤, 50~60 명정도되는농민들이그전에투옥당하거나고문당했던그들의동지몇몇이간혀있는감옥을공격하기위해음으로향했다. 그들은순진한발상으로지방의군사수비대가그들을지지하리라고기대했던것같다. 경찰이그들을해산시켰으며, 농민한명과두명의음주민이사망했음이드러났다. 권좌에서세번째임기를거의마쳐가던카노바스

는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대한 무차별적 탄압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2월 10일 ‘봉기’의 지도자라는 이들 중 4명이 대중 앞에서 교수형을 당했다.⁹⁶

한달 후 파리에서의 일련의 심각한 폭탄 투척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네덜란드와 알자스의 피가 반씩 섞인 프랑수아-클로드 쿠니호스테인(François-Claude Koenigstein), ‘라바술’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살인과 과장도 전력에 있는 범죄자의 작품이었다. 그는 빨리 잡혔고 재판에 부쳐졌다. 일찍이 클리쉬 Clichy 에서는 노동자 시위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검사가 몇몇 노동자들에게 (따내지는 못한) 사형을 구형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탄압에 대한 복수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정을 향해 자신의 행동이 혁명적이나 키스트 원칙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1일 그는 “아나키스트 만세! Vive l'Anarchie!”를 외치는 동시에 자신의 죽음이 복수로 갚아질 것임을 단언하면서 기요틴으로 향했다.⁹⁷ 이것은 프랑스에서 코뮌나 르학살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정치적 처형이었다.

⁹⁶ Núñez, *El terrorismo*, p.49;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p.175~80. 19세기의 스페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는 총살형과 가미를 이용한 교수형, 그리고 고살구 garrote 를 이용한 교수형이었다. 앞의 두 가지는 거의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중세의 고문 도구였던 고살구는 더 오래 걸렸고, 따라서 ‘최악의(즉정치적인) 범인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센웨인(Esenwein)의 훌륭한 연구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다. 어떤 각도에서 보자면, 사건의 연쇄는 1886년 5월을 여는 날 시카고의 헤이마켓 ‘폭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자’와 이민자에 반대하는 히스테리가 지배하던 분위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줄릴 하계로 방한 절차를 거친 후, 11월, 네 명의 아나키스트가 교수형을 당했다. 처형은 유럽 전역에 걸쳐(그리고 물론 미국에서도)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프랑스 노동자 조직들이 선도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이데이 행사가(미국에서 만 빼고) 매년 치러지게 되었다. 스페인 좌파 전체는 이 새로운 전통을 열렬히 지지했으며, 특히 사가스타가 아직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 그러했다. 1891년 메이데이 기념식 직후, 카디스에서 폭탄 두 개가 터져 한 명의 노동자를 살해하고 다른 몇몇에게 부상을 입혔다. 지역 경찰은 157명을 체포했지만 증거가 있는 범인은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따라서 고용된 앞잡이들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헤레스의 사나이들이 해방시키려 했던 것이 이 죄수들 중 몇몇이었다. 이상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말라테스타가 떠오르는 아나키스트 지식인 스타타리다 델 마르를 동반하고 강연 및 조직을 위해 스페인을 순회하는 중이었으며, 헤레스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폭력적 사건들의 소식을 들은 말라테스타는 꽤나 용기 있게 카디스를 향해 계속 가기로 결정하였지만, 부유한 이탈리아인 기업가로 변장했다.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센웨인은 그 당시에 든 그 이후에 든 아나키스트들이 1월 8일 사건을 ‘행동에 의한 선전’이라고 공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그들은 늘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⁹⁷ Maitron, *Le mouvement*, pp.213~24 참조. 감방에서의 인터뷰에서 쿠니호스테인은 외젠쉬의 『방랑하는 유대인』을 읽고 종교적인 신념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메트론은 이 시기 프랑스의 아나키즘은 대개 서로 제대로 된 조직적 연계가 없는 작은 비밀 결사와 준비밀 결사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경찰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힘들었으며, 범죄자들이 조직에 침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웠다. 프랑스 아나키즘은 1890년대 말 행동에 의한 선전이 폐기되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삶에 생디칼리즘이 부상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스페인 아나키즘은 훨씬 넓고

명예 영사 직을 맡기까지 했다. 그는 웅변가이자 시인, 날카로운 정치 평론가로 다년간에 걸쳐 명성을 쌓았다. 나아가 정치적 조직에 방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쿠바에서 지난 수십년간 있었던 내부 반란과, 이해 관계가 있는 미국로비 세력이나 다양한 정도로 참여했던 미국으로부터의 무장 습격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는 쿠바에 합법적으로 귀환한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런 환상이 없었고, 여러 대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868~78년 10년간 지속된 세스페데스 주도 의 반란 및 그 짧은 여파로 일어난 1879~80년의 ‘소규모 전쟁 Guerra Chiquita’의 결과, 게릴라 전투에 경험이 많고 새로 시작될 무장 투쟁에 동원 가능했던, 전투에 단련된 수천 명의 고참 병들이 있었다.

리살은 메스티소로서 부분적으로는 ‘인디오’, 부분적으로는 중국인, 부분적으로는 스페인인이었으며, 모어는 카스티야어가 아니었고, 결혼 경험이 전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⁰ 그의 성인기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처음 마르세유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인으로 여겨진 것에 분노했었다.) 웅변가는 아니더라도 유능한 정치 평론가 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뛰어난 훌륭한 소설가였다. 그가 일찍이 북유럽으로 옮겨간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는 했지만, 마르티가 풍부하게 갖고 있었던 것, 즉 다름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경험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의 조국이 위치한 지역은 거의 전부가 다양한 세력에 의해 식민

²⁰ 유배 (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의 마지막 기간 동안 그는 조세핀 블랙켄(Josephine Bracken)이라는 여자와 만족스럽게 살았다. 이 여자의 배경은 다소 분명치 않다. 1897년 2월 리살의 죽음 이후 써 내려갔다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짧은 서술에서 그는 자신이 두 벨파스트 출신 로마 가톨릭 신자의 딸로, 1876년 8월 9일 아버지 가위 병하사로 근무하고 있던 홍콩의 빅토리아 병영에서 태어났다고 썼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맥브라이드는 그를 낳다가 사망했고, 아버지는 아는 사이로서 아가가 없는 타우퍼 부부에게 아기를 입양시키는 것 외에는 길이가 없다고 느꼈다. 타우퍼씨는 세 명의 박정한 아내를 거쳐 1895년 1월 혹은 2월 즈음에는 마침내 거의 눈이 먼 상태로 조세핀과 함께 길을 떠나, 민다나오 섬에서 유배를 살며 진료소를 열었던 리살을 찾아가게 되었다. 일주일의 치료 후 그는 호전된 듯 보였고, 아버지와 딸은 마닐라로 돌아갔다. 교회가 리살이 믿음의 일찌감치 버렸다 고 단언했던 데다 식민지에는 세속적 결혼 civil marriage 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의 가능성은 없었다. 그를 담당하고 있었던 군대 지휘관은 표준적인 이베리아 스타일 정부 querida 의 존재에 대해 틀림없이 모른 채 했던 것 같다. 키가 152센티미터였던 조세핀은 리살보다 10센티미터 작았다.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360~67. 안타깝게도 암베스 오 캄포가 내부적 증거들로부터 이 문서가 위조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위조자의 신원이나 그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았다. 타우퍼 부부보다 피단으로의 치료 여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또 한 리살의 전기 작가인 오스틴 코어테스(Austin Coates)가 홍콩의 다양한 문서 보관소를 조사한 끝에 조세핀의 출생 증명서에서 ‘부친 불명’이라는 기록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는 중국인 세탁부였던 것 같다는 코어테스의 추측 등을 인용한다. 예수회 신부인 비센테 발라게르는 리살이 처형을 한 시간 가량 앞두고 있었을 때 그와 조세핀을 결혼시켜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결혼 증명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세핀이 사형수 감방에 있는 리살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도 차도 분명치 않다. Ocampo, *Rizal without the Overcoat*, pp.160~66 참조. 더 이른 시기에는 표준적 해석으로는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472~86 참조. (조세핀은 리살과 함께 피단에서도 도착한 후 그의 누이들 중 한 명과 같이 지냈다.)

는 1888년 유럽으로 돌아온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프리메이슨 단원이 되었던 것 같지만, 그의 지부는 마드리드였고 그는 마드리드에 잠시 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가 북유럽으로 다시 이사한 후에도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891년까지 식민지 내에는 토착민 프리메이슨 단원이 한 명도 없었고, 단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¹⁶ 이 구조 가리살이 민다나오로 추방되고 리가가 급작스레 무너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혁명 조직 카티푸난을 결성한 안드레스 보니파시오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 쪽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¹⁷ 1896년 말 고문에서 심문당한 카티푸네로¹⁸들에게는 그들 조직의 모습을 설명할 때 리가의 모습을 갖다 붙이는 것이 쉬웠을 텐데, 그 이유는 이것이 심문자가 듣고자 했던 말인데다 보니파시오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단체가 연속성을 띤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여기에서 마르티와의 비교가 유용해진다.¹⁹ 마르티는 1세대 크리올이었고, 모어는 스페인어였으며, 쿠바 농장주 집안의 딸과 다지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 (그는 게이였을 지도 모른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생애의 대부분을, 멕시코 및 그대륙 내에서의 탐욕스러운 팽창주의에 도 불구하고 1892년에는 아직 식민 강국은 아니었던 미국에서 보냈다. 그는 넓고 오래된 의미에서의 아메리카인 *americano* 이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방대한 연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우루과이

¹⁶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174~75.

¹⁷ 여기에 대한 이사벨로의 회상은 매우 흥미로운데, 많은 역사가들이 그를 믿을 만한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리살이 다피탄으로 추방되었을 때 나를 리가의 회원으로 초청하라는 지침을 남기고 떠난 것은 놀랄 일이다. 영감에 찬 작곡가 돈 홀리오 나킵 (Julio Nakpil) 이 리가의 정관한 부를 내게 가져다 주는 임무를 맡았으며, 그는 리살이 개인적으로 내 집을 찾아왔었지만 내가 집에 없었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이 정관에서 맹목적인 복종 및 리가의 비밀을 폭로한 자는 누구라도 사형으로 처단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 때, ……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재치 있게 가입을 거절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내 성격과 의견은 매우 독립적이며, 나의 가입은 어느 단체에나 매우 필요한 규율이 흐트러지는 결과만을 낳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La sensacional memoria*, p.105. 이사벨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리살이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고 리가의 비밀을 폭로한 자 누구에게나 사형을 부과하는 정관 같은 것을 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리살이 이사벨로의 집에 갔다가 그를 못만났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어도, 그 가나킵에게 초대장을 들려보냈으리라는 이야기는 믿기 힘들다. 이사벨로는 마닐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필리핀인 저널리스트였으며 「연대」에 정기적으로 (필명을 써서) 기고하고 있었다. 은세공사의 아들이자 독학으로 개우친 고사, 연주자, 피아노 수리공이었던 나킵은 당시 마닐라 직공계층의 일원으로 리살의 주변과는 전혀 인연이 있을 법하지 않았다. (애국적 작곡가로서의 그의 경력은 리살이 죽은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는 보니파시오의 카티푸난에서 활동적이었으며 대장이 처형당한 후 그의 미망인과 결혼했다. *Filipinos in History*, vol. II, pp.49~52 에서 그에 대한 항목을 참조. 그러므로 리살이 아니라 보니파시오가 이사벨로에게 그를 보냈을 거라고 의심하는 편이 더 가능성이 있다.

¹⁸ katipunero: 카티푸난 회원. 역자주

¹⁹ 마르티의 출신과 경력에 대해서는 주로 Thomas, *Cuba*, chapter XXV 에 의존하였다. 마르티의 아버지는 발렌시아, 어머니는 테네리페 출신이다.

의심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바솔의 죽음은 그를 피레네 산맥 양 쪽에서 아나키스트적 *anarchisant* 좌파의 즉석 영웅으로 만들어냈다. 누네스는 당시 잘 알려져 있던 대중적 노래 《라바솔 *La Ravachole*》을 인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⁹⁸

라바솔을 춤추세! (Dansons la Ravachole!)

소음만세, 소음만세! (Vive le son, vive le son!)

라바솔을 춤추세! (Dansons la Ravachole!)

폭탄소음만세! (Vive le son/De l'explosion!)

스페인 아나키스트 언론은 유명한 아나키즘 이론가였던 엘리제 르클뤼 (Elisée Reclus) 가 “나는 라바솔이 드물게 숭고한 영혼을 가진 영웅이라고 보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했으며, 말라르메派的 일원이었던 폴 아당은 “라바솔에게 바치는 헌사 *Éloge de Ravachol*”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주장했다. “라바솔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목격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물로 바쳤다. 그의 자애심,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은 마음씨, 그 행동의 생기,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맞서는 용기로 인해 그는 빛나는 전설로 떠올랐다. 빈정거림과 냉소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인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⁹⁹ 스페인 아나키스트 언론은 라바솔을 ‘폭력의 예수’이자 ‘융합하고 혁신적인 혁명가’로 묘사했으며, 몇몇 아나키스트들은 1892년 말의 『라바솔 *Ravachol*』과 1893년 초의 『라바솔의 메아리 *El Eco de Ravachol*』라는, 그를 기리는 두 개의 단명한 출판물을 냈다.

1893년 가을에는 라바솔 사건의 주요한 반향들이 있었다. 9월 24일 파울리노 파야스 (Paulino Pallás) 가 카탈루냐 총사령관인 아르세니오 마르티네스 캄포스 장군 (Arsenio Martínez Campos, 쿠바에서 세스페데스의 10년 항쟁을 평화롭게 종식시킨 산혼 협정에서 명한 인물) 에게 두 개의 폭탄을 던졌다.¹⁰⁰ 이 암살 시도는 한 명의 사망과 몇 명의 중상을

강력한 사회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바솔에게 알자스 피가 흐른다는 것은 내가 라몬 셀 파우의 증언 (그의 *Los victimarios*, p.15) 을 통해 추론한 것이다.

⁹⁸ 프랑스 혁명기 마리아투아네트를 조소하여 인기 글 *《카르마놀》* 의 노래가 사를 바 꾸어 부른 것. “대포소리만세!”-역자주

⁹⁹ Núñez, *El terrorismo*, pp.121~23. 프랑스 어원본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 에스페인어 번역본에서 따온 말을 포함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¹⁰⁰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파야스는 표준적인 ‘오르시니 폭탄’ 대신 ‘페니에회 폭탄’이라고 묘사되는 것을 썼다. 같은 책, p.53. 펠리체 오르시니 (Felice Orsini, 1891년생) 는 1848년의 혁명들에 참가한 경력이었으며, 단명한 로마 공화국의 의원이었고 신념이 굳은 이

초래했지만, 마르티네스캄포스 자신은찰과상밖에입지않았다. 파야스는숨거나도망치려하는대신모자를공중에던지며“아나키만세! Viva l'Anarquía!”를외쳤다. 한달후그는곧악명이높아질문주익요새에서총살집행대에의해처형당했다.¹⁰¹ 11월 7일, 서른두살의산티아고살바도르는로시니의오페라《기예르모텔》이상연되고있던바르셀로나오페라하우스에대형폭탄을던져이도시의돈많은엘리트무리 가운데여럿의사망및중상이라는결과를낳았다. 은신하고있던살바도르가잡히기까지죄없는용의자들여러명이체포및고문을당했다.¹⁰² 그는자신이알고있었던경모했던파야스에대한복수로행동했다고선언한후, 24일문주익에서교수형 garrote 을당했다.¹⁰³ (1892년부터다시권력을잡은) 사가스타는바르셀로나에 1년간지속될계엄령을선포했다. 그집행자는다음아닌

탈리아민족주의자였다. 1855년오스트리아정권의해만토바의요새에투옥된그는극적인탈옥에성공한후, 마치니가폴렘로드의초라한셋방에서항쟁의계획을짜고있던파머스턴의런던으로향했다. 센세이션을일으킨오르시니의 1856년회고록 The Austrian Dungeons of Italy: a narrative of fifteen months of imprisonment and final escape from the fortress of s. Giorgio(London: G. Routledge, 1856) 은금방 3만 5천부가팔렸고, 그러는동안그는새로운종류의폭탄을개발하고있었는데, 그것은뇌산수를올주재료로도화선이필요없지만부딪친순간에폭발하는것이였다. 그는이것을퍼트니에서, 그리고데번셔와세필드의버려진채석장에서시험했다. 그후그는루이나폴레옹의암살이프랑스에서혁명에불을붙일것이며, 그러면이탈리아도파리의예를따르게될것이라는믿음으로해협을건너 1858년 1월 14일그의발명품을사용해보았다. 목표물은찰과상도거의입지않았지만, 156명이다쳤고그중여덟명은결국사망했다. 3월 13일오르시니는기요틴에서처형당했다. 파머스턴은살인음모법을통과시켜외국통치자들에게대한살해모를중죄로만들려했지만, 법안통과에실패했고, 종리직으로부터몰려나야했다. Jad Adam, “Striking a Blow for Freedom”, History Today, 53:9(September 2003), pp.18~9 참조.

¹⁰¹ 스페인으로말할것같으면이것이‘행동에의한선전’의첫번째명백한사례였다. 1878년 10월후안올리바라는젊은카탈루냐인통제조공이알폰소 7세에게총을발사했으나명중하지못했다. 1년뒤, 열아홉살의프란시스코오테로가똑같은시도를했으나역시명중과는거리가먼사격이였다. 둘다아나키스트쪽에확실한연계를갖고있지않았고, 둘다즉시처형되였다. (Núñez, El terrorismo, p.38.)

¹⁰² 이오페라가선택된것은우연이야닐지도모른다. 1879년의첫대회에서나로드나야 불리는강령을발표하였는데그중에는이런말이있었다. “우리는빌헬름텔이채택한수단으로싸울것이다.”이전설적인스위스궁수는 19세기후반유럽급진주의자들사이에서널리영웅적선조로여겨졌다. Walter Laqueur, A History of Terrorism(New Brunswick, NJ: Transaction, 2002, revised edition), p.22 참조.

¹⁰³ 살바도르는카를로스주의자이자열렬한로마가톨릭신자로출발했지만, 가난과자살한범죄(밀수), 갇을길없는빛은아나키즘에대한그의흥미를불러일으켰다. 그가파야스처럼독자적인행동을한것이아나라는믿을만한증거가없는데도, 다섯명의다른사람들이그와함께처형당했다. 특히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p.186~87 과 Maura, “Terrorism”, p.130 참조. Bécarud and Lapouge, Anarchistes, p.44 에의하면, 산티아고살바도르는처형당한후말들이어떻게되겠느냐는질문을받자이렇게말했다고한다. “예쁘면부르주아들이보살펴주겠지.”아나키스트식돌출발언 boutade 인가? 아니면진화?

도내에있었다. 이를넘어선곳에명시되지않은 1880년대쿠바사태가있었는데, 우리가앞으로곧보게될것처럼쿠바에서는노예제가폐지되었으며, 시민 civic 단체나심지어좌파단체는물론정당이(일정한계내에서) 합법화되었고, 비슷한한계내에서다양하고활기찬언론이자라났다. 쿠바에서이모든것이가능했다면, 왜필리핀에서는안되겠는가? 해볼만한일인것처럼보였다.

그러나리가의내부조직은, 1896년의진술서에서그러지는바로는, 명백히부분적비공개로설계되어있었다. 공식적으로조직은지방평의회에기반을두고있고, 그지도자들이지역수준에서상급평의회를꾸린다. 그리고지역지부의지도자들은리가전체에통제권을가진최고평의회를구성하게된다. 그런데각각의회원은의무적으로,

모든개인적이익을희생하고그의소속평의회나직속상급평의회회의의장으로부터구술혹은서면으로내려온모든지침및명령에문자그대로맹목적으로복종해야한다. 또한리가의평원에위험이되는어떤것이라도보거나, 관찰하거나, 들은경우에는평의회집행부에지체없이즉각고지해야한다. …… 그리고그의평의회와리가의행위·행동·결정을 …… 외부자들에게절저히비밀로지켜야하며, 이는부모나형제, 자식들에게도마찬가지이고자신의생명을희생해야될때에라도마찬가지이다.

또한회원은“어떠한굴욕에도굴복하지말아야하며”, “위험에처한동료를구조해야하고, 새로운회원도모집해야한다.”(특정적이라고여겨지는것은아내나누이들은언급할가치조차없는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¹⁴

프리메이슨에서대대로내려오는전승을변안한것이분명한이권위주의적인구조가리살의머리에서나왔다고쉽게믿기는어렵다.¹⁵ 이소설가

¹⁴ 게레로는이심문결과를신뢰하는경향이있는데, 그것도어느한도까지만이다. 한세대일찍라파엘파라는이결과를아무런의심없이그의책, Biografía de Rizal(Manila: Bureau of Printing, 1949) 에이용했다. 이변화는무언가를보여주는것이다. 1940년대에리살은여전히논쟁의여지가없는혁명영웅이였다. 1960년대가되자그는부르주아적우유부단함이나그이상의것들로공격을받게되었고, 게레로의저작은어느정도이에대한미묘한응답이다.

¹⁵ 1896년 12월, 리살은심문자들에게자신이홍콩에도착하자마자활동적인메이슨단원이었던호세바사로부터리가필리핀의정관을메이슨의관례에기초하여작성하라는요청을받았지만, 바사가그들과한일에대해서는전혀아는바가없다고말했다. 이는좀너무무심한것같은데, 그가갖고있었다는그런정관은전혀발견된바없다. Horacio de la Costa, SJ, ed. and trans., The Trial of Rizal: W.E. Retana's Transcription of the Official Spanish Documents(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61), p.6 참조. “excitado por D. José Basa… redactó los estatutos y reglamentos de una Sociedad denominada ‘Liga Filipina’, bajo las bases de las prácticas masónicas… que en este momento no recuerda el declarante haber indicado ningún fin político en los estatutos, que se los entregó á José Basa, no recordando á la persona que se los remitió.”델필라르역시스페인에서리가필리핀에대해생각하고있었다는사실은언급할만하다. 말하자면그계획은 띄워져있는상태였다는것이다.

론이 이를 마닐라의 정치적·군사적 영향권을 바로 벗어나는 곳에서 보르네오의 탐파가 시작되는 것으로 비출 가능성이 농후했다.¹¹

그의 가족에게 더 걱정스러웠던 리살의 대안은, 필리핀 자체 내에 필리핀인들을 위한 최초의 합법적 정치조직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다. 리살 자신이 갖고 있던 문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기록된 증거의 거의 대부분은 4년 뒤 혁명의 발발 이후 경찰의 심문자와 고문자들이 얻어낸, 혹은 짜낸, 종종 모순되는 증언에서 나온 것이다.¹² (리살 자신은 1892년에 심문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그는 마닐라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그가 리가 필리피나로부터 단체의 창립을 선포하는 사적인 연회가 개최된 직후 체포당했다.)

리가 필리피나

리가 필리피나 LA LIGA FILIPINA 가 명시한다섯 가지 목표는 1890년 이후 리살의 저술 및 서신들에서 드러난 그의 생각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치밀하고 강건하며 동질적인 전군도의 연합체를 구성할 것 (2) 위급할 시, 필요할 시에는 언제나 서로 보호할 것 (3) 모든 폭력과 불의에 대항하여 방어할 것 (4) 교육·농업·상업을 증진할 것 (5) 개혁을 연구하고 적용할 것.¹³ 첫 번째 항목은 식민지의 법이 본국 출신자, 크리올, 메스티소의 위계적 특권을 제거하는 쪽으로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항목들은 식민 국가가 종종 무법적이었으며, 근대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강령의 내용과 그에 의바른 말투는 현존하는 식민지 필리핀의 합법성이 허용하는 한

¹¹ 하나의 측면에서 보자면, 산다칸과 탐파의 비교는 부당한 것이었다. 미국의 강력한 집단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탐파스러운 눈으로 쿠바를 주시하고 있었던 데 반해, 영국은 필리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조는 1890년대에는 지금에 비해 훨씬 덜 분명해 보였을 것이다. 안토니오 루나와 에밀 베르토에 발헬리스타가 단지 야채나 카우고책이나 짐을 기를 기회를 기대하고 유럽으로부터 와서 산다칸의 리살에게 합류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¹²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315~16 참조. 게레로는 W.E. Retena의 1907년작 *Vida y escritos del Dr José Rizal* 을 주요 자료로 삼았으며, 레테나는 거의 전적으로 경찰 보고서에 의존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외는 이사벨 로데로 스페의 회고록으로, 이는 그가 1896년 8월 보니파시오의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부당한) 의심 받고 마닐라의 빌리버드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작성된 것이다. 그는 동료 '반란자 insurrecto' 수감자들 몇몇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덧붙여진 다른 자료와 함께 곧 *La sensacional memoria de Isabela de los Reyes sobre la Revolución Filipina de 1896~97* (Madrid: Tip. Lit. de J. Corrales, 1899) 로 출판되어 나왔다.

¹³ 레타나의 책 (pp.236ff) 을 인용한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295. 레타나의 출처는 에피파니오 데 로스 산토스가 작가에게 준 정체 불명의 문서라고 한다.

웨이레르로서, 그는 필리핀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아나키스트 언론은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9일, 오귀스트 바이양 (Auguste Vaillant) 이 프랑스 의회에 대형 폭탄을 던졌는데, 사망자는 없었으나 의원 몇몇이 부상을 입었다. 1894년 2월 5일 그는 기요틴에서 처형당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기억의 역사에서 사망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형이 이용된 최초의 경우였다.¹⁰⁴ (프랑스 혁명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 리자르 카르노의 보잘 것 없는 손자인 사디 카르노 대통령은 이 판결을 감형해 주기를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1894년 6월 24일 리옹에서 칼에 찔려 죽게 된다. 그를 암살한 젊은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 산테 제로니모 카세리오는 두 달 후 기요틴에서 처형당했다.) 이 아나키스트 폭탄의 물결이 최고조 (결코 결말은 아니었던) 에 이른 것은 바이양의 처형 직후 파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발로서, 사망자를 낳은 이 폭발 사건들은 명백히 부분적으로 바이양에 대한 복수로 의도된 것이었다. 범인은 도망친 코뮌파르망명자들의 아들 로스페인에서 태어난 젊은 지식인 에밀 앙리 (Émile Henry) 인 것으로 밝혀졌다.¹⁰⁵ 그 역시 빨리 잡혔고, 5월 21일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졌다.¹⁰⁶ (이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폭탄 투척은 1896년 6월 7일 바르셀로나의 성체 축일 '사태 outrage'에 이르러서야 일어나는데, 이는 제 4장에서 고려를 위해 남겨둔다.)

1892~94년의 유명한 폭탄 투척자 다섯 명 중 누구 도시 모운의 약력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들 모두는 무척 젊고, 가난하며, (양리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스스로 아나키스트라 선언한 자들이었다. 이들의 폭탄 중 그 어느 것에도 위스망스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러나 줄이 전해 주

¹⁰⁴ 메트롱은 바이양이 파나마 운하 시스칸들이 대중적으로 노출된 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었던 제 3 공화국의 몇몇 지도자들 dirigeants 에게 무척 유용했다고 말하는데, 그로 인해 이들은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을 뿐더러, 어떤 종류의 '혁명적 전진'에도 제한을 가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Le mouvement*, p.237.

¹⁰⁵ 가족이 도망쳤을 때 앙리는 세 살짜리 아기였다. 스페인에서 그의 아버지는 광산에 서일할 수밖에 없었고, 수는 중독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1880년의 사면 이후 프랑스로 돌아온 소년은 총명한 학생으로서 에콜 폴리테크닉에 들어갔다. 그러나 1891년 (스물세 살로) 그는 아나키즘의 대의를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매혹적인 Joan Ungersma Halperin, Félix Fénéon: *Aesthete and Anarchist in Fin-de-Siècle Par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268 참조.

¹⁰⁶ 앙리의 처형에 마음이 깊이 움직인 클레망소는 이렇게 썼다. "앙리의 범죄는 야만인의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사회의 행동이 저열한 복수인 것 처럼 보인다. ……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라로케트 (La Roquette, 1851년 이후 파리에서 모든 사형이 집행된 형무소) 에 가서 피뎀세를 맡게 하라, 그들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하자." Maitron, *Le mouvement*, p.246 의 인용.

는, 에밀앙리가 재판에서 한말 몇마디를 생각해 보라.¹⁰⁷ 왜 죄 없는 사람을 그토록 많이 죽였느냐는 질문을 받아 앙리는 냉소적으로 답했다. “죄 없는 사람이란 없다 (Il n’y a pas d’innocents).” 그리고,

나는 현존하는 [사회] 조직이 악하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 소멸을 앞당기기 위해 그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싶었다. 나는 모두가 저열하고, 모두가 비겁하며, 모든 것이 인간 열정의 발달과, 아량 있는 가슴과, 생각의 자유로운 비상에 대한 장애물인 사회의 구역질나는 광경들로 인해 날마다 커져가는 깊은 증오로 투쟁에 나섰다. …… 나는 부르주아지에게 그들의 쾌락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황금송아지가 마지막 충격을 받고 진흙과 피속으로 떨어질 날까지 반침대 위에서 격렬히 흔들릴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한다.

아나키스트들은 부르주아 여자와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고 있으니. 집에 빵이 없어 빈혈로서서 죽어가는 빈민가의 아이들은 죄 없는 희생자가 아닌가? 하루에 40 수를 벌기 위해 너희들의 작업장에서 창백한 얼굴로 닳아가고 있는, 가난으로 창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처지의 여자들은 어떤가? 너희들이 평생 생산을 위한 기계로 만들어 놓았다가, 힘이 고갈되면 쓰레기장과 구빈원에 버리는 저 노인들은 어떤가? 부르주아 신사들이여, 적어도 너희 범죄에 대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우리의 보복이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너희는 시카고에서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였고, 독일에서는 그들의 목을 쳐서 죽였으며, 헤레스에서는 목을 졸라 죽였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쏘아 죽였고, 몽브리종과 파리에서는 기요틴으로 보내 죽였지만, 결코 아나키즘을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나키즘의 뿌리는 너무 깊다. 아나키즘은 조각나고 있는 부패한 사회의 심장에서 태어났다. 아나키즘은 안정된 질서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발이다. 아나키즘은 현존하는 권위를 쳐부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열망을 표현한다. 아나키즘은 어디에나 있어서 사로잡을 수 없다. 아나키즘은 너희를 죽임으로써 끝날 것이다.

앙리의 수사는 신비롭게 도시모운의 것을 재현한다. 부패한 체계를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도록 재촉, 지배계급 (‘죄 없는 자’들까지 포함하여) 이 비참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폭력적 복수, 앞으로 올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등이 그러하다. 타갈로그 농민들에게 민간로마가 톨릭에서 온 그들 나름의 유포아적·메시아적 전통이 있기

¹⁰⁷ 같은 책, pp.115~19. 앙리가 헤레스와 시카고, 파야스와 바이양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술에 괴롭힘 없는 삶을 약속하기도 했다.⁹ 또한 그는 고향 칼람바의 쫓겨난 사람들도 이보르네오의 안식처로와 그와 합류하기를 바랐다.¹⁰

3월 말 리살은 영국 북보르네오 회사 홍콩 대표와의 예비 협상 후 몇 차례에 걸친 북보르네오 방문의 첫 삽을 떴다. 처음에는 전망이 아주 밝아 보였다. 리살은 3년간 임차료 없이 20,000 평방미터의 미개간지를 일구고, 이후 저가에 땅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제공받았다. 인구가 매우 희박한 지역에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 계획에 적극적이었던 영국 북보르네오 회사는 나아가 필리핀인 공동체가 그들의 관습에 따라 그 구성원의 해운 영될 것과, 부역이나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몇 달 안에 계획 전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살은 그가 작은 식민지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돈과 비슷하기라도 한 액수를 모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식민을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이주에 대한 스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었다. 리살은 신임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가족 및 고향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정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데스푸홀은 설득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모의 이주는 그가 이끄는 정부의 이미지를 해칠 것이었다. 게다가, 스페인의 보수언

⁹ 리살은 1892년 1월 31일에 블루멘트리트에게 다음과 같이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썼다. “내 (의사로서의) 직업적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책의 세 번째 부분을 타갈로그어로 쓰고 있네. 이 책은 오로지 타갈로그 관습만을, [즉] 오로지 타갈로그인들의 습성과 미덕, 결점만을 다루게 될 거야. 이제 아름다운 주제를 찾은 마담에 내가 스페인어로 책을 써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근대적인 감각의 말로 소설을,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소설을 쓰고 싶네. 이번에는 예술을 위해 정치와 나머지 것들을 희생시키려고 해. 만일 스페인어로 쓴다면, 딱한 타갈로그인들은 이 책을 못 읽게 되겠지. …… 이 책이 그들에게 현경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이 책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데, 신조어들을 끌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네. 게다가 나는 타갈로그어로 쓰는 연습이 부족해.”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1890~1896, p.431 이후의 번호가 없는 쪽들. 이 세 번째 소설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남은 것은 암베소 캄포에 의해 그의 The Search for Rizal’s Third Novel, Makamisa (Manila: Anvil, 1993)에서 조심스럽게 재구성되었다. 리살은 원고를 스무쪽 쓰고 나서 타갈로그어를 포기하고 스페인어로 되돌아갔다. 마카미사 Makamisa란 ‘미사가 끝나고 After Mass’라는 뜻이며, 필리 Pili 읍의 주민들과 스페인 출신 신부에게 초점을 맞춘 글은 『놀이메탕헤레』의 풍자적인 풍속 묘사 costumbrista 스타일로 돌아온다. 이것이 그가 이 소설을 포기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엘 필리부스테리시모』를 넘어서는 것을 쓸 수 없다고 결론지은 지도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1892년 중반 이후 그는 소설을 계속 쓴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던 것 같다.

¹⁰ 임차인들과 칼람바 사람들에게 도미니코회를 법정에서 우라고 설득하고 재판관을 마드리드의 대법원까지 계속 가져가라고 주장했던 것이 리살이었을 이 생각날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복수심에 불타는 교단이 재판에 이졌을 때, 그리고 웨일레르가 집을 불태우는 것으로 모자라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칼람바 근처 어디에도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을 때, 리살은 크게 절망했고 그가 고향에 초래한 고통에 대해 막대한 죄의식을 느꼈다.

때강성한이슬람술탄왕국이었던술루의중심지였으며여전히느슨한스페인지배권아래에서완전히길들여지지않았던홀로 Jolo 로부터 400킬로미터거리에있었으며, 마닐라에서도, 1,000킬로미터남짓밖에떨어져있지않아, 지리적으로이보다더필리핀에가까운곳을구하기는힘들었다. 아바나와마야미사이의거리, 그리고마르티가쿠바인담배공장노동자사회에서혁명가들을모집하던탐파와의거리도꼭이만큼떨어져있었다. 이곳은정치적으로도유망해보일수있었다. 1890년대보르네오섬의북부해안지역은아주특이한콘래드적장소였다. 서쪽부분에는 1840년대에영국인모험가제임스브룩 (James Brooke) 이건설하였으며 1880년대부터런던의간섭없는보호아래있었던이른바백인왕 White Rajah 들의왕국이자리하고있었다. 한때강성했던브루나이술탄왕국의잔여가중간에서작고적당한구석을차지하고있었고, 산다칸을비롯한동쪽부분은 1882년부터영국북보르네오회사라는사기업이운영하고있었다. 더유리한점은 1885년에스페인이홀로의변화하는중주권에서파생되는유사법적영토권의모든부분을포기하도록설득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홍콩이스페인영사관및로마가톨릭교단의현지기관들의의심많은눈초리아래있었던데반해, 산다칸에는이중어느것도없었다. 그러니마르티의플로리다를꿈꾸던에반헬리스타나안토니오루나등유럽에있던리살의더열렬한동지들몇몇이정착지계획에열광적이었던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1892년 1월의어느날엔가루나는홍콩의리살에게편지를썼다. “보르네오는우리에게카요우에소 (뼈의암초 bone ree 라는뜻으로, 미국인들이음성을따서왜곡하여‘키웨스트’라불렀다) 가될 것이며, 상황이요구한다면나도틀림없이그주민중한명이될 것이네.”⁸ 한편, 산다칸은리살의가족과소설가자신에게, 그의서재와그의저

⁸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771-72. 루나는매우지적인사람이었고, 그래서편지전체가무척흥미롭다. 그는자신이독립을위해일하러마닐라로돌아갈것이라고리살에게말했다. “그러나연구와요령, 신중함이많이필요한일이고, 우리의힘에대한내심없는오만도있어서는안되지. …… 착실함과침묵으로우리는예수회처럼될것이고, 우리가그열쇠를가질집을세우게될거야. 그래서이런뜻으로나는자네에게내도움을제공하려하지만, 만일내가단순한군사폭동 이상의것이 일어나지않을것이라생각이되면적극적인운동에서발을뺄수있다는한가지조건을달겠네. …… 나는자네가나를잘이해한다는것을, 그리고그들이이기면큰유희의참극이빚어지리라하는것을 믿네. 어찌되었든나는마닐라로떠나네. 분리주의자로서의나의의무가늘나의모든행동을따라다닐거야. 미심쩍어할일은없네. 상황에따라내가마닐라의스페인인들쪽에있게된다면, 그들에게는그만큼더나쁜일일테니까. 나는과실이무르익을때까지생활비를벌면서그들의비용을들여계속따를과내려갈거야. 그러면자네는 (이생각이자네의것과같다면) 알맞은자리에서착실하게일하는종자를두게되지.”

는했지만,¹⁰⁸ 시모운의담론은이전통을반영하지않으며, 그전까지는아니라도적어도프랑스혁명까지는거슬러올라가는유럽식사회적본도의언어를담고있다. 그러나시모운은더복잡하고모순적이기도한방식으로가공된다. 그에게는악한들과착취자들에대해몸소자정단식의심판을집행했던귀족이자‘사회주의자’인로돌프, 가증스러운사회에적을한명더하려는데제생트, 심지어아마도네차예프의음화가중첩되었다.¹⁰⁹ 그렇지만동시에시모운은반식민적민족주의자로서마음속에혁명비슷한것을 품고있었다. 그러나“폭탄투척계획이성공하면그다음엔뭘지?”라는, 물어서는안되는질문을던진다면돌아와서는안되는답은“니힐”일 것이다. 시모운에게는성공적인복수다음의후속계획이없었으며, 『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다른인물들에게그런계획이있었다고나오지도않는다. 오직무정형의유토피아적‘자유’의꿈이있을뿐이다. (이것이음모가실패해야하는하나의이유였을것이다.) 바로여기에서리살은그계획없는‘행동에의한선전’이교차하는점을찍는다. 나의행동과죽음으로부터, 살아갈수없는현재보다나은무엇인가가올것이다.

같은테마가바실리오가석류안에감추어진‘지옥의기계’에대해알게된후이렇게외치는장면에서등장한다. “그렇지만그런살육을보고세상이무어라할까요?”그러자시모운은냉소적으로대답한다.

세상이야언제나와같이가장힘있고가장폭력적인자를정당화하며손뼉을치겠지! 서양의나라들이힐씬도덕적이고평화를사랑하는다른나라들을건설하는것은확실히아닌이유로해서아메리카에서‘인디오’수백만명의목숨을앗았을때유럽은손뼉을쳤다. 저기에는이기적인자유와런치법, 정치조작의복아메리카가서있고, 또저기에는모국스페인하고똑같

¹⁰⁸ ‘표준구 locus classicus’는 Reynaldo Clemeña Ilet, Pasyón and Revolution: Popular Movements in The Philippines, 1840-1910(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989) 이다.

¹⁰⁹ 네차예프를배제해서는안될것이다. 그가 1869년바쿠닌과공저했던『혁명가의교리문답』은유럽전역에서널리읽혔다. 1891년 1월 15일자와 31일자의「연대」에는 “Una Vista”라는제목이붙은블루멘트리트의흥미로운 2부작기가가실렸는데, 여기에서는시모운의모습을한에상치않은손님이나타나, 리살이그가살아있다는것과필리핀사람들사이에서그가어마어마하게정치적으로증식하고있다는것을식민당국으로부터숨기기 위해소설에서그가족은것으로보이게했다고설명한다. 필리핀의장래및정치적투쟁에서취해야할방법에대한길고열띤토론이들사이에서전개된다. 어떤시점에서화가난민족학자가이렇게말한다. “시모운씨, 당신은반역자일뿐만아니라니힐리스트이기까지하군요.” 신비롭게떠나는시모운은이에냉소적으로대꾸한다. “니힐리스트학교에등록하러러시아로갑니다!”네차예프는리살이유럽에도착하기전에죽었다. 그런테블루멘트리트는리살의가장친한친구였으니, 내생각으로는둘이니힐리즘에대해전에심각하게토론한적이없으면블루멘트리트가시모운을니힐리즘과연결시켰을것같지않다. 게다가 1886년도스토에프스키의『약령』이파리에서프랑스어번역판으로나왔는데, 이것은리살이프랑스의수도를떠나독일로향한지얼마되지않아서의일이다. 또한데오캄포덕분에우리는리살이투르게네프의『아버지와아들』을독일어번역본으로 (그러나정확히언제?) 읽었다는것을알고있다. (블루멘트리트의글을주의깊게보게해준매건토머스에게감사를전한다.)

은소란스러운공화국, 야만스러운혁명·내전·포고령의남아메리카가서
있군! 유럽은힘있는포르투갈이플루카제도를약탈할때손뼉을쳤고, (이
제) 영국이태평양지역에서기네이민들을심으려고현지의원시적인종들
을씩씩이하는것을보고손뼉을치네. 유럽은 [우리에게] 손뼉을칠거야.
극이끝날때, 비극이대단원의막을내릴때손뼉을치듯이. 보통사람들은
일어나는일의저간을거의알아채지도못하고단순히결과만을보는법이
지!¹¹⁰

시모운이야기하는사례는영국, 포르투갈, 미국의것이지만, 이는
리는시모운이일찍이이렇게도경멸적으로이야기했던, 카우디오투이맹
위를떨치는혁명이후의라틴아메리카공화국들을대표하는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에도똑같은정도로확실히적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나와있던그렇지않든, 이사례들은모두폭력적인‘성공’의사례들
이다. 이수사에비추어보았을때, 이런방식의‘성공’은필리핀에서상상가
능한것이되어가고있었다. 『엘필리부스테리스모』가출판된지 5 년후,
그리고마르티가쿠바에서길을밝힌지겨우 18 개월후, 안드레스보니파
시오 (Andrés Bonifacio) 는마닐라교외에서무장항쟁을시작한다.

수수께끼의미소

이렇게해서우리는 『엘필리부스테리스모』 의마지막정치적측면까
지왔다. 소설의마지막쪽들은죽어가는시모운과그가잠시몸을의탁하고
있던온화한토착민플로렌티노신부의긴대화로채워진다. 시모운은신부
에게이반카라마조프의질문을던진다. “이토록비인간적인희생들, 이런
굴욕·고문·뼈앗김, 착하고죄없는이들의곤궁과착취, 그저고통받으며일
하라고그들에게말하는것이당신의신 vuestro Dios 이요구하는것이라
면, 이신은대체어떤신입니까 Qué Dios es ése?”¹¹¹ 플로렌티노는인
간을다루는신의방식들을정당화하는긴설교로답한다. 그는시모운에게
신은그의모든고통을이해하며그를용서할것이지만, 그는가치있는목적
을쟁취하기위해서악한방식들을택했으며, 이는용인할수없는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해설자들은늙은신부가이소설의정치·도덕적극에대
한리살의결론적입장을대변한다고추정해왔다. 그러나판단을그토록쉽
게내리려면두가지를빠뜨리고넘어가야만한다. 첫째, 시모운은설교중
간에듣고이후에듣아무말도하지않았으며, 심지어전혀듣지않고있었을
지도모른다. 그는합당한고해를하지도않았으며용서를빌지도않았다.

¹¹⁰ El Filibusterismo, chapter X XIII (“La última razón” [The final argu-
ment], p.250.

¹¹¹ 같은책, chapter X X XIX, p.283.

었던, 그러나폴란드인들, 헝가리인들, 이탈리아인들, 세르비아인들,
불가리아인들, 루마니아인들, 그리스인들, 그리고크레타인들까지도그
주변궤도에있었던합스부르크제국의심장부라이트메리츠에서교사
로일하면서, 블루멘트리트는최근의역사와전략의법칙들을확고히옆에
끼고있었던것같다. 또한 1891 년에는필리핀의성공을위해그가제시한
네가지전제조건들중어느하나도존재하지않는다는말은정확했다. 그러
나이상황이오래지속될것이었던가?

다른한편으로, 리살의정력적인연하의친구에딜베르토에반헬리스
타 (Edilberto Evangelista, 나중에스페인에대항한 1896~98 년의무
장항쟁에서살해당하고영웅이된다) 는 1892 년 4 월 29 일에 (당시에
는) 프랑스어권이었던젠트로부터이런편지를보낸다.⁶

자네생각을받아들이고같은열정 élan 으로불타는사람들이얼마나
되는지라도찾아낼생각을하는것이어떤가? 내이야기는정부에도전하는
혁명적클럽을조직해서자네생각에형상을부여하는것이꼭필요하다는
거야. 자네는홍콩에서든어디다른곳에서든클럽을이끌수있을것이고,
이것이쿠바분리주의자들이, 스페인진보파가하는 (했던) 일이나니던
가?⁷

콘래드의나라

이상충되는압력을해결혹은회피하기위한리살의첫번째계획은오늘
날의동부말레이시아연방주사바에위치한산다칸 Sandakan 만에그의
가족과뜻이맞는친구들을위한정착지를건설하는것이였다. 이곳은한

트리아인은이렇게쓴다. “내게리살이혁명적신문을창간해야한다는등혁명적운동을시작
해야한다는등하는편지를쓴사람들은필라르파가아니라리살파였네. 나는자네에게그런
일을권하지말라고그들을타일렀고, 바로자네에게편지를쓴것일세.”블루멘트리트가 썼다
는이편지들은현재남아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⁶ 에반헬리스타와호세아브라우 (José Abreu, 호세알레한드리노 (José Alejan-
drino) 는리살에게서‘후진국’스페인을떠나젠트에서공학 (블루멘트리트의충고를따라)
을공부하라고설득당했다. 후에혁명장군이되는알레한드리노는 『엘필리부스테리스모』
의집필기간에브뤼셀에서리살과함께살았고, 젠트에서그에게출판사를찾아주었으며, 교
정보는일에힘을보탤다. 에반헬리스타, 알레한드리노, 안토니오루나 (Antonio Luna)
는모두알레한드리노가델필라르의‘개탄스러운정책’이라부른것에반대하는강경한리살파
였다.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236, 271~72 참조.

⁷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de la Propaganda, p.800. 마르티는그의
쿠바혁명당을그전에 1 월에미국에서결성했다. 스페인에대한이야기는분명히파리에서
망명생활을하며혁명을구상하는데정치적삶의대부분을보낸마누엘루이스소리아의급
진공화파추종자들에게대한것이다. 리살의친구중많은이들이소리아파신문 El Poverin
와 El Progreso 에기고했었는데, 이신문들은전반적으로필리핀운동에호의적이였다.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46, 55, 202 참조.

사람으로서 리살은 홍콩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로 이 얼마나 통렬하게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돌려질지를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 Chto dyelat?” 우리는 블루멘트리트에게서 온 날카로운 면서도 근심에 싸인 1892년 1월 30일자 편지로부터 음화 사진으로 찍힌 것 같은 하나의 주요 대안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네에게 어떤 혁명적 선동에 도끼어들지 말라고 간청하네! 불필요하게 흘린 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혁명을 일으키는 자는 적어도 성공할 가능성을 최소한도 로마 갖고 있어야 하니 말일세. 어떤 민족이 그들을 지배하는 다른 민족에 대항해서, 식민지가 모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혁명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는 일은 결코 없었네. 아메리카 연방³은 프랑스와 스페인,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었기에 자유를 얻었네. 스페인령 공화국들은 모국에 내전에 휩싸여 있었기에, 그리고 영국과 북아메리카가 돈과 무기를 공급해주었기에 자유를 얻었네. 그리스인들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기에 자유를 얻었고, 루마니아와 세르비아, 불가리아인들은 러시아로 인해 자유를 얻었네.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와 프로이센 덕분에, 그리고 벨기에인들은 영국과 프랑스 덕분에 자유를 얻었지. 스스로의 힘에만 의존했던 모든 민족들은 정통성의 폭력의 군대에 짓밟혔네. 이탈리아인들이 1830년, 1848년, 1849년에, 폴란드인들이 1831년, 1845년, 1863년에, 헝가리인들이 1848년, 1849년에, 크레타인들이 1868년에 그러했듯이.⁴

블루멘트리트는 나아가 이런 종류의 혁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 는 결코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1) 적의 육군과 해군 일부가 무장 폭동을 일으킬 것 (2) 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일 것 (3) 돈과 무기가 미리 잘 마련되어 있을 것 (4) 외국의 정권이 공식적으로든 은밀하게든 항쟁을 지지할 것. 그는 “이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오늘날] 필리핀에는 들어맞지 않네”라고 덧붙였다.⁵ 아무 민족에게도 자유를 얻도록 도둑의 손길을 내민 바 없

³ 미국-역자주

⁴ Cartas entre Rizal y El Profesor Fernando Blumentritt, 1890~1896, pp.783~84. 이 필사본은 오염되어 있다. 헝가리는 Ungara 가 아니라 Ungarn 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크레타로 번역된-역자주] Kider 는 틀림없이 원래 Kreter 였을 것이다. 1868년 투르크 지배에 대항한 기독교도 크레타인들의 봉기는 실제로 퍼홀리며 짓밟혔다. 이 유명한 편지로부터의 인용을 담은 리살의 전기 여러 종이 늘 독자에게 이해 불가능한 ‘the Kider’라는 말을 읽히면서 뭐가 이상한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훨씬 더 이상하게도,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의 The Rizal-Blumentritt Correspondence, 1890~1896 (Manila: 1992), p.430에서는 ‘아일랜드인’을 번역으로 제공한다. 베껴 쓰는 사람이 붙여넣은 et 를 d 로 혼동하여 읽고 불가해한 Krder 를 남겨 놓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어 이번에는 Kreter 의 첫 번째 r 을 대체할 수 있는 모음이 필요해졌고, i 만 이 알맞게 수직으로 뻗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⁵ 인용한 발췌에 나오는 ‘어떤 혁명적 선동에 도끼어들지 말라 (lass Dich nicht in keine revolutionären Agitationen ein)’는 말 이리더 십이 아니라 연루를 의미한다는 것에 주목하라. 일찍이 인용된 바 있었던, 리살에게 보낸 1892년 7월 4일자 편지에서 이 오스

얼마지나지 않아 그는 죽는다. 둘째, 결말 부근에 “미스터리 El misterio”라는 기묘하고 짧은 장이 있는데, 원본 원고의 7 쪽 가운데 3 쪽이 작가에 의해 검게 지워진 부분이다.

우리는 부유한 오렌다가의 집에 있는데, 실패한 폭탄 투척과 무장 습격 직후 혼란의 와중에서 세 명의 방문자도 착한다. 손님 중 한 명은 말쑥한 젊은 이모모이 (오렌다가의 만딸 센시아의 구혼자) 로서, 그는 파울리타고메스의 심상찮은 결혼 파티에 다녀왔으며 사건을 주목하고 어리둥절해 있다. 다른 한 명은 파울리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치명적인 램프를 탈취하여 파시그강에 뛰어든 학생이 사가니이다. 모모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강도가 램프를 들고 물로 뛰어들어도 망쳤다고 말한다. 센시아는 다음과 같이 눈에 띄는 말을 하며 끼어든다. “강도라고요? 검은 손 단원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모이는 계속해서 말한다. “스페인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니면 ‘인디오’ 인지는요.” 세 번째 손님은 결혼식의 장식을 도왔던 은세공사로, 램프가 폭발할 보직 전이었으며 신부의 집에서 도화약이나 왔다는 소문을 더한다. 모모이는 이것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공포에 휩싸이며,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고스란히 묻어 난다. 그러다가 센시아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남성 다움이 망가졌다고 느끼며 그는 말을 잇는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그는 힘을 짜내 소리쳤다.) “강도가 그 일을 망쳐 버린 거라니!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었군요…….” 여자들은 깜짝 놀라 굳어버린다. 그러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일이지요.” 이사가니는 수수께끼의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 강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잠시 멈춘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세상 그 무엇을 준대도 결코 그의 입장에 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시간 후, 이사가니는 아저씨 (플로렌티노 신부) 의 집으로 ‘영구히 퇴장’하기 위해 차별 인사를 하면서 소설에서 사라진다.¹¹² 그전에는 결코 수수께끼의 미소를 띠지 않았던 (이것은 음울한 시모운의 전매특허였다.) 이 선량하고 애국적인 학생은 자신이 보석상의 계획을 좌초시켰다는 것을 후회한다. 스페인어로 읽으면 ‘영구히 por siempre’ 퇴장하겠다는 것은 단지 떠나는 순간의 의도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를 것인가? 마치 독자에게 『엘 필리부스테리소』 의 속편을 기다리라고 청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예시적인 성격과 리살이 이 책에 붙인 ‘필리핀 소설’이라는 부제, 양자 모두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예시는 대부분 스페인어에서 필리핀어로 교묘하게 대량으로 옮겨 온 실제의 사건들, 경험들, 감정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임박한 미래의 그림

¹¹² 같은 책, pp.271~72.

자로나타난다. 또한이임박함이책이나올때아직권력을잡고있었던웨일레르총독의시대에단단히뿌리박힘으로써확실했다. 그러나시모운은완전히다른문제이다. 그는『놀리메탕헤레』를비롯한전작들에근원을둔인물이며, 스페인으로부터가아니라상상된쿠바로부터, 그리고지구를도는방랑으로부터소설에입장한다. 그는이스키에르도가한때인터내셔널이라는감추어진마키아벨리적네트워크를공상했던것에대한거울, 필리핀에출몰하게될‘세계적유령 espectro mundial’의일종이다. 마치그의민족처럼, 아직현실에는없지만, 이미상상되었으므로, 앞으로오게될.

스페인제국의중심은언제나아메리카였고, 1810 년에서 1830 년사이제국이사실상증발해버린것은그잔여가최종적으로청산될가망을보이게하는동시에시기상조의일이날을결과에대한경고를내밀기도했다. 리살의생각으로는유럽그자체도위협받고있었다. 전쟁에빠진강대국들이튀기는거대한불꽃에의해서만이아니라, 밑으로부터의격렬한운동으로부터도, 『엘필리부스테리스모』는비스마르크와베라사솔리치가, 양키의조작과쿠바의항쟁이, 메이지일본과대영박물관이, 위스망스와코핀이, 카탈루냐와캐롤라인제도가, 니힐리스트와아나키스트가모두한자리씩을담당했던지구적무대의날개들로부터나온작품이다. ‘마부들 cochers’과‘동중요법가들’역시한자리를맡고있는.

1945 년말, 일본점령이끝난지겨우두달뒤, 그러나네덜란드식민지배가아직복귀하지않았던순간에, 인도네시아의젊은초대총리수탄샤호리르는막혁명을시작하려는겨레의상황을‘겔리사 gelisah’라는단어로묘사했다. 이말은영어로쉽게번역할수있는말이아니다. ‘조마조마한 anxious’, ‘떨리는 trembling’, ‘잡아매어지지않은 unmoored’, ‘기대하고있는 expectant’을포함하는의미의범위를상상해야한다. 이것이『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느낌이다. 무언가가오고있다는.

제 4 장 소설가의 발자취

체르니셰프스키의 질문

발행된『엘필리부스테리스모』의거의전부를홍콩에있는신뢰하는연상의친구호세바사에게싸서부치고, 남아있는일들을마무리한후, 1891 년 10 월 19 일리살은유럽을떠났다. 음침한날하루를제외하고는, 그는다시는유럽땅을밟지않을것이었다. 이시기는잘고른것이었다. 발레리아노웨일레르의필리핀총독임기 4 년은한달안에끝날예정이었다. 경력의대부분을유능한참모장교로보낸후임자에올로히오데스푸홀장군은그보다훨씬덜지독한인물로여겨졌다. (실로그는부패한관료여럿을공개적으로쫓아내고짐을싸서집에돌아가게했으며, 강력한종교교단으로부터거리를유지하여곧식민지의피지배자들로부터큰인기를얻었다.)¹

리살의가족은그에게돌아오지말라고몇번이고경고했으며, 차라리마닐라에서 1,300 킬로미터밖에떨어져있지않은조용하고안전한홍콩에정착하라고강력하게설득하면서, 그러면그들이그를만나러가보겠다고했다. 그가영국식민지에도착한지칠되지않아나이든아버지와파시아노형, 그리고매형중한명에도착했는데, 파시아노와매형은민도로섬으로의유배에서‘탈출’한것이었다.² 그해가끝나기전, 눈이거의멀게된어머니와누이들두명이따라왔다. 젊은소설가는성공적인안과진료소를개업했고, 행복하게재결합한가족은영국지배아래에서정착하는방안을환영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필리핀에서지적선도자의대열맨앞에서있던그의평판과유럽에남겨놓고온관계들은그가가족의소망을오랫동안따르는것을어렵게했다. 그는아직유럽에있는더급진적인동지들로부터온, ‘다음’에는무엇을할것인지물으며그‘다음’이무엇이되든지간에전폭적으로지지하겠다고약속하는편지들이포위되어있었다. 델필라르와그의동료들에게그들이유럽에서시간을낭비하고있다고말하바있는

¹ 데스푸홀의정책과개인적성격에대해서는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p.274~75 참조.

² 이사람들모두가식민당국이모르고있는가운데평범한여객으로증기선을타고필리핀을떠날수있었을것같지는않다. 아마당국에게는웨일레르의격리명령을공식적으로무효화하는것보다는눈을슬쩍감아주는것이더쉬웠을것이다.

실제로, 병든 아내가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죽었고, 폴라비에하는 그가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자식들 여섯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이사벨로는 자신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일루스트라도 들이내세우는 조건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그린 통렬한 각서를 회동에게 가져갔는데, 이는 이미 그전에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단의 즉각적 추방을 요구하며 그 권력 남용의 사례들을 무척이나 자세하게 열거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식민의 열망, 혹은 최소한 그가 속한 동화주의 '당'(19세기적 의미에서)의 열망에라도 어떻게 대답할 계획인지 설명하라고 프리모에게 강요했다. 총독은 "꼭뱀에 물린 것처럼" 반응했다.⁷⁵ 이사벨로의 오만 — "그안하무인격의 기질과 악명에 대한 사랑" — 에 분노한 그는 사흘 후 이민족 학자를 재구속하여 마닐라 빌리비드 형무소의 차고에 채워 놓으라는 명령을 내렸다.⁷⁶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로는 비밀리에 계엄령 하 바르셀로나로 이송되어 갔다. 그를 태운 배의 함장은 이 젊은 악당을 "그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필리핀인들과의 어떤 접촉으로부터 도차단하라는 다짐을 받았다.⁷⁷ 한 달 후, 카노바스가 아직 잘 살아 있을 때 바르셀로나에도 착한 이사벨로는 시형 무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약간의 돈이 몇 사람 손을 거친 후 카탈루냐인이나 키스트-공화주의자 노장 저널리스트인 이그나시오 보이싱글라 (Ignacio Bó y Singla) 라는 다른 죄수와 접촉하게 되었다. 쿠바 독립을 요구하고 웨일레르의 아바나로 스페인 군대를 보낸 것에 항의한 죄목으로 6년형을 살고 있던 이 훌륭한 인물은 어리둥절해 있는 젊은 필리핀인에게 '선진 공화주의

⁷⁵ Ponce, Cartas, p.24. 1897년 8월 18일 홍콩에서 블루멘트리트에게 보낸 편지. 정확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El General saltó como picado por una culebra.

⁷⁶ Scott, The Unión Obrera Democrática, p.14. 프리모가 마드리드의 상급자들과 교환한 서신을 인용하며.

⁷⁷ 같은 책. 위에 인용된 블루멘트리트에게 보내는 8월 18일자 편지에서 폰세가 어떤 탐승자 명단에서도 이사벨로의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곧 그가 마닐라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모니터하는 사람 누군가를 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이민족 학자가 우리가 오늘날 말할 듯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력한다.

다), 다음에는 루손으로 다시 옮기되 최북단의 일로카노 지방으로 옮길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았다.⁴⁵

그러나 1895년, 쿠바의 항쟁은 필리핀 정치의 맥락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블루멘트리트의 '선결 조건들'은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무역과 투자를 하는 영국 사업가들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런던에서 부를 쌓았으며 마드리드 고위직에 친구가 여럿 있었던 리살의 연상의 친구 레히도르는 황열병에 시달리던 쿠바에서 군대에 소속된 사가태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리살이 자원하도록 설득하라고 블루멘트리트와 바사에게 로비를 했다. 리살은 오래 망설인 끝에 마침내 동의했으며, 아직 마르티네스 캄포스가 아바나에서 지휘권을 맡고 있던 11월에 쿠바의 부상자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허가를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블랑코에게 보냈다. 바사의 믿음은 이 요청이 제국에 대한 리살의 기본적인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추방자를 필리핀 바깥으로 꺼내 오는 것이었다. 아바나로 가려면 스페인을 거쳐야 했다. 일단 스페인에 닿으면, 리살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과 정치적 동맹자들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소설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훨씬 덜 분명하다. 그는 명예에 대해 과민한 감각을 지닌 남자였고, 블랑코가 일찍이 그에게 명예롭게 스페인에 보내 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적도 있었던 마당에 블랑코에게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식민 본국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1895년 11월에 그가 쿠바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대체 왜? 이에 대해서는 머리를 굴려 보는 수밖에 없다. 그는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산호 협정을 설계한, 피를 즐기지 않는 인물 마르티네스 캄포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의사로서 그는 어느편의 부상자이든 돌보아야 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스페인에서, 누구보다도 노예 폐지론자 크리올 라파엘라 브라 (Rafael Labra) 를 비롯하여, 훌륭한 쿠바인들과 알고 지냈으며, '선진적' 쿠바의 1880년대 말까지의 정치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친숙했다. 그는 필리핀의 자매 식민지가 겪은 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에 관해 궁금했을 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민다나오에서 고립되어 지낸 몇 년간의 기간으로 인해 그는 당시 웨일레르 '각하' 치하 카리브해의 섬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작우간 블랑코는 리살의 편지에 그의 승인도장을 찍어 마드리드로 신속하게 보냈다. 그러나 몇 달 지나도록 제국의 수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동안 쿠바에서는 웨일레르와 웨일레르 체제 weylerismo 가 마르티네스 캄포스를 대체했다.

⁴⁵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342.

새로운국면들

1892년 7월 리살이 다피탄으로 추방되자 걸음마 단계에 있던 리가 필리피나는 즉각 붕괴를 맞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가의 세력 범위 내에 있던 극소수의 활동가들이 마닐라에서의 비밀 회동을 통해 카타아스타아산, 카갈랑갈랑카티푸난낭밍아아낙낭바얀 (Kataastaasan, Kagalangalang Katipunan ng mga Anak ng Bayan,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의 아들딸 연맹’ 정도) 이라는 비밀 혁명 조직으로 리가를 대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지도자인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는 리살보다 두 살 아래의 인물로, 당시 스물아홉살이었다. 카티푸난은 1895년 말까지 조직을 유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을 성취하지 못했던 것 같고, 당시에 도회원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다.⁴⁶ 그러나 그해의 국제적 국면들이 단체의 활발한 성장을 부추겨, 몇몇 열성분자들에 의하면 8월에는 회원수가 1만명에 달했다고 한다.⁴⁷

카티푸난지하운동이 처한 가장 핵심적인 국면은, 조선에서 벌어진 1894~95년의 청일전쟁에서도 쿼가베이징을 격파한 후양자사이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의 조인 바로 6일 전인 1895년 4월 11일 마르티가 쿠바에 상륙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쿠바의 경우는 단지 마르티라는 짜릿한 본보기나, 마세오와 고메스가 초기에 거둔 화려한 군사적 성공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보니파시오와 그의 동지들은 스페인이 세계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두 반식민항쟁을 상대해야 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경우 마드리드가 대체로 돈이 나가는 쪽인 필리핀보다 나은 것이라는 쿠바에 압도적인 군사적 우선권을 부여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 대만의 남쪽 끝은 루손섬의 북쪽 해안에서 40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 대만이 이제는 일본 국가의 영토였다. 쿠바인들이 이웃한

⁴⁶ 사실 리가는 1893년 4월 본래의 기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사벨로에 따르면 트로소 Trozo 지역의 지부를 이끌던 보니파시오는 “리가의 일이, 진정한 애국심보다는 철없는 이기주의에 더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은 일루스트라도 동지들의 끝없는 토론 때문에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제쳐 놓고 그가 관장하던 평의회를 카티푸난 (리가의 착오) 의 최고회의로 격상시켰다.” De los Reyes, Sensacional memoria, p.87. 긴장한 일루스트라도들은 보니파시오를 반란자라 선언하고 트로소 지부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보니파시오는 이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이는 10월 리가의 해산을 초래했는데, 그 전에 총독은 리가의 내부 문서 몇 점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것은, 보니파시오는 그가 경멸했던 리가를 가능한 한 카티푸난의 비밀 활동을 견고히 하기 위한 차폐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⁴⁷ Teodoro A. Agoncillo, A short History of the Philippines (New York: Mentor, 1969), pp.77~81의 간결한 설명을 참조. 1만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이겠지만, 주로 단도로 무장한 항쟁 운동이 초기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과장은 아닌 것 같다.

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⁷² 반란이 군도의 다른 지역들로 퍼지면, 그에게는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지는 셈이었다. 카노바스는 필리핀에서 웨일레르 체제의 시대가 지나감을 이해했던 것 같다. 능력 있는 폴라비에 하가 사임하게 된 상황을 안다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원로 장군 누구도 총독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4월, 페르난도 프리모 데 리베라 (Fernando Primo de Rivera) 가 폴라비에 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착했다. 그는 리살이 유럽을 향해 떠났던 평온한 1880년대 초에 가 베푼 인기를 누리던 총독이었다. 그는 이 식민지에 대한 지식과 군사적 경험, 정치적 유연성을 통해 현지 엘리트들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이제는 폴라비에 하와는 달리 생각을 좁혀 버린다고도 contemplaciones 전쟁을 계속하는 양면적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부활한 블랑코 체제 blanquismo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신임 총독은 카비테를 재탈환할 수 있었지만, 아기날도와 그의 장군들은 포획을 피해 마닐라를 멀리 돌아 수도에서 꽤 떨어진 북쪽의 바위로 된 요새에 은신하였으며, 이어진 군사 작전은 모두 그들을 격퇴하는 데 실패했다.⁷³

보니파시오가 처형된 후 일주일이지난 5월 17일, 프리모는 자신이 주요한 화해 제스처라고 여긴 것, 즉 블랑코나 폴라비에 하에 의해 투옥된 636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는 나아가 감사의 표시와 갱신된 충성심을 기대하며 이 그룹의 대표단을 자신의 관저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쾌한 놀라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대표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사벨로 데 로스레예스로서, 그는 보니파시오의 봉기 직후 체포되었다. 이바쁜 민속 학자 겸 저널리스트는 항쟁 때문에 전혀 뜻밖의 일을 당했다. 감옥은 끔찍한 충격이었다. 몇 달 후 마리아 노폰세는 블루멘트리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딱한 이사벨로, 성품이 그렇게도 평온하고 침착했었는데, 가장 침통한 일이었던 아내의 죽음부터 하여 모진 정신적·물질적 고통까지 연이어 재난을 겪더니, 신경과민 발작으로 종교 교단을 저거 대한 죄악의 뿌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조리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커다랗게 소리치며 비난하는데까지 갔더랍니다.⁷⁴

⁷² Corpuz, The Roots, vol. 2, p.239.

⁷³ 오늘날 비아나바토 (Biak-na-Batò, 쪼개진 바위) 는 발길 이 뜬한 공식 사적이다. 작은 강이 굽이를 헤치며 조금 걸어가면 박쥐로 가득 찬 석회암 동굴이 나오는데, 이곳이 아기날도와 그의 부하들이 은신했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⁷⁴ 홍콩의 폰세가 블루멘트리트에게 보낸 1897년 9월 22일자 편지. 폰세의 Cartas sobre la Revolución, 1897~1900 (Manila: Bureau of Printing, 1932), pp.42~45. 폰세는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중 한 명으로부터 프리모와 대표단의 만남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폴라비에하의 주요 임무는 반란을 군사적으로 박살내는 것이었으며, 그는 구릉으로 이루어진 카비테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카비테에서 그의 부대들은, 도시 공학 학위증을 쥐고 겐트에서 돌아온 리살의 예전 심복에 딜베르토에 반헬리스타의 명령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된 참호와 요새의 복잡한 시스템에 가로막혔다.⁷⁰ 폴라비에하의 공세가 낡은 정치적 결과는 보니파시오를 그의 권위가 확실했던 마닐라 지역에서 쫓아내어 그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지역이자 지방 사람들이 배타적이기로운 명한 카비테로 가게했다는 데 있었다.⁷¹ 거기에서 보니파시오는 작은 읍카윗 Kawit 의 스푼일 곱살짜리 시장에 밀리오 아기날도 (Emilio Aguinaldo) 가 이끄는 야심 찬 카비테인 caviteño 당파와 충돌을 겪게 되었다. 아기날도는 리살로 대표되는 고헌력 일루스트라도 엘리트에도, 보니파시오 같이 중독 독학을 하는 마닐라 직인계층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스페인어는 짧았지만 그는 상업 작물을 재배하는 지방 중농 지주 계급의 일원이었고, 가족은 카비테 지역에 두루 연고를 갖고 있었다. 그는 1895년 3월 하급 자 자격으로 카티푸난에 입회했으나, 일단 싸움이 시작되자 스스로 가 뛰어난 군인임을 입증했다.

3월에 테헤로스 Tejeros 마을에서 누가 혁명의 대통령이며 누가 정부의 성원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열렸다. 보니파시오는 자신이 — 아기날도가 입회했던 — 카티푸난을 창설했으며 항쟁을 시작했다는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기날도의 지지자들은 보니파시오의 마닐라 봉기는 대실패로 드러났고 과거의 일일뿐이라고 여겼다. 목전의 임무는 효과적 인 전쟁의 수행이며, 카비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지 보여 주었다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아기날도가 선거에 이겼고 그는 거의 전체가 그의 동료 카비테인들이 이루어진 내각을 구성했다. 게다가, 전직 최고 지도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하층 계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히 조롱을 당했다. 보니파시오는 이 모욕을 없애려 감내하지 않았으며, 모을 수 있는 지지자들을 모두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기날도 패거리는 그를 체포하여 4월 재판에 부쳤으며, 그 자신이 시작한 혁명에 대한 반역 혐의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와 형제 한명은 5월 10일 처형당했다.

폴라비에하가 이러한 사건 전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았다면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4월 그는 혁명을 끝장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병력 증강에 대해 마드리드가 의지 부족 혹은 무능만보이는 대신 물이나 (일찍이 쿠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독직에서 사퇴하였다. 1896년 말 그의 병력은 1만 6천 명까지 늘었고, 1897년 1월에는 1만 3천 3백 명을 더 받아 총 2만 9천 3백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⁷⁰ 에반헬리스타는 1897년 2월 17일 전사하였다.

⁷¹ 이주의 언어는 타갈로그어의 독특한 방언이다. 이 지역 유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잡한 혼 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필리핀인들이 떠오르는 태양의 제국으로부터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두 ‘이웃’의 지정학적 위치는 무척이나 달랐다. 당시의 미국은 서반구에서 거의 맞붙을 자 없는 패권이었던 데 반해, 동쪽 아시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야심을 품고 경쟁하는 ‘백인’ 제국주의 들로 바글바글한 무대였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개입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방금 얻은 라오둥 반도를 청정권에 돌려주게 했다. 나아가 일본은 여전히 그전 30년 동안 강요에 의해 맺었던, 경쟁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불평등 조약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청일 전쟁 발발 직전 조인된 영일 협정으로 그러한 조약들을 없애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1899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제국 수도들은 런던이 여는 길로 따라 오게끔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1890년 대 후반은 ‘아직’ 일본이 무모한 모험을 벌일 때가 아니었다.

도쿄와 마닐라의 공식적 관계에는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스페인 당국은 장래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다.⁴⁸ 일본의 배들이 필리핀의 바다로 떴어 물러오고 있었고, 무역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일본 쪽에 유리했다.⁴⁹ 일본인들이 필리핀으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쿄는 이 식민지의 이민법을 완화해 달라고 거세게 압력을 넣었다. 일본의 엘리트들은 필리핀에 대해 점점 잘 알게 되었던 반면, 일본어를 읽거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스페인 외교단은 일본의 정책이나 의도에 대해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890년대 초에는 야당의원, 신문, 군사주의자, 기업 이익, 이데올로그들에 의한 로비가 점점 시끄러워지면서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팽창 정책 (부분적으로는 독일과 미국의 진출을 막기 위한) 을 재촉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스페인 식민주주의의 허약함과 노쇠함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⁵⁰ 그리고 모호한 연고의 민간인, 군인 모험가들이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⁴⁸ 일본에 대한 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 원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기초한 선구적인 저작 Josefa M. Saniel, *Japan and the Philippines, 1868-1898* (third edition)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1998) 에 상당 부분의 존했다.

⁴⁹ 1890년과 1898년 사이 일본에 대한 마닐라의 무역적자는 60배 증가하였다. 같은 책, Appendix IX, p.101.

⁵⁰ 페이지 시대의 저명한 작가이자 정치 평론가인 후쿠모토 마코토는 1889년과 1891년, 두 번에 걸쳐 필리핀으로 장기간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여행이 후 쓴 연작에서 그는 몇몇 스페인 장교와 그들이 불편하게 통제하는 현지인 부대로 구성된 스페인 식민군대의 나약함을 묘사했다. 특히 그는 1890년에 웨일레르가 케롤라인 제도에서 재발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두 번째 원정대를 보냈을 때, 마닐라에는 얼마 동안 군인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책, p.68.

중국에 대한 도쿄의 군사적 승리로 인해 스페인에서도 ‘일본이라는 허수아비 *espantajo Japonés*’가 대중적 관심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⁵¹ 1895년 2월 사가스타 정부에서 해외 영토 장관을 지냈던 모레트가 일본이 일류강국의 지위로 떠오르는 것은 “유럽과 동방의 관계, 특히 그 해역에 있는 스페인 영토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라는 글을 썼다.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지체 없이 오게 될 사건들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마치 기차가 오면 레일이 떨어져 위험을 경고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철도 레일 위에서 잠자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의 꼴일 것이다.”⁵² 얼마 지나지 않아 급진 공화주의 신문 「라후스티시아 *La Justicia*」가 빈정거리는 논평을 실었다. “쿠바와 필리핀에서의 동시 전쟁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는 …… 왕정 복고 정부 [카노바스 정부]가 스페인 민족 국가의 폐허 위에 스페인의 종말 *Finis Hispanae* 이라는 역사적 묘비명을 쓰기에 충분한 일이다.”⁵³

이러한 정세 아래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인들과의 쓸모있는 연락망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첫 삽을 뜬 것은 런던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큰 녀석의 가문 출신이었던 호세 라모스였다. 1895년 여름, 그는 자신이 민족주의 선전을 퍼뜨린 혐의로 곧 체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영국인으로 가장하여 필리핀에서 탈출한 후 요코하마로 향하는 영국 배에 올랐다. 거기에서 그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그 성(이시카와)을 따랐으며, 마침내 메이지 천황의 귀화 신민이 되었다. 그는 조선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쓰다 남은 소총을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보내려는 헛된 시도에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⁵⁴ 다른 부유한 필리핀인들도 관광이나 학업을 계속한다는 구실로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1896년 5월 4일 일본 해군의 훈련 함정 ‘콩고’호가 간부 후보 생서른세 명과 일본 해군 학교 학생 스무 명을 태우고 마닐라 항에 입항했으며, 검역 규정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는 구실로 스페인 당국에 의해 즉각 격리되었다.⁵⁵ 현존하는 일본, 스페인, 필리핀의 사건 기술이 세부 사항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카티푸난의 지도자들인 보니파시오와 피오발렌수엘라 박사 (Dr. Pio Valenzuela), 열성적인 젊은 이에밀리오 하신토 (Emilio

⁵¹ 이 ‘일본의 유령’은 L. González Liqueste 가 엮은 *Repertorio histórico, biográfico y bibliográfico* (Manila: Impr. Del Día Filipino, 1930) 중 “*El espantajo Japonés y la revolución de 1896*”이라는 제목의 섹션에 나오며, 이는 Saniel, *Japan and the Philippines*, p.186 에 인용되어 있다.

⁵² *La España Moderna*, LXXIV (February 1895) 에 처음 실린 모레트의 “*El Japón y Las Islas Filipinas*”에 대한 Saniel, *Japan and the Philippines* 의 인용.

⁵³ 같은 책. 여기에서 ‘필리핀에서의 …… 전쟁’이란 필리핀인들의 항쟁이 아니라 일본과 스페인의 전쟁을 가리킨다는 데 주의할 것.

⁵⁴ 같은 책, pp.180~82.

⁵⁵ ‘콩고’ 사건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사니엘의 주의 깊은 재구성에서 가져온 것이다. 같은 책, pp.192~94.

리로 돌아왔으며, 사가스타는 세히스문도 모레트를 다시 금자신의 해외 영토 장관으로 앉혔다. 두 사람 모두 쿠바와 바르셀로나에서 카노바스가 시행 하던 정책에 대해 대중적으로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마르티의 봉기가 시작 되었을 때 진좌에 있던 사가스타는 마찬가지로 강경한 방식으로 적어도 말을 꺼낸 적이 있었지만). 10월 31일 웨일레르는 쿠바 지휘권을 다름 아닌 라몬 블랑코, 리살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며 카노바스 내각과 섭정 왕비에 대한 교회의 로비 공작으로 인해 마닐라에서 쫓겨나 있던 인물에게 넘겼다.⁶⁸ 블랑코는 관대함과 타협, 개혁을 위임 받고 왔으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고집불통 식민자 *colon* 들은 그를 기몰레가 60년 후 알제에서 겪게 될 조직적인 군중 폭력으로 맞이했다. 혁명가들은 두 번째 산혼 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가 움직이고 있었다. 8개월 후 미국이 쿠바의 주인이 되었다. 아마 웨일레르만이 매킨리, 루스벨트, 허스트에게 애써 심각하게 힘을 들이도록 할 만한 역량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소용돌이 속으로

리살의 처형과 그의 정치적 처형자에 대한 암살 사이의 7개월 동안 필리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카밀로 폴라비에하가 필리핀에 머문 기간은 고작 4개월이었지만, 이 짧은 통치가 가져온 결과는 길게 지속되었다. 리살의 죽음으로부터 12일 이 지난 후, 백만장자 프란시스코 로하스 (Francisco Roxas) 가 ‘이끄는’ 열두 명의 저명한 필리핀인 소설가가 죽음을 맞은 그곳에서 총살대 앞에 섰다. 웨일레르 체제가 마닐라에 도래한 것이다.⁶⁹

⁶⁸ 11월 19일 웨일레르가 스페인에 귀환하면서 받은 열렬한 대중적 환영은 새로운 자유주의 정부로 하여금 그가 쿠데타를 지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이 장군은 헌법을 준수하였고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들은 열렬한 로마 가톨릭 신자 폴라비에하를 가능성으로 보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Martín, Valeriano Weyler, chapter xiii 참조.

⁶⁹ 그들의 죄목이 진짜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 이들 중 일부는 실패한 리살의 1892년 리가 필리피나에 연관되어 있었고, 델 필라르 및 「연대」 진영과 교신했으며, 잃을 것이 무척이나 많은 주의 깊은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오캄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보니파시오가 로하스에게 카티푸난을 원조하는 자금을 요청했으나 백만장자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화가 난 혁명가는 그의 신뢰하는 부관에 밀리오 하신토로 하여금 로하스 같은 사람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카티푸난의 회원 명부에 올려 놓고, 이 명부를 스페인 경찰이 찾을 만한 곳에도 두도록 했다. 그는 이들이 체포와 고문을 당하면 반란의 대의 쪽으로 개심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Ocampo, *Rizal without the Overcoat*, p.246. 필리핀 혁명에 대한 저자 자신의 선구적인 두 권짜리 연구서를 바탕으로 한 Teodoro Agoncillo, *A Short History*, p.86 참조.

바와 필리핀의 전쟁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⁶³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카노바스는) 종교적 잔인성과 군사적 잔혹함, 사법부의 무자비함, 권력의 폭정, 소유계급의 탐욕을 가장 구역질 나는 형태로 인격화한 인물이다. 나는 스페인, 유럽, 그리고 전세계에서 그를 제거하였다. 이것이 내가 결코 암살자가 아니요, 오히려 처형자인 이유이다.”⁶⁴ 그러자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8월 20일 교수형 garrote 를 당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 고 전해진다. “제르미날!”⁶⁵

그리하여 피오바로 하는 그를 이렇게 상상했다.

그는 훌쭉한 친구였는데, 키가 아주 크고, 아주 말랐으며, 몸짓은 아주 예의바르고, 말투는 외국 억양이었다. 그가 한 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리벙벙해졌다. 그토록 점잖고 수줍은 남자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누가 믿겠는가?⁶⁶

카노바스의 죽음은 단지 스페인의 왕정복고 ‘토호민주주의’에 만조종을 올린 것이 아니었다. 이는 또한 장군 자신이 즉각 이해했듯이, 아바나의 웨일레르가 실각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⁶⁷ 전쟁 장관 아스카라가의 임시 정부는 10월 4일까지만 지속되었고, 불사의 사가스타가 정부 수반의 자

⁶³ 흥미로운 사실은 런던에서 8월 10일자 「더타임스」와 「텔레리텔레그래프」 모두 미켈레 안지올리(Michele Angino Gollì)라는 남자가 ‘바르셀로나 아나키스트들 및 필리핀에서 처형당한 반란 지도자 리살 박사’에 대한 복수 노르카노바스를 쏘았다고 인정했다”라는 로이터 보도를 실었다는 것이다. 다음날 「텔레그래프」지는 “골리는 혁명을 선동한 filibustering 지도자 리살을 처형시킨 폴라비에하 장군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실했다”라고 하는 다른 로이터 보도를 독자에게 제공하였다. 웨일레르나 쿠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정보에 대해 벤저민 호크스-루이스(Benjamin Hawkes-Lewis)에게 감사를 전한다.

⁶⁴ Tamburini, “Michele Angiolillo”, pp.123, 129. 이 인용구는 탐부리니가 1897년 9월 2일에 나온 안코나의 L’Agitazione 에 (크리스피 정권의 검열을 거친 후) 실린 기사 “La difesa de Angiolillo”에서 가져온 이탈리아어 원본을 내가 번역한 것이다.

⁶⁵ ‘제르미날’은 아나키스트 운동에서 인기를 누리던 구호였는데, 아마졸라의 소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결과였을 것이다. Tamburini, “Michele Angiolillo”, p.124. 그러나 이상징은 봄이 시작되는 달을 ‘제르미날’이라 불렀던 프랑스 혁명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하자면,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⁶⁶ Nuñez, El terrorismo, p.131. 에 인용된 Pío Baroja, Aurora roja, p.160.

⁶⁷ 베탄세스가 미니아탈라 pequeño Atila 라 즐겨 불렀던 이 장군은 아마 부분적으로는 안심이 되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다. 페르난데스는 그가 그 전해 4월 조각나 날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고 전한다. 아스투리아인 아나키스트 두명의 도움을 받아 아르만도 안드레(Armando André)라는 젊은 쿠바인 민족주의자가 총독 공관의 1층 화장실 천장에 폭탄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 장치는 웨일레르가 번기에 앉을 때 폭발하여 2층 바닥 전체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끄고 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의자들은 웨일레르가 치질에 너무나 심하게 시달리는 나머지 거의 변소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질그릇 요강을 이용하여 답답함을 해소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폭탄은 터졌지만 부상자는 아무도 없었고, 웨일레르는 마드리드에 이 폭발이 본래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변소의 가스 가 무언가에 막혀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Jacinto), 그리고 다니엘 티로나(Daniel Tirona)가 콩고 함장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자신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봉기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의 원조와 지도를 요청하는 서면 청원을 전달하였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일치한다. 그들이 동행한 ‘호세’ 타가와 모리타로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의 장기 체류자로서 보니파시오에게 콩고의 도착에 대해 일깨워 주는 동시에 통역자 역할을 했다. 김새를 눈치챈 식민지 경찰이 경계를 배가한 것 외에 이 조우에서 그다지 중요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⁵⁶ 세라다 함장은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이 만남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피탄을 떠나다

카티푸난의 최고 지도부가 이후 5월 회동을 가져 무장 봉기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일본에 대폭 지원 을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동시에 리살의 승인을 얻기 위해 다피탄으로 밀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었다. (이 소설가는 모르는 새에 카티푸난의 명예 의장이 되어 있었다. 또한 카티푸난의 연설들은 관례적으로 “필리핀 만세! 자유 만세! 리살 박사 만세!”를 힘차게 외치며 끝났다고 한다.) 그달 말, 카티푸난의 유일한 일루스트라도였던 피오발렌수엘라 박사가 시각 장애인 인 하인이 치료를 받도록 데려간다는 구실로 민다나오로의 항해에 올랐다. 리살이 개인적으로든, 그냥 이름만으로도 발렌수엘라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자가 경찰의 앞잡이로 일하는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짧은 대화 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나중에 심문자들이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을 때, 기록된 리살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돈 피오 박사는 (그에게) 봉기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다피탄(에 있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모험을 시도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필리핀(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이 저항 운동에 필요한 무기나 배, 교육 따위를 보유하고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풍부한 자원과 강대국의 지원, 전투에서 쌓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열망을 성취해 낼 수 없었던 쿠바에서 일어나는 일의 사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⁵⁶ 나가사키에서 온 목수인 타가와와 필리핀에 정착한 최초의 일본인들 중 한 명으로, 1870년대 초에 필리핀에도 도착했다. 필리핀에서 그는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895년 7월 보니파시오가 그에게 대마·설탕·담배 등의 작물들을 수출하는 무역 회사를 세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일본의 무라타 소총을 사자고 요청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카티푸난은 타가와에게 일본에서 구매를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성사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pp.249~50.

다. 쿠바투쟁의결과가무엇이되든지간에, 필리핀에양보해주는것이스페인에이익이될것이다. 이러한이유로해서 (그의생각은) 그들은기다려야한다는것이였다.⁵⁷

이것은군대수기사의딱딱한언어로쓰였지만, 리살은그특유의세련된방식으로지은〈나의변호에불임〉이라는간단한글을법정에제출했다. 여기에그는이렇게 썼다.

돈피오발렌수엘라에게서봉기가준비되고있다는이야기를듣고, 나는그에반하는조언을했으며, 합리적인논의로그를설득하려했습니다. 나중에반란에참여하는대신사면을구하며당국에출두한것을보면, 돈피오발렌수엘라는설득되어떠난것같군요.

두번째문장에는약간복잡한모호함이더해진다.

돈피오발렌수엘라는나에게경계하라는주의를주었는데, 그의말에 따르면그들 (아마카티푸난이아니라스페인인것같다) 이나를연루시킬수도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⁵⁸

이증언은패현실에부합하는것같다. 리살의의사에게건넨부정적인 충고로부터혁명적인모험에대한블루멘트리트의합리적이고비교적인 경고가메아리치는것을들을수있다. 그가쿠바에서실제로일어나고있는 일에대해얼마나알고있었는지는명확하지않지만, 쿠바투쟁이부딪친어려움은충고를보강하기위해수사적으로배치되었다. 그러나발렌수엘라가항쟁에대한승인이아니라단순히그시의적절함에대한조언을구하러온것으로보이도록주의를기울였다는것은분명하다. 리살이다른방문객들이나그의가족에게, 아니면다피탄당국자들에게마저말을흘리지않으리라고확신할수없었다는이유로라도, 그는소설가의의의에진짜로설득되었든아니든그것을받아들인것처럼보이고자했다.⁵⁹ 마닐라로돌아온 발렌수엘라가동지들에게정확히뭐라고말했는지는전혀분명치않다. 그는성공적인봉기를위한조건들이아직마련되지않았으니기다리라는리살의충고를정확히전달했을까, 아니면그냥리살이보니파시오의계획을 승인하기를단호히거절했다고만말했을까? 보니파시오가처음에는믿지않다가나중에는리살더러겁쟁이라고하며떨떨뛰었다고전해지는것을 보면아마두번째쪽인것같다. 그러나리살의신망은이두사람으로하여금

년의알폰소 8 세를암살하라스페인에갈계획이라고이야기했다고전했다. 선량한의사는그것은실수가될것이라고대답했다. 여자와어린이를죽이는것은‘끔찍하게서투른선전’인데다, 둘다스페인정권의잔인함에는책임이없기때문이다. 진정한악당은카노바스이다.⁵⁹ 이설명은분명히무언가좁받아들이기힘들다. 안줄릴로는무지렁이가아니었다. 그는계엄령하바르셀로나에서살았었고, 고문당한예전의동지들과대화를 나누었으며, 트라팔가광장의집회에참석했었다. 그는카노바스가스페인제국의주인이라는것을완벽하게잘알고있었다. 아마도이늙은푸에르토리코인은후세에자신이여자와아이의목숨을구했다는생각을전하는 동시에안줄릴로의과녁을스페인총리에게돌린것으로접수를따고자했던것같다.⁶⁰ 거의 30 년전에그는훌륭한친구인도미니카의애국자그레고리오루페론 (Gregorio Luperón) 에게부패한독재자부에나벤투라 바에스 (Buenaventura Báez) 를체포하여반역죄로재판에부칠필요성에관해편지를쓴적이있었다.

바에스를잡는것이불가능하다고는생각하지않고, 도미니카공화국에는급진적개혁이필요하니, 나는루이 16 세의죽음을예언한것처럼보이는디드로와함께이렇게말하려네. “왕에대한처벌은민족의정신을영원히변화시킨다.”⁶¹

어찌되었든이제안줄릴로는보르도를거쳐마드리드로향했고, 프루동주의전통의영향아래있던젊은아나키스트앙토니안티낙이그를잠시돌보아주었다.⁶² 스페인수도에서그는카노바스가나이차이가많이나는, 새로온은젊은페루인아내와함께산타아게다온천에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같은호텔에투숙한그는과녁의움직임을하루이틀정도관찰한뒤 8 월 8 일런던에서가져온권총으로쏘아죽였다. 안줄릴로는도주하려는시도를전혀하지않았다. 그다음주사흘간군사법정에서방청이금지된가운데그의재판이열렸다. 변론에서그는주로민주주의에대해이야기하면서쿠

⁵⁷ 베탄세스의설명으로부더길게발췌한것으로, 이에대해서는 Rernández, La sangre de Santa Águeda, p.45 참조.

⁶⁰ 탐부리니의연구에서핵심적요소, 베탄세스 (혹은로슈포르) 가안줄릴로에게상당량의돈 (500 프랑에서 1,000 프랑까지다양하게이야기되는) 을건넸다는, 종종나오던이야기를설득력있게무너뜨린것이라는점이덧붙여져야할것이다.

⁶¹ Manuel Rodríguez Objio, Gregorio Luperón e Historia de la Restauración(Santiago, Dominican Republic: Editorial El Diario, 1939), pp.167~68 의제 2 권을인용한 Ojeda, El desterrado, p.121.

⁶² 탐부리니는앙티낙의회고록으로부터다음과같은소문장들을인용한다. “그가읽고또읽던책은타리다델마르몰의『문주익』이었고, 그의수트케이스에는그외에아무것도 들어있지않았다. 그가떠나기몇시간전, 우리는그에게‘다시만나세, 동지여’라고말했다. ‘아니, 다시만날일은없네. 아듀!’이순간그의눈은안경뒤에서광채를발했다. 우리는얼어버렸다.”“Michele Angiolillo”, p.118.

⁵⁷ De la Costa, ed., The Trial, p.9.

⁵⁸ 같은책, pp.67, 68.

⁵⁹ 발렌수엘라는재판에서그자백이리살에게불리하게사용된‘카티푸네로’중한명이었다. 그는혁명이터지자은신했고, 블랑코가항복한반란자들을사면하겠다고발표했을때 가장먼저출두한대열에끼었다. 그는심문자들에게아는것을다말하고그이상의것도말했으며, 예전의동지들여럿을휩쓸려들게했다. 여러해가지난뒤출판된그의회고록은아전인수격에다믿을수없는것으로악명이높다.

데, 타리다는아나키즘의이름이아니라 「라르뷔블랑슈」의대표자격 및베탄세스가파리에두고있던쿠바혁명대표단의이름을걸고연설하였다.⁵⁶ 말라토는호세리살을비롯하여카노바스정권이살해한무수한이들의원수를누가깊아줄것이나고묻는열정적인연설을했다. 그러나가장감정적인순간들은불구가된몬주익의희생자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들려주고벗은몸을드러내기위해일어났을때에왔다. 그후오래지않아안졸릴로는오에르밋잔혹하게불구가된또한명의희생자인프란시스코가나를사교적인스페인아나키스트망명자의집에서개인적으로만났다. 동석했던독일인아나키스트루돌프로커는만남의장면을다음과같이묘사한다.

그날밤가나가우리에게불구가된그의사지와고문이온몸에남긴흉터를보여주었을때, 우리는그런문제에대해입는것과희생자들의입으로부터직접듣는것을완전히다른일이라는것을깨달았다. 우리모두는돌이된것처럼그곳에앉아있었으며, 분노의말몇마디를내뱉을수있게되기까지는몇분이걸렸다. 안졸릴로만이한마디도하지않았다. 잠시후그는갑자기일어서더니간결한작별인사를우물거리고집을나가버렸다…… 이것이내가가를마지막으로보았던때이다.⁵⁷

이일이일어난지얼마지나지않아, 안졸릴로는마음속에는복수심을 품고주머니에는런던에서입수한권총을넣은채어찌어찌하여파리로가게된다. 이즈음그는타리다가급히짜맞춘 『스페인의종교재판관들 Les Inquisiteurs d'Espagne』을읽은상태였는데, 당시나온다른어느글보다도마닐라와몬주익, 아바나를상세하게연계시켜놓은책이었다.⁵⁸ 그는스페인정부의초대륙적범죄에대한로슈포르와베탄세스의강연에참석한것으로전해진다. 그가이푸에르토리코인을만나러샤토덩거리에서열리는정기친목회에한차례간것은이때의일이다. 처음에는안졸릴로를경찰끄나폴로의심했던베탄세스는그와런던에서대화를나눈적이있었던타리다와말라토의이야기를듣고안심하였다. 베탄세스와안졸릴로가마침내대면이대면하였을때실제로무슨이야기가오갔는지는불확실함의장막속에가려져있다. 나중에베탄세스는안졸릴로가섭정왕비와유

⁵⁶ Estrade, Solidaridad, p.146. 탐부리니는타리다가 『종교재판관들』에서표리부동하게도자신에관해“쿠바인이지만필리부스테로는아니며, 연방주의자이지만아나키스트는아닌동시에, 자유사상이 freethinker 이지만프리메이슨은아니다”라고묘사했다고지적한다.

⁵⁷ 루돌프로커 (Rudolf Rocker) 의회고록스페인어본 En la borrasca(Años de destierro)(Puebla, Mexico: Edit. Cajica, 1967), pp.118~20 를인용한 Fernández, La Sangre de Santa Águeda, p.40. 그는또한클레이르 (Cleyre) 가가나를직접만난뒤어머니에게보낸편지도인용하는데, 편지는그의양손이별결계달군인두로지저진것, 손톱이뿔혀나오고머리가금속압축기에넣어진것, 양쪽고환이찢겨진것등을이야기하고있다. 이이야기는위에인용한 Avrich, An American Anarchist, p.114 에나온것이다.

⁵⁸ 막스네틀라우 (Max Nettlau) 가장그라브의 「레탕누보」 1897년 6월 19일 르자를인용한바에따르면이책은 6월중순의초반에나왔다.

카티푸난의동지들에게리살의‘거부’를숨기기로동의하도록했을정도였다.⁶⁰

그러던중 7월 1일, 갑자기, 블랑코는전쟁장관아스카라가 (Azcaraga) 로부터리살이의사로일하러쿠바에온다는데대해웨일레르가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았으니그에게카리브해로떠나도좋다는허가를내려야한다는편지를받았다. 리살에게보내는총독의공식서한은 30일다피탄에도착하였다. 다음날리살은블랑코의서한을배달한바로그배를타고마닐라로떠났다. 이결정의급작스러움은이예수회정착지의지루함과고립으로부터탈출하고프리살의바람이나블랑코의전언이떠났을지도모를급성만으로는설명할수없다. 재판에서리살은쿠바로가겠다는굳은결심이순전히선교사신부와외트러블까지불러온사적인이유에서나온것이었다고설명했다.⁶¹ 이는신부가리살이이단적인의견을전부철회하지않는한그와조세핀브랙켄을결혼시켜줄수없다고거절한일에대한이야기일것이다. 그러나진짜이유는유혈의실패가될것이라확신했던입박한카티푸난봉기에연루될까봐두려워서였음에틀림없다. 그렇지만이시점에서그의운은다했다.⁶²

딱 7주전인 6월 7일, 바르셀로나의연례성체축일행렬도중에거대한폭탄이투척되었다. 여섯명이그자리에서사망했고, 42명이나되는부상자가이후병원에서죽었다. 다음날도시에게엄령이선포되었으며, 당시통제권자는다름아닌데스푸홀장군이였다. 이계엄령은 1년간지속되었다. 폭탄이특히위험적이었던이유는이것이어떤특정정치적·종교적저명인사를겨냥한것으로보이지않았으며, 희생자가일반시민들이었기때문이다.⁶³ 교회와여러우익그룹및그들의언론이히스테리에의해서든책략에의해서든경찰을부추기자, 경찰은날뛰며모든종류의아나키스트, 반교권주의자, 급진공화주의자, 진보적지식인과언론인등 300명가량을체포하였다. 이들대부분은, 곧지하감옥에서실행된고문으로유럽전역에서악명을떨치게될음울한몬주익요새에감금되었다.⁶⁴ (최종

⁶⁰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p.381~83.

⁶¹ De la Costa, ed., The Trial, p.68.

⁶² 안타깝게도, 마르셀로델필라르의운도마찬가지였다. 그는 6월 4일바르셀로나에서가난과건강악화로사망했으며, 당시겨우마흔여섯살이었다. 리살과의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필리핀인들은그를언제나혁명세대의주요영웅에포함시킨다.

⁶³ 경찰자료의주장이암살시도가행렬의선두에있던교회와군대의고위급인사들을겨냥한것이었으나일이서투르게되다보니대신후미에있던사람들을죽이게되었다는것이다. 라몬셈파우는그의 Los victimarios, p.282 에서이론에강력한혹을제기하는이유들을내놓는다. 우리가보게되듯이, 셈파우자신도나중에암살을위한던지기실력을시험해보게되는데, 몬주익경찰고문자의우두머리를제대로겨냥했으나죽이는데는실패한다.

⁶⁴ 이흥미로운이름의기원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다. 가장그럴듯한설명은라틴어 ‘Mons Jovis’(주피터의산혹은언덕) 의오염이라는것이다. 도시를내려다보는높고가파른경사는로마인들의‘보스들의보스 capo di tutti capi’에게희생물을바치기알맞은장소였다. 그러나일부카탈루냐인들은이것이그자리에있던오래된유대인묘지를가리키

적인) 주요용의자는스물여섯살의프랑스인으로밝혀졌다. 마르세유에서태어난토마아셰리(Thomas Ascheri)는전직신학생이자전직선원, 프랑스군탈영병이면서프랑스경찰의정보원이었는데, 진짜직업은경찰에거짓정보를주고동지들에게다가올습격에대해미리경고하는아나키스트스파이였다고주장하기도했다.⁶⁵ 끔찍하게고통스러운고문과군사법정에서의재판을거친후, 그는거의틀림없이결백한네명의스페인인들과더불어다음해 5 월 5 일처형당했다.

쿠바는계엄령아래있었고, 이제바르셀로나도그러했다. 필리핀은곧그뒤를따를것이였다. 유럽에서가장엄혹했던국내적탄압및아바나에서웨일레르가사용한소름끼치는방식들에대한국내적인식의확대는이제스페인정치를극단적으로분열시켰다. 카노바스는두가지모두에대해찬양혹은중요를받았으며, 그의적들중많은이들사이에서민주억에대한분노는곧바로쿠바에대한견고한동조로번졌다.

마지막여정

리살은매달스페인으로향하는우편선을잡을수있으리라기대하며 1896 년 7 월 31 일마닐라행배에올랐다. 그러나그가탄배는곧경을겪었고, 8 월 6 일배가필리핀의수도에달았을때우편선은이미떠난상태였다. 9 월 3 일로예정된다음배의출발을앞두고그는스스로의요청에의해직계가족의의누구와의접촉으로부터도차단된채카비테선창에내려편안한구류생활을하고있었다. 그는자신이마닐라에있는동안카티푸난이봉기하는경우에연루될가능성을확실히차단하고자했다. 그가쿠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고사하고마닐라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해서라도알고있었으리라고확신할길은없다. 그러나보니파시오에게는명백했던것, 즉 20 만명의스페인군대가쿠바에발목이 묶여있는상황에서마드리드는필리핀에압도적인군사력을파견할역량이안된다는것을리살은이해하지못했던것같다. 해방투쟁의성공을위한블루멘트리트의시간이이제반역의지평선에떠오르고있었다.

1895 년말부터블랑코총독은비밀요원들로부터지하혁명조직카티푸난이심상치않게활발한활동을보이고있다는보고를받고있었다. 수중

는말이라고생각한다. 결국 87 명의죄수가재판에부처졌으며, 첫재판은 12 월 15 일에열렸다(곧나오는리살의군사법정은 26 일에열렸다). 나머지대부분은즉결로스페인령아프리카에추방되었다. 전반적으로신중하고주의깊은이스웨인은진짜배후가아르헨티나로도망친장지롤이라는프랑스인이라고믿는학자들중한명이다.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192 와 Núñez, El terrorismo, pp.96-97, 161-64 참조.

⁶⁵ 아셰리의국적은당국에는소중한재산이였다. 이는스페인대중에게라바술, 바이양, 에밀양리를떠올리게하여충격의원인을피레네산맥저편으로밀어냈다. 게다가공군한외국인으로서그는스페인에서정치적도움을거의구할수없었다.

다가계급간중요를조장한다는혐의로체포되었다. 재판을앞두고잠시풀려나있을때법무부장관에게검사에대한불만을 담은통렬한편지를보낸그는이것때문에 18 개월징역형과이어지는 3 년간의국내유형을선고받았다. 이시점에서그는동급생이었던친구로베르토단조(Roberto d'Angiò)를만나러갔는데, 그는벌써장그라브의「레탕누보」(Les Temps Nouveaux, 새시대, 30 인재판이후「반역」의새이름)에서통신원으로일하고있었다. 단조는오레스테페라라(Oreste Ferrara)를만나자며그를데려갔는데, 페라라는당시에는눈에띄지않는범대생이었지만그후곧쿠바혁명의신병이자막시모고메스장군이신뢰하는부관으로, 마침내는헤라르도마차도장군의잔인한대통령집권기(1925~33)에쿠바의무장관을지내기까지하며명성을얻는다.⁵⁵ 페라라에게서이탈리아로부터도망치라는충고를받고그는 1896 년초가명으로마르세유를거쳐바르셀로나에도착한다. 이도시는상당한규모의이탈리아노동자들과직공들의거류지일뿐만아니라아나키스트운동에대한합당한명성을지니고있기도했다. 성체축일폭탄투척사건이터지고도시가계엄령아래놓였을때안줄릴로는프리랜서인쇄업자로서의직업(과스페인어익히기)에가까스로정착하려는참이었다. 그의친구들여럿이민주억에투옥되었는데, 그중에는타리다와셀파우의저널인「라시엔시아소시알」(La Ciencia Social, 사회과학)에서그와함께일했던카예타노오예르(Cayetano Oller)도있었다. 그곳에서죄수들에게가하는고문에대한섬뜩한소문들은이젊은인쇄공이스페인에서도망쳐프랑스로가게하는충분한유인이되었다. 그는마르세유에서위조문서소지로체포되었으며, 감옥에서한달을보낸후벨기에로추방되었고, 반데르벨데의벨기에노동당원로당원이소유주인인쇄소에서입시직으로일하다가 1897 년 3 월영국으로 옮겨갔는데, 이는리살이처형된지세달이지났을무렵이자카노바스정권에대한타리다의성전이최고조에달했을때의일이었다.

앞에서언급했듯이, 런던은도망중인대륙의아나키스트들에게가장안전한피난처였다. 스페인아나키스트대표단은이제‘페데리코우랄레스’나, 끔찍한고문을당한후증거부족으로풀려났다가고국에서추방당한오예르같은사람들로증원되고있었다. 안줄릴로는인쇄공으로서의일을다시시작했는데, 여기에는영국인쇄공노조가외국인들을위해마련해둔특별지부인타이포그래피아 Typographia 라는잘알려지지않은기구의회원권이도움이되었다. 그는틀림없이 5 월 30 일영국인아나키스트조지프페리(Joseph Perry)가이끄는스페인만행위원회 Spanish Atrocities Committee 의조직으로트라팔가광장에서열린만여명이모인대형집회에참가했을것이다. 광범위한정치적명사들이군중앞에연설하러나왔으며, 이 중에는유럽전체에명성을떨치는타리다도있었

⁵⁵ 페라라의경력에대해서는 Tamburini, “Betances”, pp.76-77 참조.

하나만더살짜트붙여말하자면, 베탄세스는필리핀혁명에대한관심을생기넘치게유지하고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필리핀이스페인병력을쿠바로부터빼내고있기때문이였지만, 그달콤한민족주의때문이기도했다. 보니파시오가봉기를시작한지한달뒤인 1896년 9월 29일이라는이른시기에, 선량한의사는뉴욕의에스트라다에게항쟁은스페인대중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심각하며 1만 5천의병력이이미진입하러길을나섰다고편지를썼다.⁴⁹ 같은달, 베탄세스의저널 「라레푸블리카쿠바나」(La República Cubana, 쿠바공화국)는봉기에대한강력한지지를천명하며필리핀에관한글두편을실었는데, 그제목은“자유필리핀만세! ¡Viva Filipinas Libre!”와“필리핀은무엇을열망하는가? ¿Qué quiere Filipinas?”였다.⁵⁰ 에레라로부터필리핀인들이얼마나절박하게무기를필요로하는지알게된그는이소식을뉴욕의에스트라다에게전하며도울수있는만큼도우라고재촉하였다.⁵¹ 그는또한플로리다로리살의마지막시를부치기도했으며, 이시는 1897년 10월 7일“내마지막생각 Mi último pensamiento”라는제목으로 「레비스타데카요우에소」(Revista de Cayo Hueso, 카요우에소잡지)에실렸다.⁵²

안줄릴로: 포자에서산타아게다까지

미켈레(‘미겔’) 안줄릴로는파리코핀이유혈로종식된지후인 1871년 6월 5일, 말라테스타의나폴리에서북동쪽으로 112킬로미터거리에위치한남부이탈리아 mezzogiorno 도시포자 Foggia에서태어났다.⁵³ 그러나안줄릴로는베탄세스보다마흔네살젊었다. 그는전문학교를다니는동안왕정에깊은적대감을품은급진공화주의투사로서정치적으로의식화되었다. 1892년징집된그는 1799년의파르테노페아공화국기념식에참석하다가들켜군대의상급자들로부터잔인한처벌을받았다.⁵⁴ 그는신념에찬어나키스트로서민간인의삶에복귀했다. 1895년선거기간에그는크리스피총리버전의‘악랄법’에반대하는선언문을발표했

⁴⁹ 같은책, p.372. Estrade, Solidaridad, p.147에의하면, 베탄세스는자신이스페인대사관에게밀정보를많이넘겨주는첩자를두고있다고저자에게이야기했다.

⁵⁰ Estrade, Solidaridad, p.147.

⁵¹ Ojeda, El desterrado, p.373.

⁵² 같은책, p.374.

⁵³ 안줄릴로의짧은생애에대한다음의설명은담부리니(Francesco Tamburini)의“Michele Angiolillo”에크게의존하였다. 이논문은이포자인및그의스페인총리암살에대하여, 그때것조사가별로이루어지지않았던이탈리아국가문서보관소기록을면밀히연구한결과물이다.

⁵⁴ 파르테노페아공화국은 1796년에서 1799년사이나폴레옹군대의보호하에세워진네개의이탈리아공화국중마지막것으로서, 나폴리에기반을두고있었다.

에있는군대가소수에불과하다는것을고려하는동시에마닐라의스페인인사회를공포에빠뜨리지않으려조마조마해하면서, 그의의심스러운사람들은미행하고의심스러운가옥들은조용히수색하라는명령을내렸다. 1896년봄카티푸난회원들이사라져눈에띄지않게외딴섬으로이송되기시작했다. 카티푸난지도부가기모든것에대해점점똑똑히의식하게되었다는점이발렌수엘라를다피탄에파견한하나의이유이기도했다. 7월중순, 블랑코의요원들이지부한곳의전체회원이적헌비밀명단을입수하여그들모두를체포하거나추적했다. 체포된이들중몇몇이입을열기시작했다. 그러나카티푸난을조용히깨뜨리려는총독의계획은여자들을계산에넣는데실패했다. 체포된이들의아내, 어머니들몇몇이혹시남자들을풀려나게할수있을까하여교구신부에게도움을구하러간것이다. 8월 19일, 「엘에스파뇰 El Español」은고해성사를통해혁명적봉기가일어날것이라는사실을알게되었다는한교구신부의 — 이로마가톨릭신민지에서고해의신성함이란이다지도대단한것이었던가! — 이야기를실어세상을놀라게했다. 스페인인사회는분노에찬공포에빠져들었다. 이제블랑코는대대적인공개검거및수색을명령해야만했으며, 그의화를돌우기라도하듯교단은오로지자신들이애국적으로불침번을선까닭에학살을막을수있었고, 그동안쓸모없는총독은아무것도하지않았다고주장하기시작했다.⁶⁶ 쫓기고있던보니파시오는이제그의시간표를앞당겨야했으며, 다음에무엇을할지결정하기위한‘카티푸네로’총회를마닐라북쪽근교의발린타와 Balintawak 마을에서소집한다는명령을발표했다. 그러나압력은회의를 23일로앞당겨야할정도로거셌으며, 장소는푸갓라윈 Pugadlawin 마을로 옮겨졌다. 이모임은 29일항쟁을시작하기로동의했으며, 출석한이들은그들의‘세둘라’(cédula, 모든토착민이신분증명을위해들고다녀야했던납세증명서)를 찢으며“필리핀만세! 카티푸난만세!”를외쳤다. 이웃지역들에도동시에들고일어나식민지수도에집결하라는지침이내려졌다.⁶⁷

거사의날, 보니파시오는마닐라교외마리키나 Marikina 에있는무기고습격을지휘했다. 이틀뒤카비테주가어설프가무장한반란자들의손

⁶⁶ Onofre Corpuz, The Roots of the Filipino Nation(Quezon City: Aklahi Foundation, 1989), vol. 2, pp.217~19의명료한설명을참조할것.

⁶⁷ 자기주장이많이들어가지만확기적인테오도로아곤실로(Teodoro Agoncillo)의 The Revolt of the Masses(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56), 제 9장에서생생하고자세한설명을참조할것. 이의침은푸갓라윈에서있었던일이지만민족주의역사에서는‘발린타와의외침 Grito of Balintawak’이라전해진다. 이는명백히 1868년 10월 10일세스페데스의항쟁선언문에서나온쿠바의유명한문구‘야라의외침 Grito de Yara’을참조한것이다. 그러나이표현이 1896년 8월보다한참뒤의시기에만들어졌을가능성도있다. 어찌되었건, 이순간필리핀은아직쿠바보다 2년뒤떨어져있었다. 그러나우리가살펴볼것처럼, 2년뒤들은근접한동시대성을떠게된다.

에떨어졌고, 마닐라를둘러싼다른주들도곤 — 얼마동안 — 반란자들이 장악하게되었다.

블랑코는곤란한입장에처했다. 공포에질린식민지의스페인인들(700 만명의인구중여자와아이들까지하여 1 만 5 천명정도라고하는)과월씬더강력한교단은즉각적이고폭력적인진압을요구했다.⁶⁸ 블랑코는이에상당한정도로굴복했는데, 스스로의더나은판단력에는반하는결정이었을지도모르겠다(식민지의군대는아주적었고, 그는병력증원을위해마닐라에전보를쳐야만했다).⁶⁹ 수백명의필리핀인들이체포되었으며, 일부는처형되었고, ‘반란자’의재산은몰수되었다. 군사법정에의해보니파시오일과를도왔다는결론이난이들은모두총살대로끌려가는운명을맞았다. 그러나식민지엘리트를분노하게한것은블랑코가초기마르티네스캄포스의쿠바정책을따라즉시항복하는반란자전원에게완전한사면을즉각적으로제공한데다, 다음달두번째포고령에서이제안을반복했다는것이였다. 10 월말노살레다대주교는마드리드의도미니크회본부에전보를쳤다(스페인의정치적계급내에더많이알려지도록하기위해). “상황악화. 반란확산. 블랑코의무관심납득불가. 위협피하려면급히새지도자임명필요.”6 주가지나지않아블랑코는소환되었다.⁷⁰

그러면리살은? 인상적인일은보니파시오가마리키나무기교를공격함으로써항쟁의포문을연‘다음’날인 8 월 30 일, 이소설가가총독이개인적으로쓴소개장두장을건네받았다는것인데, 한통은전쟁장관에게, 다른한통은해외영토장관에게가는것이였다. 편지의언어는주목할만하다. 첫번째편지에서, 블랑코는이렇게 썼다.

⁶⁸ 스페인령필리핀의인구자료는불확실하고서로모순되므로약명이높은데, 정권을결코제대로된근대적인구조를실시하려들지않았고, 그들의어림짐작 guesstimates 은교회가지계한통계와맞아떨어지는법이거의없었다. 여러가지수치에대한가장완전하고자세한연구는오노프레코르푸스의책 1 권의 56 쪽짜리부록에나와있다. The Roots of the Filipino Nation, pp.515~70. 혁명전야에나라전체인구가 700 만명쯤되었다는그의수치는스페인의통제가빈약했던남부무슬림지역인구와루손산악지대고원의이교도인구까지포함한것이다. 스페인에관해서는 1876 년에 15,327 명(본국출신자와크리올, 스페인계메스티소까지) 이라는수치를내놓는데 (p.257), 이중 1,962 명(약 15 퍼센트) 이성직자였다. 이들대부분은마닐라나그주변에살았다. 시크로프스키(Sichrovsky, Ferdinand Blumentritt, p.25) 는아무출처도인용하지않으면서 19 세기말다양한교단에대한수치를다음과같이내놓는데, 폭설득력이없지는않다. 아우구스티누스회 346 명, 목상회 Recollects 327 명, 도미니크회 233 명, 작은형제회 107 명, 예수회 42 명, 카푸친작은형제회 16 명, 베네딕트회 6 명. 계: 1,077 명.

⁶⁹ 혁명이발발했을때블랑코의수중에는스페인인장교들과도착민용병보병대로이루어진 3,000 명의군대밖에없었다. 네척에가득실린스페인정집병들이 10 월중도착하기로되어있었는데, 그래도그가보유하게될병력의규모는 8 천에조금못미치는정도였다. Corpuz, The Roots, vol.2, p.233. 쿠바와필리핀을비교해보면, 우리는인구로는필리핀의 4 분의 1 정도되는쿠바가거의 25 배정도규모가큰제국군대와맞서야했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⁷⁰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409.

프랑스바깥에서베탄세스와가장가까운연계를맺은것은프란체스코 크리스피의카노바스식지배및에티오피아에서의가중스러운대재앙에 분노한가리발디주의전통의이탈리아나키스트들이였다. ‘민족들의 불날’이었던 1848 년의정신역시일익을담당했다. 스스로도 1848 년의남자였던베탄세스는쿠바로가서가리발디스타일로혁명을위해싸우고자하는이동지들여럿의노력을지지했지만, 보통은토마에스트라다 팔마가운영하는마르티의혁명조직뉴욕본부의, 어떤‘외국인들’도이섬의투쟁에개입하지못하게한다는정책에가로막히곤했다.⁴⁶ 무척이나흥미롭게도, 베탄세스의하부그룹가장활발했던것은벨기에에있었던 것으로, 리살의‘수하’였던알레한드리노, 에반헬리스타의급우이자친구였던젊은쿠바인엔지니어페드로에레라소톨롱고(Pedro Herrera Sotolongo) 가운영하고있었다.⁴⁷ 말할필요도없이흑인이나직공은물론이고아나키스트한명도없었던부유한쿠바인사회를그의친구들, 즉쿠바인이아닌아나키스트들과역하는일은상당히시지프스적인것이였지만, 이푸에르토리코인은어느정도로, 최소한도로이일을해냈다.

1895 년마르티의독립전쟁이발발하자마침내베탄세스의순간이왔다. 이두사람은단한번도만난적이없었던것같고, 그들이교환한서신도 거의남아있지않다. 그러나베탄세스가마르티보다두배는나이가 많았으며또한젊은마르티와는완전히다른인생경험을겪어왔다는사실에도 불구하고, 둘은서로를존경했다.⁴⁸ 뉴욕에있는마르티의혁명본부는언젠가최고위급에푸에르토리코인들을두고있었으며,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0 년전쟁에서그들나름의역할을수행했다. 이에따라 1896 년 4 월 2 일베탄세스는공식적으로쿠바혁명의파리주재최고위외교요원으로임명되었으며, 이는단지그의연배와명망을인정했기때문만이아니라서유럽에대한그의따라올자없는지식과그가서유럽에보유한정치적동맹들 때문이기도했다.

⁴⁶ Francesco Tamburini, “Betances, los mambises italianos, y Michele Angiolillo”, in Ojeda and Estrade, eds., Psión por la libertad, pp.75~82; and Ojeda, El desterrado, pp.362~71 참조.

⁴⁷ 이위원회는쿠바인 2 명, 벨기에인 2 명과페르디난드브룩이라는젊은영국인으로구성되어있었는데, 브룩에게는스페인인들에대항하여쿠바로싸우러간형제가있었다. Paul Estrade, Solidaridad con Cuba Libre, 1895~1898. La impresionante labor del Dr Betances en París(San Juan: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2001), p.143. 에레라는알레한드리노가홍콩으로 옮겨간 이후에도그와계속가깝게 연락하고지냈다. 그는필리핀혁명의진전에대한정보를받으면베탄세스에게전해주었다. 1897 년베탄세스의저널인 「라레푸블리카쿠바나」 는 7 월에한번, 그리고 9 월에한번홍콩소인이적힌알레한드리노의편지두통을실었다. 리살의후배는뉴욕의쿠바인들에게무기문제 해결을도와달라고 설득하는데에레라와의연계를이용하기도했다. 알레한드리노가알아서행동하고있었던것인지, 아니면명목상의상급자마리아노폰세로부터지시를받고있었던것인지는분명치않다.

⁴⁸ 그들의관계에대해서는 Ojeda, El desterrado, pp.329~33 참조.

판자금을했던 리살의 부유한 친구 발렌틴 벤투라의 주택(4번지)에 바로 이웃하고 있었다.⁴³

나이든 벤투라 세는 그 나름대로는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가능한 어떤 동맹이든 환영했다. 스스로는 아나키스트와 무척이나 거리가 먼 그에게는 놀라움이 될 수도 있었을 일로, 아나키스트나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이동맹들 중 가장 정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르티는 자신이 일반적인 미에서의 정치에 대한 경멸과 조국 patria 개념의 부정이라고 여긴 점에 대해 아나키즘을 종종 신랄하게 공격했다.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에 굽주려 있으며 선거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볼 때 독립이 현존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그치지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아나키스트들도 많았다.⁴⁴ 파리에서 벤투라 세의 정치적 친구들은 코뮌나르 출신자들과 아나키스트 지식인들이었다. 엘리제르 클뤼(1830년생)와 루이즈 미셸(1833년생) 모두 그와 같은 세대였으며, 뒤마가의 사생 아이 자코뮌나르였으며 뉴칼레도니아 유형지의 동문인 앙리 보에르(Henri Bauer)도 마찬가지였다. 로슈포르도 있었고, 쿠바에서 웨일레르가 벌이고 있는 군사 작전을 약화시키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가서 노동자들의 봉기를 일으켜 보라고 벤투라 세가 설득했던 샤를 말라토도 있었다.⁴⁵(물론 말라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들 중 누구도 쿠바나 필리핀에 가본 적이 없었고, 쿠바나 필리핀의 민족주의에 어떠한 감정적인 출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적·제국적(뉴칼레도니아와 악마의 섬)으로 프랑스 국가의 손에 의해 쓰러린 경험들을 겪은 바 있었다. 카노바스와 웨일레르는 티에르와 갈리에니(티에르는 코뮌을 쳐부순 프랑스 대통령, 갈리에니는 프랑스령 아프리카가 된 지역 대부분을 정복한 장군)를 이베리아에 이식한 것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을 벤투라 세의 궤도에 끌어넣은 것은 자유 쿠바 Cuba Libre 나 자유 필리핀 Filipinas Libre 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민주적, 쿠바, 필리핀에서 자행된 야만성에 대한 깊은 혐오였다.

⁴³ 1890년 2월 5일과 5월 19일 벤투라가 리살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 2월의 편지에서는 그가 2년 임대 계약서에서 명했다고, 5월의 편지에서는 곧 이사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리살은 1891년 10월 마르세유와 홍콩을 향해 떠나기 전 그와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Cartas entre Rizal y sus colegas, pp.493~94, 531. [약 30년이 흐른 뒤인 1919년, 같은 거리 28번지에서는 김구식 선생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파리 강화 회의의 대응을 위해 방한관을 빌려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클레망소는 프랑스 총리로 파리 강화 회의의 의장이었다. 역자주]

⁴⁴ 이중요한 지점은 Francesco Tamburini, "Michele Angiolillo e l'assassino di Cánovas del Castillo", Spagna contemporanea[Alessandria, Piedmont] IV: 9(1996), pp.101~30 중 p.117에 잘 나타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쿠바 민족주의는 현지 아나키스트 여러 명을 마르티의 편으로 데려왔고, 스페인 민족주의는 쿠바(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분리주의적 이상주의에 대한 스페인 아나키즘의 불신을 드러내지 않게 강화했다.

⁴⁵ Ojeda, El desterrado, pp.339, 348; Estrade, "El heraldo", p.9.

[리살이] 4년간 다피탄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의 행동은 모범적이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음모 계획에든 그 계획을 세운 비밀 결사에든, 우리가 오늘날 탄압하는 터무니없는 시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전혀 연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용서와 자비를 베풀만 합니다.⁷¹

말투를 보면 블랑코가 카노바스 내각과 마드리드의 군부 고위층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리살은 봉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였음 드러나는데, 이를 위해 그는 다피탄에서의 리살의 행실을 칭찬하고 그가 수개월 간 고국에 보고해왔던 다양한 음모 그룹의 활동을 끌어넣었다.

우편선은 예정일에 떠났다. 배가 싱가포르에 닿을 때, 그곳에 체류하는 지지자들이 배로 리살을 방문하여 다른 배로 뛰어내리라고 강력히 권유했다. 그들은 그를 대신해 이 영국 식민지의 인신 보호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살은 이미 블랑코에게 명예를 걸고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9월 25일 아덴을 떠날 때 그는 징집병들로 가득 메워진 커다란 스페인 수송선을 만났는데, 이는 필리핀에는 새로운 일로서 쿠바에서의 전쟁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었다. 3일 후 배가 몰타에 닿았을 때, 그는 선실감금 명령을 받았지만, 블루멘트리트에게 보내는 피로가 담긴 편지 한 통을 몰래 빼낼 수는 있었다. 10월 3일 그는 계엄령 하의 바르셀로나에 닿았다. 선실에 3일간 감금된 후 그는 민주적 요소로 호송되어 감방에 갇혔다. 다음 날 그는 데스푸홀 총사령관을 만나는 자리에 안내되었는데, 데스푸홀은 그에게 슬프고도 정중한 말투로 그날 마닐라로 출발하는 증원 병력을 가득 태운 다른 수송선에 올라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마닐라에도 도착하자마자 그는 산티아고 요새에 수감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필리핀이 평화로운 한, 카노바스는 아바나에서 웨일레르가 펼치는 엄격한 정책과 마닐라에서 블랑코가 실천하는 온건함 간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카티푸난의 무장봉기가 발발하자, 이 차이는 더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블랑코가 그에게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으며, 이는 웨일레르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재정적 자원을 위협하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총독은 현지의 토착 민용병이 아니라 본국의 군대를 간청하고 있었는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징집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미 무척이나 인기가 없는데 대대 중을 상대로 끊임없이 정당화를 해야만 하는 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대한 태도가 심약한 것으로 인식되면 이는 쿠바의 '피투성이' 총독이 극심하게 엄격한 정책을 펼치는 근거를 침식할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마지막 남은 두 커다란 식민지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⁷¹ 같은 책, p.391. 나는 문법 교정을 위해 게레로의 번역을 조금 손보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말해서 계엄령하바르셀로나에서 조차 리살을 재판에 부치는 것은 논의의 일이었다, 그의 ‘불법 행위들’이 스페인에서 저질러진 것이 아닌데다 부를 증인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말해서 스페인에서 재판을 열어 사형을 내리는 것은 재난이 될 것이었다. 스페인에서 리살은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대단치 않은 아나키스트들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과 모레트, 모라이타, 피야르갈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바르셀로나 바깥의 스페인은 계엄령하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원치 않는 막대한 대중적 관심을 끌게 될 것이었고, 이는 틀림없이 타리다 델 마르를 이끈 스페인의 새로운 종교 재판소라 이름 붙일 것에 대한 맹공격을 이미 시작할 국제 언론에 의해 증폭될 것이었다. 계엄령하바르셀로나마저도 폭민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내각은 데스푸홀이 일찍이 리살과 맺었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에게 이 젊은 필리핀인을 다룰 영터리군사법정을 맡겨도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필리핀 독립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를 세게 두들기고자 결심한 상태였고,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를 출발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다. 다행히 두들길 도구는 수중에 있었다.

보니파시오의 항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랑코는 항쟁의 기원과 계획, 자원에 대해 조사할 힘 있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프란시스코 올리베 대령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인물이 5년 전 웨일레르에게 리살의 가족과 친척들을 비롯하여 도미니크회에 반항적인 입차인 모두를 퇴거시키는데 필요한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칼람바에 과전되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마드리드를 배후에 둔 대령은 리살을 즉각 심문하고 재판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드리드의 새로운 정책, 마닐라의 스페인 사람들로 부터 받는 미움, 그리고 막받은 소환 명령으로 무력해진 블랑코는 어떻게 할 수 없을음을 느꼈다. 12월 2일, 열렬한 로마가톨릭 신자 인카밀로 폴라비에 하장군이 신뢰하는 부하들 한 무리를 데리고 식민지 수도에도 도착하였으며, 열흘 뒤 블랑코로부터 권력과 정책 지시권을 넘겨받았다.

마닐라의 웨일레르 체제

신임 총독은 필리핀에서 복무한 경력은 전혀 없었으나, 세스페데스에 대항하여 쿠바의 10년 전쟁에서 싸웠던 능력 있는 노장이었다. ‘소규모 전쟁’ 동안 그는 아바나 총독으로 복무하고 있었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직했는데, 이는 식민지 민간 관료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대규모의 부패에 대한 좌절 때문이었다.⁷² 그는 정치적 선견지명을 결여하고 있지도 않았다.

⁷² Thomas, Cuba, p.299.

는 한편 항쟁의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가능한 어떤 무기라도 사서 안전하게 은닉하려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또한 그는 세스페데스가 쿠바 독립을 선언하기 불과 4주 전, 1868년 9월 9일 라레스 Lares 라는 산간 소읍에서 발생해 겨우 24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한 푸에르토리코 최초의 무장봉기에도 주된 영향을 끼쳤다.³⁸ 제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가 무장항쟁이라는 단일한 방법을 고집한 것과 프리메이슨, 블랑키주의 blanquismo, 1848년의 냄새가 가지 않은 비밀조직 방식을 이용한 것도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³⁹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전설이 되었다.

베탄세스는 1871년 말, 코뮌이 함락된 지 8개월이 흘렀을 무렵 파리로 돌아왔고, 남은 생애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⁴⁰ 그는 의학 연구로 마침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나, 논쟁적 글을 쓰거나 — 우리는 이미 마닐라 ‘공주들 prinsesas’의 사례에서 하나의 좋은 예를 본 바 있다 — 파리 및 서유럽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동맹을 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1879~87년 그는 프랑스 수도의 도미니카 공사관에서 고위직을 맡기까지 했으며, 런던과 베른도 담당했다.⁴¹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불가피하게 파리 (와 다른 이웃 나라에서도 조금 덜한 정도로) ‘라틴 사회 Latin community’의 최고 장로가 되었다. 이것은 베탄세스와 같은 시각과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수행하기 쉬운 역할은 아니었다. 1890년대 중반 빛의 도시에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인 수백명을 제외하고도 300명 가량의 쿠바인 과 푸에르토리코인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은 무척 부유하였으며, 지대로 생활하는 대농장주·은행가·의사·실업가·바람둥이들이었는데, 이들의 정치관은 완전히 보수적이거나 기껏해야 자유주의 적동화주의이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오히려 비꼬는 투로 이렇게 언급한다. “그 [‘라틴 사회’] 가운데에는 단 한 명의 흑인도 없었다. 직공계급은 그 부재로 인해 번쩍번쩍 빛났다.”⁴² 마르티가 지지자들을 찾아냈던 탬파, 카요우에소, 뉴욕의, 가난한 노동계급이 대다수인 쿠바인 사회와는 극적일 정도로 판이했다. 그러나 베탄세스는 인격과 의료 서비스, 샴터당 거리 6번지에 있는 그의 널찍한 사무실에서 매주 열린 친목회 tertulia 의 힘으로 이 사회의 대체적인 단합을 이루었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사무실은 『엘 필리부스테리슴』의 출

달 후 그는 스페인의 발톱에서 놓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법정에서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고 태연하게 맹세했으며, 그 바로 다음 날 덴마크령 세인트 토머스로 떠났다! Ojeda, El desterrado, pp.98~99.

³⁸ 베탄세스 자신은 네덜란드 식민지 쿠라사오 Curaçao 에 충을 구하러 가느라 지역사적 사건을 놓쳤다.

³⁹ 베탄세스와 블랑키의 유사성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에 관해 Ojeda, El desterrado, pp.349~51 참조.

⁴⁰ 같은 책, p.221.

⁴¹ Estrade, “El heraldo”, p.10.

⁴² Ojeda, El desterrado, p.338.

지도모른다.³³ 남은생애 50 년을그는의술 (리살과마찬가지로안과전문 의였다) 과급진공화주의및반식민주의정치에바쳤다. 처음부터노예폐 지론자였던그는스페인노예최고잔인한식민주의와그가‘아메리카의 미노타우루스’라부른나라의굶주린제국주의양쪽에모두반대하는광대 한범대륙적해방운동이라는볼리바르주의의비전에매료되기도했다.³⁴ 푸에르토리코의애국자이기는했으나, 그는지리적으로흠어져있고, 다 양한세력에의해식민지배를받고있으며, 군사적으로중요하지않은카리 브해섬들이살아남아진보할수있는길은아이티, 덴마크식민지인세인트 토머스, 그리고비앵글로색슨세력이통제하는다른영토들이앤틸리스‘볼 리바르주의’연방으로묶이는것뿐이라고확신하고있었다.³⁵ 그는이꿈을 실현하기위한하나의조건으로자신이쿠바와푸에르토리코, 산토도밍고 의완전한탈스페인화라부른것을꼽았다. 그러므로그는식민지주민들의 ‘동화주의’이데올로기에완전히적대적이었고, 스페인이건미국이건좋은 의도를갖고있으리라고는전혀믿지않았다.³⁶

1860 년대의카리브해로돌아가보면, 그는 1863~65 년도미니카독 립의회복을위한무장투쟁을활발하게지원했고 (제 3 장참조), 도망쳐야 할지경에이를때까지푸에르토리코내에서급진적선전을퍼뜨렸다. 1872 년파리로돌아오기전에그는스페인의스파이들에게추적당하고, 독립이 후의타락한독재정권들에게위협당한다. 마드리드의압력에굴복한 다른세력의식민당국들로부터추방당하면서세인트토머스, 아이티, 도 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그리고뉴욕까지끊임없이이동하며다니고 있었다.³⁷ 그는가난한환자들을치료하고, 강력하고도논쟁적인글을쓰

³³ “그는 1848 년프랑스혁명을활발하게참여하였다……. 이혁명에그에게신비한 계시와도같이왔다.”Félix Ojeda Reyes, “Ramón Emeterio Betances, Patriarca de la Antillanía”, in Félix Ojeda Reyes and Paul Estrade, eds., *Pasión por la libertad*(San Juan, P.R.: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2000), p.32.

³⁴ Paul Estrade, “El heraldo de la ‘independencia absoluta’”, in Ojeda and Estrade, eds., *Pasión por la libertad*, p.5 에인용됨, 1870 년 4 월 8 일포르토프랭 스로부터푸에르토리코인친구프란시스코바소라에게보낸편지.

³⁵ 베탄세스는 1870 년 2 월부터 1871 년초가을까지아이티에살면서콜레라유행의 퇴치를 돕고, 베네수엘라에서도망진볼리바르를 숨겨주었으며이후귀환하는볼리바르에 게중요한군사적지지를제공한아이티인애국자알렉상드르페티옹 (Alexandre Pétiou) 에관한홍룡한에세이를지었다. 베탄세스의책은 1871 년뉴욕에서출판되었다. 현대에 나온판본은 Carlos A. Rama 가편찬하였으며 *Las Antillas para los Antillanos* 라는제목이붙은그의주요저작선집 (San Juan: Instituto de Cultura Puertorriqueña, 1975) 에서찾아볼수있다. 그는페티옹을찬미하다보니투쟁을종과하게비판하게되었다.

³⁶ “이명이나저명이나마찬가지다 (Es igual yugo por yugo).”Estrade, “El heraldo”, p.5.

³⁷ 베탄세스가푸에르토리코혁명위원회 Comité Revolucionario de Puerto Rico 의설립을도운것은 1867 년 7 월 16 일뉴욕에서였다. 위원회는강령에서식민지의노예 제와스페인본국자본의상업독점, 기아, 학교의부재, 진보의절저한결여를비난했다. 한

쿠바에있는동안그는공개적으로“모든대가를치르며언제까지나쿠바독 립을막으려는무익한시도를하는대신에, 우리는독립에대비해야하고, 섬에남아있는것이적절할때까지만남아있어야하며, 호의적인분위기에 서떠나기전에무력에의해쫓겨나우리의이익과명예에손상을입는사태 를피하기위해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라고천명했다.⁷³ 그는섭정왕비 의왕실군대에서수장을맡고있다가마닐라로왔으며, 정직함과충성심, 군사적강경함이눈에들어뵈었던것같다. 그는카노바스의지시를깊은생 각없이 sin contemplaciones 수행할채비를갖추었다고여겨졌다.

리살이감방에서이사건들의합의에대해인지하고있었는지는분명히 판단할수없다. 그러나블랑코가실각하기이틀전인 12 월 10 일, 그가그 의재판을위한문서를준비하고있던조사법관을통해총독에게청원서를 보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그의심문자가기록한이청원서의핵심은다음과같다.

그는만일그같은처지에있는자에게도성명발표가허용된다면, 그가 그런범죄적방식을비난하며그의이름을사용하라는허가를내준적이없 다 (고선언하) 는성명을어떤식으로든낼수있도록마음을써달라고각하 에게탄원했다. 이는오로지몇몇불운한자들을깨우쳐주기위한것으로어 쩌면그들을구제할수도있는조치 (로서그가할일) 이다. 이하서명자는 결코이것이그의소송에영향을끼치기를원하지않는다.⁷⁴

블랑코는이청원서를그다음날이자그의임기마지막날에승인했다. 같은날, 조사담당장교는“피고인과증인들의대면이범죄를증명하는데 불필요하며, 범죄는충분히증명될것으로여겨지므로, 대질은생략하도록 한다”라는공식적인결정을내렸다.⁷⁵

우리는리살이이제는블랑코가없다는것을알게되었는지확신할수없 으며, 12 월 15 일그가‘선언’을썼을때에도여전히모르고있었을가능성 이있음을짐작할수있다. 아니면그는폴라비에하가블랑코의허가서한을 승인했다고전해들었을지도모르겠다. <몇몇필리핀인들에게의선언 Manifesto á Algunos Filipinos> 은그가쓴마지막정치적텍스트이며, 이러한이유및그내용으로인해전문을인용할만한가치가있다.

동포들이여! 스페인에서돌아오는길에나는내이름이무기를들고일 어난어떤사람들사이에서전쟁의나팔로사용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 습니다. 이소식은내게고통스러운놀라움이었지만, 나는다끝난일이라 고민고돌이킬수없는사실이라여긴것에대해침묵을지켰습니다. 지금내 귀에소요가계속되고있다는소문이들려옵니다. 몇몇사람들이여전히좋은 뜻에서건나쁜뜻에서건내이름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 이러한남용을

⁷³ Guerrero, *The First Filipino*, p.411.

⁷⁴ De la Costa, ed., *The Trial*, p.32.

⁷⁵ 같은책, p.30.

고정하고 경솔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진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음을 납니다. 처음에 내가 계획되고 있는 일대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부터 나는 그에 반대했고, 그에 대항하여 싸웠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
 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진실은 이러하며, 내가 한 말을 확인해 줄 줄인들
 도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이 대단히 터무니없으며, 나아가 재난을 초
 래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중에
 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자발적으로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이름까지도 그들이 반란을 억누르는데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해악에 대해
 확신하는 나는 내 쪽에서 조금 희생하여 그런 무익한 불행 행을 막을 수 있다 면 다
 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포들이여! 나는 다른 누구 못지 않게 내 조국의 자유를 열망한다는 증
 거를 내놓았으며, 나의 열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르침과
 노동을 통해 민족을 교육시켜 그들이 스스로의 품성을 지키고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술 활
 동을 통해 나는 학업을 권고했고, 시민적 덕성 없이는 무엇을 되찾아도 의미
 가 없게 될 거라고 권고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개혁이 결실을 맺으려면 '위
 에서부터'와야 한다고 썼는데 (이는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아래
 에서부터' 오는 개혁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충격과 다를 없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양분으로 하여, 나는 이 터무니없고 야만적인 반란,
 나의 등 뒤에서 계획되었고, 필리핀인들을 치욕스럽게 하며, 우리를 옹호
 해 줄 이들에게 불신을 심어 줄 반란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비난
 합니다. 나는 그 범죄적 절차를 혐오하며, 어떤 방식으로의 참여도 거절합
 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도 록 내 버려 둔 경솔한 이들에 대해 내 마음 속 가득
 찬고 통과 함께 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신이 부정한 행동을 한 자들을 용서하기를 빕니다.⁷⁶

이 선언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방송되리라고 리살이 생각했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다. 군법무관인 니콜라스 데 라 페냐 장군은 폴
 라비에 하에게 냉담한 진술을 써보냈다. "그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이여, 실패를 직시하고 무기를 내려놓아라. 나중에
 내가 그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 글은 평화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반면, 장래에 반란의 사기를 돋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
 므로 이 글을 은폐할 것을 제안했으며, 총독은 이에 동의했다.⁷⁷

12월 19일 폴라비에 하는 리살을 군사법정에서 폭동 교사 및 반역죄로
 즉시 재판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재판은 26일에 열렸으며, 하루 동안
 지속된 약식 절차 끝에 군사 재판관들은 피고인의 처형을 권고했다. 폴라비

스페인: El País, La Justicia, La Autonomía, El Imparcial 과
 피이마르갈의 El Nuevo Régimen.

독일: Frankfurter Zeitung, Vorwärts, Der Sozialist.

이탈리아: 로마의 La Tribuna 와 메시나의 L'Avvenire.

루마니아: Miscarea Sociala.

아르헨티나: El Oprimido, La Revolución 과 L'Avvenire(이탈
 리아어).

미국: 보스턴의 Liberty, 뉴욕의 쿠바인간행물 El Despertar, 템
 파의 쿠바인간행물 El Esclavo.

카노바스는 로마가 톨릭 유럽에서 조차 자신이 이용할 만한 외부의 지지
 는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제국내의 투쟁적 민족
 주의들과 발칸 문제에, 프랑스는 드레퓌스 사건에, 이탈리아는 1896년
 3월에 티오피아의 지배자 메넬리크에게 아도와에서 비참한 패배를 당한
 후에도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카노바스는 여전히 강심장이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상대적으로 저명한 민주주의 죄수들에게는 망명이
 허용되었지만,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이들 대다수는 아바나에서
 이송된 쿠바인 '말썽꾼들'과 함께 스페인령 아프리카의 가혹한 수용소로 추
 방되었다. 1897년 5월 5일 성체 축일에 '분노'로 사형을 선고받은 아세
 리와 네명의 스페인인들이 처형당했지만, 그 전에 그들이 당한 고문을 묘사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들이 석방된 이들 몇몇에 의해 몰래 반출되어
 있었다. 석달 후, 바스크 산타 아게다의 온천에서, 이제는 카노바스가 유혈
 의 정치적 죽음을 맞이할 차례였다.

엔틸리스의 애국자: 의사 베탄세스

라몬 베탄세스는 1827년 4월 8일, 톨스토이보다 1년 반 전에 푸에
 르토리코의 카보로호 Cabo Rojo 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떻게 하여 아프
 리카 피를 일부 물려받게 되었는지는 불확실한데, 사생아였던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다. 어찌 되었든 그의 아버지는 이 나이에 비해 지적인
 아들을 콜레주 드 톨루즈에 보내 의학 공부를 시킬 만큼 돈도 많고 근대적이
 기도 했다. 거기에서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소르
 본에서의 학공부를 계속하여 1853년 졸업했다. 푸에르토리코로 돌아온
 후, 그는 1855년의 콜레라 유행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디드로와 바
 이런의 후에 그는 프랑스령 카리브해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키기도 했던
 1848년 혁명에 휩쓸렸으며, 어찌면 파리의 바리케이드에서 직접 싸웠을

⁷⁶ 같은 책, pp.172~73. 작은 따옴표 안의 강조는 원문.

⁷⁷ 같은 책, p.173. 레테가 1892년에 쓴 풍자문 이여기에서 흥미롭게 메아리 친다.

여러명이생애처음으로활발한정치활동에나섰고, 그중더열렬하게참여했던옥타미르보등은반유대주의군중에의해살해될뻔했다.²⁸

한편, 마르티의봉기가시작되자파리의쿠바인명망자들은점점활동의강도를높여갔으며클레망소같은주요저널리스트들에게쿠바의대에대한반제국주의적지지를밝혀달라는로비를(점점성공적으로) 펼쳤다.²⁹

일찍이언급되었듯이, 타리다는파리에오래머무르지않았다. 그는스페인의외교적압력때문에벨기에로추방되었다.³⁰ 거기에서그는도버해협을건넜다. 이것이나중에「라르뷔블랑슈」에기고된글들중상당수가런던으로오게된이유였는데, 당시런던은여전히세계에서정치적으로가장중요한수도이자각자의역압적정부치하에서도암쳐온아나키스트들에게인기있는안전한피난처이기도했다. 겹쳐서터진문주익과드레퓌스캔들은런던에서널리분노를불러일으켰으며, 이젊은쿠바인아나키스트는키어하디(Keir Hardie)와램지맥도널드(Ramsay MacDonald) 등이준비한장기간의공개순회강연에서열렬한환영을받았다.³¹ 오랜역사에걸쳐스페인에적의를품고있던나라에서‘새로운종교재판소’의소행에대한이야기를들을준비가되어있는사람들은충분했다. 타리다는대양을넘고국경을가로지르는자신의다양한연고를숨겨둘것을활용하여, 스페인총리에대항하는자유주의자, 프리메이슨,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반제국주의자, 반교권주의자들로구성된광범위한인쇄언론의연합을형성하는데에박차를가했다. 이캠페인에참여한신문과잡지의(극히부분적인) 이하목록을생각해보라.³²

프랑스: 클레망소의 La Justice, 로슈포르의 L’Intransigeant, Le Jour, L’Écho de Paris, 장그라브의 Les Temps Nouveaux, Le Liberaire, La Petite République 그리고 Le Père Peinard.

영국: The Times, The Daily Chronicle, Freedom.

²⁸ Herbert, The Artist, p.203. 미르보는당시 「로로르」에서일하고있었다.

²⁹ 우익인에두아르도코민콜로메르(Eduardo Comín Colomer)에따르면, 타리다는당시리세콩도르세에서스페인어를가르치고있던아나키스트페르난도페레르파르디아(만년의)와클레망소, 아리스티드브리앙, 샤를말라토, 앙리로슈포르등쿠바를강력하게지지하는그룹, 그리고베탄세스가이끄는카리브해출신급진파들을만났다. 그의 Historia del anarquismo español(Barcelona: Editorial AHR, 1956), Tomo I, pp.180~81 참조.

³⁰ Fernández, La sangre de Santa Águeda, p.27.

³¹ 타리다는영국을좋아하게되었으며결국그곳에정착하여, 어쩌면안타깝게도, 페이지언이되었다. 그는제 1 차세계대전중에도절했다.

³² Comín, Historia del anarquismo español, vol. 1, pp.173~75;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194. 『종교재판관들』의영역분이필라델피아에서만 5 만부돌았다는주장에대해 Paul Avrich, An American Anarchist: The Life of Voltairine de Cleyr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를인용한 Fernández, Santa Águeda, p.31 참조.

에하는 28 일에이권고를승인했다. 서명을위해사형집행영장을건네받았을때, 죄수는그것을훑어보다가자신이거기에중국인으로나와있는것을발견했다. 그는이단어에줄을긋고고쳐넣었다. 필리핀인 filipino 이 아니라인디오 indio 로.⁷⁸ 그가마지막순간들을보내는동안누이트리니다드가방문했을때, 그는누이에게작은램프를건네며거기그녀에게줄것이들어있다고귀띠했다. 집에왔을때그는램프안에작은글씨로조국을향한 70 행의고별시가적힌종이쪽지가숨겨져있는것을발견했다. 〈내마지막안녕 Mi último adiós〉이라알려진이아름답고슬픈시는곧타갈로그어로번역되었는데, 역자는역설적으로도보니파시오였다. (다음한세기동안 65 가지의외국어와 49 가지의필리핀언어로된번역본들이출현했다.)⁷⁹ 12 월 30 일새벽, 리살은감방으로부터바굼바안광장 — 현재의루네타공원 — 이라는곳으로인도되었는데, 이곳은사반세기전재속신부세명이교수형을당한곳이었다. 거기에서그는수천명의구경꾼이 지켜보는가운데스페인장교와토착민병사들로이루어진분대에의해총살당했다. 겨우서른여섯살이었던그는존엄과평온으로써죽음을맞이했다. 시신은가족에게반환되는대신비밀리에매장되었는데, 이는눈에보이는무덤이있을경우그곳이민족주의순례자들의메카가될것이라는두려움때문이었다.

그러나이비열한계산은사실상관없는것이였다. 리살의공개처형은카노바스가그것을통해언고자했던효과와완전히반대되는것을만들어냈다. 독립을위한필리핀인들의열망은말할것도없고, 반란의불길을잡재우기는커녕, 본보기로서의리살의죽음은즉석에서민족의열사를만들어냈고, 혁명운동을넓고깊게키워낸데다, 다음해카노바스의암살을간접적으로초래했으며, 스페인제국의종말을향한길을열었다.

세가지속고

이장을결론으로이끌고가기위한속고의목적으로, 세가지관찰을해볼수있겠다.

첫째, 리살이 1892 년발행된 『엘필리부스테리스모』를거의다가지고고향에돌아왔을때, 그는무엇을기다리고있었던가? 그가다피탄에서보낸 4 년간을살펴볼때가장눈에띄는점은이막대한재능을부여받은작가가검열의그림자가드리워진편지몇장이외에는사실상아무것도쓰지않았다는것이다. 그가원고를써서현지에서숨기거나그를방문하러오는

⁷⁸ 원본문서를직접본암베스오캄포가친절하게도제공해주정보이다.

⁷⁹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Dr José Rizal’s Mi Último Adiós in Foreign and Local Translations(Manila: National Historical Institute, 1989~1990), 2 vols 참조.

누이들편으로 몰래 반출할 수 있었으리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세번째 ‘아름답고*예술적인’ 소설에 대한 계획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마카미사』의 파편들은 『엘 필리부스테리스모』 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기보다는 『놀리메탕헤레』 로의 복귀에 지나지 않았다. 위대한 소설을 한편 더 쓰는 것은 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동안 산다칸과 리가 필리피나 계획은 식민정권에 의해 재빨리 좌절되었다. 그는 스페인으로 도로 보내주겠다는 블랑코의 제안 역시 거절했다. 그는 스페인에서는 어떤 유익한 일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발렌수엘라가 방문하기까지는 쿠바로 가는데 대한 열의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가 블랑코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로 급히 결정했을 때, 이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것이었다.

1896년 여름, 그가 독창적인 작가들 여럿에게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겪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들의 작품이 인쇄소를 떠나 공공영역으로 향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작품을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리살은 자신이 민족의 정치적 승이라고 오해했지만, 그의 힘은 다른 재능 있는 일루스트라도들이 생산해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의 설교나 비판적 논설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힘은 다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것, 즉 그의 소설에서 나왔다. 그가 『놀리메탕헤레』 에서 한 일은 필리핀 ‘사회’의 전체상(이자 동시대상)을 상상속에서 창조해낸 것이었다. 고위급 식민지 관료들, 마을의 도박꾼들, 불만을 품은 지식인들, 무덤파는 사람들, 수사들, 경찰 앞잡이들, 야심가들, 어린복사들, 여배우들, 소음의 토호들, 산적들, 개혁가들, 목수들, 10대 소녀들, 혁명가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리고 소설의 진정한 영웅인 혁명가 엘리아스는 최후에 개혁가 이바라를 위해 그의 삶을 희생한다. 리살이 『엘 필리부스테리스모』 에서 한 일은 이 사회의 정치적 파멸 및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제거나 다름 없는 것을 상상해낸 것이었다. 그런 꿈이 공적인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 그때까지 어떤 필리핀인도 그런 가능성을 꿈꾸어본적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이 천재 genius 의 지니 genie 가 병에서 빠져나온 것이 다름 없는 일로, 엘리아스와 시모운이라는 대조되는 인물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리살은 보니파시오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보니파시오는 아마 단 하루 밤 리살의 연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티푸난이 리살을 명예의 장으로 추대했을 때, 그리고 토의를 ‘리살 박사만세’라는 환호로 끝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엘리아스와 시모운이, 그리고 소설의 생동감 있는 다른 인물 여럿이 이제 그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소설가와 소설들은 갈림길에서 고별한 길동무이다. 호세 리살

⁸⁰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듯이, 보니파시오는 리살보다 5개월도 더 오래 살지 못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는 그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서들은 극히 적고, 비밀스러움의 그늘로 덮

광업회사 사무실에 폭탄을 설치했다. 사회주의자의 원들이 중재를 약속했지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몇 달이 흘러갔고, 노동자들은 기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앙리의 폭탄은 발각되어 경찰차로 운반되었는데, 그곳에서 폭발하여 다섯 명의 경찰관과 소년 한 명을 죽였다.²⁵

드레퓔스 사건

악랄법이 제정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1897년 이른 봄, 「라르뷔블랑슈」가 엘리제르 클뤼, 루이즈미셸, 장그라브 등의 유명한 아나키스트들 및 클레망소의 급진파 귀족사돈 앙리 로슈포르의 기고를 받아 커다란 <코뮌에 관한 탐구 Enquête sur la Commune>를 냈다는 것은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무엇보다도 잘 드러낸다. 타리다의 글 역시 돌보이게 실렸고, 말라르메, 라포르그, 자리, 다니엘 알레비, 니체, 고해에 두 아르트다우에스테커, 폴아당, 그리고 위스망스의 동성애자 친구 장로랭의 글도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1872년에 태어난 레옹 블룸은 이렇게 썼다. “내가 속해 있었던 문학적 세대 전체에는…… 아나키스트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다.”²⁶

1894년 가을 — 카르노의 젊은 암살자가 기요틴형을 받고, ‘30인 재판’이 열린 지 겨우 석달 뒤 — 알프레드 드레퓔스 대위 가독일스파이죄목으로 기소되어 첫 번째 군사법정에서 영터리 재판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추방된 사건은 다음 해 페네옹이 「라르뷔블랑슈」의 지면에서 이 판결을 공격했던 것 이외에는 집중적인 관심을 거의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1896년 유대인 드레퓔스의 사건이 반유대주의자이자 귀족주의자인 고위급 장교들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기 시작하자, 곧 맹렬한 언론의 캠페인이 시작되어 국가로 하여금 1897년 10월 진짜 범인인 마리-샤를에스테라지 소령을 체포하여 다음해 1월 재판에 부치도록 하였다. 뽀뽀스럽게 도 재판 시작 다음날 그가 방면되자, 줄라는 클레망소의 「로로르」에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서한을 신게 된다. 전투 태세를 갖춘 정권은 1898년 2월 줄라를 재판에 부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여겼다. 비판적 좌파 지식인들에게 ‘부르주아 소설가’라고 불리던 줄라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후 감자가 좌파의 영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²⁷ 이 사건으로 우파와 좌파 간의 엄청난 정치적 대립이 출현했으며, 아방가르드 지식인

²⁵ Halperin, Félix Fénéon, pp.272~73.

²⁶ Herbert 의 The Artist, p.12 에서의 인용.

²⁷ 줄라를 ‘부르주아’에다 속물이라고 경멸하던 작가들 여럿이 그의 편에서 증언하려고 달려들었다. 판결은 4월 법원에서 뒤집혔다. 그러자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정치적 목적을 이미 달성한 줄라는 영국으로 도주하여 사면령이 내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버는아나키스트적몽상가제임스엔소르였다. 베르아렌은문학전선에서도마찬가지로성공적이었고, 마테를링크를비롯한많은이들에게서충실한지지를받았는데, 마테를링크는반데르벨데가나중에“공격적인혁명가”였다고호의적으로회상하바있는인물이다.²² 미술저널「라르모데른」과문학간행물「라르뷔루주」(La Revue Rouge, 적색평론)는현지의인재들을키웠을뿐아니라견고한국제주의입장을취하기도했다. 우리가앞에서보았듯이위스망스와페네옹이평론가로초청되고, 프랑스의인상주의자들과후기인상주의자들이자신들의신작을기꺼이브뤼셀의전시회에제공했던것은베르아렌과반데르벨데의후원하에서있었던일이였다. (이브뤼셀이리살이 1890년 1월, 「라르뷔블랑슈」가리에주에서태어난지한달후『엘펠리부스테리스모』를지으려했던곳이다.) 프랑스와벨기에의작가들은서로의잡지에글을실었고, 윌리엄모리스의생각과작품이무척따뜻한환영을받았다. 프랑스에서벨기에노동당의지도자들과정책이치친효과는상당했다. 철저한숙물이었던질게드가파리인텔리겐치아와의모든접촉을피했던곳에서 1890년대중반장조레스가게드를밀어내기시작했으며, 조레스는열심히벨기에모델을모방하고자했다.²³

줄라는전반적으로파리의급진적문학계에서경멸당하고있었지만, 동북부의양쟁탄전에서일어난쓰라리고비극적인파업에대한철저한조사를바탕으로한그의『제르미날』은정치적센세이션으로떠올랐으며, 모든다른유럽언어로번역될정도로폭발력을발휘했다. (19세기에상당히자주일어났던일로, ‘사회적’소설은팩트를바탕으로한저널리즘보다훨씬더크고더오래가는정치적효과를거둘수있었다.) 줄라가탄광노동자들과운동의‘혁명가들’을적대적인방식으로그리는했지만, 그럼에도『제르미날』은독자들에게광부들의빈곤, 산업이유발하는질병, 안전조치의부재, 광산소유주들에의한착취에대해간담이서늘해지는그림을제공한다.²⁴ 클레망소도직접파업광부들을방문하였고, 자신이본광경에소스라쳤다. 탄전이 1894년앙리의더치명적인암살시도중환자지로연결된다는것도한주목할만한데, 연결고리는역시줄라였을지도모르겠다. 그는, 무장경찰을끌어들여조직을파괴하는것으로노동자들의파업에대응한카르모탄광소유주들을벌하기위해, 여자로변장하여카르모

²² 우리는마테를링크를주요몽롱한중세주의작품『펠레아스와멜리상드 Pelléas et Mélisande』의작가로기억하겠지만 (그는또한어린이극으로유명한『파랑새』의작가이기도하다.역자주), 그는 1889년브뤼셀에서결성된사회주의학생회협동문화의초기회원이었다. 1913년이되어서도그는여전히그해총파업서기도동당의메이데이기념책자에글을쓰고있었다. Herbert, *The Artist*, p.99.

²³ 이상단락은대개같은책, pp.9, 27~34, 67~71 에기초한내용이다.

²⁴ 같은책, p.162. 허버트 (Herbert) 는『제르미날』이노동계급을겨냥한최초의주요소설이라고까지말한다. 줄라는변화하고있었다.

파리살박사는별개의인물이다. 발렌수엘라의보고를받은보니파시오가 그렇게도격분한것은이간극을발견하였기때문일것이다. 리살이그가삶을마감하기전몇달동안분노에찬근심을띠고있었던이유를깊은곳에서찾아보면, 그것은틀림없이그의‘이름 nombre’에관한것이었다. 말하자면이런것이다. “시모운, 그건내가아니야 (Siumoun, ce n'est pas moi).”

조금더앞으로눈을돌려보면, 특이한역설이눈에된다. 리살은필라르파가스페인에서아무것도성취할수없으며동화란환상일뿐이라고여러번에걸쳐이야기해왔다. 그러나식민지에서는그는그자신역시아무것도성취할수없는것이나다름없음을발견했다. 그는발렌수엘라에게쿠바전쟁이필리핀에대한마드리드의양보를이끌어낼것이라이야기했고, 스페인어의위험성에대해더이상말하지않았으며, 카티푸난봉기에서스스로를떼어놓으려했다. 결과적으로필라르파입장을취한것이다. 동시에이미「연대」의재정적파산으로인해비틀거리고있던델필라르의운동은쿠바전쟁으로그장래를파괴당했다. 그의삶에마지막남은몇달간, 델필라르는동화와는아무상관도없는장소인홍콩으로돌아갈계획을세웠다. 살아있었다라면이노련한현실정치가가중국에카티푸난을지지했으리라는것은전혀가능성의영역바깥에있는일이아니다. 다른무엇이남아있었던단말인가?

두번째속고는쿠바와의관계에서떠오르는것이다. 1895년마르티의반란은민족주의자필리핀인들을들뜨게하는본보기였을뿐만아니라, 왕정복고정치체제와제국전체에대한치명적인일격이기도했다. 우리가다음장에서살펴볼바와같이, 카노바스가쿠바로파견해야했던군대의거대한규모, 이에따른인명과재정적자원, 국제적체면의막대한손실로인해마드리드는필리핀에서효과적인행동을펼치기가극히힘들었다. 1895년말부터카티푸난이빠르게성장한것은마드리드의취약함에대한인식이인쇄매체를통해퍼지고있었음을드러내는일로, 보니파시오와그의친구들은이에대해손쉽게접근할수있었지만, 다피탄에있는리살은그렇지않았다. 리살이카티푸난의봉기에대해‘터무니없고’완전히불가능한일’이라고한것은 1895~96년의실제국면들에대한그의이해가얼마나부족했는지를분명히드러낸다. 웨일레르와고메스의유혈투쟁이최고조에있지않았는데도 1896년 8월카티푸난이봉기했을가능성은극히적다. 그럼에도그들이반란을일으켰다면, 그들은웨일레르에게주어졌던것과같은종류의군사력에의해재빨리짓밟혔을것이다. 그러나카티푸난이일단항쟁을일으키자, 웨일레르없는웨일레르체제 weylerismo 가마닐라

여있는그의삶은수없이많은추측이만발할여지를제공한다. 그러나리살이그항에도착하기도전『엘펠리부스테리스모』의적어도몇부는마닐라에서조용히돌아다니고있었다. 나는 1892년에서 1896년사이어느시점에이카티푸난지도자가그책을읽을수있는길을찾았으리라고확신한다.

에도착하는것은사실상불가피한일이였다. 리살은단지이‘국가적이유 raison d'état’에서, 혁명적분보기가아니라협박의본보기로서사법살인을당했다. 리살을위한블랑코의편지들은이소설가가봉기연루혐의에서완전히결백하다는것을최고당국에입증하기위한것이였다. 그러나 행간에서는마드리드가결국조금도신경쓰지않을것이라는두려움이엿보인다. 플라비에하가어리석게행동했다거나어리석은지시에복종했다고논할수도있겠다. 리살을살려주는대신그가감옥에서했던선언을외치며타갈로그지역을순회하도록하는쪽이더교활한일이아니었을까? 이렇게하면리살의평판이파멸하지않았을까? 답은긍정적인쪽이겠지만, 아마너무늦은일이었을것이다. 대중항쟁은세달동안창진행중이였으며 독자적인동력을지니고있었다. 어찌되었든많은사람들이이선언이강요에서나온것이라고믿었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이런질문들은쿠바를 계산에넣지않는것이다. 리살을살해한다는마드리드의결정은카리브해의섬과그너머세계의관중을향한의도도담고있는것이였다. 플라비에하가블랑코대신파견된이유는그가더훌륭한장군이였기때문이라죽어가는초대륙적제국을유지하려고발버둥치는스페인국가가그에게서강철같은웨일레르에버금가는사나이의면모를보았기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리살의운명에끼친결정적중대함에도불구하고, 쿠바독립전쟁은 1914 년에그절정에달하게될뚝어오르는세계적격동의한부분에지나지않았다. 반세기동안영국이 지배적인힘을발휘하고있었던동아시아는일본, 미국, 독일로부터새로운경쟁이출현함으로써지극히불안정한상태로접어들고있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보어전쟁이시작되려하고있었다. 중부유럽과동부유럽의민족주의투쟁으로인해이스탄불, 빈,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심지어베를린에의해통제되던다민족영토의제국들은그지배권을침식당하고있었다. 우리가곧살펴볼것처럼, 가장광범위한의미에서의사회주의또한민족적·국제적으로움직이는중이였다. 리살이유럽에서의마지막밤을보낸계엄령하바르셀로나는확산일로에있었던이운동이중심축으로삼은하나의핵심적장소였다.

클레망소와페네옹은서로다른세대에속해있었으며, 강력하면서도 대조되는성격을지니고있었고, 정치적견해는부분적으로만겹칠뿐이였지만, 1890 년대후반서로영향을끼치는동맹의위치에놓이게되였다. 제 3 공화국이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보였던제국주의의잔혹함에대한증오이외에도직접적인이유로들수있는것은라바솔, 바이양, 앙리의암살시도이후법제화된 이른바‘악랄법 lois scélérates’에대한분노이다. 이법령들은모든혁명적선전을금지했으며, ‘혁명가’들을돕거나이들에게동조하는사람들에게조차가혹한처벌을내릴수있도록했다. (엄청난양의경찰기록이작성되어있었던카미유피사로는일찍이안전한벨기에로피신했다.)²¹ 그러나 1885 년벨기에노동당 Patri Ouvrier Belga 의탄생및다음해줄라의소설 『제르미날』 의출간이상징적으로드러내는더광범위한정치적전환또한진행되고있었다.

벨기에노동당과 『제르미날』

19 세기상당기간동안벨기에의산업화수준은영국의수준에버금갔다. 그러나투표권은극히제한되어있었으며, 국내의권력이대개자유무역을신봉하는자유주의적실력자들의수중에있어, 정치적수준은전반적으로뒤떨어진상태였다. 세기말벨기에의국가원수였던레오폴드 2 세는악명높은외교적·군사적개입을통해 1885 년콩고를절대적으로지배하는개인통치자가됨으로써이상황을벌충했다. 그러나같은해, 주목할만한인물에밀반데르벨데 (Émile Vandervelde) 가벨기에노동당을창당하여노동계급을동원하였는데그결과로 10 년이채지나기전에투표권이급격히확장되고의회에서당의의석점유율은한때전능했던자유주의자들을능가할정도였다. 반데르벨데는스스로를벨기에노동자들의프루동주의전통을존중하는개방적인마르크스주의자라여겼으며, 평화적인아나키스트여럿과우호적인관계를지켰다. 이보다더중요할지도모를일로, 그는열렬한예술애호가로서벨기에의급진적아방가르드진영에친한친구들을두고있었다. 그래서그는브뤼셀에아주성공적인민중의집 Maison du Peuple 을열었고, 에밀베르아렌에예술담당자로채용했다. 베르아렌은 20 인회 Les Vingt 라는이름으로몽친벨기에의아방가르드화가들을정당의세력범위내로데려왔는데, 이중가장널리알려진멤버

있더라면그의엄청난미술소장품을소련에남겼을것이다. Sweetman, Explosive Acts, pp.493~95.

²¹ 피사로 (와아틀뤼시앵) 는진지한급진주의자였다. 카미유는유대인으로서덴마크령엔텔리스제도에서태어났으며, 그리하여카리브해노예반란의잔인한진압과프랑스학교에서의반유대주의에대한불쾌한경험들을갖고있었다. 드가와르누아르는그에관해이야기할때꼭‘그유대인피사로’라고칭하였다. 같은책, p.220.

냐크에게“지금까지아나키스트행동들은르클뤼냐크로포트킨이 20 년 동안퍼낸소책자보다더많은선전을해냈다”라고 썼다.)¹⁴ 1894 년 4 월 4 일 앙리가 (신속한처형이확실시되는가운데) 체포된후, 페네옹은상원 바로맞은편에위치한최신유행의포요레스토랑창타에폭탄을설치했는데, 사망자는없었으나몇명이중상을입었다.¹⁵ 우리가전에보았듯이, 그는곧체포되었다. 사형이걸린재판을기다리는동안놀랄게도그가형무소 도서관에서찾아낸 『노생거대수도원』의번역에착수했다는것은그의 태연자약함을전형적으로드러낸다.¹⁶ 치안방해자 30 명가운데하나로 피고인석에앉은그는판사들과재기넘치는밀고당기기게임을펼치고클레망소를비롯한지식인명사여럿을피고인측증인으로세운끝에무죄방면되었다.¹⁷ 말라르메는판사들에게페네옹을“상냥한사람 cet homme doux”이라고묘사했으며, 기자들이이미술평론가및그와같이피고인석에앉아있는지식인·범죄자·아나키스트의기묘한조합에대해그의전반적인의견이무엇인지문자“그는이성인들에대해어떤이야기를하는것도원치않더군요”라고침착하게대답했다.¹⁸ 그렇지만 1895 년에발레리가그에대해“내가만나본사람들중가장지적인측에드는사람. 그는공정하고, 냉혹하며, 집값다”라고규정했던쪽이더적확한표현이다.¹⁹ 풀려난뒤페네옹은원하는대로공개적인일을하는것은힘들다는것을깨닫고, 막후에서일하는비상근편집자로 「라르뷔블랑슈」에일자리를얻었다. 오래지않아그는저널을추진하는동력이되었다.²⁰

¹⁴ Eugenia Herbert, *The Artist and Social Reform: France and Belgium, 1885~1898*(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113. 두번째인용구는 John Rewald, “Extraits du journal inédit de Paul Signac”, in *Gazette des Beaux-Arts*, 6: 36(1949), p.113 에서따온것이라고한다.

¹⁵ Halperin, Félix Fénéon pp.3~4 의생생한재구성참조. 몇해지나지않아그는다우에스테커의 『막스하벨라르』를처음으로프랑스어로번역한교양있는네덜란드계유대인아나키스트알렉산더코헨에게자신이한일을고백했다.

¹⁶ David Sweetman, *Explosive Acts: Toulouse-Lautrec, Oscar Wild, Félix Fénéon and the Art and Anarchy of the Fin-de-Siècle*(London: Simon and Schuster, 1999), p.375. 이번역은나중에 「라르뷔블랑슈」에실렸다.

¹⁷ Halperin, Félix Fénéon 제 14 장의세부적설명은결작이며, 무척익살맞다. 경찰이페네옹의전쟁부사무실에서기폭장치를찾아냈는데도, 그들은피고인을포요폭탄투척사건에연결시키는직접적증거를만들어낼수없었다.

¹⁸ Joll, *The Anarchists*, pp.149~51.

¹⁹ Halperin, Félix Fénéon, p.6.

²⁰ 「라르뷔블랑슈」가문을단후, 페네옹은정치적삶에서물러나게되었지만, 1906 년“Nouvelles en trois lignes”라는제목으로 「르마탱 Le Matin」지에풍자적이고때로는감동적인미니멀리즘기고를시작하였다. 같은책, chapter 17. 그는유럽에서가장성공적인화랑한곳에서핵심적인물이되었다가 1924 년은퇴했다. 생애마지막 20 년동안 그는너무나완벽하고독속에살아서여러사람이그가죽었다고생각할정도였다. 수십년간마르크스주의에별관심을보이지않았던그는제 1 차세계대전이끝난후거의예순살이되어프랑스공산당에입당하였다. 그는 1944 년에사망했으며, 독일이파리를점령하지않

제 5 장 몬주의

타리다의성전

1896 년 6 월 7 일성체축일폭탄투척사건의여파로몬주의에수감된 300 명이넘는사람들대부분이리살이 10 월초하룻밤동안합류했을때 아직도그안에있었다. 핵심적인예외는리살과동갑인주목할만한쿠바인 크리올페르난도타리다델마르몰 (Fernando Tarrida del Mármol) 로서, 우리가그를마지막으로마주친것은그가 1892 년헤레스‘폭동 émeute’의시기에리코말라테스타의실패한스페인정치순회에동반하였던때의일이다. 7 월 21 일이라는늦은시기에기술이사 Engineer-Director 이자수학석좌교수로일하고있던바르셀로나의폴리테크닉아카데미계단에서체포된타리다는 8 월 27 일풀려났다. 은사를알아본젊은교도소부관이병을핑계로용기있게바르셀로나로잠입하여전국적인론및그가생각해낼수있는모든영향력있는인사들에게타리다의투옥소식을전했다는데에서그는운이좋았다. 그러자그의사촌이자보수파상원의원인몬트로이그후작이죄수를빼내는데영향력과연줄을이용했다는 점에서도이쿠바인의행운은남다른것이였다. (타리다는우파로부터이런종류의도움을받은것에대해전혀곤혹스러워하지않았으나, 이때문에그가연줄의혜택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감방의동료들을위해활발히활동하게되었음은분명할것이다.) 풀려난후, 그는어렵게혹은그냥 밀반출하는데성공한동료죄수들의편지및다른서류들을들고아주조용히피레네를넘어파리로향했다.

타리다의 〈스페인감옥에서의한달 Un mois dans les prisons d’Espagne〉이프랑스지성계의선도적인격주간지 「라르뷔블랑슈」에 실린것은정확히리살이엄중한감시아래바르셀로나로부터마닐라로도 실려가던때였다. 이글은타리다가그후 15 개월동안이저널에기고한 14 편의글중첫번째에지나지않았다.¹ 이글들은몬주의에서실행되는소

¹ La Revue Blanche, 11:81(October 15, 1896), pp.337~41 참조. 이평론지는원래한쪽은벨기에인, 다른쪽은프랑스인인 (이중동생은겨우열여섯이였다) 두쌍의형제들로부터탄생한아이디어로, 이들은 1889 년여름사우나에서 — 다른데어디겠는가? — 회동을가졌다. 이네명은 1880 년에파리로이주해왔던부유하고교양있는폴란드계유대인 화상, 나탕송형제로부터재정적지원을확보했다. 소년들은창간호를 1889 년 12 월리에

름끼치는 잔혹행위들뿐만 아니라 쿠바의 독립전쟁,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의 민족주의 운동, 세우타에서의 카리브해 출신 수감자들에게 대한 학대, 미국의 시끄러운 제국주의 음모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놀랄지도 모를 일인데 ‘항공 운항’에 대한 수식으로 가득찬 전문적 글까지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내놓았다. 연작의 두 번째 글은 리살이 처형되기 2 주 전인 12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실로 “필리핀 문제 Le problème philippin”에 바쳐진 글이었다 (우리의 소설가도 정치적 추방자로 짧게 그려진다). 이 시기 기평론지에 가장 자주 기고한 사람이 타리다였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예외적인 지면은 처음에는 문주익에 대한 그의 개인적 증언에 따른 결과였다. 이것은 늘 언론을 다루는데 타고난 육감을 지니고 있던 작가에 의해 ‘스페인의 종교 재판관들’이라 명명된 카노바스 정권에 대한 범대서양적 항의 운동의 포문을 연 글이었다. 「라르뷔블랑슈」로서는 타리다가 진정한 황제였는데, 이는 단지 그가 카탈루냐 출신으로 개방적이면서 프랑스어가 가능한 아나키스트 지식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쿠바인 애국자로서 문주익을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의 독립 투쟁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킬 만한 완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국면은 어떻게 도래했는가? 타리다 자신의 경력에 결정적이었다.² 그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861년 아바나에서 태어나, 1868년 이사벨 여왕이 눈부시게 몰락할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결국에는 장화와 단화를 생산하는 부유한 카탈루냐인 제조업자가 된 그의 아버지가 왜 애초에 쿠바에 살러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가족이 돌아온 날짜를 보면, 그들이 정권 막바지의 억압적인 몇 해 동안 목표에 걸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³ 그리고 어린 페르난도는 포 Pau 의 리세로 보내지는데, 이곳은 수십 년 후 피에르 부르디외가 고통을 당하게 될 그곳이다. 이 학교에서, 장차 프

주에서 발간했다. 그러나 1891년 평론지는 파리로 옮겨왔고, 나탕송 형제 중 타데 (Thadée Natanson) 가 직접 일을 맡게 된다. 10월 격주간지는 훨씬 더 호화롭고 우아한 판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1895년 1월, 약 명 높은 30인 재판에서 테러리즘과 폭동교사죄로 기소되었다가 막방면된 참이었던 펠릭스 페네옹이 주요 편집 일을 맡았다. 우리는 곧 신념에 찬 세계 시민주의적 아나키스트이자 반제국주의자였던 그가 이 저널을 전보다 더 눈에 띄게 좌파적으로만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르뷔블랑슈」의 마지막호 (312호)는 1903년 4월 15일에 나왔다. 저널은 늘 적자로운 영예였는데, 당시 타데는 동부 유럽에서 현명치 못한 투자자를 하다가 큰 재산을 잃었으며, 그의 아름다운 폴란드인 아내 미시야 고델스카는 그를 떠나 신문업계의 백만장자 거물에게 버린 상태였다. 일류 금융업자이자 주식 거래업자였던 할렉상드르는 혼자서 재정적 부담을 다 짊어질 만한 여유는 없다고 느꼈다. Halperin, Félix Fénéon, pp.300~14 참조.

² 그의 경력과 다음 단락을 서술하면서 나는 이슨 웨인의 Anarchist Ideology 중 화려하게 세부적인 제 8장 “Anarquismo sin adjetivos”에 의존하였다.

³ 페르난데스는 다른 가능성을 지적한다. 크리올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타리다의 어머니에게는 도나 토마르 몰이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오리엔티지 방 출신으로 최초로 세스 페데스의 편에서 사람들 중 하나였다. 10년 전쟁 동안 그는 장군의 지위까지 올라갔다. 타리다의 가족이 항쟁이 시작된 직후 유럽으로 떠났다면, 이는 그의 아버지가 위험한 친족 관계의 결과를 두려워했다는 의미이다. La sangre de Santa Águeda, p.25.

시적 혼란을 꼼꼼하게 편집하고 구성하여 1886년 『일루미나시옹』이라는 폭탄으로 선보인 것이 페네옹이었다.⁹ 같은 해, 첫 전시회에서 (페네옹보다 두 살 많은) 조르주 쇠라와 (두 살 적은) 폴 시냐크를 화려하게 내놓았던 앙데팡당전의 제 2회가 열렸다. 페네옹은 이 젊은 반란자들을 위해 ‘후기 인상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확고하고 명민한 옹호자가 되었다.¹⁰ 벨기에 아방가르드 사회주의 저널인 「라르모데른」 (L’Art Moderne, 현대 예술) 에 이 전시회에 대한 획기적인 ‘지식인 용 high-brow’ 평론을 보내고 완전히 파리의 은어로 만든 또 다른 평론을 급진적인 타블로이드 「르페르페나르」 (Le Père Peinard, 느긋한 사람) 에 실었다는 것은 그의 정치관을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 모든 것이 충분치 않다면, 그가 친한 친구 위스망스에게서 「라르모데른」의 연극 평론가 일을 넘겨받아 입센의 강렬한 영향력 하에 쓰이던 새로운 희곡들을 옹호했다는 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엘 필리부스테리슴』의 시대인 1890년대 초, 페네옹은 그의 다른 직업들을 내팽개치지 않으면서 급진적 정치 쪽으로 선회했다. 1891년 8월 페네옹은 자칭 조탁사 (Zo d’Axa, 별칭 알퐁스 갈로드라페루즈) 라는 기이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는 그로부터 석 달 전 격렬한 아나키스트/아방가르드 저널 「랑드오르」 (L’Endehors, 밖으로) 를 창간한 바 있었다.¹¹ 이 저널은 2년도 가지 못했다. 창간한 지 6개월 후, 조는 그의 저널이 프랑스군대와 사법부, 의회에 대한 통렬한 논평들을 실었다는 이유로 ‘도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영국으로도 망했지만, 아내의 정절을 염려하여 파리로 돌아왔다가 체포되어 2주간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재판 때까지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히 사라졌다.¹² 그러나 그의 동지 여럿은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페네옹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경찰의 기록은 그해 (1893년) 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저널이 폐간될 때까지 그 일을 맡아 보았으며, 위대한 벨기에 급진파 시인 에밀 베르아렌 및 말라르메파에 있던 프랑스의 두 젊은 아나키즘 동조작가 옥타브 미르보와 폴 아당을 소개하였다.¹³

그가 에밀 앙리를 만나 그에게 매료된 것은 조그롭의 회합에서였다. 그는 시냐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앙리를 “모든 이들 중 가장 아나키스트다운 아나키스트”라고 묘사하는데, 그의 행동들이 제 3공화국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유권자들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페네옹은 시

⁹ 같은 책, pp.62~67.

¹⁰ Farewell to an Ide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62에서 저자 T. J. Clark 는 그를 ‘보들레르 이후 최고의 미술 평론가’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단한 칭찬이다.

¹¹ Halperin, Félix Fénéon, pp.245~46.

¹² 같은 책, p.252.

¹³ Maitron, Le mouvement, p.137.

렇게말하며수도를떠났다. “그들은우리구민들모두에게충질을하겠지. 그러나나는그모든일에대하여내이름이비난을겪어지도록할수는없다.”

클레망소는처음으로코뮌나르들에대한일반사면을요구한제 3 공화국의원들중하나였으며, 블랑키를감옥에서빼내기위해노력했고, 루이즈미셸이 1880 년뉴칼레도니아에서의징역살이를마치고돌아온후 그를도와주었다. 이불은성모가 1883 년다시금, 이번에는아나키즘의 죄목으로징역을선고받자, 클레망소는그를석방하도록제 3 공화국에 압력을넣는언론캠페인을주도했다. 노동자들의단체및노조결성권을강력하게지지했던그는또한인도차이나와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프랑스가행한잔인한모험들을비롯한식민주의와제국주의에헌신적으로반대하기도했다. 프랑스정치계에서쿠바의대의에그보다더동조적인저명 인사는없었다. 1897 년 10 월에야문을담은그의신문 「라쥬스티스 La Justice」는코뮌이후시기가장강력하고준중반는야당언론이었다. 클레망소는드레퓌스사건이폭발한바로그즈음에에르네스트보건 (Ernest Vaughan) 의새로운 「로로르」 (L'Aurore, 여명) 로옮겨갔다.

클레망소보다 20 년은젊은펠릭스페네옹은 1861 년토리노에서, 리살이칼라바에서태어난지열흘뒤에태어났다. 영민한지방학생이었던그는스무살에파리로이사해왔으며, 전쟁부에서일자리를얻었고, 미술평론가와문학편집자, (1880 년중반즈음에는) 활동적인아나키스트로서 놀라운경력의첫발을내딛었다.⁷ 스물세살의나이에그는아방가르드저널 「르뷔앙데팡당」 (Revue Indépendante, 독립평론, 창간되어 1 년 밖에발행하지못한) 을창간했는데, 대들보는위스망스의소설들이었지만, 프루동과블랑키, 바쿠닌, 크로포트킨의글들을싣기도했다. 이저널은인도차이나의프랑스제국주의및복수를꿈꾸는 revanchiste 프랑스 민족주의에대한극심한적의를불태웠다. 페네옹은전쟁장관에대해그가 “중국인들을살육하고강탈하기위해극동으로새로운병력을파견하고있다. 중국인들에게따뜻한안부를전한다”라고빈정거리는투로 썼다.⁸

리살의 『놀리메탕헤레』와이사벨로데로스레예스의 『엘폴크로레 필리피노』 의시대였던 1880 년대의후반 5 년간, 페네옹은파리지앵 아방가르드의중심에선인물이되었다 — 막후에서일하는쪽을선호하기는했지만, 여러면에서그는중심에선인물이었다. 그는프랑스의민족주의적편협성과싸우기위한방식으로키츠, 도스토예프스키, 휘트먼의작품을실었으며라포르그의가장몽상적인시도지면을얻었던원래의 「보그」 (La Vogue, 1885~80) 및복간한 「르뷔앙데팡당」 (1885~89) 의편집일을 (라포르그등의도움을받아) 동시에해냈다. 랭보가남기고간

⁷ 페네옹의아버지는프랑스인행상이었고, 어머니는젊은스위스인이었다. Halpern, Félix Fénéon, p.21.

⁸ 같은책, p.56.

랑스의총리가될급우장-루이바르투가타리다를공화주의자로변모시켰다. 스페인으로돌아오면서페르난도는더욱왼쪽으로기울게되었고, 노동계급의회합이나클럽에자주드나들었다. (『놀리메탕헤레』 가나오기 1 년전인) 1886 년즈음그는확신에찬아나키스트이자자석같이청중을끌어당기는강연자, 그리고주요아나키스트출판물인 「라아크라시아」와 「생산자」 의정기기고자가되어있었다. 1889 년 7 월에는파리의새로운인터내셔널사회주의자회의에파견될대표로바르셀로나노동자들에게의해선출되었다.⁴ 같은해 11 월대중강연에서그는좌파의파벌다툼을 해소하자는꾸준한운동의 일환으로비길데없는슬로건, “형용사가불지않은아나키즘 anarquismo sin adjetivos”을개발해냈다. “완전한사회적해방을보장한다고주장하는모든혁명적이론들중, 자연과과학, 정의에가장엄밀하게부합하며, 모든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도그마를거부하는그하나의이론은‘형용사가불지않은아나키즘’이라불린다.” 취지는마르크스주의와바쿠닌주의당파들간의심각한불화를끝내고자하는것이였다. 그가말한대로, 진정한아나키즘은결코누구에게든미리고안된경제적계획을강제하지않는것일터였는데, 이는계획이란선택이라는기본원칙을위반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의캠페인은의로운 ‘행동에의한선전’이라는개념전체에반대하고자하는것이기도했다.

중중농담으로‘아나키즘의교황’이라불리던장그라브는 「반역 La Révolte」 에서즉각타리다를비난했는데, 그가스페인의, ‘집단주의’라는비뚤어진아나키스트전통, 즉조직된노동계급기반에대한애착을대변한다는것이였다. 그가타리다의투우사같은답변을바로실었다는것은이교황이분별있게도자신의무오류성을주장하지않았음을알보여준다. 이 미수학교수였던스물여덟살의타리다는작은그룹들이배후에집단적인 조직을두지않고행동에의한선전을이용하는것으로는부르주아지의중앙집권적권력에제대로대항할가능성이없다고설득력있게 썼다. 스페인의아나키스트들은오랜경험을바탕으로공동행동은필수적이라는믿음을갖게되었는데, 오직노동계급의조직된저항만이국가의억압에맞서싸우는데생산적인도구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노동자단체들 centros obreros’을권위주의적인것이당연한‘위계질서’라고하며깊이생각지도 않고무시해버리는것은완전히잘못된일이다. 그반대로단체들은스페인에서혁명운동의성장에필요불가결한것이었음이밝혀졌다. 노동자단체들이폐지되어야한다는그라브의요구는어불성설이다. 그러나동시에타리다는빈사상태의 FTRE(제 1 인터내셔널의잔해인스페인지역노동자

⁴ 이회의는같은해에펠담 — 조리-칼위스망스는‘다리를벌린창녀’라불렸지만조르주쇠라라는꽤좋아했던 — 이공개되었던대박람회가한창인도중열렸다. Halperin, Félix Fénéon, p.204.

연맹) 의 경우에는 관료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어떠한 유용성도 상실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타리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리고 금방 말라테스타와 엘 리르클뤼등등을 설득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의 글들이 파리에서 손꼽히는 소설가·시인·화가들여럿이 충실한 독자였던 「반역」에 실렸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타리다가 민주주의에서 풀려난 후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면상으로는) 친숙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가 쿠바인이라는 사실은 쿠바에 대한 웨일레르의 억압이 매우 널리 잘 알려져 있던 시점에서 그의 진입을 한층 확고하게 했다.

두 번째로, 타리다는 외로운 희생자로서 파리에 출현한 것이 아니었다. 바르셀로나의 계엄령 자체가 폭력적이었던 만큼, 카노바스는 계엄령을 스페인 전체로 확대하지 않을 만큼은 교활했다. 그러나 9 월 그는 코르테스를 압박하여 당시 서유럽에서 테러리즘과 반역을 가장 가혹하게 다스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했다. 그럼에도, 리카르도 델라 (타리다의 꿈꿨던 전우)가 1897 년 파리의 「뤼마니테 누벨」(L'Humanité Nouvelle, 신 인류)을 위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에는 진지한 아나키스트 활동가들과 동조자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해 있었다. 안달루시아: 아나키스트 12,400 명 (+ 동조자 23,100 명). 카탈루냐: 6,100 명 (+15,000 명). 발렌시아: 1,500 명 (+10,000 명). 신·구 카스티야 1,500 명 (+2,000 명). 계: 25,800 명 및 54,300 명.⁵ 카를로스주의 전쟁으로 나타난 사회적 등압선은 더 명확한 지도로 그려지기도 힘들었다. 북부와 북서부에는 차가운 반동, 교권의 날씨가, 남부와 동부에는 격렬한 비와 폭풍이 몰아쳤는데, 그 태풍의 눈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총리의 출신지인 안달루시아였다. 게다가, 카노바스의 적들 — 그가 속한 당내의 적 및 자유주의자·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마르크스주의자들 가운데의 적 — 은 원칙적인 이유에서든 기회주의적인 이유에서든 ‘문명의 사형 선고’라는 선정적인 언어로 노출된 문주익스캔들을 화제로 삼을 호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바르셀로나에 수감된 이들 중 전직 장관이 적어도 한 명, 의회 의원이 세 명이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파리는 점점 스페인 제국 신민들의 정치 활동을 위한 주요 거점이 되어 가고 있었다. 급진 공화주의 지도자 소리아는 왕정 복고에 대항할 계획 짜며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는 상태였다. 그의 개인 비서이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노련한 좌파인 페르난도 페레르 가르디아 (Fernando Ferrer Guardia) 는 파리의 유명한 리세 콩도르세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쳤는데, 말라르메 역시 1898 년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곳에 고용되어 있었다. 1895 년 봄 마르티가 쿠바 독립 전쟁에 착수하자, 스페인은 카리브해에서 온 민족주의자와 급진파들에게는 너무 뜨거운 곳이 되었고, 이

들은 전설적인 푸에르토리코인 혁명가 라몬 베탄세스의 사선생의 정력적 리더십 아래 프랑스 수도에 모여 카노바스와 웨일레르에 맞선 선전 및 계획 입안에 열중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체 축일 습격 이후 본국 급진파 여러 명이 피레네를 넘어 도망쳐 왔다. 그렇게 파리에 모인 이들이 가운데 오직 필리핀 대표들만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리살과 델 필라르는 죽었고, 마리아 노폰세는 홍콩으로 떠나 있었다. 잘 알려진 고참 민족주의인사 중 유일하게 화가 후안 루나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급진화된 파리

1897 년 파리가 타리다의 엄청난 성공적인 운동에 열려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지적·정치적 풍토를 창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초기 경력을 고려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조르주 클레망소는 1841 년에 태어나 루이나 폴레옹의 억압적 제국주의 정권 아래에서 성장했다.⁶ 리살이 막 태어나던 무렵인 1861 년, 그는 급진 공화주의 좌파 서클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의 사돈이 된 인물로서 유별나기로 소문난 급진적인 언론인이자 편집자 앙리 로슈포르 (구 귀족로슈포르·뤼세 후작) 를 만난 것이 여기에서였다. 1862 년, 클레망소는 비판적인 논설들로 인해 황제에 의해 투옥되었으며, 풀려난 이후에는 ‘정치범’들이 수감된 생트 펠라지 교도소 옆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블랑키와 알게 되었고 그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이 영원한 음모꾼을 위해 벨기에로부터 인쇄기를 밀수해 오기까지 했다. 스당 이후 그는 코뮌이 다음 해 봄 터져 나온 구 arrondissement 였던 몽마르트의 시장이 되었다. 클레망소는 루이나 폴레옹을 계승한 정부가 비스마르크에 세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독일의 파리포위 공격에 대항하여 열심히 일했다. 그는 시장 사무실에 무기 공장을 만들어 침략자에 대항하여 사용할 모르시니 폭탄을 적어도 23,000 개는 제작했다. 그가 루이즈 미셸 (Louise Michel) 과 무척 친밀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보다 열한 살이 많은 이 대단한 여자는 지방 귀족과 그녀의 사생아로서, 겨우 열네 살 때 빅토르 위고에게 자신이 쓴 시를 보내기 시작했다. 1860 년대에 그는 파리에 있었고, 정치에서는 꾸준히 왼쪽으로 옮겨 왔으며, 1870~71 년에 다친 이들 과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몽마르트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클레망소는 마지막까지 직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 델러스의 상상에 따르면 — 이

⁶ 클레망소의 정치 경력 (1900 년까지) 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주로 Gregor Dallas, *At the Heart of a Tiger: Clémenceau and his World, 1841~1929* (New York: Carroll & Graf, 1993), 특히 pp.30~38, 97~120, 185~87, 212~340 에 바탕을 둔 것이다.

⁵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202 에 인용된 것의 의도이다.

베네딕트앤더슨
세겟밭아래에서
아나키즘과반식민주의적상상력
2005

kr.theanarchistlibrary.org

당'은 필리핀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⁷⁸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이사벨로는 몬주익으로 이감되었으며, 그곳의 사령관은 침착하게 (그리고 거짓말로) 그에게 사형선고를 앞둔 자들만이 거기에 갇힌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사벨로는 리살이 후 그곳에 격리된 최초의 필리핀인이 단연코 아니었다. 대담하게 파야스의 고아가 된 딸을 데려다 키운 것 때문에 성체 축일 폭탄 투척 사건이 후 체포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비종교 학교를 열어 큰 인기를 누렸으며, 바르셀로나 군사법정의 재판들을 공격하는 글을 발표했던 아나키스트 '페데리코 우랄레스'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가 말하기를,

정부로 하여금 너무 무르다 하는 이유로 블랑코 장군을 내쫓고 필리핀 인이 자의사인 리살의 살해자, 기독교인 플라비에 하 장군으로 갈아치우게 하는데 성공했다. 필리핀에도 착한 즉시 플라비에 하는 처형 및 스페인으로의 강제 이송을 시작했다. 반란자들을 태운 배 한 척이 바르셀로나에도 도착했으며, 이 죄수들은 우리들과 같은 감옥에 갇혔다. 이는 겨울에 있었던 일로, 저불쌍한 필리핀인 추방자들은 (아직도) 겨우 속옷 같은 바지와 거미줄같이 얇은 셔츠가 전부인 고향의 옷차림 그대로였다. 가엾은 필리핀인들이 바르셀로나 감옥 안마당에서 발을 담으려고 원을 그리며 왔다 갔다 하고 동동 구르면서 추위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끄럽고 도슬픈 일이었다. 감옥의 수감자들이 추위라는 것을 모르는 나라에서 온 불쌍한 필리핀인 추방자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안마당으로 신발, 끈 달린 샌들, 바지, 조끼, 재킷, 모자, 양말을 던지는 것은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⁷⁹

⁷⁸ Scott, Unión Obrera Democrática, p.14. 이사벨로는 1900 년이렇게 회상했다. "바르셀로나의 국가 형무소에서, 나는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된 채, 잠긴 문세개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시 혁명가라는 죄목으로 붙잡혀 온 죄수였던 고명한 연방주의자 저널리스트 D. 이그나시오 보이스글라씨는 아브라카다브라 주문으로 열쇠를 얻어 감옥 안마당에서 스스로를 소개했다." Filipinas ante Europa, March 25, 1900. Federico Urales, Mi vida (Barcelona: La Revista Blanca, 1930), Tomo I, p.218 에 의하면, 보의 육체적 능력은 하찮은 수준 casi ridículo 이었지만, 용기는 대담무쌍했다고 한다. 그는 피야마르갈과 함께 연방주의자로서 정치적 삶을 시작했지만, 아나키즘으로 옮겨갔으며 무신론을 신봉했다. 나중에 그는 몬주익에 관한 찢어지는 고통을 담은 책을 출판했다.

⁷⁹ Urales, Mi Vida, Tomo I, pp.196~97, 200. 우랄레스의 진짜 카탈루냐 이름은 호안 몬트세니 (Joan Montseny) 였지만 그는 첫 번째 가명이자 필명으로 우랄산맥 (시베리아의!) 을 택했다. 그는 본래 리오데오로에 유배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런던으로 추방을 당했으며, 그곳에서 곧 스페인 만행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을 돕게 되었다. 1898 년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라르뷔블랑슈」에 대한 오마주인 「라레비스타블랑카」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저널은 선도적 지식인들보다는 '의식있는 노동자 obreros conscientes' 쪽으로 더 많이 향해 있었다). 그는 「라레비스타블랑카」를 시작하면서 보우딘 박사 (Dr Boudin) 라는 필명으로 질병과 그것을 초래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관해 엄청난 개인기 있는 기사들을 썼다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회고한다. 그렇게 한 이유는 "노동계급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후안 (원

9월에이사벨로는새로운감방동료로라몬셈파우를받게되었는데, 셈파우는그달 4 일에문주익고문자들의지휘관나르시소포르타스중위, 일명‘스페인의트레포프’이자타리다가유럽의언론을통해새로운종교재판소와동의어로만든이름의인물을암살하려고도했다. (중위는웨일레르가아바나에다시파견되기전카탈루냐사령관을지낼때그에의해특수정치첩보부서장으로임명되었던바있다.) 셈파우는기본적으로보헤미안성향의문학적인물로, 아나키스트쪽으로기울어진저널리스트이자시인이었다.⁸⁰ 우랄레스의회고록을믿을수있다면, 포르타스를죽이려는계획은원래파리에서꾸며진것으로, 셈파우가체포된후프랑스인아나키스트샤를말라도가그의탈옥을찌하는, 결국은실패로돌아간일을실행하기위해바르셀로나로왔다.⁸¹ 어찌되었든이사벨로는실패한암살자에게매료되었다. 노년의저술에서, 그는이카탈루냐인에대해다음과같이남겼다.

그는아주학식이뛰어난사람으로, 필리핀식물들의학명을외우고있었고, 나중에리살의『놀리메탕헤레』를프랑스어로번역하였다. 수백명의경찰요원들과의싸움에서그는결단코아무런두려움도없다는것을내보였다. 그의이름만들어도유럽은공포에떨었다. 그러나현실에서의그는정직하고온화한아이같은사람이었다 — 그렇다, 천성이진짜예수같은사람이었다고까지말할수있을것이다. …… 명예를걸고되풀이하여말하건대, 이른바아나키스트, 니힐리스트, 아니면요즘저들이말하기로는불세비키라는이들은진정한구세주이자정의와보편적형제애의사심없는옹호자이다. 빈사상태에있는오늘날의제국주의가낳은편견이사라질때면그들이우리의제단을정당하게차지할것이다.⁸²

나아가이사벨로는아마도셈파우의도움으로, 책과신문을구해다줄우호적인간수를얻게되었는데, 나중에그는이덕분에“진정눈을떴다”고회상한다. 그는아나키즘이“불운한자는뺏어빠뜨리면서진짜범죄자들은건드리지않고내버려두는세금이나법령이라는사기극을벌일필요는전혀없이우리모두를다함께 묶는연합과더불어 …… 경계의폐지, 즉지리적인것이든계급차이든어떠한경계도없는사랑을신봉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⁸³

문그대로임) 몬트세니라고알고있는페데리코우랄레스의재능을믿지않았”지만, ‘보우던박사’는완전히신뢰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⁸⁰ Núñez, El terrorismo, pp.55(나르시소포르타스), 60~61, 158(셈파우) 참조. 네틀라우의다소심술곳은묘사로는, 그는“아나키즘과카탈루냐주의사이에서왔다갔다하는개인플레이어”라는것이다 (Nettlau ms. p.116). 나중에셈파우는세기가바뀔무렵일어난카탈루냐부흥운동에참여하여카탈루냐어평론지 「옥시타니아 Occitània」 와협력했다.

⁸¹ Urales, Mi vida 제 3 권의 pp.80~81 로부터인용한같은책, p.158.

⁸² Scott, Unión Obrera Dmocrática, p.15 에인용된이사벨로의말.

⁸³ 같은책, p.14.

우메모리의글에 따르면, 후지타는 이 주목할만한 글에서 모스크바에 머물렀을 때 차르의 영지에 있는 무슬림들과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으며, 그리고 나서는 중국에서의 이슬람으로 연구 주제를 이동했고, 마침내 필리핀에서 북아프리카까지에 걸친 이슬람 세계 전체로 그의 관심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구체적인 예를 들며 아랍어가 터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일본어에까지 끼친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슬람을 편견 없이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본인들은 “편견도 편애도 없이” 이슬람을 연구할 위치에 있으니 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8 년 이후 그는 알려진 기록에서,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게 사라진다. 우메모리는 후지타의 이름이 ‘히데오’, ‘키소’, ‘에타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기록 보관인들이 이름의 한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카노바스가 죽고 사가스타의 야당 연합이 권좌에 오르는 한편 타리다의 캠페인이 전력 투구를 하는 동안⁸⁴ 몬주익 죄수들의 처지는 바뀌기 시작했다. 셴파우가 군사법정에서 재판관을 받아야 한다는 군대와 경찰의 요구는 새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만약 군사법정에 섰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포르타스를 향한 비난이 너무나 높아서 어떠한 민간인 판사도 이 암살자가 될 만한 인물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를 바라거나 감히 그럴 만한 용기를 품지 못할 정도였다. 1898 년 1 월 8 일 이사벨로는 풀려났다. 피이마르갈과 알레한드로 레로옥스 (Alejandro Lerroux, 바르셀로나의 인민주의 정당급진공화당당수), 페데리코 우랄레스가 써준 추천서 덕분에 그는 모레트의 해외 영토 부선전국에 중요치 않은 한직을 얻을 수 있었다. 필리핀에 관한 이사벨로의 글들, 특히 교단에 대한 그의 독설들이 레로옥스의 당기 관지에 발표되었으며, 고위급 프리메이슨인 미겔 모라이타 교수가 언어를 다듬어 주었다. 무엇보다 최고였던 것은 이사벨로가 권총으로 무장하고 당대의 급진적 시위대 열 속에 행복하게 뛰어들었다는 점인데, 누구를 쏘아본 적은 없었지만 가끔 코가 좁 깨지기는 했다.⁸⁵

젊은이여, 동쪽으로 가라

리살보다 두 살 어리고 이사벨로 데 로스레예스 보다는 한 살 더 먹은 마리아 노폰세는 마닐라 북동쪽에 접한 불라칸 Bulacan 지방 출신이다 (야기 날도의 게릴라는 신치비악나 바토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는 산토토마스 학생 시절 델 필라르에게서 감화를 받아 민족주의 활동가가 되었으며, 리살과 우나무노가 다니던 센트랄 대학에서의 학을 공부하기 위해 마드리드에도 착한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했다. 폰세와 그의 멘토는 1889 년 2 월 바르셀로나에서 「연대」를 창간한 주역이었으며, 9 개월 후 스페인 수도

⁸⁴ 아나키즘을 강력히 신봉하는 테아트르 리베르테르 (Théâtre Liberaire) 가 1898 년 ‘몬주익’이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문장을 열었는데, 이 연극은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인기를 누렸다. Herbert, The Artist, p.39. 허버트는 1890 년대 파리에는 관참은 프랑스희곡이 늘 부족했고 입센이 — 종종 아나키스트적으로 해석되어 — 압도적으로 우뚝 서 있었다고 언급한다.

⁸⁵ 스킷은 1898 년 2 월 ‘몬주익’에 반대하는 활기찬 시위를 이른 유쾌한 잡탕의 물결을 묘사하는데, 이사벨로도 여기에 참가했다. 레로옥스와 가까운 그룹 (그의 신문 「엘 프로그레소 El Progreso」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이자 필리핀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여자도 포함) 이 조직한 이 시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자유사상가 연합, 바르셀로나 심리학 연구센터, 「엘딜루비오 El Diluvio」, 카르데시안 (데카르트주의?) [정신주의 Spiritism 의 창시자 카르데크를 따르는 카르데크주의자들] 의 미함. 저자가 정신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을 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주] 정신주의자 Spiritist 연맹, 법대 자유주의 학생회, 마르크스주의 센터, 진보적 페미니스트스 협회, 공화주의 청년회, 「레비스타 마소니카 Revista Masónica」, 부두노동자협회, 목재적하노동자협회, 노동자협회 연맹, 「라보스텔푸에블로 La Voz del Pueblo」. Unión obrera Democrática, p.16.

로저널을 옮기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 다른 가명으로 글을 쓰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은 편집주간이자 회계 담당자, 기록관 리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델 필라르는 그에게 저널의 경영을 점점 더 많이 넘겼다. 리살과 델 필라르의 관계가 가장 위험했던 시기에도 폰세가 양쪽 모두를 신뢰하는 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차분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리살이 체포되어 다파탄으로 추방된 이후 「연대」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였고, 1895년 10월에는 마지막 호가 나왔다. 「연대」가 처했던 곤경 중 한 가지는 재정적으로 마닐라의 부유한 동조자들의 기부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짜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문제는 6년간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는데도 델 필라르의 전략적 동화주의 정책이 여전히 스페인 정부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했으며, 필리핀인 체류자들이어서이 정책은 막다른 데까지 왔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1896년 봄 폰세와 델 필라르는 조국에 가까우면서도 박해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는 홍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즈음 델 필라르의 건강이 망가졌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7월 4일 계엄령 하 바르셀로나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충실하게 그를 간호했던 폰세는 남아있는 일들을 마무리하느라 그대로 머물렀다. 다음 달 말 보니파시오의 봉기가 터졌을 때 경찰은 그가 살고 있던 집과 스페인-필리핀 협회 Hispano-Philippine Association 구내를 습격하여 많은 문서를 가져갔다. 폰세 자신도 투옥되었으나 경찰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것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은 하룻밤에 그쳤다. 일이 잠잠해지자 그는 마르세유로 가기 위해 프랑스 국경을 넘었으며 10월 11일 극동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1897년 봄 서른네살의 나이로 그는 그곳에서 다음 4년간 몰두하게 될 일에 착수했다. 그즈음에는 아기날도의 혁명 정부였던 것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 총과 탄약을 사서 필리핀으로 밀반입하는 것,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부단한 선전 운동에 종사하는 것. (1898년 6월 폰세는 아기날도의 해 필리핀 대표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폰세는 앞의 두 가지 일을 성취하는데서는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혁명서간집 Cartas sobre la Revolución』에는 나라 바깥에 거주하는 부유한 필리핀인들에게 거액의 재정적 기여로 애국심을 보여달라고 사정하는 여러 통의 편지와, 친구들에게 이 인간들이 대개 얼마나 미살스럽도록 이기적이고 비애국적인지를 불평하는 다른 편지들이 들어 있다. 무기를 구하려는 시도는 그보다 훨씬 더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나 서신들은 폰세가 선전 운동에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1897~1900년의 정신 없는 사건들에 적응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관해 매우 적절히 많은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이 텍스트들을 분석하기 전에, 이 사건들을 간단히 개괄할 필요가 있겠다.

터였다. 그는 롬펜과 범죄자 지원병들로 구성된 무자비한 사냥꾼 부대 cazadores 들이 굶으로써 피투성이 el Sanguinario'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광적인 숭배자조차도 그가 다른 스페인 장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수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드리드로 돌아온 후 그는 발렌시아의 카를로스주의 병력을 박살내는 임무를 맡아 쿠바 식 방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입 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해냈다. 주인공을 성인으로 만들어 놓은 프랑코식의 franquista 옷기는 전기인 General Hilario Martín Jiménez, Valeriano Weyler, de su vida y personalidad, 1838~1930 (Santa Cruz de Tenerife: Ediciones del Umbral, 1998), chapter 2~6, 특히 죽은 죄수들에 대해서는 p.247 참조. 후토머스는 웨일레르가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에 워싱턴에서 대사관 부무관으로 일하면서 무자비한 서면의 팬이 되었다고 말한다. 토머스의 Cuba, p.328 참조. El desterrado de París. Biografía del Doctor Ramón Emeterio Betances (1827~1898) (San Juan: Ediciones Puerto Rico, 2001), p.351에서 레예스 (Félix Ojeda Reyes)는 웨일레르의 1910년 Mi mando en Cuba 를 인용하며 이 경력을 확증한다.

파야스는 타라고나 출신의 가난하고 젊은 석판공으로,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가서 결혼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나은 벌이를 찾아 브라질로 옮겼다. 산타페에서 식자공으로 일하면서 그는 급진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1892년 메이데이에는 “아나키만세! Viva la anarquía!”를 외치며 리우의 알칸타라 극장에 소형 폭탄을 던졌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관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는, 브라질 아나키즘의 초기 시대 동지들은 정치 적 회합을 열고 자신들의 극을 상연할 건물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지방 극장을 빌려 사용했기 때문이다. 파야스의 리우 관객은 스페인인과 포르투갈인 아나키스트들이었을 것이고, 상파울루는 그에 상대가 될 만한 이탈리아인 이민자들의 구역이었다. (Degar Rodrigues, Os Anarquistas, Trabalhadores italianos no Brasil [Sao Paulo : Global editora e distribuidora, 1984], pp.66 and 73.) 스페인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여 아나키스트 신문들과 크로포트킨의 『붉은주의 정복』 한부, 그리고 헤이마켓 열사들의 석판화한 점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가 부분적으로 헤레스의 처형에 대한 분노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누녜스는 파야스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Esenwein, Anarchist Ideology, pp.184~85; Núñez, El terrorismo, pp.49, 53; 그리고 Maura, “Terrorism”, p.130 (여기에는 두 명이 죽었고 열두 명이 다쳤다고 나온다) 을 비교할 것.

여기에서 참조한 것은 암스테르담 국제 사회사 연구소의 미케아이제르만스 (Mieke Ijzermans) 가 친절하게 도나에게 제공해 준 네틀라우의 미 발표 원고 Anarchisten und Syndikalisten, 제 2 권의 p.116 이다.

filibuster'라는 단어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완전히 정치적인 단어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중요한 전환점은 아마도 레날과 디드로의 유쾌한 *Historie philosophique et politique des établissements & du commerce d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Geneva: Libraires Associés, 1775) 의 제 52 장 (“Les filibustiers désolent les mers d’Amérique. Origine, mœurs, expéditions, décadence de ces corsaires”)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해적들의 잔인함에 대해 얼버무리지 않고 도저자들은 자유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직접 만들어낸 신사도에 대해 감탄하며 써냈다. 완전히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필리부스터’는 1850 년경 뉴올리언스의 크리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이 말을 스페인의 명예를 내던지고 쿠바를 미국에 합병시키고자 뉴올리언스로부터 네 차례 계속된 쿠바 침공(1848~50) 을 위해 베네수엘라 인 나르시소 로페스(Narciso López) 에게 합류한다. 다양한 배경의 용병과 이상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썼다. 1850 년대 중반 잠시 스스로를 니카라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던 악명 높은 미국인 모험가 윌리엄 워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필리부스터’라 부르고 있었다. 그 단어는 필리핀에 임명되기 전 카리브해에서 복무했던 고위급 장교들의 집에 담겨 마닐라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필리핀 제도의 마지막 총독 다섯 명 중 네 명, 마요르카섬에서 프로이센인 부모에게 태어난 발레리아노 웨일러(Valeriano Weyler, 1888~91), 에올로히오 데스푸홀(Eulogio Despujol, 1891~93), 라몬 블랑코(Ramón Blanco, 1893~96), 카밀로 폴라비에하(Camilo Polavieja, 1896~97) 는 전 부들의 억압적인 박차를 카리브해에서 — 데스푸홀은 산토도밍고에서, 다른 이들은 쿠바에서 —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원정대의 지휘권을 제퍼슨 데이비스와 로버트 E. 리에게 제안했던 로페스, 흑인들에 대한 ‘가혹함’으로 악명 높았으며,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 및 북부의 팽창주의자들과 동맹했고, 주로 멕시코 전쟁의 퇴역군인들로부터 충원을 했던 그가 사후 아바나에서의 공개 교수형 덕분에 애국자로 사후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이한 역사적 아이러니이다. 그가 합병의 대의를 내걸고 고안한 적-백-청, 별과 줄무늬 깃발은 오늘날 쿠바의 국기로 남아 있다. Hugh Thomas, *Cuba, The Pursuit of Freedom*(New Brunswick, NJ: Harper & Row, 1971), pp.212~17 참조.

* 안드레아스 바더와 울리케 마인호프를 비롯한 바더-마인호프 그룹 또는 독일적 근파의 핵심 인물들은 1976 년(마인호프) 과 1977 년(바더외 2 명)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바더 등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지만, 1977 년 당시 자살을 입은 채 발견된 이름 칼트 필러는 나중에 이에 대해 사범의 살인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자주

웨일러가 걸출한 장교로서의 명성(그는 그의 시대에 최연소로 별을 달았다) 을 얻은 것은 쿠바의 세스페데스 반란에 대항한 성공으로 부

적은 누구인가

이사벨로가 여전히 몬주익에서 고달파하고 있는 동안, 필리핀의 군사적 교착 상태는 계속되었다. 프리모리베라는 아기날도를 박살낼 수 없었고, 카비테에서 온 남자는 그의 비악나바토 요새로부터의 미있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없었다. 바야흐로 정치적 기선을 잡아야 할 시간이었다. 아기날도의 민간인 동료들은 그에게 식민 정권과 경쟁하는 법적인 혁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적 헌법을 제정한다면 그의 지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임무는 펠릭스 페레르(Félix Ferrer) 와 이사벨로 아르타초(Isabelo Artacho) 에게 맡겨졌다. 테오도로 아곤실로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무미건조하게 기술한다.

페레르와 아르타초는 1895 년에 작성된 쿠바히마과유 Jimaguayú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다가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 척 속여 넘겼다. 당대의 학자였던 클레멘테 호세 술루에타(Clemente José Zulueta) 는 비악나바토 헌법의 유일한 하계 남은 한 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던 친구에게 침착하게 말한 적이 있다. “걱정말게, 우리에게겐 히마과유 헌법도 한 부 있지 않나.”⁸⁶

유일하게 현지에서 한 것이라고는 타갈로그어를 국어로 한다는 분열적인 조항뿐이었다. 스페인어에 취약했으며 필리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것이 거의 없던 수령 caudillo 은 11 월 1 일 ‘필리핀’ 헌법의 제정을 자랑스럽게 선포했다. 다음날 그는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그러나 이 거창한 제스처가 취해지기 전에 프리모데리베라와의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총독은 카노바스의 죽음과 웨일러의 실각, 그리고 사가스타의 권좌 복귀가 일어난 후의 시기에 기껏해야 산혼협정의 동양판 같은 것이라 도 확보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해 말에는 반란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사면을 받는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아기날도와 그의 장교들은 홍콩으로 떠나는 대가로 40 만 페세타를 챙기고, 무기의 인도가 마무리되면 40 만 페세타를 더 받기로 되어 있었다. 나아가 지난 15 개월 간의 싸움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필리핀인들을 위한 원호금으로 90 만 페세타가 배정될 것이었다. 필리핀인들이 스페인의 배신에 대해 강한 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던 프리모데리베라는 장군들을 비악나바토에 인질로 보냈고, 스물일곱살의 조카 미겔 프리모데리베라 대령(장차 1920 년대에 스페인의 독재자가 될, 삼촌보다 훨씬 덜 지적인 인물) 이 중국 해를 건너는 아기날도와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놀랄 것도 없이 양측 모두 합의의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반란자들이 얻은 무기를 인도하기 보다는 숨기는 쪽을 택했고, 수령은 끝내 잔금을 받지 못했다.⁸⁷

⁸⁶ Agoncillo, *A Short History*, p.102.

⁸⁷ 같은 책, p.103.

그러는동안워싱턴이움직이고있었으며, 이것은무엇보다도시어도 어루스벨트개인의움직임이었다. 이미 1897년 11월 그는쿠바를놓고스페인과전쟁을하게될경우일본에주둔하고있는미국아시아소함대 American Asiatic Squadron 를마닐라만으로보내는것이적절하겠다고 썼다. 동시에그는자신과뜻이맞는조지듀이제독이소함대의지휘권을맡도록조치했다. 1898년 2월말, 루스벨트는듀이에게작전지지를홍콩으로옮기라는지시를내렸다. 아바나항에서 USS ‘메인’군함 — 스페인을위협하기위해그곳에파견했던 — 이폭발한흥미로운사건이후마침내 4월 25일선전포고기워지자듀이는공식전보를받은지한시간도채되지않아필리핀을향해뱃을올렸다. 5월 1일, 그는마닐라해안선에서아시아에들어오는곳에서노쇠한스페인함대를무찔렀다. (이시점에서도여전히쿠바에서는아무공격도없었다!) 듀이의초청으로아기날도와그부하들이 19일홍콩으로부터따라왔다. 그러나워싱턴의진짜목적은곧명백해졌다. 아기날도의마닐라진입은금지되는한편, 듀이의부하들은패배한스페인인들과친교를맺기시작했고, 필리핀인들과의관계는꾸준히악화되었다. 아기날도는 6월 12일수도에서가아니라카윗에있는 그의화려한집발코니에서필리핀독립선언을낭독하도록강요당했다. 그후그는곧바로아폴리나리오마비니(Apolinario Mabini) 를수석정치고문으로임명했다.

마비니는비범한인물이었다.⁸⁸ 리살보다 3년늦게태어난그는바탕가시지역빈농의자식으로, 짧은생애동안정말로단한푼도자기이름으로가져본적이없었다. 그는산토토마스의총명한법대생이었고, 실패로끝난리살의리가필리핀사회원이기도했다. 스페인어는유창했지만그는해외에서공부할수단도, 그리고아마도그리고싶은생각도없었다. 그가단 한번조국을떠나게되는것은미국인들에의해광의정치범수용소로추방되었을때의일이다. 1896년류머티스열인지, 소아마비인지확실치않은재난이닥쳐허리아래반신이마비되었는데, 이조건으로인해그는플라비에하의광포함에서살아남을수있었다. 아기날도가홍콩에서안식을취하고있던 1898년상반기에마비니는혁명을옹호하며쓴열정적인혁명적선언문들로찬사를받았다. 수령이그를카비테로소환했을때에는수백명의사람들이로스바뇨스온천으로부터혁명지도자의본부까지돌아가며들것을옮겼다. 마비니는아기날도정부의포고령거의전부를입안하고집필했으며, 그가아기날도총리로권좌에남아있었던그중대한해에그집행도효과적으로처리했다. 강철의의지를가진남자였던마비니는또한헌신적인애국자이기도했으며, 리살직후시기의최고지도자들중혁명이살아

⁸⁸ 훌륭하고도긴요한자료의출처는여전히본래 1960년에출판된 Cesar Adib Majul, Mabini and the Philippine Revolution(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96) 이다.

진전되었고, 오고가던여러장의연애편지중하나가옛보기좋아하는신부들에게가로채이기에이르렀다. Angel Estrada and Vicente del Garmen trans., *The World of Felix Roxas*(Manila: Filipiniana Book Guild, 1970), p.330 참조. 이책은로하스가 1906~36 사이 *El Debate* 에스페인어로쓴칼럼들의영역본이다.

만일이것이진짜라면, 그리고 4,000 페소라는것은꾸며낸말같이들리지는않는데, 그것은이중국인창부들이리살이마닐라에서열여섯살때는남학생이있을때그거리를활보하고있었다는것을의미한다. 대도시의 10 대남학생들이그렇듯이, 리살의동급생들이장사에대해모르고있었을것같지않다. 당시마닐라시의재정기록이아직도존재하고있다면이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리살은우리에게그가이거대한작품의스페인어번역본을 10 페세타주고했으며, 뒤마와호라티우스의작품들에는 2.50 페세타를지불했다고말한다. 그의 *Diario de Madrid, in Diarios y memorias*, p.114 에실린 1884년 1월 6일자일기를참조. 1월 25일그는책을마끔냈다고기록하면서다음과같이의미심장한언급을남긴다. “이소설은재능과철저한계획의독특한산물로서, 가장치밀하고도교묘하다는점에서나에게인상을남긴작품에들어간다. 이소설은라마르탱(LAMARTINE)의달콤한언어처럼가슴을향해말하지않는다. 이소설은위압하고, 지배하고, 당황케하고, 가라앉히지만, (나를) 울게하지는않는다. 그이유가내가단련되었기때문인지, 잘모르겠다.”같은책, p.118.

다른국제적인점역시짚고넘어가야하겠다. 천권의가족서재를쌓아올린사람들은명백히리살의부모님이다. 우리는리살이 1883년 6월 21일과 8월 2일사이파리로의첫여행동안집에보낸네장의편지로부터그들의폭넓은교양을이해할수있다. 그는노트르담에가는것, 그리고빅토르위고의동명소설을떠올리게된것을묘사한다. 그는뤽상부르궁전에있는티치아노와라파엘로, 다빈치의작품들을사랑한다. 그는팡테옹에있는루소와볼테르의묘지로순례를간다. 그는루브르근처를정치지않고 걸으며그일부가 1871년코뮌에의해불타다는것에잠시주의를돌리기도하고, 티치아노와코레조, 로이스달, 루벤스, 무리요, 벨라스케스, 리베라, 반다이크, 라파엘로와다빈치, 그리고밀로의비너스에경탄한다. 그는심지어위고와‘알폰소’도데, ‘에밀리오’졸라, 아라비(파샤), 비스마르크, 가리발디, 차르‘알레한드로’2세와 3세의밀랍인형을보러그레뱅박물관에가기까지한다. 인상적인점은그가이이름중아무것에대해서도 설명하지않으며, 명백히그럴필요를느끼지못한다는점이다. 그의부모는이미이들과완벽하게친숙했다. 주 52) 에인용된 *Escritos de José Rizal* 제 1 권에서 *Cartas á sus padres y hermanos* 를보라.

원래해적(buccaneer, pirate) 을의미하는네덜란드어인 vrijbouter(나중에는영어로 freebooter) 에서파생된 ‘필리부스터

후기

2004년 1월, 나는 급진 민족주의 경향으로 유명하며 1968년 말에 창당된 (일로카노인) 호세 마리아 시손 (José María Sison) 의 마오주의 '신新' 공산당의 영향력이 아직 꽤 강하게 남아있는 필리핀 대학에 초청을 받아 이 책의 주제 중 몇 가지에 대해 사전 강연을 했다. 너무 빨리 도착한 나는 캠퍼스의 야외 커피 노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젊은이 한 명이 손님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러 다가왔는데, 모두들 그저 무심히 받아들였다가 그가 떠나자마자 버리곤 했다. 시선이 한쪽짜리 글의 제목에 닿기 도전에 나는 나도 똑같이 할 참이었다. "지도자 없이 조직하라!" 내용을 읽어보니 '수평적'인 조직적 연대의 이름으로 보스들이 지배하는 정당 정치, 자본주의 기업, 그리고 마오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위계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유인물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문의처로 웹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나 혼자만 갖고 있었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뜻밖의 발견이었다. 나는 이것을 강연의 청중에게 커다란 소리로 읽어 주었는데, 거의 모두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강연을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복사를 요청했다. 리살이 사면의 테마파크를 보고 기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벨로 가이 유인물에 매료되었으리라는 것, 그리고 manila.indymedia.org 웹사이트를 탐험하기 위해 노트북을 급히 열었으리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다. 그는 이 웹사이트가 세계 전역에 걸쳐 있는 수십 개의 동류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는 것도 발견했을 것이다. 늦은 세계화인가?

※ 괄호 안에서 'yonder'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물론, 이하 하나의 단어가 둘 사이의 논쟁에서, 그리고 그의 사고의 진전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강조이겠지만, 원문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이자 시인이었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 (Gerard Manley Hopkins) 작품 <납의 메아리와 금의 메아리 The Leaden Echo and The Golden Echo> (Maiden's Song from St. Winefred's Well) 의 마지막 행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시에서는 사라져 가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절망을 노래하는 '납의 메아리'에게 '금의 메아리'가 방법은 있다, '저편 yonder' 즉 신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대꾸한다. -역자주

말할 것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연극의 모든 역할은 10대 소년들이 맡았다. 로하스가 쓰기를, 사춘기가 사춘기이다 보니, 열정적인 관계들이

남는데는 대중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국소 수에 속하는 동시에, 일찍이 혁명이 일루스트라도들과 부자들 대부분으로부터 배반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비니가 권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규모의 미국 군대가 쿠바에 상륙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6주 후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적대는 끝났고, 워싱턴은 그 섬의 사실상의 주인이 되었다. 다음 차례는 필리핀의 양도였다. 그해 말 미국과 스페인은 마드리드가 2000만 달러를 받고 이 식민지를 워싱턴에 '판다'는 내용이 담긴 파리 조약에서 명했다. (독일은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의 대부분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그러는 동안 아기날도의 임시 수도인 (볼라칸 지역의) 말로로스에서 필리핀 국가가 소집되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했으며, 마비니를 총리로 격상시켰다. 루손 이외의 섬들에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대적인 역량이 투입되었으며, 최남단 무슬림 지역을 제외하고는 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899년 2월 필리핀-미국 전쟁이 발발했다. 필리핀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무기 부족으로 재래전에서는 새로운 적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비니가 5월 미국인들과 손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교활한 일루스트라도도 당에 해권력에서 밀려났다. 참모총장이자 새로운 식민지 지배자들에게 리라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해 명확한 전략적 비전이 있었던 유일한 필리핀인 장군이었던 안토니오 루나는 6월 일로카노인이 마침내는 권력을 쥘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아기날도와 그의 패거리에게 암살당했다. 아기날도가 루손 산악 지대에서 불잡혀 곧바로 워싱턴에 충성을 맹세한 1901년 3월,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다른 장군들은 한해 더 싸움을 계속했고, 대중적인 무장 저항 운동은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의 세부 사항은 충분히 연구되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지체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는 두 가지만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리살의 처형으로부터 2주년이 되는 날 전야에 아기날도는 이제부터 이 나라의 민족 영웅 National Hero 이 죽은 날이 돌아올 때마다 전인구가 애도해야 한다는 포고를 내렸다. 리살의 소설들 제목을 새긴 두 개의 작은 돌 Masonic 기둥이 가장 초기의 기념물로 아직도 루손 남동부 비콜 Bicol 반도의, 태풍이 자주 몰아치는 다엣 Dáet 시에 남아 있다. 둘째, 쿠바에서 웨일레르가 시행한 '인구 집결 concentration of populations' 정책을, 그것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 집결 지구에서 많은 수의 필리핀인들이 영양 실조와 질병 및 죄수의 고문이 일상적이었던 무자비한 대게릴라 전투로 사망했다.⁸⁹

⁸⁹ Leon Wolff, Little Brown Brother (New York: Doubleday, 1961) 참조.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Celerina G. Balucan, "War Atrocities", Kasaysayan, 1: 4 (Decem-

세계화된 신사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필리핀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해외 사절 중 한 명으로서 폰세가 교환했던 서신들에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전에, 그가 사망한 지 꽤 지난 기간 행된 그의 서간집에는 폰세 자신이 쓴 편지들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발췌본의 원본 편지들과 그와 서신을 주고받았던 이들이 쓴 편지들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이 편지들이 무단으로 삭제 및 정정된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편지들이 생략된 것인지 확실히 결론지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편찬자인 테오도로 칼라우 [Teodoro Kalaw] 는 혁명이후 세대 해속한 재래식의 주류 민족주의자이자 정치가로, 혁명운동의 지저분한 빨래를 대중이 보는 곳에 넣어 놓기를 꺼렸던 것 같다. 인쇄되어 나온 선집에서 주목할 점은 폰세가 친족들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들, 어떤 식으로든 아기 날도 예비 판적이었던 편지들, 그리고 주로 홍콩에서,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종한 ‘지도자들’이 부린 — 다른 출처를 통해 잘 알려진 — 술책과 재정적 속임수들에 관한 서신들의 부재이다.)

1897년 5월을 시작으로 하여 1900년 3월에 끝나는, 모두 243 통의 편지가 있다. (이하) 두 개의 표를 통해 독자들은 폰세와 서신을 교환한 이들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적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스페인, 영국, 미국 스파이들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폰세 자신처럼) 하나나 그 이상의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 가명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인물들 모두의 실체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표 1〉 서신교환자의 국적 (기재된 곳 기준)

필리핀인

|

28

|

네덜란드인

|

ber 2001), pp.34~54 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바탕가스도의 교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Glenn May, *Battle for Batangas: A Philippine Province at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는 울프가 이야기하는 ‘50 만명’의 사망자는 과장이며, 상당수의 사망은 흉년, 가축의 병, 기후의 변동 등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대게릴라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와 마리아 노 폰세. 지금은 필리핀에서조차 거의 잊혀진 좋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이른 세계화 시대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무한하게 얽힌 대륙간 네트워크의 결정적인 마디였다.

가줄라의 최신작 『파리』를 한부보내달라고 여러번 간청하며 베르헬데 오스에게 보낸 연속 세 통의, 점점 신경질적이 되어가는 편지들이었다.¹⁴⁴ 게다가 폰세는 필리핀 문제를 다룬 자신의 책 일본어판에 리살의 마지막 시를 원본 스페인어 텍스트 그대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본의 흥미로운 특징은 본문은 일반적 인한자와 히라가나의 혼용으로 쓰여 있는 반면 서론은 순수한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번역자들 중의 하나 또는 둘 모두가 한문에 능했던 만큼, 이들이 거의 동시에 나온 중국어판 본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추측이 옳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량치차오의 번역본은 미야모토와 포우지타의 번역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쪽의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들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더 격조 높은 번안일 것이다. 아직 성가시게 남아 있는 부분적인 문제는 량치차오와 폰세가 분명히 일본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폰세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신에서 량치차오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901년 11월과 12월, 신문의 자극에 힘입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량치차오의 자극에 힘입어, 쉬옌판쯔(宣樊子)¹⁴⁵가 “필리핀 붕기”라는 5부작 시리즈를 「항주 백화보」에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1903년 일본에서 발행되는 량치차오의 영향력 있는 잡지 「신민 총보」에 리살의 전기가 실린다. 루쉰이 이후 『내마지막 안녕』과 『놀리메탕헤레』를 언급한 것, 리살을 산도르 페토퍼(Sándor Petöfi) 및 아담 미츠키에비치(Adam Mickiewicz)와 묶어 위대한 애국자 시인의 반열에 올린 것, 루쉰의 제자인 리지예가 1920년대에 리살의 고별시를 새로 번역한 것 등은 이러한 기사들로부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¹⁴⁶ 한 세대가 지난 1940년대, 파와외 환생차오 푸메이는 일본 점령군에 맞선 토착 필리핀인들의 좌파 후크발라 운동과 연합한 화교 항일 유격대에서 싸웠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노년에 이른 그는 두아이(杜埃)라는 필명으로 전시 경험을 세권의 책으로 소설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풍우 태평양』이 전개되는 도중 리살의 고별시는 전문 또는 상당한 부분으로 적어도 4번 인용되며, ‘최초의 필리핀인’이나 여성 전사로 등장하는 조세핀 블랙켄이 페이지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다.¹⁴⁷ 리살의 피에 푸젠인의 혈통이 섞여 있었기는 했지만, 그가 가끔 중국인에 관해서는 가벼운 인종주의 같은 것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그러나 리살의 이러한 경향은 ‘헝가리’의 소수 민족에 대한 페토퍼의 독기 서린 악의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이었다.)

¹⁴⁴ 같은 책, pp.162~64; 232~35, 244~45.

¹⁴⁵ 본명은 린시에(林燾, 1874~1926)이다.

¹⁴⁶ 중국에서의 리살의 초기 수용에 대한 이 정보들을 제공해 준 왕후이에게 감사사를 전한다.

¹⁴⁷ 제 1권은 1983년 광저우에서 출판되었으며, 제 2권은 그가 죽기 전 해인 1991년 베이징에서 나왔다. 제 3권 전권은 미망인의 감독하에 2002년 이루어져 서야주하이에서 나왔다. 이 이상적인 여운을 남기는 정보에 대해 캐럴 하우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1
일본인	
	17
포르투갈인	
	1
스페인인	
	5
영국인	
	1
쿠바인	
	185

4	
미국인	
1	
불명	
3	
캐나다인	
1	
오스트리아-헝가리인	
2	
중국인	
1	
186	

있다. 특히 리살의 마지막 시를 옮긴 40 종에 달하는 중국어 번역본 대부분이 푸젠인들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렇지만 최초의 번역은 다름 아닌 량치차오가 1901 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했던 것 같다. 량치차오가 리살보다 열두 살 어리고, 이 필리핀인이 처형당했을 때 겨우 스물세 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벼운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다. 리살처럼 총명한 젊은이였던 그는 일본인들의 손에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드러난 중국의 상태에 대항한 방면의 비판적 논설을 통해 저명한 1898 년 백일유신의 핵심적인 물로 올라섰다. 그러나 서태후가 반격에 나서자 량치차오는 다른 여러 명의 자유주의자 및 진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일본으로 도망쳐야 했다. 어떻게 그가 리살의 시를 번역하게 되었는가는 여전히 확실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몇 가지는 확실하다. 량치차오는 푸젠인이 아니라 광둥인이었고, 게다가 10 대 후반부터 베이징에 살았다. 샤먼이 그의 저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수행했으리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는다. 그는 레베카 칼이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은 저술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신문들로부터 리살의 죽음에 대해 알았겠지만, 신문에는 보통 긴 시가 실리지 않고, 독자들 중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언어로 된 시라면 더더욱 그렇다.

상황 증거는 이렇게 보인다. 폰세는 리살의 친한 친구였고 그를 추모하는데 매우 헌신적이었다. 1898 년 10 월 13 일 그는 에두아르트 슐러박사(스페인어와 독일어를 모두 구사했을 것 같은)에게 리살의 마지막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과 이것이 리살이 회원이었던 인류학회 Anthropologische Gesellschaft 회보에 게재될 일 대해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쓴다.¹⁴¹ 1899 년 2 월 28 일 폰세는 아파시블레에게 리살의 작품을 일본에서 재발행하려는 계획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인쇄업자는 슈에이바인데, 나와 있는 판본 대신 원고를 사용하면 수고와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언급한다.¹⁴² 우리는 또한 쉰원을 만나기 한참 전인 1898 년 11 월에 폰세가 일찍이 중국인 ‘개혁파’와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898 년 11 월 19 일 자편지에서 그는 전날 밤, 자신을 중국 개혁당 partido reformista 지도자 강유웨이(강유웨이)의 개인 비서라고 소개하는 ‘룽 타이캉’을 만났는데, 5 월 25 일 일본에도 착한 그는 ‘관한’ 황제(즉 광서제)를 제위에 앉히려는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아파시블레에게 이야기한다.¹⁴³ 이 사람이 파와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폰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룽 타이캉’은 틀림없이 푸젠인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일루스트라도 사이에서는 대체로 드물었던 폰세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증거로, 그

¹⁴¹ Ponce, Cartas, pp.210~11. 폰세는 이 번역에 대해 블루멘트리트에게 들었다고 덧붙이는데, 블루멘트리트는 틀림없이 이 작업의 막후에 있었을 것이다.

¹⁴² 같은 책, pp.288~89. 그러니 폰세는 원고를 지니고 있었거나 입수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은 일본어본이 아니라 스페인어본일 것이다.

¹⁴³ 같은 책, pp.223~25.

militerisme et la société moderne』(1899)와 샤를알베르의 『자유연애 L'Amour libre』(1898)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져 나온다.

우리가 적어도 아나키스트풍인 『엘 필리부스테리스토』가 뒤이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호비타 카스트로가 지적했듯이, 뤼카와 셴파우의 『놀리메탕헤레』는 결코 충실한 번역본이 아니었다. 독자에게 방백을 던지는 유혹적인 냉소 narquois 는 전부 제거되었고, 필리핀 민화와 전설에 관련된 이야기나 희미하게라도 에로틱한 것도 모두 없어졌다. 교단에 대한 독설적인 공격도 마찬가지로 분명치 않은 이유로 하여 순화되었다.¹³⁹ 그 결과 소설은 ‘어떤’ 식민지 사회에 대한 단조로운 사회학적 sociologique 묘사로 변형되었다. 『놀리메탕헤레』가 이틀 읽어도 좋은 뜻에서의 무단정정을 겪어야 했다 하면, 그 선동적인 속편은 아나키즘(생디칼리즘과 손을 잡고)이,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행동에 의한 선전’의 시대를 떠났다는 것을 삼키기 힘들었으리라 고 추측할 수 있겠다.

동쪽의 저녁놀: 마리아노 폰세

필리핀 시내의 광장을 꾸미는 리살 동상은 수백개가 있고, 미국 지배기에(미국이 하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처형당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인상적인 추모비가 그 절정을 이룬다. 스페인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리를 흔히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외판구석에서 있는 조그마한 조상들과 시카고에 있는 더 큰 것 말고는 별 것이 없다. 아마 아무지와 무관심은 소설가 자신이 신의 나라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것에 대한 세계 패권국 쪽의 무의식적인 대응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¹⁴⁰

그러나 지금 샤먼(廈門, Amoy)에는 새로 지은 커다란 리살 테마파크가 있는데, 지금은 단 것은 주로 그곳의 항구로부터 마닐라 행 배에 오른 조상들을 둔 부유한 푸젠 출신 중국계 필리핀인들이다. 상업적인 동기는 제쳐놓더라도, 여기에는 꽤 재미있는, 그리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다른 어떤 것이

¹³⁹ 그의 번역본인 N'y touchez pas! 서문중 pp.31~35 참조.

¹⁴⁰ 1888 년 늦은 봄의 미국 횡단을 기록한 리살의 간단한 여행기를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샌프란시스코 만에 일주일 넘게 격리되어 있던 그는, 그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광객으로 사흘을 보낸 후 대륙 횡단 열차의 시발점인 오클랜드로 가는 배를 탔다. 다음날인 5월 7일 일요일, 그는 여행길에 올랐고 새크라멘토와 모르몬교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지나쳐 덴버로 향했다(5월 9일). 기차는 5월 11일 이른 아침 시카고에 닿았고, 그날 저녁 뉴욕으로 떠났다. 시카고에 대한 리살의 유일한 코멘트는 “담배 가게마다 앞에 인디오(indio, 원문 표기 그대로) 상을 세워놓았는데,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뿐이다. 그는 5월 13일 맨해튼에도 도착했고, 16일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자유의 여신상의 본고장에 대해 그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Diarios y Memorias, pp.217~20 참조.

〈표 2〉 나라/국가별 서신 교환자들의 주소

일본	18(적어도 반은 도쿄)
오스트리아-헝가리	2(드레스덴, 라이트메리츠)
스페인	9(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 반반)
마카오	12
싱가포르	187

1
필리핀
6(다양함)
네덜란드
1
불명
6
멕시코
1
홍콩
188

서쪽의저녁놀: 이사벨로데로스레예스

이사벨로는, 그의일로카노애국심을 싫어했고그가너무많이, 너무 빨리, 깊이는상관치않고써댄다고생각했던리살에게이따금경멸적인취급을받았지만, 이민족학자는사소한것에대해오래곱씹는타입이아니었고, 무엇보다도리살의업적을무척존경했다. 「필리피나스안테에우로파」는소설에대해서는거의언급하지않으면서도, 중중리살을모범적인애국자로다루는기사를신공했다. 그러나겉모습은언제나기만적일수있다. 이미 1899 년에스페인어가아닌언어로된 『놀리메탕헤레』의첫번째번역본이 (틀림없이열사의명령을기쁘게했을만한곳인) 파리에서출판되었다.¹³⁸ 이사벨로가여기에전혀관여하지않았을리가없는데, 두공동번역자중한사람이그의오랜민주익감방동료라몬셈파우였기때문이다. 다른한사람은앙리뤼카라는프랑스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였던것같다. ‘수사의나라 Au Pays des Moines’라는조금은침울한제목로나온이번역본은 「라르뷔블랑슈」 에피에르-빅토르스톡(Pierre-Victor Stock) 사회학총서 Bibliothéque Sociologique 시리즈 25 권이라고광고가났는데, 1708 년까지그역사가거슬러올라가는출판사를물려받은스톡은이이름으로 1892 년과 1921 년사이에아나키스트책들을긴시리즈로냈다. 카탈로그는매혹적이다. 제 1 권 (1892) 은크로포트킨의 『빵의쟁취 La Conquête du pain』 이고, 뒤이어장그라브의 『죽어가는사회와아나키 La Société mourante et l’anarchie』 (1894), 프랑스인아나키스트샤를말라토의 『코뮌에서아나키까지 De la Commune á l’anarchie』 (1895), 바쿠닌 『선집選集』 제 1 권 (1895), 그라브의 『미래사회 La Société future』 (1895),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의철학과이상 L’Anarchie: sa philosophie, son idéal』 (1896), 조르주다리앵 (George Darien) 의 『비리비: 아프리카의군대 Biribi: armée d’Afrique』 (1898), 네덜란드인페르디난트도멜라니우엔하위스 (Ferdinand Domela Nieuwenhuis) 의 『위험에빠진사회주의 Le Socialisme en danger』 (1897), 타리다의 『스페인의종교재판관들: 몬주익, 쿠바, 필리핀 Les Inquisiteurs d’Espagne: Montjuich, Cuba, Philippines』 (1897), 엘리제르클뤼의 『진화, 혁명, 아나키즘의이상 L’Évolution, la révolution et l’idéal anarchique』 (1897), 루이즈미셸의 『코뮌 La Commune』 (연도미상) 이어져진다. 그리고아나키즘의때라고는전혀묻어있지않은리살의소설이이탈리아인역사가굴리엘모페레로 (Guglielmo Ferrero) 의 『군사주의와현대사회 Le

¹³⁸ 내가입수했던판본은 1899 년에인쇄된것인데, 책의앞부분에이것이벌써 3 켤라고나와있으니 1898 년후반에초판이나왔을가능성은충분하다.

인마르크스주의사회당의나이든설립자파블로이글레시아스가쓴 『노동자계몽 La Ilustración obrera』의타갈로그어편역본을발표한다. 한편이사벨로는미국인들이교단에게혁명이몰수한토지를돌려줄지도모른다는가능성에경각심을갖는다. 그리하여그는로마가톨릭의로비에반대하는운동및일로카노인동족인혁명적신부그레고리오아글리파이(Gregorio Aglipay)가제1공화국시절설립한민족주의적‘분리파 schismatic’아글리파이교회의조직에힘쓰는쪽으로돌아섰다.¹³⁶ 민주노조는1903년에무너졌지만, 그랫더미한구석으로부터다른여러노동조직들이나왔으며, 마침내1938년통합한사회당과공산당이출현하여일본군대의침략에대항한후크발라합 Hukbalahap 게릴라운동을이끌었고, 최종적으로는미국의조정으로1946년— 다른때언제겠는가?—7월4일에선포된제2공화국에맞서혁명전쟁을수행했다.

1912년, 아마도두번째아내의죽음이끼친슬픔에서벗어나려는노력의일환으로이사벨로는선거무대에뛰어들었고, 임명직미국인들이통제하는마닐라시의회의의원선거에출마하여당선되었다.¹³⁷ 시의원으로서일하는동안그는도시빈민의변함없는옹호자였다. 1922년그는일로코스로드리아와무소속으로상원의원직에도전했다. 늘그랬듯이그의오래된아나키스트친구들의방식대로자신이개인주의자이자집단주의자라고주장했던그는, 마누엘케손(Manuel Quezon)이이끄는, 토호들이우글거리는자배적정당인민족당 Nationalista Party 의자금이풍부한선거조직에맞서스스로도놀란승리를거두었다. 그는말이끄는마차 calesa 를타고의회회의에나타나, 미국기업의이익을늘려줄뿐인차와가솔린에돈을허비하느니마부에게돈을주는것이낫다고말함으로써동료상원의원들을소스라치게했다. 동시에그는남은생애동안노동계급의돈도에살기를고집했으며, 가난한세입자들을위해결코방세가밀린다는이유로내쫓기지않는아파트를세웠다. 1929년발작이와서부분마비증세를나타낸이후부터그는아글리파이교회일에만집중했다. 그는1938년10월10일사망했다.

¹³⁶ 아글리파이는스페인식민지배에대한바티칸의무조건적인지지와혁명운동에대한현지(스페인본국출신)의신부들의격렬한적의에본노하였다. 그의노력은토착인구중더전통적인부분에대한로마의장악력을깨뜨리고자했던아폴리나리오마비니의지지를받았다. 1815년봉기의발생지인북부일로코스의사랏 Sarrat 에가면스페인양식의로마가톨릭성당과그경쟁자인아글리파이교회가이웃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먼저보이는, 십자가에못박힌반개혁적인예수는피투성이로고통에빠져있으며우중충한누더기만을허리에걸치고있다. 두번째예수는그의His 고통을평온하게견디고있으며, 늘씬한몸매에는피가별로묻어있지않고, 수가놓인우아한하늘색공단속바지를입고있다. 이사벨로의경쾌한작품인지도모르겠다.

¹³⁷ 이문단은 Llane, The Life, pp.22~32 에의존하고있다.

5
캐나다
1(몬트리올)
프랑스
5(모두파리)
독일
1(베를린)
미국
5(뉴올리언스, 뉴욕, ‘펜실베이니아’)
중국
1(상하이)
189

편지의 거의 50 퍼센트 정도가 다섯 명을 향한 것이다. 갈리카노 아파시블레 (Galicano Apacible, 폰세가 일본으로 떠난 이후 홍콩의 일을 넘겨받은 인물) 43, 블루멘트리트 39, 베르헬 데 디오스 (Vergel de Dios, 폰세가 파리의 쿠바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주로 접촉한 인물) 15, ‘이포르텔’ (Ifortel, 아마라파엘 데판 [Rafael de Pan] 이었던 것 같고, 주소가 불명확한 인물) 12, 펠리페 아곤실로 (Felipe Agoncillo, 야기날도의 좌절 한 미국 대표) 11.

언어들 역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폰세는 스페인인들, 쿠바인들, 푸에르토리코인들, 필리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스페인어를 썼는데, 세 가지 재미있는 점이 덧붙여져야 한다. 블루멘트리트와 주고 받은 편지는 모두 스페인어로 되어 있었고, 그의 일본어 번역자 ‘포우지타 (Foujita)’ 및 일본인 외교관으로서 마닐라에 정찰 임무를 갔을 때, 그리고 나중 에멕시코에 있을 때에 폰세의 편지를 받은 미우라 아라히로 (Miura Arajiro) 에게 쓴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폰세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일본인 서신 교환자들과 영국인 한 명, 네덜란드인 한 명, 미국인 한 명, 캐나다인 한 명, 독일인 한 명, 오스트리아-헝가리인 한 명에게는 홍콩에서 공통스럽게 배운 영어를 사용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타갈로그어로만 되어 있는 편지들은 오직 야기날도에게 보낸 두 통뿐이라는 것이다 (스페인어 편지에서 타갈로그어로 된 문장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는 수령의 제국 언어 구사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두개를 비교해보면, 또 다른 것들이 아주 명백해진다. 첫 번째는 필리핀인과 쿠바인 디아스포라의 범위로서, 폰세는 뉴올리언스, 파리, 홍콩, 바르셀로나, 상하이, 마드리드, 요코하마, 마카오의 필리핀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며, 뉴욕과 파리에 있는 쿠바인들과도 접촉했지만, 아바나의 쿠바인들과는 전혀, 또한 스페인의 쿠바인들과는 실질적으로 접촉이 없었다. 특별한 흥미를 자아내는 다른 점도 있다. 스페인어로 글을 쓸 때, 폰세는 보통 19 세기 스페인 식의 극존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가까운 게 느끼던 두 명의 앤틸리스인인 파리의 베탄세와 호세 이스키에르도에게는,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받는 사람을 “나의 존경하는 교회 형제님 *mi distinguidísimo correligionario*” 과 “나의 친애하는 교회 형제님 *mi querido correligionario*” 이라는 어구로 칭했으며, 이 장난스러운 교회 형제님이 의미한 것은 명백히 ‘동료 (필리핀인이 아닌) 민족주의자’였다.

서간집에서 한 발짝 물러서 그 주위 상황을 고찰한다면, 그들 ‘세계화’의 한계가 그 부재로 인해 드러난다. 폰세는 아바나와 워싱턴을 비롯한 신세계

는다.) 또한 이사벨로는 거리와 마을 *barrio* 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억센 문화에도 완벽하게 친숙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사벨로는 먼저 인쇄공들을 조직했다. 그러나 그가 조직적 과업으로 거둔 성공은 다른 부분들의 모방을 부추겨, 노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르셀로나 식의 자유분방한 중앙본부, 타리다의 ‘형용사가 붙지 않은 아나키즘’을 기쁘게 할 만 한 민주노조 (Unión Obrera Democrática, UOD) 가 되었다. 미국 지배자들은 마닐라와 그 외곽에서 거대한 과업의 물결이 일어나고, 자본가들도 행정관들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바라보았다.¹³² 미국인들은 또한 이사벨로의 방법 중 일부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해했다. 거리 시위는 그가 레오 옥스의 바르셀로나에서 권총을 휘두르고 다니던 시절 배운 것이었다. 그러나 강연과 결합된 일련의 대중적 무도회를 개최하여 과업 참가자들과 그의 조직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미국인들과 그들에게 부여하는 엘리트 필리핀인들에게 적대적인 주제로 사르수엘라¹³³를 비롯한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 그는 축제와 춤·연극·음악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열정에 교묘하게 박자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¹³⁴ 이윽고 지배자들은 이사벨로를 노동계에서 추방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902년 6월 말 그는 체포되어 ‘노동 음모 *labor conspiracy*’ 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판사가 보기에 조차 검사 측 증인 여럿이 매수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징역 4 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그쳤다. 감옥으로 가기 전에 그는 노동계 급지 역도도에 새로 만들어진 노동자 클럽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첫 번째 로 그의 뒤를 이은 것은 스페인에서 같이 돌아온 도미니고 메스 (Dominador Gómez) 로서, 「연대」 패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사벨로의 「필리피나스 안테에 우로파」에서 같이 일했으며, 곧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이름에 부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인물이었다.¹³⁵ 이윽고 그의 비서인 에르메네힐도 크루스 (Hermenegildo Cruz) 가 뒤를 잇게 되는데, 크루스는 열두살이 되도록 읽고 쓸 줄 몰랐던 빈민가의 소년으로, 이사벨로의 작은 서재에서 독서를 하면서 의식 있는 노동자 *obrero consciente* 로 훌륭히 성장했다. 조직 활동이 외에도 크루스는 엘리제르 클뤼의 아나키스트 저작 『인간과 지구 *L'Homme et la terre*』 의 스페인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주석 및 스페

¹³² Scott 의 *The Unión Obrera Democrática* 에서 “The Strikes”(pp.35~41) 장을 참조.

¹³³ 스페인식 오페레타

¹³⁴ 이사벨로는 이 행사들을 꾸밈없이 ‘*veladas instructivo-recreativas*’ 라고 불렀는데, ‘교육적·오락적 야회’ 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¹³⁵ 고메스는 쿠바에 간 극소수의 필리핀인들 중 하나였다. 전에 마드리드의 의학도였던 그는 그곳에서, 리살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스페인 군대의 의료 부대에 배속되어 일했다. Schumacher, *The Propaganda Movement*, p.190, n.12.

각금지처분을내렸으며, 그가추진하던민족당 Partio Nacionalista 역
시금지하였다.

그러나그는쉽게억누를수있는사람이아니었다. 노년에그는“악명높
은문주의요새에나와함께수감되어있던바르셀로나의아나키스트들에
게배운관람은생각들을실천으로옮길수있는기회를이용했다”라고회상
했다. 그래서그는프로테스탄트정복자들의코앞에서마닐라의노동계급
을급진화, 조직화하는일에나섰다. 이러한노력에는생각지도않은이
점들을지니고있었다. 그는언제나압도적으로타갈로그인으로이루어진
일루스트라도민족주의인텔리겐치아들에게부분적으로외부자였다. 필
리핀에는봉건적도착국가가가있었던적이없으니엄밀하게는그들이귀족
이었다고할수없지만, 특히강력한봉건적뿌리를가진데다현실은적나라
한부패와그늘진도호지배, 교단의 Orderly 지주제일때에도죽스스로
가봉건적인예쁜 fancy 드레스를입었다고공상 fancy 해온스페인제국
주의를대면하여, 그들은그런방향으로의바람을지니고있었다(특히그
중지주들이). 이사벨로는완전히반대였다. 정직한사업가이자출판업자
·인쇄업자·저널리스트였으며, 하인보다는고용인들을두고있었고, 민주
적인정신으로그들을대우했다. 더유리했던것은우리가이미살펴보았듯
이, 그가검소함과근면함, 솔직한화법, 그리고배타성으로전설적인명성
을지닌중족집단, 일로카노인들의본고장인북부루손지방출신이었던
것이다. (여전히일로코스는리살의고향칼람바남부의산비탈이외에도,
가난한농가마다어김없이꽃과꽃나무들로아름답게가꾸어진조그마한
정원이둘러싸고있는광경을볼수있는필리핀지역중하군데이다.) 그가
민족주의엘리트가운데유일한일로카노인이었던것은아니었지만, 그들
중유일한지방출신자 provinciano 였다. 질투의폭발로아내와장모를
살해하고, ‘치정범죄 crimes passionelles’, 특히예술가들이저지르는
범죄에관심이많은파리에서는중벌을면했지만홍콩에서비참한죽음을
맞은화가후안과, 약제사교육을받고미국인들에대항한전쟁에서가장충
명한장군이되었으며그수고에대한보상으로아기날도패거리에의해암
살당한안토니오, 두명의루나형제도일로카노인이었다. 그러나그들은
둘다마닐라에서자랐으며, 스스로를엘리트스페인·타갈로그문화에동
화시켰다.

중요한점은이것이였다. 리살이경멸스럽다는식으로블루멘트리트
에게이야기했듯이, 19세기후반마닐라의하인계층 Dienstleute 은압
도적으로척박한일로코스출신의근면한이주자들이였다. 『놀리메탕헤
레』나『엘필리부스테리스모』를읽어서는결코추측조차할수없지만,
초보적단계에있는노동계급역시마찬가지였다. 이사벨로는이사람들에
게, 당시교육받은타갈로그인들은사실상아무도모르던, 그들의언어로
이야기할수있었다. (리살이한번이라도필리핀인도시노동자를만나이
야기를나누어본적이있었을까? 그의소설에는노동자가한명도나오지않

의수도에는아무런연락망도갖고있지않았다. 유럽에서가장큰부재는런
던이며, 빈, 로마, 브뤼셀, 리스본, 베오그라드가그뒤를따른다. 아시아
에서그가중요하게연락을취했던중국인들은중국이나아니라일본에있었
으며, 자바에서대의를위해일하고있다는마티아스곤살레스라는사람을
폰세가언급하기는했지만, 인도와아웃동남아시아는거의보이지도않는
다. 정치적으로명백한것은그가좌파와는거의소통이없었다는점이다.
클레망소, 드레퓌스, 타리다, 반데르벨데, 키어하디, 그리고말라테스
타나카탈루냐와안달루시아의아나키스트들은전혀언급되지않으며, 아
예그의화면을벗어나있는것같다. 그가편지를썼던사람들은압도적으로
서구의자유주의적학자들과신문쪽인사들및쿠바인과중국인디아스포
라사회의동료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의경우에만이그림이더흐릿해
진다.

블루멘트리트

1896년 12월 16일 블루멘트리트는파리의파르도데타베라에게그
의평소특성과는무척이나다르게도우둔하고감정적인편지를썼다.

자네가지급필리핀에서반란에가담한이들을비난하며 「폴리티카데
에스파냐 Política de España」에발표한내글을즐겁게읽었다니기쁘
네. 나는이재앙과도같은반란이내게일으킨분노를적절히표현할만한단
어들을스페인어사전에서찾을수가없었네. 이반란의선동자들은법에의
한처벌뿐만아니라필리핀인들의증오와경멸까지도받아마땅하네. 이들
의반역이나라를유혈과불운, 파멸로몰아넣었으니. 온유럽은스페인의
대의에동조하며, 스페인이민족의영광스러운깃발을방어하기위해서양
과동양에서벌이는영웅적인노력들을찬탄하네. 나는자네가이편지를받
았을때쯤이면이정신나간반란이절멸되었으리라 믿네.⁹⁰

의심할바없이블루멘트리트는막역한친구, 산티아고요새의리살에
게무슨일이일어날지에대한생각으로동요되었다. 그가리살의목숨을
구하는데도움을얻으려는희망으로이런종류의다른편지들을스페인에
있는친구들, 동료들에게보내고있었으리라는추측도가능하다. 그러나
1897년 1월의어느날그는, 편지기도착할무렵이면자신은이미죽어있
을것이라고말하는, 리살의마지막편지를받았다. 다른무엇보다도이처
형이오스트리아인학자의마음을바꾸었으며, 그때부터그는혁명의지적
이고꾸준한지지자가되었다.

폰세와블루멘트리트는대면한적은한번도없지만몇년간이나서신을
교환해왔었는데, 블루멘트리트가 「연대」에자주기고를했던데다편집

⁹⁰ 아테네오데마닐라의파르도데타베라장서에서찾은, 원본편지의재타이핑본.

자들에게 항상 자신이 필리핀에 관해 최근에 쓴 학술적 저술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둘의 관계는 극도로 가까워졌다. 블루멘트리트에게 홍콩의 폰세는, 필리핀 자체는 계엄령 아래 있고 유럽 언론은 전반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던 시기, 혁명의 부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로 소식에 밝고 믿을 만한 출처였다. 그 보답으로 블루멘트리트는 폰세에게 세계 정세에 대한 좋은 충고, 특히 미국의 의도와 야망에 대한 어떠한 천진난만한 생각도 버리라는 경고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⁹¹ 블루멘트리트는 폰세의 보고를 이용하여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했을 뿐만 아니라, 폰세가 국제적 학문 세계와는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펜실베이니아, 베를린, 드레스덴, 네덜란드의 활발한 동조자 교수들과 직접 접촉하도록 연결해 주기도 했다.⁹²

엔틸리스인들

폰세의 서간집에는 엔틸리스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편지가 11 통 들어 있었는데, 날짜는 1897년 5월과 1898년 11월 사이로 대부분 1898년 8월의 미국 정복 이전에 발송되었다. 그러므로 이 편지들은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에게 쿠바가 빛나는 사례로, 스페인은 적으로, 미국은 잠정적으로 호의적인 동맹으로 보이던 시기에 쓰인 것이다. 그 대부분은 쿠바인 호세이스키에르도를 수신자로 한 것으로, 둘은 개인적으로 좋은 친구 사이이기도 했을 것이다 — 폰세는 그들이 마드리드의 아테네 오 클럽 회원이었을 무렵 같이 보낸 시간들을 언급한다. 이스키에르도는 베탄세스의 파리 민족주의 진영 외곽 가장자리에 자리잡은 젊은 변호사이자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였다.⁹³ 1897년 5월 11일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그 후 매번 반복된 패턴을 드러낸다. 폰세는 친구에게 필리핀 혁명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었고, 쿠바의 출판물들, 특히 마르티의 선언문과 (게릴라) 전쟁의 원칙들에 대해 막시모 고메스 장군이 쓴 저술들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

⁹¹ 1898년 9월 28일자 편지에서 폰세는 블루멘트리트에게 그의 관점에 동의한다면 서동포들에게 반복적으로 “미국 통치 아래에서 나라의 농업·산업·상업이 풍요롭게 성장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풍요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미국인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한다. Cartas, pp.195~205.

⁹² 특히 베를린의 에두아르도 솔러 (Eduardo Soler) 박사, 펜실베이니아의 대니얼 브렌튼 (Daniel Brenton) 박사, 드레스덴의 A. H. 마이어 (Meyer) 박사, 네덜란드의 지적인 출판인 A. 제잉크 빌링크 (Tjeenk Willink) 를 들 수 있다. 심정을 토로하는 1897년 9월 9일자 편지에서, 폰세는 제잉크 빌링크가 그의 Op de Uitkijk 에 유명한 자바 민속 학자 R. A. 케른 (Kern) 이 쓴 리살을 찬미하는 추모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Cartas, p.34. 나중에 블루멘트리트는 폰세에게 이 잡지에 직접 글을 쓰라고 독려했다.

⁹³ 수백쪽이나 되는 『엘 데스티에로 El destierro』에서 이스키에르도는 단지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사벨로는 1901년 10월 초 마닐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¹³¹ 그는 가방에 아퀴나스와 볼테르, 프루동과 성경, 다윈과 마르크스, 크로포트킨과 말라테스타로 이루어진 작고 색다른 서재를 꾸러 넣었다. 이것이 필리핀에 최초로 들어온 마르크스 및 주요 아나키스트 사상가들의, 그리고 아마도 원까지의 저작이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철두철미한 반대자라는 이사벨로에 대한 평판은 그보다 먼저도 착했다. 점점 불어나고 있는 탐욕스러운 미국 기업들을 대변하던 「마닐라 타임스 Manila Times」는 즉각 그를 위험한 선동자이자 피투성이 아나키스트라고 비난했다. 우연치 않게도, 그 전 달 매킨리 대통령이 스페인 여덟 살의 폴란 드계 미국인이자 아나키스트 대장장이인 레온 출고츠에게 저격당해 숨졌던 것이다. 새로운 식민 정권은 이사벨로가 계획하고 있던 신문 「엘 데펜소르 데 필리피나스」(El Defensor de Filipinas, 필리핀의 옹호자) 에 즉

¹³¹ 필리핀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사벨로 활동에 대한 다음 부분은 주로 스코트의 뛰어난 책에 의존한 것이다. 이사벨로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거의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여전히 논쟁적인) 페르난도 페레르과르디아였다. 1859년 카탈루냐의 부유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페레르는 열네 살의 나이에 “숨막히는 종교적 분위기”에서도 망치기 위해 집을 떠나 이국과 파리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노장 공화주의 음모가 소리아의 비서로 오랫동안 일했다. 프랑스에서 16년을 보낸 후 신념에 찬 아나키스트가 된 그는 1901년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영향력 있는 아나키스트 출판물 La Huelga General 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생이었던 프랑수아 여성이 유산으로 남긴 100만 프랑으로 가능해진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또한 종교와 분리된 진보주의 학교의 모델로 에스쿠엘라 모데르나 Escuela Moderna 를 창립했으며, 이사벨로는 이에 무척 큰 흥미를 가졌다. 나중에 페레르는 알폰소 8세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기도 (1905년 5월 31일 파리, 1906년 5월 31일 마드리드) 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았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1909년 7월 모로코에 파병한 스페인 군대 문제로 제어를 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지자, 안토니오 마우라의 보수 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모든 좌파 클럽과 진보적인 비종교적 학교의 문을 닫고, 아나키스트와 공화주의자의 결사를 금지했다. 페레르는 다시금 체포되었으며, 이번에는 군사법정에서 폭동 교사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는 10월 13일 처형당했다. 마우라 정권은 12일 후 무너졌다. J. Romero Maura, “Terrorism in Barcelona”, pp.141~42, 182~83; Núñez, El terrorismo, p.66. 누네스는 총살대 앞에서 맞은 페레르의 최후에 대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야기를 더한다. 1909년 11월 12일, 처형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나무노는 그의 친구 곤살레스 트리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벗이여, 결과적으로 페레르를 쏜 것은 스페인, 정당한 스페인, 스페인답이네. 그리고 그를 쏜 것은 참 잘한 일이지. 페레르는 의식을 깨우치는 자가 아니라 천치에 다 악인이었네. 그의 학교는 소름이 끼치치. 혐오스러운 교육 방식이야. 그의 가르침은 무서울 만큼 공허한 가학의 면적이야. 그의 글은 그 멍청함으로 머리털을 췌서 게만 든다니까. 선동자가 아니라 방화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범정에서 판결이 난 만큼, 그가 관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네. 이것은 스페인의 정신적인 독립에 대한 문제이자, ‘유럽의 (분노의) 물결’이라고 하는 저 아나키스트, 프리메이슨, 유대인, 과학자, 백치들이 행사하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야. 저들은 오만하게도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려 들고, 판결조차 팔만 권리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그들은 ‘선형적으로’ 페레르가 무죄라고 선언하던군.” 우나무노는 나중에 이 과정이 꽤 뽀아낸 말들 (Daily Telegraphese) 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Núñez, p.150).

미국인반제국주의자들의 운동에 관한 흥분되는 르포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이사벨로의 다른 주요 표적은 마비니를 혁명의 지도부에서 밀어내고는 가장 먼저 새로운 식민지 주인 쪽으로 배를 바꿔타서 넘죽엎드린 저부 유한 일루스트라도들의, 그가 생각하기에는, 변절이었다.¹²⁷ 마비니는 늘 ‘양키들 yankis’에게 굴종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애국적인 충절의 빛나는 사표로 떠받들어졌다. 이민족 학자는 쿠바의 ‘독립’이 완전한 협잡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와 중에서도 그는 보어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리핀 게릴라 전사들에게 배워왔고, 이제 필리핀인들이 보어인들의 건전한 규율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기사를 날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¹²⁸

그러나 1901년 여름 불합리한 아기날도가 재빨리 워싱턴에 충성을 맹세하자 혁명은 끝났다. 맹세를 거부한 걸출한 이들은 — 불구의 마비니를 비롯하여 — 새로운 열대의 시베리아, 광으로 쫓겨났다.¹²⁹ 이사벨로는 더 이상 스페인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첫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여섯 아이들을 4년간이나 보지 못하고 있었다. 1892년의 리살처럼 그는 식민주의자들에게 자신의 귀향을 공손하게 알리면서 그들을 대면하기 위해 돌아갈 것이며, 대략 합법의 영역 내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었다.¹³⁰

¹²⁷ 안타깝게도 이 그룹에는 공화국 입법부의 의원이 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온 파르도 데타베라도 들어 있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미국인들 쪽으로 건너간 것을 카우디요 지배 체제가 이미 만연해 있었으며, 시기상조로 독립을 얻게 되면 필리핀도 남아메리카의 운명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했다.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나이든 바사와 레히도르 역시 미국 예졸을 썼다. 이사벨로는 이 사람들을 꼭 ‘유다들’이라 불렀다. 그의 맹렬한 수사의 좋은 예는 “Contra la traición (변절에 반대한다)”, 같은 책, 1900년 2월 10일자.

¹²⁸ “Organización del ejército boer (보어군대의 조직)”, 같은 책, 1900년 9월 10일자.

¹²⁹ 마비니는 1899년 12월 10일 잡혀 마닐라에 투옥되었다. 그는 감방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논평들을 써냈는데, 일부는 너무 격렬해서 언론이 실어주지 않을 정도였다. 1900년 6월 21일 새로운 식민 정부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는 조건으로 정치범들의 일반 사면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마비니는 여전히 맹세를 거부했다. 그는 10월 3일 잠시 풀려났으나, 필리핀인 부역자들과 미국 정권의 정책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1901년 1월 15일, 장차 총독이 될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필리핀인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타협적인 자”라고 묘사했던 이 사람은 민족주의 투사들과 그들을 시중드는 하인들 (마비니에게는 없었다) 등 60여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음 날 광을 향해 떠나는 배에 태워졌다. 1902년 7월 4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차 사면령을 내렸으며, 이 소식에 광에 닿자 마비니와 다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 고집으로 출발했다. 마침내 1903년 2월 9일, 마비니는 그가 더 이상 전쟁 포로가 아니며 바라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필리핀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 다른 길이었다고 느낀 그는 마닐라에도착하는 즉시 그렇게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석달 뒤인 5월 13일 콜레라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은 이 수도에서 몇 년간 있었던 대중 집회 중 가장 대규모로 치러졌다. Majul, Mabini 의 마지막 장을 참조.

¹³⁰ 「엘 데펜소르 데 필리피나스」의 중간 호인 1901년 10월 1일자 “A mi casa (집으로)”에서, 그는 설득력 있고 겸손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키에르도에게 필리핀으로 향하는 무장원정함대가 그쪽에서 조직될 수 있을지에 관해 충고를 얻고 싶으니 뉴욕의 쿠바 대표단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데까지 나아갔다. 그가 쓴 편지로부터 당시 폰세가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가드러난다. “우리는 아직 미국의 보호를 구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네.” 그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자네들이 우리에게는 형님이요, 우리는 신참인데다 아직 어머니 마하 사업에서 경험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자네들로부터 만언기를 바랄 수 있는 도움과 충고, 지침을 필요로 하네. 치욕의 노예화라는 비극적인 길을 함께 밟아 온 쿠바와 필리핀이 사슬을 박살내는 데에도 함께 해야지.⁹⁴

9월 8일의 두 번째 편지에서 폰세가, 그러한 경우 멕시코가 태평양 항구 중한 군데로부터의 ‘원정’을 허용할 생각은 없겠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스키에르도가 미국에 대한 기대를 꺾었던 것 같다.⁹⁵ 지금으로서는 폰세와 이스키에르도의 연락이 그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기 직전인 1898년 6월의 어느 날, 막 권력을 잡은 — 그러니까 발신인들은, 정세에 밝았던 것이다 — 마비니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뉴욕 뉴스 트리트 81번지 45호실 쿠바 반정부 국이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은 필리핀에 ‘최신 de nueva invención’ 무기를 팔겠다는 제안으로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세 부 사항은 그들의 슬픈 관심을 드러낸다. 운반대가 달린 경량 박격포 125달러, 다이내마이트 폭탄 10개와 화약이 담긴 상자 40달러, 10~20 퍼센트 할인가격. “상자에는 폭탄을 위한 캡슐 12개와 퓨즈 12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는 걸쇠와 경첩이 달려 있고, 손잡이와 가죽 끈이 제공되어 어깨에 메 수 있으며 따라서 운반이 간편합니다.”⁹⁶ 폰세의 이후 편지들은 주로 뉴욕의 쿠바 대표단 (곤살로 데 케사다 [Gonzalo de Quezada]) 과 파리의 이스키에르도에게 아곤실로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아기날도는 그를 언론과의 원들에게 로비를 하도록 미국에, 그리고 나서는 파리 조약으로 이어지는 회담들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에 파견했었다. 두 임무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가장 감동적인 수신들은 정치적인 중요성이라고는 전혀 없는데서 나온다. 1898년 9월 13일 폰세는 홍콩에 있는 아파시블레에게 요코하마로부터 편지를 쓰면서 수신인에 ‘카노이 Kanoy’라고 적어 넣는다. (오늘날 ‘카노이’는 ‘아메리카노 amerikano’에서 파생되어 온, ‘미

⁹⁴ Ponce, Cartas, pp.5~9.

⁹⁵ 같은 책, pp.28~32.

⁹⁶ 이 편지에 마비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수신인을 재치 있게 “Muy Sr nuestro”라고 해 놓았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손에 넣은 미국인들이 이것이 어떤 화제의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야도 틀림 없을 것이다. 편지는 마닐라 국립 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국민 American'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타갈로그어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갈리카노라는 이름의 애정 어린 필리핀화일뿐이다.) 그는 아파시블레에게 —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한 — 베탄세스로부터 두 가지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라구나 지방에서도 지등기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마누엘 로비라이무노스라는 젊은 푸에르토리코 인변호사에 대한 것인데,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아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그의 부모님이 깊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⁹⁷ 베탄세스의 두 번째 요청은 더 복잡했고 19세기 말의 '세계화'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그는 폰세에게 바야돌리드에 갇혀 있는 다섯 명의 쿠바인들과 일곱 명의 필리핀인들이 겪는 비참함에 관해 쿠바인 죄수 중 한 명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척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쿠바인들은 베탄세스 자신도 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런던이나 파리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대표를 찾을 수가 없으니 폰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달라는 요청이었다. 베탄세스의 편지에는 '쿠바인' 죄수가 보낸 편지의 필사본도 들어 있었는데, 그 자체로서 훌륭한 문서이다. 이 편지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만 철자법이 특이하다. 'Valladolid'는 'Balladolid'로, 'Capablanca'는 'Kapa-blanca'로, 'aquí'는 'akí'로, 'cómo'는 'komo'로 나와 있다. 타갈로그어에는 'v' 발음이 없고, 표준 스페인어 알파벳에는 'k'라는 철자가 없다. 아무리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스펠링을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쿠바인이 썼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⁹⁸ 리살이 『엘 필리부스테리스모』 시절에 이미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철자법과는 무척 흡사하다.⁹⁹ 베탄세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실제로 쓴 사람은 틀림없이 필리핀인일 것이며, 아마도 문맹인 쿠바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던 것 같다. 이는 1900년에 스페인과 필리핀의 문맹률이 비슷했으며, 연역적으로 쿠바보다는 필리핀이 훨씬 나았다는 슈메이커의 주장을 훌륭하게 입증하는 일화이다.

⁹⁷ Ponce, Cartas, pp.174~76. 같은 날 폰세는 마비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강력한 편지를 썼으며, 베탄세스를 두고 우리의 "성스러운 대의에 있어 많은 빛을 진" 오래된 동지라고 덧붙인다. 같은 책, pp.177~79. 나중에 이 젊은 이는 필리핀 정부에 의해 역류되어 있었으며, 그렇지만 몸과 마음은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⁹⁸ 제 3 장 주 167) 참조.

⁹⁹ 우리가 아마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은 가난한 타갈로그인들이 리살의 '혁신'을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리살이 가난한 타갈로그인들의 습관으로부터 빌려온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하는 프랑스인들, 이탈리아인들 (나중에 크뤼에르펜에서 보어 전쟁에 참가하는 대위 한 명을 비롯하여), 영국인 몇 명, 상당수의 일본인들, 심지어 주로 흑인인 미국 군대의 탈영병들까지 있었다.¹²²

마닐라로 가는 말라테스타

한편 마드리드의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는 자금을 모아 격주간지의 발행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잡지의 이름을 「필리피나스 안테 에우로파」(Filipinas ante Europa, 유럽을 마주한 필리핀) 라 했으며, "반미? 아니죠! 반제국주의? 맞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Contra Norte-América, no; contra el imperialismo, sí, hasta la muerte"라는 완벽한 편지를 고를 붙였다.¹²³ 한때 델 필라르가 악의적으로 이민족 학자의 '통탄할 생산력'이라 불렀던 것이 유용했는데, 글의 대부분은 그의 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¹²⁴ 제국의 상실과 워싱턴에서 입은 모욕은 스페인 여론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인들에 대한 분노는 필리핀의 대의에 대한 새로운 공감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변화는 이사벨로의 패에 들어맞았는데, 그는 스페인인 친구가 많이 있었고, 막스 페인인 저널리스트와 결혼했으며, 식민 지배의 해악을 주로 교단의 유해한 권력에 돌려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격주간지의 목적은 미국의 제국주의 및 그 기저에 깔린, 그가 매력적이게도 '탐욕 la codicia'이라 이름 붙인 것에 대한 통렬한 공격으로 이러한 수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매킨리는 정복이 필리핀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구상된 것이었다는 그의 타르튀프적인 주장으로 인해 인기 있는 표적이 되었다.¹²⁵ 이사벨로는 미국을 그 인종주의와 린치법을 들어자주 공격했으며, 이것이 백인이 아닌 필리핀인들이 받게 될 대접에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¹²⁶ 그러나 그는 특별한 노력을 하여

¹²² 이 문단은 Dery, "When the World Loved the Filipinos"(Chapter 3, n. 43 참조) 의 화려하고도 상세한 자료를 유감스럽게도 압축해 놓은 것이다.

¹²³ 「필리피나스 안테 에우로파」는 1899년 10월 25일과 1901년 6월 10일 사이에 36호까지 발행되었다. 마드리드 경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이후 잡지는 「엘 데펜소르 데 필리피나스 El Defensor de Filipinas」로 다시 출현했으며, 1901년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왔다.

¹²⁴ Epistolario de Marcelo H. del Pilar (Manila: República de Filipinas, Dept. de Educación, Oficina de Bibliotecas Públicas, 1955), vol. 1, p.20을 인용한 Scott, The Unión Obrera Democrática, p.13 참조.

¹²⁵ 이런 표제가 특징적이다. "Mac-Kinley, embustero ó criminal?(매킨리, 거짓말쟁이인가 범죄자인가?)", Filipinas ante Europa, 1900년 3월 10일자.

¹²⁶ "Negro Porvenir de los filipinos bajo la dominación imperialista(제국주의 지배하 필리핀인들의 흑인과 같은 미래)", 같은 책, 1899년 11월 (정확한 날짜 없음). "흑인들, 그들은 만일 백인 여자들과 사랑에 빠지는 불운을 겪게 될 경우 마치 야수처럼 길거리에서 사냥을 당한다."

났다.¹²⁰ 열여덟살의나이로그는아저씨와함께마닐라로이민을가서숙련된대장장이가되었으며, 중국무예를부업으로삼았다. 그는일찍이그리고열성적으로혁명에참여했으며, 아기날도에게대한총애를받게되었다. 아기날도가아직카비테에서싸우고있을때, 스물네살의이민자는자신의중국인대장장이친구들여러명을모집하여무기부족에심각하게시달리던필리핀군대를위해무기공장을설립하고자도모한다. 테레시타앙시 (Teresita Ang See) 는그의활동을이렇게묘사한다.

그의능숙한감독아래, 적에게서포획한낱은대포와깨진모제르총이수리되었고, 철사로붙인커다란대나무포가제조되었으며, 수많은팔틱(paltik, 조야한화기) 이만들어졌고, 수천개의탄약통이수제화약으로채워졌다.

또한파와는필리핀인들에게금속으로된물건들, 특히교회중 (!) 을녹이는법과무기를만드는법을교육했고, 자신이용맹하고책략이풍부한야전사령관을입증했다. 필리핀인번호사테오도로곤살레스의미간행회고록으로부터인용한다음과같은내용을참조하라. “막사에서그를보는것은이상한광경이었다. 대령제복을입은용감한장교가변발을하고있는모습이라니. 그의병사들은타갈로그인으로서전부노련한전사들이었지만, 그들은그가중국인이라는사실에도불구하고그에게헌신적이었고, 전투에서그의깃발아래싸우는것을자랑스럽게여겼다.”¹²¹ 마지막으로, 아기날도의해지방의중국인들과중국계메스티소들로부터혁명을위한모금을하도록비쿨에파견된그는은화 38 만 6 천페소라는경이적인양을모아냈다.

파와가한인간으로서돌보이기는하나, 그는다양한이유로혁명에참가하거나혁명을지지한비필리핀인가운데한명일뿐이었다. 식민정권에의해게토로밀려나고멀시받았으며중중학대를당하기도한중국인 이민자들에게는스페인인들이사라지기를바랄이유가산더미같이많았다. 그리고미국이쿠바를정복한후, 상당수의젊은스페인인장교들이아기날도의군대에가담하여‘계속싸워나가’고자결심하였다. 참모총장안토니오루나는그들을직속부관, 교관, 요새설계자등의업무에배치함으로써그들이받은전문적인교육을즐겁게이용하였다. 상당수는필리핀-미국전쟁이터졌을때야전사령관으로도훌륭하게복무했다. 혁명의대의에함께한이들중에는또한스페인군대에있던쿠바인몇명과, 이에어깨를나란

¹²⁰ 중국의학자들이진행한최근연구를알려준캐럴하우가이이름을친절하게내게제공해주었다. 이하파와에대한설명은주로 Teresita Ang See, “The Ethnic Chinese in the Filipino-American War and After”, Kasaysayan, 1: 4(December 2001), pp.83~92 에기초한것이다.

¹²¹ 이묘사가정확하다면, 파와는아기날도가그를통역관으로썼던홍콩에도착하자마자땅아늘인머리를잘라냈음에틀림없다. (그는아마푸젠어와타갈로그어, 그리고어쩌면조금의광둥어밖에몰랐을것이고, 따라서수령은그와있을때편안했을것이다.)

일본인들

처음에일본은폰세에게완전한충격이었다. 시간이지나면서충격이사라져결국에는일본여자와행복하게결혼하기는했지만말이다. 1898년 7 월 8 일그는블루멘트리트에게이렇게 썼다.

선생님말씀이맞습니다. 우리가유럽에서얻은모든개념을다무너뜨리는군요. 모든것이알려지지않은세계, 눈으로직접보지않고서는상상조차할수없을, 완벽하게기묘하고이국적인것을드러내니말이지요.¹⁰⁰

일본어를전혀몰랐고 — 폰세는거의모든일본인신교환자들에게영어로편지를썼다 — 메이지후기엘리트들사이의뒤얽힌갈등과음모에대해아무런경험이없었던그는처음에는투기꾼들의손쉬운먹이었다. 야당 — 어떤순간에어떻게구성되어있든간에 — 이, 어떤연립내각이권력을잡고있든간에, ‘백인’강대국들에게는‘약하게’대응하면서착취당하는‘아시아형제들’을도우려하지않는다고여당을비난하는것을, 정치의바퀴가돌아가서야당이여당이되는순간까지는, 즐긴다는것을그가이해하는데에는시간이걸렸다. (일본의조심성에대한이유들은제 4 장에제시되어있다.)

그리고 1899 년 4 월 5 일, 필리핀-미국전쟁이한창일당시, 폰세는원하던대로지속적으로협력할곳을한군데찾았다며홍콩의아파시블레에게편지를썼다. 그가「케이코라니포」(카이카닛포, 개화일보) 라고이야기한행물이“필리핀문제 Cuestiones Filipinas”라는제목아래그의글을장기간연재하기로했다는것이었다. 기적에는단지계약그자체뿐만이아니라, 잡지에서일하는이들중그가‘포우지타소네타카 (Foujita Sonetaka)’라고부르는, 스페인어에꽤유창한사람이있다는것들여간다.¹⁰¹ 폰세는 25 일에아파시블레에게다시편지를써, 자신이그가동방청년협회 Oriental Young Men’s Society 라부른, 인도인, 한국인,

¹⁰⁰ Ponce, Cartas, pp.124~26.

¹⁰¹ 같은책, pp.316~17. 후지타는그시대일본인으로서는드물게코스모폴리탄적인인물이었음에틀림없다. 와세다대학의우메모리나오유키교수는나에게후지타가 1899~1900 년외무성의스페인어번역자로당시정부직원명부 (쇼쿠인로쿠) 에등재되어있었다고알려주었다. 도쿄외국어대학 (당시도쿄외국어학교) 이간행한학교의역사에따르면, 그는 1901 년에이학교스페인어과강사가되었다고한다. 그는같은학교에서말레이와힌두스탄계언어들의집중강의도담당한것으로나온다. Matsumo Akihissa, “Nihon no okeru Malay go no kaishi to tenkai”[일본말레이어교육의시작및전개], Kondo Tatsuo ed., Wagakunini okeru gaikokugo kenkyu/kyoiku no shiteki kosatsu[우리나라외국어교육의역사적고찰](Osaka Gaikokugo Gakko, 1990). 그는 1908 년에영향력있는학자인오우에테츠지로가설립한동아협회라는교육단체에서‘이슬람교의경전’에대해강연하기도했다. (후지타는그곳의회원이었으며, 그명부를보면그가도쿄사람으로서마라이가문출신이었지만대학학위는없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강연은그후협회의저널에두편으로나뉘어실렸다. “Huihuikyuo no keiten ni tsuite”, Toa no Hikari[동아의빛], 3: 4(pp.50~56), 3: 6(pp.78~85).

중국인, 일본인들로구성된단체에서명예회원이된후연설을하도록초청을받아서기쁘다고이야기했다.¹⁰² 그이후곧바로폰세는자신의연재물을교정하고, 중복된내용을없애는등등의작업을거쳐책으로내겠다는분별있는생각을갖게되었다. 글을번역하고출판하는작업을‘포우지타’에게위탁한대신, 그가일본어판저작권을갖기로했다. 폰세가 11월 3일자편지에서“우리의대의로인하여”친구가일본경찰에게시달려서마음이얼마나편치않은지이야기하는것을보면이연재물이나책이곧나온다는소식이‘포우지타’를근경에빠뜨렸던것같다.¹⁰³ 그보다 1주일전에그는마비니의실감을획책한패거리의지도자이자이제아기날도의오른팔이된펠리페부엔카미노 (Felipe Buencamino) 에게쌀쌀한편지를보내시간의제약으로자신의원고를“우리당국의검열 la censura de nuestro Gobierno”에제출할수없겠다고짧게말한바있다.¹⁰⁴ 이책은다음해까지나오지않았으며, 서간집은그보다한참전에마무리된다.¹⁰⁵ (그러나책은이장에서나중에살펴볼결과들을날게된다.)

폰세가역자들에게리살의마지막시의원본스페인어텍스트 — 여기에서는“내마지막생각 Mi Último Pensamiento”이라는제목이붙은 — 를넣어달라고요청했을때, 그는아마자신이열사가된소설가를일본대중에게최초로소개하고있다고생각했을것이다. 그렇다면그는잘못안것이다. 1888년초리살은마닐라로부터런던으로향하던길에일본에 6주간머물렀다 (2월 28일 ~ 4월 13일). 이나라에매혹된그는곧바로일본어뿐만아니라일본화와서예까지배우기시작했다.¹⁰⁶ 샌프란시스코로향하는정기선에서그는아무외국어도이해하지못하여비참하고독에빠져있던스에히로멧츠를만나친구가된다. 이두사람은같이미국횡단여행을했으며, 리버풀을거쳐런던까지가서그곳에서헤어졌다.

스에히로는대단한인물이었다. 리살보다 12년앞서시코쿠섬남서쪽해안의전설적인해적마을우와지마에서태어난그는하급사무라이가문출신이었다. 1875년스물여섯살의나이로수도에서발행되던자유주의

¹⁰² 같은책, pp.333~36. 그동안폰세는한국군주의차남으로서한국의진보주의자들에게최적의왕위계승자라칭송받던 20세의‘two’를만났었다. 폰세는그의젊은이다운열정과자유주의적이상에매료되었다. * 만일폰세가만남사람이정말로그종의아들이라면, 나이등으로따져보았을때가능성이있는것은의친왕이강 (李綱, 1877~1955) 뿐이다.

¹⁰³ 같은책, pp.416~18.

¹⁰⁴ 같은책, p.411. 1899년 10월 26일자편지.

¹⁰⁵ 속표지에는 H[eikuro] Miyamoto and Y.S. Foudzita trans., Cuestion Filipina: una exposition(원문표기그대로) historico-crítica de hechos relativos á la guerra de la independencía 라는이름이붙여져있다. 출판사는도쿄전문학교 (오쿠마의와세다대학의전신) 였다.

¹⁰⁶ 리살의우아한서예작품과일본식으로붓으로그린인상적인그림을찍은사진몇장을보려면 Caesar(원문표기그대로) Z. Lanuza and Gregorio F. Zaide, Rizal in Japan(Tokyo: C.Z. Lanuza, 1961) 참조.

과정비, 군수품제조에지식이있는일본군인들도있었다.¹¹⁶ 나가사키를떠난배는의심을피하기위해중국쪽으로우회했으나, 태풍에발목을잡혀 7월 19일상하이에서 160킬로미터떨어진군도근처에서침몰했다.¹¹⁷

왜쑨원이필리핀을위해이모든고생을떠맡았을까? 두남자사이의진실한우정과는완전히별개로중국지식인들의사고에서혁명이전개되고있었으며, 레베카칼이이에관해훌륭하게서술한바있다. 그런지식인들은중국을서구와미국, 일본에비해훨씬‘뒤떨어진’나라라고보는데에익숙해져있었다. 그러나 1895년무렵부터는전신이현지의신문에쿠바전쟁 (1895~98), 필리핀혁명과미국제국주의에대항한전쟁 (1896~1902), 영국제국주의의전진에대항한보어인들의무장투쟁 (1899~1902) 에관해설명과사진을전송하고있었다. 말하자면, 전에는식자층중국인들에게무시당하거나경멸당하던하찮은민족들이중국보다훨씬‘앞선’그들의단합과용기를바탕으로세대륙에서스스로를나타내 보이고있는것이였다. 같은인접한곳에서일어난필리핀인들의항쟁에따른결과로인텔리겐치아의일부가지제민주주에대항하는그들의투쟁을반식민적인것으로인식하기시작했으며, 처음으로‘혁명’을형상화하게되었다는것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¹¹⁸ 겸손한사람이었던폰세는아마그의책이일본어판으로나오자마자중국어로출판되어단시간내에증쇄를거듭하는것을보고놀랐을것이다. 그러나그는그러지말았어야했다.

파와: 전쟁의국제화

홍콩으로부터‘이포르텔’에게보내는 1898년 2월 19일자편지에서폰세는무장혁명에돌보이게기여한아기날도의측근세명에도착했다고알린다. 둘은잘알려진일루스트라도민족주의자들인미겔말바르 (Miguel Malvar) 와델필라르의조카그레고리오델필라르였다. 그러나세번째인물은그와는전혀달랐다. 폰세는그가“파와대령, 번발을하지않은중국인으로, 엘시드보다더용맹하고, 불타는듯열정적인”사람이라며칭찬한다.¹¹⁹ 호세이그나시오파와 (José Ignacio Pawa) 는 1872년빈곤한푸젠지방마을에서류헝푸 (Liu Heng-fu) 라는이름으로태어

¹¹⁶ 시라이시다카시는나에게다름아닌일본군참모총장이이모든사업의배후에있었으며, 이불운한장교들이배에오르게된것은그의명령에의한것이였다고친절하게알려주었다. 폰세의서신에는그가이사실을알고있었다고추정할만한이야기가없다.

¹¹⁷ Silvino V. Epistola, Hong Kong Junta(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96), pp.123~24 에서폰세가 7월 25일과 26일에아파시블레에게보낸편지들 (Cartas, pp.364~81) 에기초한간결한설명을참조. 미국인들은일본에스파이를두고있었고, 필리핀해역에유능한해군순찰대도유지하고있었다.

¹¹⁸ Rebecca Karl, Staging the World(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2), 특히제 4 장“Recognizing Colonialism: The Philippines and Revolution” 참조.

¹¹⁹ Ponce, Cartas, pp.190~91.

도자인쑤원박사는나의동반자이자모든일에서의조력자였습니다.”¹¹² 폰세보다두살어린쑤원은모험적이기는하지만아직그다지성공적이지는못한삶을살고있었다. 1894년에중국을떠난그는하와이로가흥중회를세웠고 1895년초홍콩으로그본부를옮겼다. 그해 10월, 현지의다양한비밀결사들과동맹한그는광저우에서재난과도같은붕괴를일으켰다. 이제홍콩은그에게는너무뜨거웠기에, 그는유럽으로떠났다. 다음해그는런던에서청정권의요원들에게납치당할뻔한사건으로국제적인명성을얻었다. 그런일이있은후그는대부분의시간을일본에서보내며학생들과정치적망명객들, 사업가들로이루어진거대한중국인사회에서선전과조직활동을했다.

폰세가쑤원을처음으로만난것은 1899년 3월초, 필리핀-미국전쟁이막시작되고필리핀인들이아직버티어내고있을무렵이다. 쑤원을요코하마에있는폰세의집에데려간것은하라타호베이로서, 일찍이호세라모스가일본의귀화시민이되는데도움을주었던도쿄의변호사이자정치브로커이다.¹¹³ 영어로이야기를나눈두젊은민족주의자들(35세와 33세)은곧뜻이맞았고, 이윽고평생지기가되었다.¹¹⁴ 아마중국인혈통이섞였을지도모르고, 그렇지않더라도마닐라에서의학생시절중국인들에패의숙했던폰세가이새로운동료에대해서는기묘하거나이국적인점을조금도찾아내지못했다는것에주목할만하다. 그로부터 4개월밖에지나지않아, 쑤원은유일하게성공적이라고할수있었을뻔한무기의대량선적을주선했다. 그의부유한친구완지가일본인민족주의자로서뜻을같이하던나카무라야로쿠와손을잡고배한척을구입하려했는데그가이거래를중개했으며, 필리핀혁명가들이이배를빌리게되었다. 나가사키에서집을실은‘노누부키마루’호는탄약통 600만개와무라타소총 1만정, 고정포하나, 야전포 10개, 쌍안경 7개, 화약에쓸압축기하나, 탄약에쓸다른압축기하나를싣고항해에올랐다.¹¹⁵ 승객들중에는총포를다루는기술

¹¹² Ponce, Cartas, pp.353~54.

¹¹³ 홍콩에있는아파시블레에게보내는 3월 6일자편지에서, 폰세는쑤원과하라타가지금그에게손님으로와있다고했다. 상당히특이한신발을제외하고는유럽복장을하고멋진코트수염을기른폰세와일본복장을하고더욱멋진코트수염을기른쑤원, 두남자의유명한사진이찍힌것은이만남에서였을것이다. 이사진은편지와함께같은책, pp.292~96에들어있다.

¹¹⁴ 폰세는 1914년쑤원의전기를발표했으며, 1918년 5월 23일갑자기건강이악화되어홍콩에서사망했을당시그를만나러가던중이었다. Filipinos in History 의제 2권 pp.115~16에서폰세항목을참조.

¹¹⁵ 총을발명한사쓰마출신하급사무라이무라타츠네오시를따라명명된무라타소총은최신프랑스모델과독일모델의창조적인결합이었다. 그개량형소총은일본이 1895년중국제국에승리를거두는데결정적인요소였다. 1897년에는아리사카나리아키라의모제르기반소총이이것을대체했다. 쓸모없어진무라타소총이지하무기시장에서많이돌아다니고있었던이유는그러한것이였다. 이주제에대한전문적견해를제공해준츠치야겐이치로에게감사한다.

적인「도쿄아카츠키신문」에서일하기시작했으며, 이윽고주간이되었다. 민주주의와표현의자유를옹호하는운동을억압하는정부를공격하다가투옥된그는건강악화로고생하다가병원에입원했지만, 병상에서젊은이들사이에서대단한성공을거둔정치소설『셋츠티바이(설총매)』를저술했다. 이소설로받은인세돈분에그는 1888년미국과유럽으로“정치공부”여행을떠날수있었다. 그는, 한인간이자비범한어려운어능통자, 정치적이상주의자인리살에게서대단한감명을받았다. 이필리핀인소설가는그의여행기에중심인물로등장하는데, 이책은『오시노료코(병어리의여행)』라는재미있는제목으로출판되어 1889년과 1894년사이에 6판까지찍을정도로큰 인기를누렸다. 게다가, 『엘필리부스테리스토』가나온바로그해, 스에히로는『난요노다이하란(남양의대파란)』과『아라시노나고리(바람의흔적)』라는소설두편을발표했다.¹⁰⁷ 3년후그는이것을『오나바라(대해원)』라는제목의책한권으로묶어냈다.¹⁰⁸

이소설의젊은주인공은마닐라근처야마다‘무라(마을)’에서는타카야마라는필리핀인인데, 그를친절하게후원해주던타키가와와 딸오키요와약혼한다. 그러나역시그녀를사랑하던, 좋은지위에있는교도관조지는이약혼이타키가와와의해이루어진것이라고믿는다. 그래서조지는자신이일하던감옥에있는악명높은죄수츠야마로하여금노인을죽이되설혹잔인하더라도평범한강도의소행으로보이게하라고지시한다. 타키가와가소장하고있던기품있고신비스러운검두자루중하나가살해당시도난당한것은그런이유에서였다. 주인공은식민지수도에서반란을일으키는것으로대응하지만, 반란은실패하고그는감옥에감힌다. 다행히도거대한지진이일어나감옥문이열리면서그는도망칠수있게된다. 식민지경찰에게쫓기는그와오키요는해외로도망치기로계획한다. 그들은악어가 가득한해안지대의늪에서노로젓는작은배를찾아낸다. 바로이때경찰이그들을따라잡지만, 유익한파충류들이추격자들을마지막한사람까지삼켜버린다. 폭풍이치는대양으로나간타카야마와오키요의배는뒤집히고 그들은헤어지게된다. 영국배가타카야마를건져올렸고, 그는오키요가

¹⁰⁷ 같은책, chapter VII. 이같은오류로가득한데, 그것을바로잡아준케럴하우와시라이시다가시에게감사한다. 이상한것은리살의편지에스에히로는내가말할수있는바로는딱한번만나온다는점으로, 그한번은 1888년 7월 27일에런던에서폰세에게보낸편지에서이다. 대수롭지않게쓴두문장은이러하다. “나는유럽으로가는도중에일본인을한명알게되었는데, 급진파이자독립적인간행물의편집장으로일하다가투옥되었던사람이라네. 이일본인은일본어밖에못해서, 런던에도착하기까지내가통역자노릇을했지.”Epistolario Rizalino, 1887~1890, p.34.

¹⁰⁸ 『오나바라』에대한다음의설명에대해나는우메모리나오유키에게무척감사한다. 그는 1900년경까지메이지시대의소설가들은외국인물들과대부분의외국장소에일본이름을붙이곤했는데, 이것이꼭‘진짜’일본과어떤관계가있다는뜻은아니라고설명한다. 줄라와같이인기있는유럽작가들의번역자들도마찬가지의관례를따랐다. 평범한일본인독자가글을더이해하기쉽도록만들자는의도였다고한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친절한 상인의 보호하에 런던으로 향한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필리핀인 동포들에게 구출되었으며, 홍콩행 배에 은밀히 싣려가서 수녀원으로 피신한다.

런던에서 타카야마는 마닐라에 대한 중요한 학술적 역사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한편 조지는 오키오의 행방을 파악하고 그녀의 하인이었던(그리고 그의 첩자인) 큐조로 하여금 타카야마가 쓴 것처럼 편지를 위조하여 오키오에게 가져가게 하는데, 그 내용은 그가 마드리드의 감옥에 있으며 큰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오키오와 큐조는 제국의 수도로 향하는 길에 오르며, 그곳에서 조지와 만나는데, 조지는 오키오를 즉각 외판교외의 주택에 감금한다. 그녀는 우연히 『마닐라 식민정부의 역사』의 저자에 대한 신문 기사를 마주치게 되며, 곧바로 타카야마가 살아있고 런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연인에게 쓴 편지를 가져간 큐조는 타카야마에게 오키오가 바윤에 있고 절망적인 병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한다. 타카야마는 바윤이 스페인 국경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서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에는 큐조를 동반한 채 테일러 크로스가로부터 길을 떠난다. 파리에서 출발하는 밤 기차에서 큐조는 주인공에게 몰래 진정제를 먹이고, 기차가 국경에 거의 닿았을 때 야잡에서 깨어난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행히 끄찍한 열차 사고가 일어나 그는 다시도 망칠 수 있게 된다. 며칠 후 오키오는 마드리드의 신문에서 재난에 대해 읽는데, 신문에는 경찰이 타카야마를 기다리며 산 세바스티안에 잠복해 있었다고도 나와 있다. 타카야마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는 객차의 다른 모든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 분명하다. 동정적인 하인의 도움으로 감금된 집에서 망친 그녀는 결국 파리로 가서 완전히 회복된 타카야마와 우연히 마주친다. 그들은 곧 런던을 향해 떠난다.

대영박물관의 일본 전시실에서 그들은 타키가와 의 잃어버린 검을 발견하고 누가 이것을 학예사에게 팔았는지 알아내 살인자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들은 타키가와가 상속받은 고래로부터의 가문 문서에 있는 신비스러운 글자(한문)를 읽을 수 있는 전문가도 찾아낸다. 그 저자는 1614년 도쿠가와 막부의 설립자인 이에야스에 의해 마닐라로 추방되고 명한 ‘기독교인 다이묘’ 타카야마 우콘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 글에는 우콘이 두 자루의 장엄한 검을 충성스러운 봉신에게 주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 타키가와였다!

젊은 필리핀인 애국자는 이 행복한 발견을 한지 얼마 안 되어 고국에서 대규모 반란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절친한(필리핀인) 친구 마츠키를 동반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마츠키는 그들의 대의

를 위해 싸울 ‘진짜’ 일본인 ‘장사’ 40 명을 모집한다.¹⁰⁹ 타카야마는 스페인을 내쫓는데 성공하여 총독으로 선출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필리핀 국민들에게 나라를 일본의 보호령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대중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그는 메이지 천황에게 편지를 보내 의회로 하여금 이 계획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요청한다. 마드리드가 필리핀을 일본 보호령으로 인정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소설의 서문에서 스에히로는 이 책이 몇 년 전 서양에서만 난 익명의 필리핀 신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썼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으로의 여행에 관한 두 편의 에세이에서 그는 이 ‘신사’의 이름이 리살이라고 이야기했다. 실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토니오 데 모르가 와다 이묘 타카야마 우콘은 거의 동시대인이며, 젊은 타카야마가 그 개인의 선조를 발견하는 것과 리살이 그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한다. 둘 다 대영박물관에서!

『오나바라』에 하나로 묶인 두 편의 소설이 일본의 제국주의 적 팽창 시대를 연 청일 전쟁 이전에, 그리고 마르티와 보니파시오의 반란이 시작되기 전에 쓰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리살이 스에히로에게 자신의 당면한 개인적 계획과 스페인의 명예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동포들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범이었던 스에히로가 이에 대한 공감을 눈에 띄게 실천했던 것이다. 그가 독자들에게 필리핀인 애국자들이 일찍이 박해를 받은 일본인 희생자들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일본인의 용병들의 사리사욕 없는 도움과 일본 국가의 보호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랄다면, 그는 사적인 공감을 폭넓은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⁰ 이것이 바로 블루멘트리트가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어찌 되었든, 여행에서 돌아온 스에히로는, 그의 본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정계에 입문하여(진짜) 자유민주주의자로 중의원에 선출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필리핀인 친구가 처형되기 몇 달 전 암으로 사망했다.¹¹¹

중국인들과의 인맥

두 번째로 야기 날도에게 보내는 1899년 6월 8일자 편지에서 폰세는 이렇게 썼다. “중국 개혁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지

¹⁰⁹ 장사(壯士, 소시)라는 단어가 20 세기에 ‘정치깡패’라는 부정적인 내포를 얻게 되는 했지만, 스에히로는 이 단어를 오래되고 더 긍정적인 ‘민중들의 권리의 수호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Saniel, Japan and the Philippines 부록 7 의 논의를 참조.

¹¹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카티푸난은 2 년 후 정확히 그런 일본의 도움을 추구하게 된다.

¹¹¹ Lanuza and Zalde, Rizal in Japan, chapter VII.